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순계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0. 9. 22.(화), 14:00 ~ 19: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 ▣ 출석위원 : 신안준(위원장), 강동진, 권기혁,
김연희, 김이순, 김종현, 목수현,
안창모, 이광표, 윤균, 추미경(이상 11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국가등록문화재 제426호 「전차 363호」 보존처리	(공 개)
2	사적 제157호 「환구단」 및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주변 호텔 신축(계획변경)	(공 개)
3	사적 제550호 「만해 한용운 심우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공 개)
4	「이공연 을미의병 일기」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5	「대한제국 군복」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6	「대한제국애국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7	「동해 북평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검토사항】

8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9	「백용성 저작 일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0	「송암 박두성 선생 한글점자 유품」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1	「훈맹정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2	「통영 서호동 장공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3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14	「안양박물관(구 유유산업 공장동)」 등 4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보고사항】

1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공 개)
----	--------------------	-------

1. 국가등록문화재 제426호 「전차 363호」 보존처리

가. 제안사항

국립어린이과학관 소장 국가등록문화재 제426호 「전차 363호」의 보존처리(차체 재도장)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제426호 「전차 363호」의 보존처리(차체 재도장) 사안이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국립어린이과학관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등록문화재 제426호 「전차 363호」 ('08.10.17. 등록)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3) 신청내용

○ 사업내용 : 전차 363호 보존처리

- 전차 하부 세척, 차체 도장 제거, 차체 재도장

(4) 보존처리 계획

(가) 상태조사

○ 보존처리 대상에 대한 자세한 관찰과 정확한 손상부위 및 오염상태 등을 사진으로 기록

○ 보존처리 대상의 손상부분을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작업의 순서와 처리 범위를 결정하고, 미세한 부분은 정밀 촬영을 하여 기록

○ 주위 환경에 대해 방해 요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방지

○ 보존처리 전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보존처리 대상에 대한 보존처리 방법 및 방향 설정

(나) 가설공사

○ 공용 반입자재는 자재가 흩어지거나 섞이지 않도록 조치

○ 보존 처리 시 이동용 강관 조립 말 비계(이동식) 등을 사용

○ 소화기 또는 방화수, 안전모, 안전장구를 착용, 구급약품을 비치

(다) 전차 하부 세척

- 1차 세척 : 부드러운 솔이나 브러쉬 등으로 가볍게 건식세척 한 후, 에틸알코올을 유물표면에 도포하면서 솔, 브러쉬 등으로 먼지, 이물질 등 제거



그림 1. 양모 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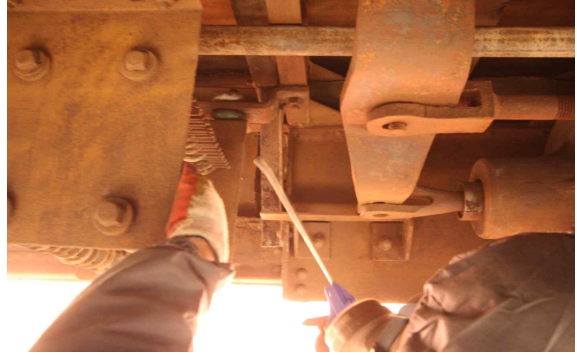


그림 2. 에어 건

- 2차 세척 : 1차 세척에서 제거되지 않은 부식물 및 이물질을 소도구, 모터툴 등 각종 기기를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제거



그림 3. 소도구



그림 4. 모터 툴

(라) 차체 도장 제거

- 남아있는 도색층 일부를 채취하여 도료분석을 실시
- 기존 페인트를 제거할 때에는 블라스터, 그라인더, 페인트 리무버 등을 사용하여 금속소지가 드러날 때까지 주의하여 제거(금속소지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그림 5. 기존 도장제거(물리적)



그림 6. 기존 도장제거(화학적)

(마) 차체 재도장

- 차체 도장 제거를 마친 후 금속 표면을 깨끗하게 정리
- 방청페인트 도장을 실시
- 도료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외부 조장용 페인트를 조색한 후 도장 공사를 실시



그림 7. 방청페인트 도장



그림 8. 도장

(바) 수리보고서 작성

- 전체적인 처리 단계 일련의 작업과정과 처리 후 모습을 상세하게 촬영
- 처리 전 조사부터 처리과정 및 처리 후 상태를 수리보고서에 상세하게 기록.

라.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 ○○○('20.9.10.)

- 전차 363호 현 상황은 시급히 보수가 필요함: 외부 전시에 따라 햇빛에 의한 도장 탈락이 진행됨.(햇빛이 닿지 않은 표면은 도료 탈락이 진행되지 않음)
- 전차 내부 햇빛 닿는 부분에도 도료가 벗겨지고 있음
- 외부 도료의 탈락에 따라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수리 보존 처리가 시급함
- 제시된 보존 처리 계획의 수행을 진행하되 다음의 사항을 보완 필요
 - 차체 내부에 도료 탈락 부분의 보존 처리도 함께 진행 필요
 - 현재 사용된 색상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1930년대 처음 제작되었을 때의 색상이 기준인지, 이에 대한 사료는 확보되었는지 등) 검토한 후 도료 색상을 결정할 것.
 - 위의 사항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차체 기준 색의 설정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임(색상 결정 근거를 사료로 제시할 것을 권함)
- 차체 하부 세척 시 작업 공간의 확보 방안 마련해 세척 작업의 효과를 높일 것을 권함
- 추후 현재 설치된 차광막을 햇빛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권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권고사항 : 전차 외부전시로 햇빛에 의한 도장 탈락이 반복되므로 전차 차광막 보완 설치 또는 건물 내부로 이동 전시 검토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2. 사적 제157호 「환구단」 및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주변 호텔 신축(계획변경)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57호 「환구단」 및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주변에서 호텔 신축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환구단」 및 「서울 한국은행 본관」 주변에서 호텔 신축을 목적으로 기 현상 변경 허가('18.12.07) 한 내용과 관련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현상변경 허가내용]

- 호텔 신축
 - 규모 : 지하7층, 지상27층(높이 90m), 건축면적 4,169.86㎡, 연면적 99,987.98㎡
- 허가조건
 - 공사 착공전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1주일 간격으로 문화재(환구단) 구조안전 계측을 시행하고 동 계측 결과에 대한 구조안전 이상 유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한 보고서를 월단위로 서울 중구청과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함
 - 이와 관련 계측기는 목조문화재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설치하고, 1개소는 변위에 취약한 내부의 상부지점에 설치
 - '대관정 터'유구 전시와 관련된 사항은 '유구 보존 적정성 합동(매장분과, 근대분과) 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름
 - 2018년 제4회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심의안(1안)으로 함
 - 소공로 근대건축물(유구)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스트리트 뮤지엄의 진정성을 확보하면서 조성하되 설계안은 문화재청 승인 후 시행 할 것
 -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는 주변의 사적(환구단, 서울 한국은행 본관) 보호에 유념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
- 허가일자: 2018.12.07.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주)부영주택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제157호 「환구단」 ('67.7.15 지정)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81.9.25 지정)
- 소재지 : (환구단)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14
(서울 한국은행 본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 110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2-9 일원
 - ※ 현상변경 허용기준 : 1구역(개별심의(원지형 보존)) - 환구단
 - ※ 현상변경 허용기준 : 2구역(개별심의), 3구역(서울시(중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서울 한국은행 본관
- 사업내용 : 호텔 신축
 - 기허가내용 변경사항
 - 건축면적 : 4,169.86㎡ → 4,164.65㎡(감 5.21㎡)
 - 연 면 적 : 99,987.98㎡ → 98,534.49㎡(감 1,453.49㎡)
 - 층 수 : 지하7층, 지상27층(변경없음)
 - 최고높이 : 90m(높이) → 99.50m(최고높이)
 - 주요변경내용
 - 근현대건축물 파사드 보존방법 변경
 - * 3~5번 건물 : 전면 벽체 보존 → 전면 벽체 해체 후 복원
 - * 6, 7번 건물 : 1~6층 전면 벽체 보존, 7~12층 전면 벽체 해체 후 복원 → 1~12층 전면 벽체 해체 후 복원

라. 참고자료

(1) 자문회의 의견서(신청인 제출)

- 자문의견 1차(○○○, ○○○, ○○○, ○○○/20.6.11.)
 - 소공동 근현대건축물 파사드 보존과 관련된 변경은 문화재청 심의 내용 및 과정에 대한 검토 그리고 역사적 건물로서의 가치와 진정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보존대상 3번 건물은 소공동 근현대건축물 중 가장 역사성이 깊고 보존가치가 높은 건물이므로, 기존 파사드와 타일, 창호 등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보수, 보강 기법을 적극 고려한다.
 - 보존대상 4, 5, 6, 7번 건물 파사드는 기 승인된 보존방식의 문제점, 새로운 대안의 적합성과 진정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와 구체적 계획이 제시된 후 변경을 고려한다.
 - 소공동 근현대건축물 파사드 보존방식의 변경은 1층 필로티에 조성되는 스트리트 뮤지엄(Street Museum)과의 상호연계 및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 자문의견 2차(○○○, ○○○, ○○○, ○○○/20.8.25.)
 - 1차 자문회의 의견에 따른 각 건물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입면 및 구조체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해체복원수리의 필요성이 인정됨

(2) 추진경과

- ('15.9.22.) '15년 제7차 근대문화재분과 심의 보류
 - 문화재위원의 현지조사 후 재검토함
 - ('17.09.26.) : '17년 제6차 근대문화재분과 심의 보류
 -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여부 검토를 위한 보완자료를 제출받아 재검토
 - ('17.11.28.) '17년 제8차 근대문화재분과 심의 보류
 - 지하 굴착공사 등에 따라 '환구단'에 미치는 영향 검토를 위한 객관적 자료 검증 필요
 - 신축건물이 '환구단'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검토 필요
 - '대관정 터' 유구 전시계획서 등 자료 제출 후 검토
 - 소공로 근대건축물의 진정성 유지 보존방안 개선 필요
 - ('18.4.24.) '18년 제4차 근대문화재분과 심의 보류
 - 분야별 보완자료의 적정성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운영
 - ('18.6.8.) '18년 제1차 근대문화재분과 소위원회 검토 결과
 - 환구단(황궁우)에 상시 진동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구조안전모니터링 방법을 추가함
 - '대관정 터' 유구 전시계획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 분과와 근대문화재분과가 합동으로 별도 검토 논의 하도록 함
 - 소공로 근대건축 유구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파사드의 수직방향의 ONE-SPAN 또는 일정 간격의 보존도 염두에 둔 건축계획을 권고함
 - ③번 건물의 내-외부는 보존상태가 양호하므로 되도록 모두 보존되도록 검토 할 것을 권고함
 - 위와 같은 사안이 반영된 보완계획에 대하여 추가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하도록 함
 - ('18.9.4.) '18년 제3차 근대문화재분과 소위원회 검토 결과
 - 공사 착공전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1주일 간격으로 문화재(환구단) 구조 안전 계측을 시행하고 동 계측 결과에 대한 구조안전 이상 유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한 보고서를 월단위로 서울 중구청과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함
 - 이와 관련 계측기는 목조문화재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설치하고, 1개소는 변위에 취약한 내부의 상부지점에 설치
 - '대관정 터' 유구 전시와 관련된 사항은 '유구 보존 적정성 합동(매장분과, 근대분과) 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름
- * 소공로변 근대건축물 보존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필요

- * 건물군 내부에 필로티 통행로를 마련하고 동 공간에 소공로 근대 도시건축 구조 역사성을 되새길 수 있는 전시관(일명, 스트리트뮤지엄)을 구상하되, 서울시의 관광안내소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업무기능이 되도록 설치하는 방안
- 4번·5번 건축물의 파사드부는 원형 보존하는 방안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위와 같은 사안이 반영된 보완계획에 대하여 추후 문화재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 하도록 함
- ('18.10.23.) '18년 제10차 근대문화재분과 심의 조건부가결
 - '대관정 터' 유구 전시와 관련한 사항은 '유구보존적정성 합동(매장분과, 근대분과)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름
 - 소위원회(수권)를 구성하여 통행로 조성방안(①건축물 내부 필로티 통행로, ②건축물 우회 통행로) 및 소공로 스트리트 뮤지엄 구상을 검토함. 이와 관련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종전대로 함
- ('18.11.30.) '18년 제4차 근대문화재분과 소위원회 심의 조건부가결
 - 심의안(1안)으로 함
 - * 근대건축유구를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스트리트뮤지엄의 진정성을 확보 하면서 조성하되 설계안은 문화재청 승인 후 시행할 것
 - *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는 주변의 사적(환구단, 서울 한국은행 본관)보호에 항상 유념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을 것

마. 의결사항

- 보류
 - 소공로변 입면 벽체 해체 철거의 필요성에 대한 기술적, 구조적 검토 자료 보완 제시
 - 원형보존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설명자료 보완 제시
- 출석 11명 / 보류 8명, 제척 3명

3 사적 제550호 「만해 한용운 심우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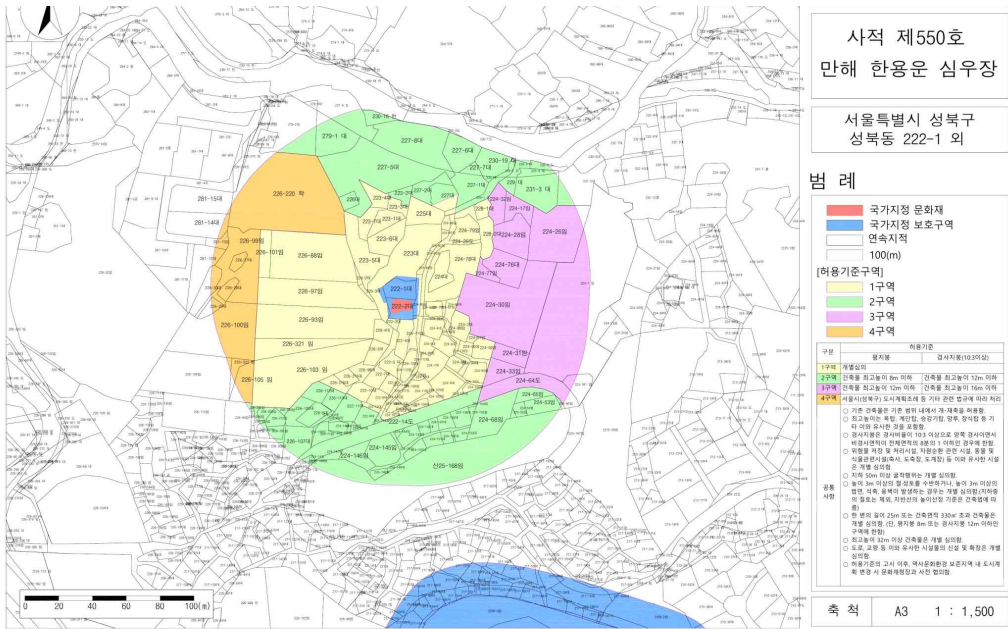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사적 제550호 「만해 한용운 심우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제5항 규정에 따라 사적 제550호 「만해 한용운 심우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함
- 동 신청 건은 '19년 제12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19.12.17.)에서 '제시된 계획안은 문화재 보존환경 조성과 관리를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의 기본적 내용과 구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사유로 부결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만해 한용운 심우장 (사적 제550호, '19.4.8.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29길 24
- (3) 세부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 (10:3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12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6m이하
제4구역	서울시(성북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건축을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 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번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 ○○○('20.7.9.)

- 심우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의 1구역을 확장하였고, 4구역 부분은 지형이 낮아 현실성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판단됨

마. 참고자료

-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안에 대한 자문의견(성북구청 실시)
- ○○○('20.2.14.)
 -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의 적절성 검토 후 변경 계획 수립
 - 규제 강화시 주민의견 고려
 - 기존 사적 승격 사례 검토
 - ○○○('20.2.11.)
 - 위원회에서 지적인 사안에 대해 충실하게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 ○○○('19.10.30.)
 - 성북구에서 마련한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과 지역재생관련 도시계획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검토-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 ○○○('19.11.8.)
 - 전반적인 구역설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3구역의 허용기준으로 제시된 평지붕 14m, 경사지붕 18m는 이곳의 용도(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따른 규제보다 완화된 것으로 현재 용도규제를 반영하여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결과 : 의견 제출 없음
- '19.11.1. ~ 11.21.(20일)
 - '20.2.27. ~ 3.20.(20일)
 - '20.8.11. ~ 8.31.(20일)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4 「이공연 을미의병 일기」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이공연 을미의병 일기」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0.7.28.)를 거쳐 등록 예고한 「이공연 을미의병 일기」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이공연 을미의병 일기	1건 1점	22.4×21.2cm	1895 ~ 1896년	서울역사 박물관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2)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19.5~12월) : 근현대문화유산 항일의병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실시
- ('20.6.1.) : 항일의병 분야 국가등록문화재 추진 자문회의 실시
- ('20.7.6.)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20.7.28.)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원안 가결'

(4) 등록예고 : '20.8.12.~9.10. (30일간) *의견 없음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 ('20.7.6.)

- 이공연 일기는 안동 의병 중의 한 사람이었던 이공연(李兢淵, 1847-1925)이 을미사변 이후인 1895년 12월 1일부터 1896년 10월 11일까지 약 11개월 10여 일간의 상황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일기임. 이공연이 직접 보거나 전해들은 내용이 상세히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으며, 안동의병과 관련한 각종 자료가 기록되어 있음. 해당 유물은 을미사변 이후 안동지역의 의병활동을 알 수 있는 탁월한 가치를 가진 유물이므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 ○ ○ ('20.7.6.)

- 이공연 의병일기는 안동지역의 을미의병 당시 의병 참가자인 이공연(李兢淵, 1847-1925)이 보고들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임. 해당 유물은 을미 안동 의병의 개시 이후 해산까지 활동 전모를 동시기에 기록하였으며, 의진의 결성부터 활동, 해산과정을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는 자료임. 본 유물은 독립운동사의 시발점인 을미의병의 발상지 가운데 대표적인 지역인 안동에서 일어난 의병의 활동 전모를 담고 있는 대표적, 상징적 자료라는 점에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음.

○ ○ ○ ○ ('20.7.6.)

- 이공연의 일기는 1895년 안동에서 의병이 거의하자 이에 참여하였던 안동의진 종사관(從事官) 이공연(李兢淵, 1847-1925)이 작성한 것임. 본 유물은 일기와 안동의병 관련자료의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 일기에서는 의병 거의 이후 해산때까지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부 관련자료는 안동군수가 의병에게 보낸 편지, 진주유림이 안동향교에 보낸 통문, 충청도 제천 격문, 단발령에 대한 유림들의 반응과 양반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음. 해당 유물은 특정 단위 지역 의진의 구성과 활동상 및 다른 지역 유림들과의 통신 등을 온전히 담고 있어 차별성을 지니므로 가치가 있으며, 일기의 구성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이공연 을미의병 일기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3. 소유자 : 서울역사박물관장
4. 조사자 의견('2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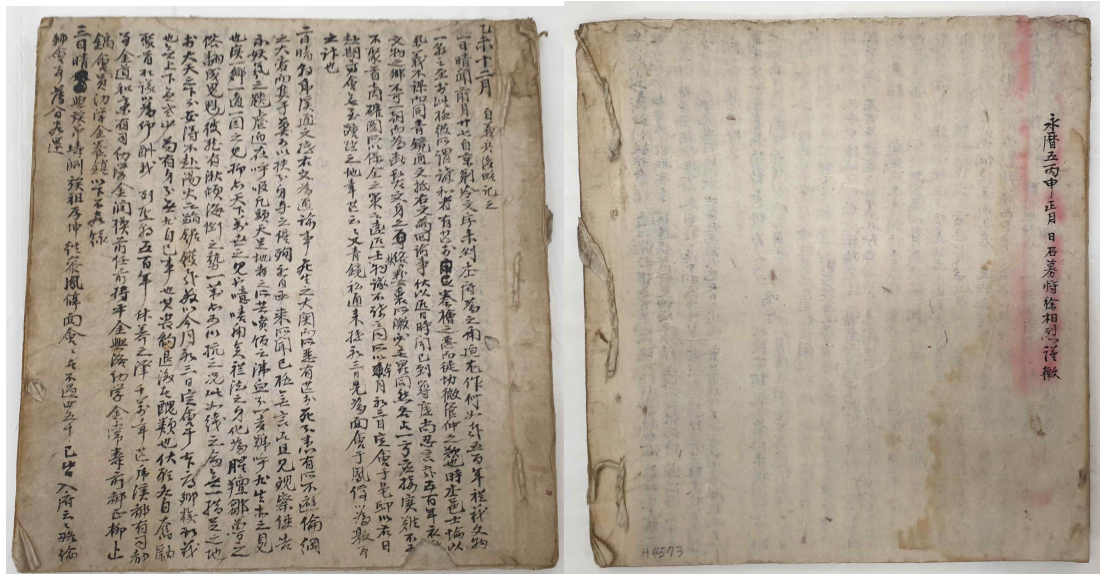
<○○○>

1) 개요

- 『이공연일기(을미의병일기)』는 안동 의병 중의 한 사람이었던 이공연(李兢淵)이 을미사변 이후인 1895년 12월 1일부터 1896년 10월 11일까지 약 11개월 10여 일간의 상황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일기임. 1895년 12월은 안동의병이 일어난 시기이고, 1896년 10월은 해산한 시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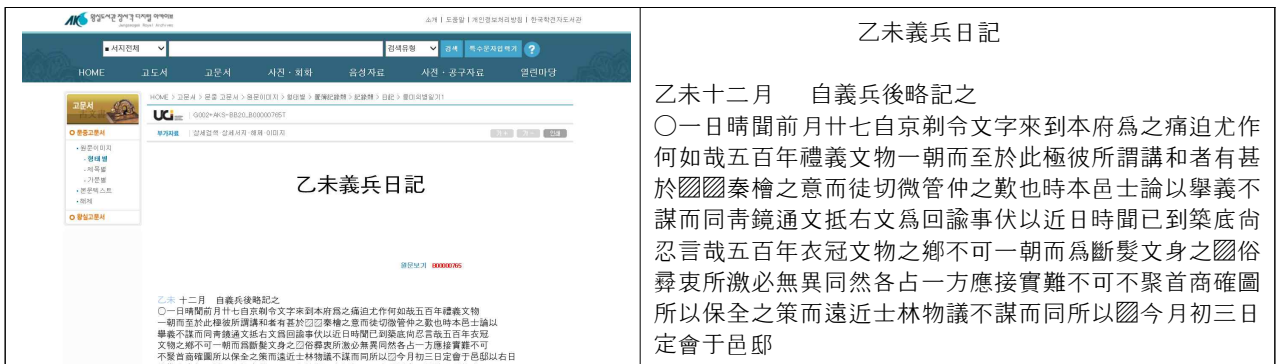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이공연(1847~1925)은 영남지역 의병의 명맥을 잇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의병장 김도화로부터 종사관으로 임명되어 안동지역의 의병활동을 하였음. 다른 이름은 이목연(李穆淵)이며, 2002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음.
- 일기는 총 22장(44면)의 필사본으로 이루어졌는데, 제1장부터 제15장(전 30면)까지는 이공연이 직접 보거나 전해들은 내용이 상세히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음. 제16장은 공백지이고, 17장(33면)부터 제 22장(44면)까지는 안동의병과 관련한 각종 자료, 곧 안동군수가 의병에 보낸 첩지, 안동에서 진주로 보내는 답통, 충청도 제천 격문, 호서 소모장 격문 등이 전사되어 있음. 마지막에 수록된 자료는 1895년(永曆 5丙申) 정월에 소모장(召募將) 서상열(徐相烈)이 지은 충청도 제천지역의 격문(檄文)임.
- 1년이 안 되는 기록이지만 안동의병의 활약상을 충분히 보여줄 만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음.
- 작성 시기는 1896년 10월의 일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이후인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1896년으로 추정함. <사진1>과 같이 한지(저지)에 먹으로 면당 20행으로 필사되었으며, 누습의 흔적은 있으나 내용은 손상되지 않았음. 현재 세 개의 끈으로 가철된 상태임.



<사진1> 『이공연일기(을미의병일기)』의 첫째 면(우)과 마지막 면(좌)

- 현재 이 유물의 원문 이미지와 텍스트는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에서 아래와 같이 제공되고 있음. 국역본도 국가보훈처에서 발행되어 보급되었음. 다만 마지막에 있는 텍스트의 “永曆五丙申正月 日召募將 徐相烈謹識”의 “識”는 원문 이미지를 보면 “檄”의 오자임. 향후 정밀한 텍스트 제공을 위해 전반적인 교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사진2>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이공연일기(을미의병일기)』의 텍스트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5침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표지가 있는 5침선장본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이후 손상 또는 훼손된 앞뒤표지를 제거하였기 때문에 현재 내철된 형태로 남아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안동 주촌 진성이씨 소장이었으나 현재는 서울역사박물관에 적절하게 보존 관리되고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에서 원문(이미지와 텍스트)이 제공되고 있고, 국역본도 국가보훈처에서 발행되었음.

6) 등록가치의견

- 의병 관련 기록이 주를 이루나 단발령에 대한 당시 유림의 반응, 흥흥했던 당시 상황, 그 상황에서의 양반 생활 등도 수록되어 있어 생활사, 시대상 등의 규명에도 중요한 기록임.
- 분량이 적고 세밀한 기록이 아니라는 한계는 있으나, 을미사변 이후 안동지역의 의병활동을 알 수 있는 탁월한 가치를 가진 유물이므로 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7) 기타

- 이 일기는 특정할 서명이 없기 때문에 “내용이 을미의병과 관련이 깊고 을미년 12월의 상황부터 기재되고 있으므로 정신문화연구원 (발행의) 『고문서집성』에서는 편의상 『을미의병일기』라고 명명”하였음. 곧 일기 첫 부분의 “乙未十二月自義兵後略記之”에서 『을미의병일기』이라는 서명을 부여함으로써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져 있음. 그러나 이후 이공연의 의병활동기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으므로, 유사 종류의 문화재명칭 부여 사례에 맞추어 인명을 앞에 두어 『이공연일기』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8) 참고문헌

- 『韓末義兵日記：乙未義兵日記·赤猿日記』, 金喜坤; 權大雄 [共]編, 國家報勳處, 2003
- 『고문서집성』 42 -안동 주촌 진성이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디지털장서각』 (http://jsg.aks.ac.kr/dir/view?dataId=ARC_B00000765)
- 『장서각디지털아카이브』 (<http://yoksa.aks.ac.kr/jsp/bb/BookList.jsp?fcs=f&gb=1&cd=bg1212&bb10no=B00000765>)

<○○○>

1) 개요

- 가로 21.3Cm, 세로 22.3Cm 규격의 한지에 초서로 기록하였음.
- 기록자는 안동 주촌 거주의 이공연(李兢淵, 1847-1925)으로 확인됨(김희곤, 권대웅 편, 『을미의병일기』, 국가보훈처, 2003, 6쪽)
- 분량은 중간 공백(2면)을 포함해 총 44면(1면당 대체로 19행)이며, 그 가운데 앞쪽 일기 부분이 30면, 뒤쪽은 통문과 격문류 등 의병 관련 문건 자료
- 일기의 기록 기간은 1895년(을미년) 12월 1일(양 1896년 1월 15일)부터 1896년 10월 11일(양 11월 15일)까지 11개월간임.
- 일기의 내용은 안동 을미의병의 활동에 집중되었고, 일기 다음의 의병 관련 문건으로 10건의 격문, 통문 등을 수록하였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기록자 이공연은 진성이씨 주촌(두루실, 안동시 와룡면 주하리) 종가의 대종손으로, 당시 의병 참가자(2002년 건국포장 추서)의 입장에서 보고들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였음.
- 을미 안동의병의 개시(양 1896년 1월) 이후 해산(같은해 8월) 때까지 활동 전모를 동시기에 기록하였음. 의진의 결성(통문, 봉정사 회합, 권세연 추대 등)부터 활동(태봉전투, 안동부 방화, 문중 배당금 수합, 퇴계종택 방화), 해산(의병장 김도화의 해산, 유시연의 무장해제)과정을 생생하게 알려줌.

- 안동 인근지역의 의진(선성의진, 서상렬 호좌의진, 김하락 의진 등)과의 유기적인 관계, 연합활동이 사실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경북 내륙지역 항일의병의 동향을 알려줌.
- 일기 중에는 70-80명의 성명이 등장하고, 그 가운데 50여명은 행적을 확인할 수 있어 당시 상황을 복원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 의병투쟁 당시의 실상, 특히 의병들의 군사력 미비, 문중간의 이해관계나 의병에 대한 태도 등이 자세하게 기술됨.
- 일기 뒤에 부록된 의병 관련 문건류는 총 10건임. 국왕의 칙서와 조서가 각 1건, 상소, 격문, 통문 각 2건, 안동군수 회유문 1건, 병법 관련 문류 1건을 수록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이 자료는 안동 두루실 진성이씨 종가에 소장되어 있었으며, 2000년경 한국학 중앙연구원에 다른 고문서류와 함께 수집 정리된 뒤,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증 처리되어 이곳에서 소장하게 됨.
- 일기의 표제 없이 채책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원래는 앞뒤 표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그 외에는 온전한 상태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보존관리 상태 양호하고, 향후 멸실, 훼손 우려 없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2003년 국가보훈처에서 영인 원문, 탈초본과 함께 국역하여 『한말의병일기』(청송 『적원일기』 포함)라는 제목으로 학계에 소개하였음.
- 조선 성리학의 종주 퇴계 이황의 진성이씨 종가(대종손)의 의병 참여 사실을 입증하는, 국난극복의 상징적 홍보자료로 활용 가능함.
- 일제 침략, 강점기에 경북지방에서 전개되는 다양하고 폭넓은 독립운동의 발원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자료로서 홍보 가능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이궁연 의병일기’와 유사한 의병전쟁 관련 자료 가운데 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이강년(1858-1908) 의병장의 『운강선생유고』(3권 3책, 필사본, 일제강점기, 제천 시립도서관 소장)와 민용호(1869-1922) 의병장이 남긴 『관동창의록』(2책, 필사본, 1897년, 독립기념관 소장)이 있음. 전자는 이강년 의병장의 의병투쟁 내역을 일제강점기에 박정수, 강순희 등의 동지들이 정리 기록한 것이며, 후자는 민용호가 의병을 해산한 이듬해(1897)에 자신의 활동 내역을 평북 태천에서 정리한 것임. ‘이궁연 의병일기’는 이들 자료에 비해 비록 분량이 적고 보존상태는 다소 떨어지지만, 기록 시기와 장소 면에서는 역사성이 더 높고 자료 가치가 더하다고 사료됨.

7) 등록가치의견

- 독립운동사의 시발점인 을미의병의 발상지 가운데 대표적인 지역인 안동에서 일어난 의병의 활동 전모를 담고 있는 대표적, 상징적 자료라는 점에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음.
- 기록자와 소장처, 그리고 소장 이력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원형에 가까운 보존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큼.

- 의병활동 동시기에 생산된 자료가 희귀하고, 특히 작자와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자료가 드문 형편에서, 이 일기는 독립운동사의 원형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큼
- 이와 같은 이유와 근거에 따라 ‘이공연 의병일기’는 문화재로서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기에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8) 기타

- 이 자료는 학계에 처음 보고될 당시 기록자가 불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동안 ‘을미의병일기’로 불리워졌으나, 기록자가 ‘이공연’으로 밝혀지고 또 기록자의 신분과 활동 이력이 명확히 드러난 현재적 시점에서는 ‘이공연 의병일기’로 정정하여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1) 개요

- 『을미의병일기(乙未義兵日記)』로 알려진 자료이며, 일기의 작성자는 전기의병 때 안동의진 종사관(從事官) 이공연(李兢淵, 1847-1925)임.
-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 이공연의 종사관 ‘차첩(差帖)’(1896)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이 일기는 처음 작성자를 알 수 없어 ‘을미의병일기’로 명명되었으나, 작성자가 안동의진 종사관 이공연으로 확인됨.
- 이공연은 경북 안동군 와룡면(臥龍面) 주하리(周下里) 출생으로, 1895년 안동에서 의병이 거의하자 이에 참여하였음. 안동의진은 이해 12월 6일 권세연(權世淵)이 대장에 추대되어 안동부를 점령하였으며, 12월 30일 권세연의 후임으로 김도화(金道和)가 대장에 추대되자, 이공연을 종사관에 임명함. 그는 『을미의병일기(乙未義兵日記)』라는 의병투쟁 기록을 남겼는데, 의병활동과 을미의병일기 작성의 공적을 인정받아 2002년 건국포장에 추서된 독립유공자임.
- 이 자료는 일기와 안동의병 관련자료의 2부, 총 44쪽으로 구성됨.
- 1부 일기는 1895년 안동의병 거의 이후 1896년 10월 해산할 때까지의 매일의 기록으로 30쪽으로 구성되었음.
- 2부 안동의병 관련자료는 33쪽부터(간지 1장 2쪽) 44쪽까지 12쪽에 걸쳐 안동군수가 의병에게 보낸 편지, 김도화 대장에게 보낸 편지, 진주유림이 안동향교에 보낸 통문, 안동향교의 진주유림에 대한 답신 통문, 충청도 제천 격문, 호서 소모장 격문 등 안동의병은 물론 전기의병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단발령에 대한 유림들의 반응, 양반들의 생활상들을 생생하게 기록한 시정기로서의 가치를 지님.
- 이 자료는 일찍이 학계에 보고된 바 있음(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고문서집성 41 - 안동 주촌 진성이씨편(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전체적으로 원형은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음
- 당초 앞뒷면에 표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탈락한 상태임.
- 편철은 후대에 다시 한 것으로 보임.
- 당시 교열(수정) 사항을 오려 붙인 종이가 떨어져 있는 것이 2~3군데 보이므로 정확히 교열처를 확인하여 붙여야 함.
- 등록이 될 경우, 보수 필요(표지, 재편철 등)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서울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어 보존관리 여건과 주변 환경은 매우 양호한 상태임.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활자본 간행
- 번역본 간행으로 활용도를 높여 의병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한말 의병의 진중일기류가 호남이나 충청지역에서도 발견되었으나, 이 일기는 특정 단위 지역 의진의 구성과 활동상 및 다른 지역 유림들과의 통신 등을 온전히 담고 있어 차별성을 지니며 가치가 높음.

7) 등록가치의견

- 일기의 구성과 내용, 의병 관련 자료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자료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아 등록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8) 기타

- 당초 소개될 때에는 작성자를 몰라 『을미의병일기』로 제명하였으나, 작성자가 이궁연으로 확인 된 바, 다른 자료의 명명 방식과 같이 작성자의 이름을 넣어 ‘이궁연일기’로 하되, 일기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당초 제명인 ‘을미의병일기’를 괄호에 병기함으로써 자료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5 「대한제국 군복」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육군박물관 소장 「대한제국 군복」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0.7.28.)를 거쳐 등록 예고한 「대한제국 군복」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명 : 대한제국 군복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574
 - 소유자 : 육군참모총장(육군박물관장)

연번	병과	유물명칭	수량	세부 목록	규격	
1	.	전 대원수 상복	1건 1점	상복상의1	79cm 등	
2	군사· 회계 (추정)	육군 참장 예복	1건 4점	예모1, 예복상의1, 대례견장2	78cm 등	
3	보병	보병 부령 상복	1건 1점	상복상의1	63.5cm 등	
4		보병 정위 예복	1건 4점	예모1, 예복상의1, 대례견장2	75cm 등	
5		보병 부위 예복	1건 6점	예모1, 예복상의1, 대례견장2, 식대1, 식서1	76cm 등	
6		보병 부위 예복·상복 일괄(황석)	4건 14점	1건 5점	예모1, 입전모1, 예복상의1, 식대1, 도대1	76cm 등
				1건 5점	상모2, 상복상의1, 소례견장2,	
	1건 3점			하의2, 멜빵1		
	1건 1점			외투1		
7	기병	기병 정위 예복 및 상복	2건 8점	1건 5점	예모1, 예복상의1, 식대1, 대례견장2	75cm 등
				1건 3점	상복상의1, 소례견장2	

연번	병과	유물명칭	수량		세부 목록	규격
8	헌병	헌병 부위 예복 및 상복 (홍철유)	2건 8점	1건 7점	예모1, 입전모1, 입전모1 및 입전모보관함1, 예복상의1, 대례견장2	73.5cm 등
				1건 1점	상복상의1	
9	군의	군의 부위 예복	1건 5점		예모1, 입전모1, 예복상의1, 대례견장2	71cm 등

(2)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20.2.25.)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보병참영예복'에 대한 등록 검토('보류')
* 보류사유 : 타 기관 소장 유물을 조사하여 비교검토 필요
- ('20.5.15.)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육군박물관 소장 대한제국 군복)
- ('20.7.28.)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조건부가결'(황석 초상화 제외)

(4) 등록예고 : '20.8.12.~9.10. (30일간) *의견 없음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 ('20.5.15.)

- 대한제국 군복은 1895년부터 1910년까지 착용되었던 육군의 군복 중 보병·기병·헌병 등의 병과에 소속되었던 영관·위관급 등의 군복과 대원수인 고종황제가 착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모자의 하반부, 상의의 의령장과 수장에 다른 색의 천을 부착하여 병대를 구별하였던 이 시기 군복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대한제국기 군복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도는 매우 높으며, 등록 가치가 있음

○ ○ ○ ○ ('20.5.15.)

- 육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한제국기 군복은 대원수 상복부터 군사, 보병, 기병, 헌병, 군의 등 여러 병과의 참장, 부령, 정위, 부위 등 다양한 직급의 유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유물들은 대한제국기 군복의 여러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며, 관보 등에 문건으로는 존재하나 당시 군복의 구체적인 양상을 다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료를 뒷받침하여 대한제국기 군대의 존재 방식을 보여주는 유물로 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음.
- 다만, 이미 이도재 예복이 국가등록문화재 제543호로 등록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여 가지번호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20.5.15.)

- 육군박물관 소장 대한제국 군복은 대원수 상복에서부터, 장관급인 참장·부장, 영관급인 부령, 위관급인 부위·정위의 예복과 상복, 그리고 보병·기병·헌병·군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은 병과별로 다양한 군복 양식을 갖추고 있어 역사적 유물로서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대한제국군복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사서함 77 육군박물관
3. 소유자 : 육군참모총장
4. 조사자 의견('20.5.15.)

<○○○>

1) 현상

- 근대 서양식 군복 일습은 모자, 상의, 하의와 함께 부속품으로 구성됨. 모자에 입전모, 상의에 견장, 식서, 식대, 도대, 도서와 함께 검, 장갑, 구두 등의 품목으로 이루어짐. 본 유물은 1895년부터 1910년까지 착용되었던 육군의 군복 중 보병, 기병, 헌병, 군의, 軍司 병과에 소속되었던 장관급, 영관급, 위관급 군복의 예복, 상복, 외투를 포괄하고, 여기에 대원수인 고종황제가 착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복까지 포함되어 있음. 품목으로는 모자와 입전모, 상의, 하의, 견장류, 식대, 도대, 멜빵 등이 있음. 착용에 의한 손상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손상이 있어 적절한 보존처리 등의 관리가 필요함

2) 내용 및 특징


- 근대 서양식 군복은 1895년 4월 9일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으로 도입되어 대한제국기까지 착용되었음. 이 시기의 복식제도는 칙령이나 조칙의 형식으로 『관보』를 통해 발표되었는데 대체로 규칙, 제식, 도식의 세 가지 규정으로 이루어졌음. 규칙에는 정장(正裝), 군장(軍裝), 예장(禮裝), 상장(常裝)과 같은 복장의 종류, 복장을 이루는 품목들과 착용 방법을 제시하고 각각의 정장, 군장, 예장을 구성하는 품목과 착용상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 복장의 종류는 시기에 따라 명칭이 달랐음.
- 제식에는 모자, 상의, 하의와 견장, 식대, 도대, 검 등의 재질, 형태 등 제작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고 도식은 이러한 품목들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임. 현재 이 시기 군복의 도식은 1895년의 ‘육군장교복제도례해석’ 이외에 남아 있는 것은 없는 상황이고, 이 도식도 구체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사진과 유물을 통해서 군복의 형태를 이해하고 있음. 이 시기에 발표된 복장 제식을 제정과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분류해 연구의 결과 크게 4기로 나눌 수 있었음.¹⁾ 각 시기별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이정미, 노무라미찌요, 이지수, 김민지, 대한제국기 육군 복장 법령의 시기별 변화, 한국문화 83, 2018.

- 1기(1895. 4. 9.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의 특징 : 모정이 둥근 철모이고, 싱글브레스티드(single breasted, 원버튼) 형태의 상의
 - 2기(1897. 5. 15. 조칙 육군장졸복장제식)의 특징 : 모정이 편평한 군모이고, 예복과 상복 모두 늑골복 형태의 상의
 - 3기(1900. 7. 2. 조칙 육군장졸복장제식)의 특징 : 모자 형태는 2기와 같고, 예복은 더블브레스티드(double breasted, 투버튼), 상복은 싱글브레스티드 상의
 - 4기(1907. 10. 1 칙령 제26호 육군복장제식)의 특징 : 모자 형태는 2기와 같고, 예복은 더블브레스티드, 상복은 모자, 싱글브레스티드 상의, 바지가 다갈색.
- 이를 바탕으로 각 유물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가) 대원수 상복(구성품(1점) : 상복 상의 1점)


(1) 상복 상의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흑색 용 총장 : 79cm 의령장(衣領章) : 좌우 각 별 5개(자수) 수장(袖章) : 11줄 관련 규정 : 1900년 상복 상의 규정 기타 특징 : 앞길 훈장걸이 16개 앞여밈 단추 9개</p>


(2) 제작 및 착용 시기 추정 : 육군복식 규정상 1900년부터 1907년 사이의 제식에 해당하고, 대원수인 고종이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대한제국의 원수부는 1899년에 설치되어 1905년에 해체되었기 때문에 3기에 착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나) 육군 참장 예복(구성품(4점) : 예모1, 예복상의1, 대례견장2)


(1) 예모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예모)흑용, 청색용 상반부 세로선 : 3줄 하반부 가로선 : 6줄(1줄은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관련 규정 : 1900년 예복 모자 규정</p>

(2) 예복상의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흑용, 청색용(軍司 혹은 計官) 총장 : 78cm 의령장 : 위 정도기자(正倒己字), 일자(一字) 1줄, 아래 2줄, 좌우 각 별 3개(자수) 수장 : 7줄 관련 규정 : 1900년 예복 상의 규정</p>


(3) 대례견장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금사광직(金絲廣織) 계급장 : 하수(下垂), 금은사 나뭇잎 사이 태극, 좌우 각 별 1개(자수) 관련 규정 : 1907년 대례견장 규정</p>

(4) 제작 및 착용 시기 추정 : 예모와 예복 상의는 1900년 규정에 맞고 모자 하반부, 상의 영장과 수장의 색인 청색 역시 1897년 규정에 따라 군사(軍司)에 해당함. (1907년 이후 청색은 計官이 사용함) 그런데 대례견장의 계급장이 금사로 수놓은 별이므로(이전은 은사로 수놓음) 1907년 규정과 맞음. 따라서 상의와 견장의 제작 및 착용시기는 1907년(4기) 이후일 것으로 추정되됨

다) 보병 부령 상복(구성품(1점) : 상복 상의 1)


(1) 상복 상의(관련 규정 : 1897년 상복 상의 규정)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흑색 융 총장 : 63.5cm 수장 : 5줄 관련 규정 : 1897년 상복 상의 규정 기타 특징 : 좌우 흉부를 가로질러 매듭장식이 있는데 이런 형식의 옷을 늑골복(肋骨服)이라고 함</p>


(2) 제작 및 착용 시기 추정 : 육군복식 규정상 1897년의 늑골복 형태이며, 상복(常服)에 해당됨. 1897년~1900년 7월 이전인 2기에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음.

라) 보병 정위 예복(구성품(4점) : 예모1, 예복상의1, 대례견장2)


(1) 예모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상반부 흑융, 하반부 홍색 융, 차양은 가죽 상반부 세로선 : 1줄 하반부 가로선 : 2줄 관련 규정 : 1897년 규정이 지속됨 기타 특징 : 측면에 벚꽃무늬 금속 단추가 부착 되어 있음.</p>

(2) 예복상의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흑용, 의령장과 수장은 홍색 용 총장 : 75cm 의령장 : 위2줄, 아래1줄, 별 1개, 금사로 자수 수장 : 3줄, 수장 끝에 양고직 근화 관련규정 : 1900년 규정</p>


(3) 대례견장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금사광직 사이즈 : 길이 16.5cm, 타원 최대폭 13cm 관련 규정 : 1907년 규정 기타 특징 : 홍흑 태극무늬의 자수 좌우에 2개의 금속별 장식이 있음. 규정은 은색의 자수 별 장식임</p>


(4) 제작 및 착용 시기 : 보병 정위 예복으로 판단됨. 그러나 모자의 형태는 규정상 부위의 예모임. 상의는 1900년 이후 규정이지만 견장이 1907년 개정된 규정에 해당하므로 4기에 착용된 것으로 추정됨.

마) 보병 부위 예복(구성품(6점) : 예모1, 예복상의1과 식서1, 대례견장2, 식대1)


(1) 예모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상반부 흑용, 하반부 홍색 용, 차양 가죽 상반부 세로선 : 1줄 하반부 가로선 : 2줄 관련 규정 : 1897년 규정이 지속됨</p>


(2) 예복상의와 식서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흑용, 의령장과 수장은 홍색용 총장 : 76cm 의령장 : 위2줄, 아래1줄, 별 1개, 금사로 자수 수장 : 2줄 관련 규정 : 1900년 규정 특징 : 견사 재질의 식서가 부착되어 있음.</p>

(3) 대례견장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금사광직 사이즈 : 길이 15.5cm, 타원 최대폭 10cm 관련 규정 : 1900년 규정 특징 : 벚꽃문양 단추, 태극무늬의 자수와 장식이 떨어진 흔적이 있음. 위관 부위의 규정은 은색의 자수 별 장식 2개임</p>

(4) 식대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홍사광직, 버클 금속 사이즈 : 폭 5.5cm, 술 22cm 관련규정 : 1897년 규정</p>

(5) 제작 및 착용 시기 : 보병 부위 예복임. 3기인 1900년부터 1907년 사이에 착용된 것으로 추정됨.


바) 보병 부위 예복·상복 일괄 유물(황석)(14점)

- 황석(黃漸, 1949~1938)은 1849년(헌종 15)에 출생, 청장년기에 유학을 익히고 1896년 47세가 되던 해 민영환의 추천으로 육군 참위가 되어 울산에 주둔하였고 1898년 49세가 되던 해 평양 진위대의 부위로 진급하였음(1898-1906 진위대 부위). 1907년 군대 해산으로 해임되었으나, 곧 세무관(7급봉 주임관 4등)으로 다시 복직되었고 강릉재무서장을 지냈음. 1910년 재무관(6급 주임관 3등)으로 퇴직하였음.
- 예복 구성품(5점) : 예모1, 입전모1, 예복상의1, 식대1, 도대1
- 상복 구성품(5점) : 상모2, 상복상의1, 소례견장2
- 하의 구성품(3점) : 하의2, 멜빵1
- 외투 구성품(1점) : 외투1



(1) 예모와 입전모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상반부 흑용, 하반부 홍색 용, 차양 가죽, 입전모 깃털, 금속</p> <p>상반부 세로선 : 1줄</p> <p>하반부 가로선 : 2줄</p> <p>관련 규정 : 1897년 규정이 지속됨</p> <p>기타 특징 : 입전모가 함께 남아있음.</p>



(2) 예복상의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흑용, 홍색 용</p> <p>의령장 : 위2줄, 아래1줄, 별 1개, 금사로 자수</p> <p>수장 : 2줄, 수장 끝에 양고직 근화</p> <p>관련규정 : 1900년 규정</p>


(3) 식대와 도대

사진	특징
	<p>식대</p> <p>색과 재질 : 홍사광직, 황사인, 버클 : 금속</p> <p>사이즈 : 폭 5.5cm, 술 22cm</p> <p>관련규정 : 1897년 규정</p>
	<p>도대</p> <p>색과 재질 : 가죽, 고리, 버클 : 금속</p> <p>사이즈 : 폭 3cm, 길이 90cm, 폭 2.5cm, 길이 68cm, 35cm</p> <p>관련규정 : 1897년~1906년 이전 규정</p> <p>특징 : 가죽의 대에 두 개의 대가 고리로 부착되어 있음.</p>


(4) 상모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흑융, 하반부 : 홍색 융, 차양 : 가죽 상반부 세로선 : 1줄 하반부 가로선 : 1줄 관련 규정 : 1897년 규정이 지속됨</p>
	<p>특징 : 파손이 심함. 부위 계급의 상모임</p>



(5) 상복상의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흑색 융 총장 : 74cm 의령 : 테두리에 홍색선, 별 1개 수장 : 1개, 수장 끝에 양고직 근화 관련규정 : 1900 규정</p>


(6) 소례견장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홍색 융, 테두리 : 금색 금속사 사이즈 : 9.5cm × 4.7cm 관련규정 : 1897년의 규정 특징 : 장방형 견장임. 홍색 융이 바탕이고 중심에는 홍흑 태극의 자수가 있으며 양쪽에 화살이 2개씩 부착되어 있음. 규정은 은색실 자수 장식이지만 유물은 금속재질임. 일부 탈락됨.</p>

(7) 하의와 멜빵

사진	특징
 <p>바지1 바지2</p>	<p>색과 재질 : 흑융, 봉장(縫章)은 홍색 융 관련규정 : 1900년 규정(상의와 같은 시기) 특징 : 허리에 멜빵을 고정하기 위한 단추가 앞에 좌우 1개씩, 뒤에 좌우 2개씩 달려 있음. 바지1사이즈 : 길이 112cm, 봉장너비 5.5cm 바지2사이즈 : 길이 117.5cm, 봉장너비 5.5cm</p>
	<p>멜빵 색과 재질 : 갈색 가죽, 버클은 금속 사이즈 : 폭 3.5cm, 길이 86cm 관련규정 : 복장제식에는 없지만 바지를 착용하기 위한 필수품이었음</p>


(8) 외투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흑융 총장 : 123cm 관련규정 : 1895년 규정(1907년 이전) 특징 : 더블브레스티드형 외투임. 수장에 은색 별, 수구에 적색 선과 양고직으로 장식되어 있음. 문양이 없는 금속단추가 부착됨</p>


(9) 제작 및 착용 시기 : 보병 정위의 예복, 상복, 바지, 외투와 함께 착용한 모습을 초상화로 남긴 자료까지 남아 있음. 유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완전하여 흔하지 않는 유물 구성임. 상의, 견장 등을 종합해 볼 때 1900년 규정(3기)에 해당함.

사) 기병 정위 예복(구성품(5점) : 예모1, 예복상의1, 대례견장2, 식대1)


(1) 예모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상반부 홍색 융, 하반부 녹색 융 상반부 세로선 : 1줄 하반부 가로선 : 3줄 관련 규정 : 1897년, 1902년 예복 모자와 바지 규정</p>


(2) 예복상의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홍색 융, 영장과 수장은 녹색 융 총장 : 75cm 의령장 : 위 1줄, 아래 1줄, 좌우 각 별 1개(자수) 수장 : 3줄 관련 규정 : 1897년 바지 규정, 1900년 예복 상의 규정, 1902년 기병 색에 대한 규정 기타 특징 : 앞길 훈장걸이 2개</p>

(3) 대례견장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금사광직 계급장 : 태극, 좌우 각 별 3개일 것으로 추정(자수, 유실) 관련 규정 : 1900년 대례견장 규정 기타 특징 : 타 유물과 형태, 재질 차이 있음</p>


(4) 식대

사진	특징
	색과 재질 : 홍사광직, 적사인(赤絲紉) 계급장 : 적색 하수(下垂) 관련 규정 : 1895년 식대 규정


(5) 제작 및 착용 시기 추정 : 1897년 육군복식 규정에는 기병 바지 봉장에 대한 규정을 녹색으로 규정하였음. 그러나 모자 상반부, 예복 상의의 색은 1902년에 제정되었으므로 예모와 예복 상의는 1902년 이후에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다만 식대는 1895년 규정에 맞는 것으로 1895년~1897년 사이에 제작한 것을 계속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전체적인 복장의 착용 시기는 1902년 이후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3기로 볼 수 있음.

아) 기병 정위 상복(구성품(3점) : 상복상의1, 소레견장2)

(1) 상복 상의

사진	특징
	색과 재질 : 홍색 융 총장 : 74cm 의령장 : 좌우 각 별 1개(도금제) 수장 : 3줄 관련 규정 : 1900년 상복 상의 규정, 1902년 기병 색에 대한 규정

(2) 소레견장

사진	특징
	색과 재질 : 홍색융, 금선 계급장 : 태극, 좌우 각 별 3개(자수) 관련 규정 : 1900년 소레견장 규정


(3) 제작 및 착용 시기 추정 : 기병의 상복 상의는 1902년~1907년 사이의 규정이므로 이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소레견장은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별의 색이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정하기 어려움. 착용 시기는 예복 상의를 기준으로 1902~1907년 사이(3기)로 추정됨.

자) 헌병 부위 예복·상복(홍철유)(8점)


- 홍철유(洪哲裕)는 1872년에 태어나 1898년 6월에 무관학교 생도가 되었고 1900년에 육군 참위로 임관하였다. 1904년 7월에 육군헌병부위 주임5등으로 승진 임명되었고 1905년 11월에 정3품 통정대부, 헌병대 육군헌병부위로 승진했으며 1907년 군대 해산으로 낙향하였다.²⁾
- 예복 구성품(7점) : 예모1, 입전모1, 입전모1, 보관함1, 예복상의1, 대레견장2
- 상복 구성품(1점) : 상복상의1

2) 대한제국 관원이력서 참고


(1) 예모와 입전모1, 입전모1과 보관함1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예모 다(茶)색 용, 백색 용, 입전모 깃털, 보관함은 종이로 제작됨</p> <p>상반부 세로선 : 1줄</p> <p>하반부 가로선 : 2줄</p> <p>관련 규정 : 1897년 예복 모자 규정</p>


(2) 예복상의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다색 용, 백색 용</p> <p>총장 : 73.5cm</p> <p>의령장 : 위 1줄, 아래 1줄, 좌우 각 별 1개(자수)</p> <p>수장 : 2줄</p> <p>관련 규정 : 1900년 예복 상의 규정</p>

(3) 대례견장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금사광직</p> <p>계급장 : 태극(유실), 좌우 각 별 2개일 것으로 추정(도금제, 유실)</p> <p>관련 규정 : 1900년 대례견장 규정</p>


(4) 상복 상의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다색용</p> <p>총장 : 66.5cm</p> <p>의령장 : 좌우 각 별 1개씩일 것으로 예상됨(도금제, 모두 유실)</p> <p>수장 : 2줄</p> <p>관련 규정 : 1900년 상복 상의</p>


(5) 제작 및 착용 시기 추정 : 위 8점은 모두 1900년 규정을 따른 것으로 1900년~1907년 사이에 제작되었음. 착장자인 홍철유가 1904년부터 헌병 부위의 계급이었으므로 제작 및 착용 시기는 1904년~1907년 사이(3기)일 것으로 추정됨

차) 군의 부위 예복(구성품(5점) : 예모1, 입전모1, 예복상의1, 대례견장2)


(1) 예모와 입전모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예모 상반부 흑색 용, 하반부 심녹색용 (입전모)깃털</p> <p>상반부 세로선 : 1줄 하반부 가로선 : 2줄</p> <p>관련 규정 : 1907년 예복 모자 규정</p>

(2) 예복상의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흑색용, 심녹색용</p> <p>총장 : 71cm</p> <p>의령장 : 위 1줄, 아래 1줄, 좌우 각 별 1개(자수)</p> <p>수장 : 2줄</p> <p>관련 규정 : 1907년 예복 상의 규정</p>

(3) 대례견장

사진	특징
	<p>색과 재질 : 금사광직</p> <p>계급장 :</p> <p>(부위) 태극, 좌우 각 별 2개(도금제, 별 1개 유실)</p> <p>(정위) 태극, 좌우 각 별 3개(도금제, 별 2개 유실)</p> <p>관련 규정 : 1900년, 1907년 대례견장 규정</p> <p>기타 특징 : 대례견장 2점이 서로 다른 계급의 것임</p>

(4) 제작 및 착용 시기 추정 : 유물의 병과를 나타내는 색이 짙은 녹색이므로 1907년 군의 색 규정인 심녹색을 따른 것으로 보임. 1907년 이후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대례견장은 부위, 정위의 계급 두 종류가 착용되어 있으므로 잘못 착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유물이 기증 혹은 구입되었을 시 착용자의 계급 변화에 대한 가능성도 있음. 착용 시기는 1907년 이후(4기)일 것으로 추정됨

3) 문헌자료 : 『구한국 관보』

4) 기타

- 육군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한제국기 군복 유물은 총 10건 55점으로 정리되었음. 모자의 형태, 상의의 형태에 견장의 규정까지 고려하여 각 유물의 특징을 분류하고 제작 및 착용시기를 추정해본 결과 육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대한제국기 군복 유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제작 및 착용 시기를 추정해 본 결과로, 육군박물관의 군복 유물은 대한제국기의 전 시기에 걸쳐서 제작, 착용되었던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기 : 3번 보병 부령 상복

- 3기 : 1번 대원수 상복, 5번 보병 부위 예복, 6번 보병 부위 예복·상복 일괄 유물 (황석), 7번 기병 정위 예복, 8번 기병 정위 상복, 9번 헌병 부위 예복·상복 유물 (홍철유)
- 4기 : 2번 육군 참장 예복, 4번 보병 정위 예복, 10번 군의 부위 예복
- 둘째, 병과는 원수부, 보병, 기병, 헌병, 군의, 군사 혹은 회계관으로 다양함.
- 셋째, 계급은 대원수(추정)부터 장관급으로 참장, 영관급으로 부령, 위관급으로 정위, 부위에 걸쳐 있음.
- 넷째, 군복 품목으로는 예복의 모자와 입전모, 예복 상의와 대례견장, 상복의 모자, 상복 상의와 소례견장, 바지와 멜빵과 함께 부속품으로 식대, 도대, 식서가 있고 황석 유물의 경우는 외투와 군복 착용 초상화까지 포함되어 있어 국내에서는 가장 다양함.
- 다섯째, 유물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직물은 오랫동안 마네킹에 착장된 상태인 경우가 많아 늘어나거나 형태가 일부 변형된 경우가 많고, 견장 등의 금속은 스프링이 늘어나거나 엉켜있는 경우가 있어서 보수 및 보전처리가 시급함.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육군박물관은 고종황제가 착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원수 상복(常服)을 비롯하여 장관급인 이도재(李道宰)의 부장(副將) 예복, 육군 참장(參將) 예복이 있고, 영관급인 보병 부령(副領) 상복이 있으며, 위관급인 정위(正尉) 예복, 부위(副尉) 예복이 있음. 또한 다양한 병과의 유물이 있어서 보병뿐만 아니라 기병, 헌병, 군의, 군사(軍司) 혹은 회계관의 유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모자의 하반부, 상의의 의령장과 수장에 다른 색의 천을 부착하여 병대를 구별하였던 이 시기 군복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대한제국기 군복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육군박물관 유물의 중요도는 매우 높음. 유물들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 적절한 보존처리를 통한 장기적인 소장, 재현 등을 통한 활용을 위해 전체적으로 문화재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 중 현재 이도재 부장 예복은 2013년에 문화재로 등록(국가등록문화재 제543호 이도재 예복)되어 있는 상황임. 육군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대한제국기 군복 유물을 이도재 부장 예복과 함께 총 10건으로 일괄 등록한다면 군복 문화재 등록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함께 유지 보수하는 데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1) 현상

- 육군박물관에는 현재 대원수 상복을 비롯하여 대한제국기의 보병(步兵), 기병(奇兵), 헌병(憲兵), 군의(軍醫), 군사(軍司) 등의 예복과 상복, 코트 등 관련 유물 12건 69점을 소장하고 있어, 대한제국기 군복의 최대 소장처임.
- 복식들은 대체로 보관 상태가 양호하나, 일반적인 마네킹 및 옷걸이에 걸어놓았기 때문에 형태가 일부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곳도 있음.

2) 내용 및 특징

- 근대 서양식 군복은 1895년 4월 9일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 제정 이래 도입되어 대한제국기까지 이어졌음.
- 근대 서양식 군복의 예복은 예모(禮帽), 상의(上衣), 하의(下衣)와 부속품으로 예모에 입전모(立前毛), 상의에 견장(肩章), 식서(飾緒), 식대(飾帶), 도대(刀帶)와, 검(劍), 장갑, 구두 등 품목으로 구성됨. 대한제국기의 군복은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정장(正裝), 군장(軍裝), 예장(禮裝), 상장(常裝)이 제정되었고, 각 품목과 착용상황은 시기와 지위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은 『관보(官報)』에 칙령이나 조칙으로 발표되어 있음.
- 칙령 및 조칙의 내용은 규칙, 제식, 도식의 세 가지 방법으로 제시함. 규칙에는 정장, 군장, 예장, 상장 등 복장의 종류와 복장의 품목 내용, 착용 방법을 제시함. 제식에는 모자, 상의, 하의와 견장, 식대, 도대, 검 등의 재질과 형태 등 제작 관련 내용을 제시함. 도식은 이 내용들을 그림으로 제시한 것임.
- 1895년 이후 대한제국기의 군복장 제식을 이경미 등의 「대한제국기 육군 복장 법령의 시기별 변화」에 따르면 크게 4기로 나눌 수 있음. 크게 상의의 앞길 전면에 하나의 버튼(싱글 브레스티드), 또는 양쪽의 버튼(더블 브레스티드)으로 다는가, 또는 늑골복 형태로 하는가에 따라 달라졌으며, 모자가 위가 둥근 철모였다가 제2기부터 평편한 군모로 바뀌는 변화가 있었음.

	제정 시기	법령 명칭	복장 특징
1기	1895.4.9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	싱글 브레스티드 상의와 위가 둥근 철모
2기	1897.5.15	조칙 육군장졸복장제식	늑골복 형태의 예복과 상복 상의 및 위가 평편한 군모
3기	1900.7.2	조칙 육군장졸복장제식	예복은 더블 브레스티드, 상복은 싱글 브레스티드 상의. 모자는 2기와 같음.
4기	1907.10.1	칙령 제26호 육군복장제식	예복은 더블 브레스티드, 상복은 싱글 브레스티드, 모자 형태는 2기와 같음. 상복은 모자, 상의, 바지가 다갈색임.

- 1897년 5월 육군장졸복장제식에 따른 대한제국기 군장교 계급의 정모(正帽)와 의령장(衣領章), 수장(袖章)의 계급별 장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계급	장관(將官)			영관(領官)			위관(尉官)		
	대장	부장	참장	정령	부령	참령	정위	부위	참위
정모 상반부	3줄			2줄			1줄		
정모 하반부	9줄	8줄	7줄	6줄	5줄	4줄	3줄	2줄	1줄
의령장 상부	정도기자(正倒己字) 일자(一字) 1줄			일자(一字) 1줄			일자(一字) 1줄		
의령장 하부	일자(一字) 2줄			일자(一字) 2줄			일자(一字) 1줄		
수장	9줄	8줄	7줄	6줄	5줄	4줄	3줄	2줄	1줄

(이경미·노무라 미찌요·이지수·김민지, 「대한제국기 육군 복장 법령의 시기별 변화」의 표를 참조하여 재구성)

- 1897년 개정에서 바지 측면의 봉장(縫章)에 계급과 병과를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함. 선의 개수와 두는 개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장관은 너비 7분으로 2줄, 그 사이에 3분의 1줄을 두고, 영관은 너비 7분으로 2줄, 위관은 이하는 1줄로 함. 위관은 너비 1촌, 하사는 너비 6분, 병졸은 너비 3분임. 봉장의 색상은 기본적으로 홍색으로 하나, 기병은 녹색, 포병은 황색, 공병은 자색, 군사는 청색, 군의는 옥색으로 함. 이 색상은 모자의 정수리 부분과 모자 하반부, 대례의 옷깃과 수구, 하사 이하 상의(上衣)의 수장에도 적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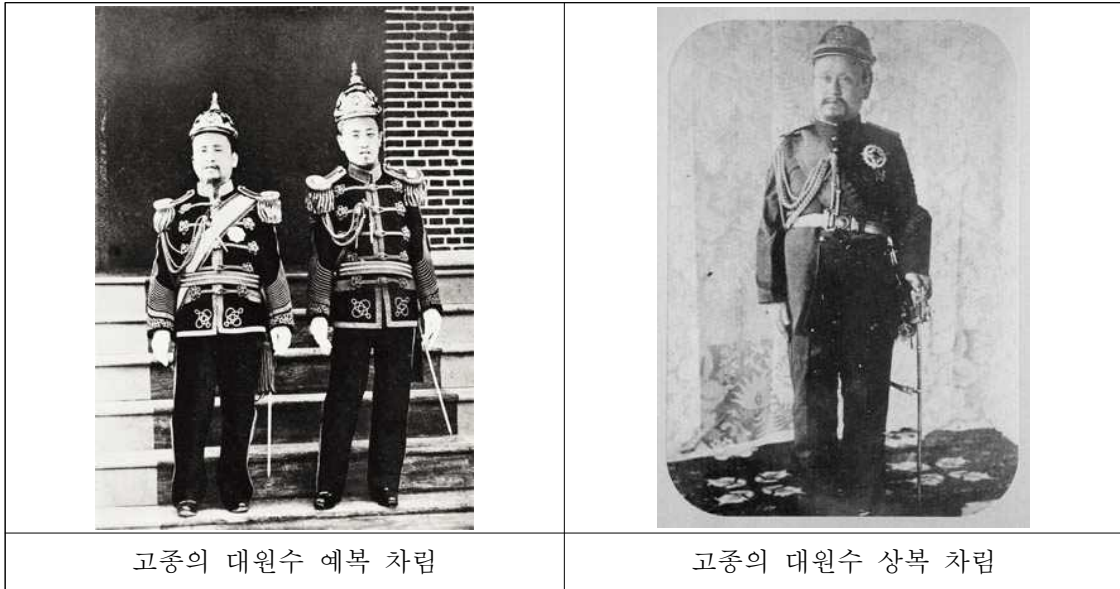
병과	보병	기병	포병	공병	군사	군의
색상	홍색	녹색	황색	자색	청색	옥색

- 1902년에 기병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대례의와 상의, 모자 상반부를 홍색 용으로 했으며, 1903년 헌병 소례견장에 ‘憲’자가 추가되고, 공병의 모자 상반부는 황색 용으로 함. 헌병의 봉장은 흰색으로 함. 1905년 군의의 봉장이 유록색(柳綠色)으로 변경했다가 1907년 심록색(深綠色)으로 변경함.
- 현재 육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895년 이후 대한제국기 군복 조사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이외에 육군박물관 소장 이도재 예복(육군 부장)이 이미 국가등록문화재 제 543호로 등록되어 있으며, 정석용의 군복도 소장되어 있으나 친일행적으로 인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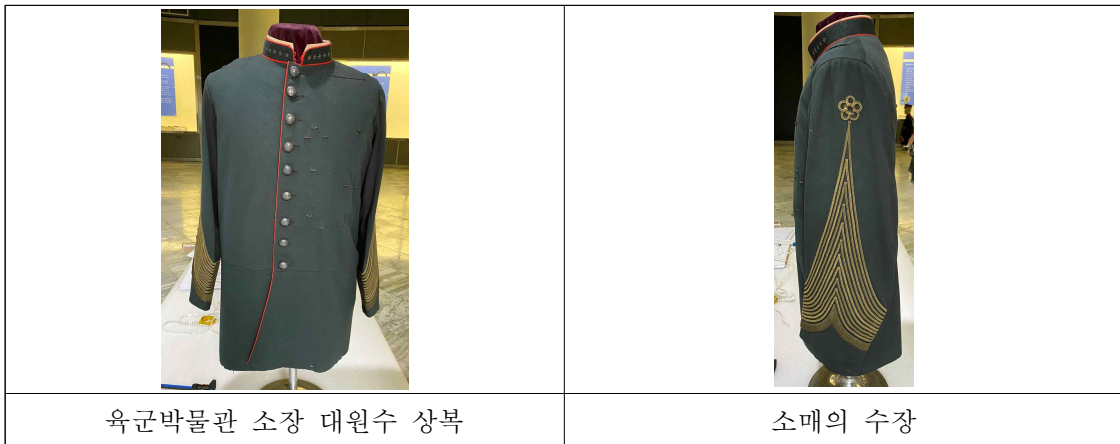
연번	병과	유물명칭	유물번호	수량	세부 목록	제식규정	
1	·	전 대원수 상복	가 4-1-9	1건 1점	상복상의1	3기	
2	군사 (軍司)	육군 참장 예복	가 4-1-15	1건 4점	예모1, 예복상의1, 대례견장2	4기	
3	보병	보병 부령 상복	가 4-1-16	1건 1점	상복상의1	2기	
4		보병 정위 예복	가 4-1-10	1건 4점	예모1, 예복상의1, 대례견장2	4기	
5		보병 부위 예복	가 4-1-1	1건 6점	예모1, 예복상의1, 대례견장2, 식대1, 식서1	3기	
6		보병 부위 예복·상복 일괄(황색)	기증 2018-11	1건 15점	예복 5점	예모1, 입전모1, 예복상의1, 식대1, 도대1	3기
					예복회화 1점	예복초상화1	
	상복 5점				상모2, 상복상의1, 소례견장2,		
	하의 3점				하의2, 멜빵1		
				외투 1점	외투1		
7	기병	기병 정위 예복	가 4-1-2	1건 5점	예모1, 예복상의1, 식대1, 대례견장2	3기	
기병 정위 상복		가 4-1-3	1건 3점	상복상의1, 소례견장2	3기		
9	헌병	헌병 부위 예복·상복(홍철유)	가 4-1-23	1건 8점	예복 7점 예모1, 입전모1, 입전모1과 보관함1, 예복상의1, 대례견장2 상복 1점 상복상의1	3기	
10	군의	군의 부위 예복	가 4-1-4	1건 5점	예모1, 입전모1, 예복상의1, 대례견장2	4기	
			종합	10건 52점			

가) 전 대원수 상복

- 대한제국기에 1899년 원수부를 설치하여 1904년 말까지 지속되었으며 황제는 대원수, 황태자는 원수의 지위로 군대를 통솔하는 역할을 했음. 따라서 당시 황제인 고종은 전통복장인 군복을 벗고 대원수복을 착용했으며, 1900년경의 예복과 상복 사진이 남아 있음.



- 왼쪽 사진의 왼쪽이 고종이며, 오른쪽이 황태자인 순종임. 고종의 대원수 예복은 늑골복 형태의 상의와 위가 둥근 철모로 이루어져 있음. 오른쪽 사진은 고종의 대원수 상복 차림의 모습으로 싱글 브레스티드의 상의를 입고 있으며 모자는 마찬가지로 위가 둥근 철모를 착용하고 있음. 양쪽 어깨에 견장을 달고 있으며 예복에는 대수를 착용하였으며 왼쪽 가슴쪽에 훈장을 착용하고 있음. 허리 왼쪽으로 식대를 착용하여 검을 착용하였음.
- 육군박물관 소장 대원수 상복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색과 재질 : 흑색 울
 - 옷길이 : 79cm
 - 수장 : 11줄
 - 의령장 : 별 5개
 - 기타 : 앞면 왼쪽가슴에 훈장고리 16개, 앞여밈 단추 9개, 뒷면 단추 6개 있음. 단추는 오얏꽃 문양으로 주조함.



- 이 대원수 상복은 1968년 10월 구입에 의해 육군박물관에 소장됨. 육군복장 규정의 1900년에서 1907년 사이의 제식에 해당하며, 소매의 인(人)자형 수장(袖章)으로 대원수를 11줄로 하는데, 이 옷의 수장이 11줄임. 위의 고종황제 대원수복 사진과 비교하여 대원수 상복으로 추정됨.

나) 군사 참장(계관) 예복

- 참장 예복은 예모와 예복 상의, 대례견장 2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1974년 기증에 의해 소장함.
- 예모는 흑색 용과 금줄, 가죽으로 구성되었으며, 예모 상부에 이화문, 정면에 이화와 일가지의 모표가 부착되어 있음. 정면의 상부에는 금색 선이 세로 3줄, 하반부에는 금색선이 가로 6줄이나, 1줄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임.
- 예복은 더블 브레스티드에 흑색 용을 기본으로 하고, 소매에 청색 용을 달았음. 옷길이가 78cm이며 옷깃의 의령장에 좌우로 별을 3개씩 자수로 놓고, 소매의 수장은 7줄로 참장의 예복임.
- 어깨 양쪽의 견장은 금사광직으로 제작하였으며, 태극을 중심으로 나뭇잎을 자수로 놓고, 태극 좌우에 별 1개씩을 자수로 놓음. 1907년의 대례견장 규정에 해당함.



- 1897년 육군장졸복장제식에 따르면 군사(軍司)의 봉장이 청색으로, 소매 끝부분인 솔기의 수구의 색을 청색으로 하는 것은 군사인 육군 회계관(會計官)의 주임(奏任) 벼슬인 계관(計官)에 해당함. 이외에도 옷깃 테두리, 모자 테두리, 앞 여밈 테두리도 청색 천으로 바이어스함. 대례견장의 계급장 별을 금사로 수놓은 것은 1907년에 규정된 것이므로(1907년 이전은 은사), 이 복장은 1907년 10월 이후에 제작 및 착용한 것으로 보임.

다) 보병 부령 상복

- 상복 상의 1점이며, 1974년 기증에 의해 소장함. 흑색 용으로 제작했으며 좌우 흉부를 굽은 매듭 장식으로 가로지른 늑골복(肋骨服) 형태로서, 1897년 개정된 육군복장 제식의 보병 상복에 해당됨. 소매의 수장이 5줄로 계급은 부령(副領)에 해당됨.
- 여밈의 양쪽에 매듭으로 근화형(槿花形)을 부착함.



라) 보병 정위 예복

- 예모 1, 예복 상의 1, 대례견장 2 등 4점으로 구성됨. 1968년 구입에 의해 소장함.
- 예모는 상반부에는 흑색 용, 하반부에는 홍색 용으로 만들었으며 첩은 가죽으로 만들. 상반부에 금선 양고직 세로줄이 1줄 있으며, 하반부에는 금선 양고직 가로줄이 2줄 있어, 1897년 규정에 따르면 부위의 예모임. 입전모는 없으며, 측면에 뿔꽃무늬 금속 단추가 부착되어 있으나 어느 시기에 착용한 것인지 경위는 알 수 없음.
- 예복 상의는 흑색 용으로 제작되었으며, 더블 브레스티드로 1900년 이후 복식임. 의령장과 수구는 홍색 용임. 총 길이 75cm로 의령장은 위 2줄, 아래 1줄, 별 1개가 금사로 자수되어 있으며, 수장은 3줄로 정위에 해당함.
- 대례견장은 홍흑 태극무늬 좌우에 금속으로 만든 2개의 별을 부착함.



마) 보병 부위 예복

- 예모 1, 예복 상의 1, 식서 1, 대례견장 2, 식대 1 등 6점으로 구성됨. 1962년 구입에 의해 소장함.
- 예모는 상반부는 흑색 용, 하반부는 홍색용, 챙은 가죽으로 되어 있음. 상반부 세로선이 금선 양고직 1줄, 하반부 가로선은 금선 양고직 2줄로 보병 부위 예모에 해당함. 입전모가 남아 있는 경우는 드문 편이나 예모와 분리되어 있음.
- 예복 상의는 흑색 용으로 제작했으며, 의령장과 수구는 홍색 용임. 의령장은 위 2줄, 아래 1줄, 별 1개를 금사로 자수했으며, 수장은 금선 양고직 2줄로 부위 계급임을 알 수 있음. 견장 아래로 견사 재질의 식서가 부착되어 있음.
- 대례견장은 홍흑의 태극무늬가 있으며 주위에는 장식이 떨어진 흔적이 있음. 견장이 뿔뿔 문양 단추로 고정되어 있음.
- 식대는 홍사 광직으로 너비 5.5cm로 양쪽에 금색 술이 달려 있음. 예복에 식대가 남아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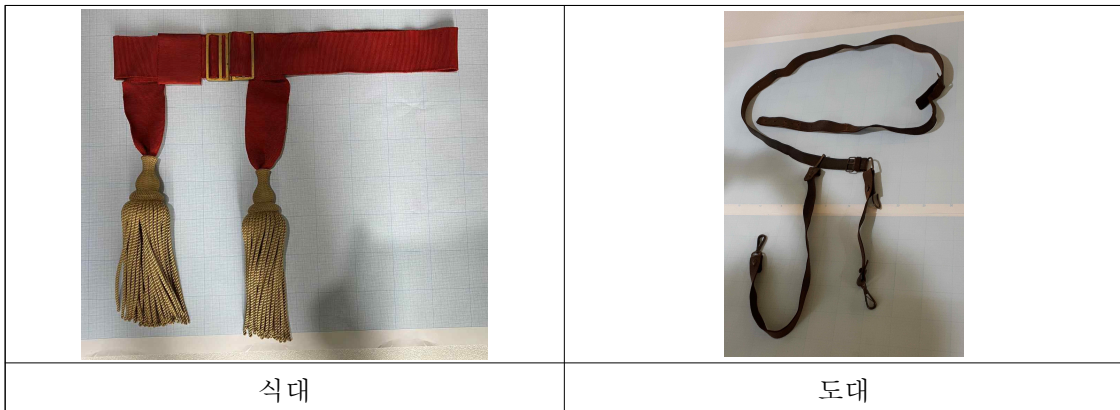
	
<p>보병 부위 예복 상의와 식서</p>	<p>예모</p>
	
<p>대례견장</p>	<p>식대</p>

바) 보병 부위 예복·상복 일괄 유물(황석)

- 2018년 황석 후손의 기증으로 소장되었으며, 예복은 예모 1, 입전모 1, 예복 상의 1, 식대 1, 도대 1 등 5점이 있으며, 상복은 상모 2, 상복 상의 1, 소레견장 2 등 5점, 하의로는 하의 2와 멜빵 1 등 3점, 외투 1점 등 총 14점임.
- 황석(黃淞, 1849~1938)은 현종 15년(1849)에 출생하여 1896년 47세 되던 해에 민영환의 추천으로 육군 참위가 되어 울산에 주둔하다가 1898년 평양 진위대의 부위로 진급하여 1906년까지 복무하였음. 1907년 군대 해산으로 해임되었다가 세무관(7봉급 주임관 4등)으로 복직하여 강릉세무서장을 지냈으며 1910년 재무관(6급 주임관 3등)으로 퇴직해 남원에서 여생을 보낸 인물임.
- 예모는 상반부 흑색 용, 하반부 홍색 용으로 만들었으며, 상반부 세로선은 금선 양고직 1줄, 하반부 가로선은 금선 양고직 2줄로 부위 계급임을 알 수 있음. 금속에 끼워진 입전모가 예모에 부착되어 원래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음.
- 예복은 흑색 용으로 제작했으며 의령장과 수구는 홍색 용으로 되어 있음. 의령장은 위에 2줄, 아래에 2줄이 있으며 별 1개가 금사로 자수되어 있고, 수장은 금선 양고직 2줄로 되어 부위 계급을 알려줌.



- 허리에 착용하는 식대는 홍사광직에 양쪽에 술이 달려 있으며, 버튼 상태도 양호함. 가죽으로 만든 도대도 있으며, 가죽이 오래되어 낡기는 했으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음.



- 상복에 착용하는 상모 2점이 있음. 1점은 상반부는 흑색 용, 하반부는 홍색 용으로 제작했으며 가죽 채이 달려 있음. 상반부 세로선이 흑선 양고직 1줄, 하반부 가로선이 흑선 양고직 1줄임. 또다른 상모 1점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부위 계급의 모자임. 모자 부분과 채이 분리되었으며 파손이 심한 상태임.



- 상복 상의는 흑색 용으로 제작했으며 깃과 앞섶 테두리에 바이어스로 홍색 선을 담. 의령장에는 금속으로 제작한 별 1개씩이 달려 있음. 수장은 흑선 양고직으로 1줄로 되어 있음.



- 상복 상의의 양쪽 어깨에 소레견장이 달려 있음. 소레견장은 홍색 용 바탕에 테두리에는 금색 금사를 자수하고 가운데에 홍흑의 태극이 있고 양쪽에 화살 모양이 2개씩 부착되어 있으나 일부 탈락함.
- 하의는 2점으로 흑색 용으로 제작했으며, 옆부분의 봉장(縫章)은 홍색 용을 부착했음. 허리에 멜빵을 고정하기 위한 단추가 있으며, 바지를 고정하는 멜빵이 함께 있음.



- 외투는 흑색 용으로 제작했으며 더블 브레스티드 형식임. 수장으로 적색 선과 양고직을 한줄씩 넣었으며 금속 별 1개를 부착함.



- 황석의 대한제국기 군복 유물은 보병 부위의 예복과 예모, 상복과 상모, 하의와 외투 및 식대, 멜빵 등 부속물도 다양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예복을 착용한 초상화가 함께 있어서 일괄 유물로서의 가치가 높음.

사) 기병 정위 예복

- 예모 1, 예복 상의 1, 대례견장 2, 식대 1로 구성되어 있음. 1964년에 기증되었음. 1897년의 기병 바지 봉장 규정에 따르면 장식 색채로 녹색을 사용하는 것은 기병의 복식임. 그러나 모자 상반부, 예복 상의의 색은 1902년에 제정됨.
- 예모는 1897년에 제정된 평편한 모자로 상반부에 홍색 용, 하반부에 녹색 용으로 제작했음. 상반부 세로선은 1줄, 하반부 가로선은 3줄로 정위 계급을 표시함. 정면의 모표는 유실됨.
- 예복 상의는 더블 브레스티드 형식으로 홍색 용으로 제작했으며 의령장과 수장은 녹색 용으로 만듦. 의령장은 위 1줄, 아래 1줄의 선을 둘렀으며 각 별이 1개씩 자수로 놓임. 수장은 3줄로 정위 계급을 표시함.
- 대례견장은 금사광직으로 만들었으며, 홍흑의 태극 좌우로 별이 3개씩 자수로 새겨져 있었던 흔적이 있으나 유실됨.
- 식대는 홍사광직으로 제작했으며, 적색 술이 2개 달려 있음.

	
<p>기병 정위 예모</p>	<p>예복 상의</p>
	
<p>대례견장</p>	<p>식대</p>

아) 기병 정위 상복

- 홍색 용으로 제작한 상복 상의 1과 소례견장 2점으로 구성됨. 1964년 기증품임.
- 상복은 예복과 마찬가지로 홍색 용으로 싱글 브레스티드 형태로 제작했으며 의령장에는 좌우에 별이 1개씩 있고, 수장은 3줄로 기병 정위 계급의 상복임을 알 수 있음. 목깃과 소매, 앞여밈 등을 녹색 바이어스를 두름.

- 소례견장은 홍색 용으로 제작했으며 테두리를 금선으로 두름. 가운데에 홍흑의 태극기 있고 좌우에 별을 3개씩 자수로 놓음.
- 기병의 상복 상의는 1902년 규정에 의해 1907년까지 착용했으므로 이 시기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함.



자) 헌병 부위 예복·상복(홍철유)

- 예복은 예모 1, 입전모 1, 입전모 1과 보관함, 예복 상의 1, 대례견장 2로 구성되었으며, 상복은 상복 상의 1만 남아 있음. 대한제국기에 육군 부위를 지낸 홍철유(洪哲裕, 1872~미상)가 착용하던 것으로 2003년 구입에 의해 소장함.
- 홍철유는 1898년 8월 육군무관학교에 들어가 1900년에 졸업했으며, 이해에 육군 참위가 되어 친위대에서 근무함. 1904년 7월 육군 헌병 참위가, 9월에 부위가 되었으며 1905년 11월 정3품 통정대부로서 헌병대 및 육군헌병 부위로 근무함. 1907년 군대가 해산되자 낙향함.
- 예모는 상반부에 다색(茶色) 용과 하반부에 백색 용으로 제작했으며, 다색 용을 사용하는 것은 헌병의 색상임. 상반부 세로선은 1줄, 하반부 가로선은 2줄로 부위 계급임을 알 수 있음. 입전모가 2점인데, 1점은 종이로 제작된 보관함에 들어 있어 매우 드문 예임.
- 예복 상의는 더블 브레스티드 형태로 다색 용으로 제작했으며, 의령장과 수구는 백색 용을 사용함. 의령장은 위 1줄, 아래 1줄의 선이 있으며 좌우에 각 1개씩 별이 자수로 놓여 있음. 수장은 금선 양고직 2줄로 이 또한 부위 계급임을 뜻함. 人자 모양 수장 위쪽으로 홍색 용에 금색 테두리를 두른 이화문을 부착함.
- 대례견장은 금사광직으로 제작했으며 태극이 유실되어 없고 좌우에 별이 2개씩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나 유실됨.

	
<p>헌병 부위 예복</p>	<p>헌병 부위 예모</p>
	
<p>헌병 부위 대례견장</p>	<p>입전모1, 입전모 2와 보관함</p>

- 상복 상의는 싱글 브레스티드 형태로 다색 용으로 제작함. 의령장은 좌우에 각 1개씩 별이 있었을 것이나 유실됨. 수장은 2줄로 부위 계급임을 알 수 있으며, 옷깃 테두리와 앞 여밈에 백색 바이어스를 둘러 헌병 복식임을 나타냄.

	
<p>헌병 부위 상복 상의</p>	<p>뒷면</p>

차) 군의 부위 예복

- 예모 1, 입전모 1, 예복 상의 1, 대례견장 2로 구성되었으며 1966년 기준에 의해 소장함.
- 1897년 개정된 육군복장제식에 따른 군의 부위 예복으로, 더블 브레스티드 형태에 흑색 용으로 제작함. 1907년에 각 병과를 상징하는 색이 정해져 의령장과 수구 부분에 적용되었으며 군의는 유록색(柳綠色)을 사용함. 의령장은 위 1줄, 아래 1줄을 둘렀으며 좌우에 각 1개씩의 별을 자수로 놓고, 수장에 2줄 선이 있어 부위 계급임을 알 수 있음.
- 예모는 상반부에 흑색 용, 하반부에 심녹색 용으로 제작했으며, 상반부 세로선은 1줄, 하반부 가로선이 2줄로 군의 부위 예모임을 알 수 있음. 입전모는 깃털로 만들어 모자 앞 모표에 꽂을 수 있음.
- 대례견장은 금사광직으로 제작되었는데, 대례견장 1은 홍흑 태극 좌우에 별이 2개씩 있었을 것으로(1개는 유실) 부위 견장이며, 태극 좌우에 별 3개씩 있었던 것은 정위 견장임.
- 심녹색으로 예모, 의령장 테두리와 수장을 장식한 것은 1907년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 보임. 양쪽의 대례견장이 하나는 부위, 다른 하나는 정위의 것이어서 착오가 있었거나, 또는 착장자의 계급이 변하여 두 종류의 대례견장을 소장하고 있었으나 보관 과정에서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혼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p>군의 부위 예모와 입전모</p>	<p>군의 부위 예복 상의</p>
	
<p>대례견장</p>	

3) 문헌자료

- 이경미 · 노무라 미찌요 · 이지수 · 김민지, 「대한제국기 육군 복장 법령의 시기별 변화」 『한국문화』 83집, 2018
- 이경미·이지수,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대한제국기 육군 부위(副尉) 오경근(吳景根) 유물 연구」 『한국복식』 제40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8
- 육군박물관 편, 『군사 복식 : 육군박물관 소장』, 육군박물관, 2012.
- 김정민, 「「육군복장규칙」과 대한제국 군복 - 예복을 중심으로」 『군사 복식 : 육군박물관 소장』, 육군박물관, 2012.
- 『대한제국관원이력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4) 등록가치 및 근거 기준

- 육군박물관에 소장된 대한제국기 군복은 대원수 상복부터 군사, 보병, 기병, 헌병, 군의 등 여러 병과의 참장, 부령, 정위, 부위 등 다양한 직급의 10건 52점으로 구성되어 대한제국기 군복의 여러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임. 특히 대한제국기의 군복은 관보 등에 문건으로는 존재하나 구체적인 양상을 다 파악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자료는 사료를 뒷받침하여 대한제국기 군대의 존재 방식을 보여주는 유물임.
- 황석 유물의 경우 집안에서 잘 보존되어 왔으며 보병 부위의 예복과 상복, 하의와 외투를 비롯하여 예복을 착용한 초상화가 함께 있어, 군복의 착용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일괄 유물임.
- 육군박물관 소장 대한제국기 군복은 서구식 군복을 채택하여 부국강병을 꾀한 대한제국의 지향을 드러내주는 유물로 등록가치가 높음.
- 다만 이미 2013년에, 육군 박물관 소장 대한제국기 군복으로 군부대신과 학부대신을 지낸 이도재(李道宰, 1848~1909)가 착용했던 부장(副將) 예복이 국가등록문화재 제 543호로 등록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여 각각의 유물을 가지번호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육군박물관에서 대체로 잘 보관하고 있으나 군복의 체형과 꼭 맞지 않는 마네킹에 착용되어 있거나 또는 옷걸이에 걸려 있는 것도 있으며, 입전모와 부속품 등은 보관함 등이 적절하지 않아 보존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있음. 또한 일부 의복은 손상 및 변형이 이루어진 것도 있음. 이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중성지 상자 등 적절한 보존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 현상

- 대한제국 육군 군복이 병과별·계급별로 잘 갖추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부속물들도 대부분 갖추어 있음. 대원수 상복, 보병, 기병, 헌병, 군의 군사 등 각 병과의 장관·영관·위관급 예복·상복·외투가 있으며, 상의뿐만 아니라 하의도 있음. 군복의 부속물로서는 모자와 입전모, 견장류, 식대, 도대, 멜빵 등도 있음. 대부분의 군복은 보존상태가 양호이며, 부속물들은 일부 손상이 있음.

2) 내용 및 특징

가) 대한제국 전 대원수 상복

- 구성 및 재질 : 대원수 상복 상의 1점. 흑색용.
- 대한제국의 대원수는 원수부의 최고 지휘관으로, 1899년 6월 22일 반포된 「원수 부관제」 제1조에 “국방과 용병과 각항 명령을 장하며 특립(特立)한 권(權)이 유하여 군부(軍部)와 경외 각대를 지휘 감독하는 것”이라 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 1900년 상복 상의 규정에 의해 수장 11줄로, 대원수 상의에 해당됨.
- 육군박물관 소장 대원수 상복은 대한제국 원수부 대원수인 광무황제가 입었을 가능성이 있음

나) 육군 참장 예복

- 구성 및 재질 : 예모 1점, 예복 상의 1점, 대례건장 2점. 흑색용, 청색용
- 예모 : 상반부 세로선 3줄, 하반부 가로선 6줄(1줄 유실). 흑색용, 청색용
- 예복 상의 : 1900년 상복 상의 규정. 수장 7줄. 흑색용, 청색용
- 대례건장 : 1907년 대련건장 규정. 하수(下垂), 금은사 나뭇잎 사이 태극. 금사광직

다) 보병 부령 상복

- 구성 및 재질 : 상복 상의 1점. 흑색용
- 상복 상의 : 1897년 복식 상복 상의 규정. 수장 5줄. 늑골복(肋骨服) 형태로 보병 부령 상복에 해당됨

라) 보병 정위 예복

- 구성 및 재질 : 예모 1점, 예복 상의 1점, 대련건장 2점
- 예모 : 1897년 복식 규정 보병 예모(부위). 상반부 흑색용, 하반부 홍색용, 차양 가죽
- 예복 상의 : 1900, 1907년 복식 규정 보병 정위 예복. 흑색용, 홍색용
- 대례건장 : 1907년 복식 규정. 금사광직. 홍흑 태극무늬 자수.

마) 보병 부위 예복

- 구성 및 재질 : 예모 1점, 예복 상의 1점과 식서 1점, 대련건장 2점, 식대 1점
- 예모 : 1897년 규정 보병 예모(부위). 상반부 흑색용, 하반부 홍색용, 차양 가죽
- 예복 상의와 식서 : 1900, 1907년 복식 규정 보병 부위 예복. 흑색용, 의령장과 수장은 홍색용
- 대례건장 : 1907년 복식 규정. 금사광직. 뽕꽃문양 단추, 태극무늬 자수
- 식대 : 1897년 규정. 홍사광직. 버클 금속

바) 보병 부위 예복·상복, 황석의 유품 일괄

- 구성 및 재질
 - 예모 및 예복 : 예모 1점, 입전모 1점, 예복 상의 1점, 식대 1점, 도대 1점
 - 상복 : 상모 2점, 상복 상의 1점, 소례건장 2점
 - 하의 : 하의 2점, 멜방 1점
 - 외투 : 외투 1점
- 황석의 본관은 장수이며, 1856년 전북 남원에서 출생하였음. 개화파인 권형진(權滢鎭)의 겸인(僉人)으로 있다가 무관으로 관직에 진출함. 1898년 2월 해주지방대

참위로 근무하였고, 그해 12월 평양진위대 부위로 승차하였음. 1906년 10월 14일 탁지부(度支部) 세무관(稅務官)에 임명되었음. 군대해산 이후인 1907년 11월 재무서(財務署) 재무관(財務官)에 임명되었으며, 1908년 1월 강릉재무서장에 임명되었으며, 1910년 재무관으로 퇴직함

- 예모 및 입전모 : 1897년 복식 규정 보병 예모(부위). 상반부 흑색용, 하반부 홍색용, 차양 가죽. 입전모 깃털, 금속.
- 예복 상의 : 1900, 1907년 복식 규정 보병 부위 예복. 흑색용, 의령장과 수장은 홍색용
- 식대와 도대 : 식대는 1897년 규정, 홍사광직, 버클 금속. 도대는 가죽, 고리 버클 금속
- 예복 초상화 : 황석이 보병 부위 예복을 착용하고 장갑을 낀 손에는 예보를 잡고 신발까지 신고 있는 초상화. 예복은 진한 감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흑색일 것임.
- 상모 : 상반부 흑색용, 하반부 홍색용, 차양 가죽. 차양 부분 파손
- 상복 상의 : 1900, 1907년 복식 규정. 보병 부위 상복에 해당됨. 흑색용
- 소례견장 : 장방형 견장. 홍색용, 테두리는 금색 금속사
- 하의와 멜빵 : 1900, 1907년 복식 규정. 흑색용, 봉장은 홍색. 멜빵은 갈색 가죽 버클은 금속
- 외투 : 1895, 1897년 복식 규정. 더블브레스티드형 외투. 흑색용

사) 기병 정위 예복

- 구성 및 재질 : 예모 1점, 예복 상의 1점, 대련견장 2점, 식대 1점
- 예모 : 1897, 1902년 규정 예모(정위). 상반부 홍색용, 하반부 녹색용
- 예복 상의와 서식 : 1900년 예복 상의 규정. 1902년 기병 색에 대한 규정. 홍색용, 영장과 수장은 녹색용
- 대례견장 : 1900, 1907년 규정. 태극, 좌우 각 별 3개 추정됨
- 식대 : 1895년 규정. 홍사광직. 적사인

아) 기병 정위 상복

- 구성 및 재질 : 상복 상의 1점, 소례견장 2점
- 상복 상의 : 1900년 상복 상의 규정. 1902년 기병 색에 대한 규정. 홍색용
- 소례견장 : 1900년 규정. 태극, 좌우 각 별 3개. 홍색용, 금선

자) 헌병 부위 예복·상복(홍철유)

- 구성 및 재질 : 예모 1점, 입전모1, 입전모 1점과 보관함 1점, 예복 상의 1점, 대련견장 2점, 상복 1점
- 헌병 부위 예복·상복의 착용자 홍철유(洪哲裕, 1872~?)임. 홍철유의 본관은 남양이며, 일제 강점기 유명한 시인 홍사용(洪思容)의 아버지임. 1898년 6월 대한제국 무관학교에 입학하여, 1900년 1월 졸업과 동시에 육군 참위에 임명됨. 1902년 2월 6품 통훈랑(通訓郎)으로 승차되었고, 1903년 시위대 제3대대에서 근무하였음.
- 1904년 7월 육군 헌병 참위에 임명되었으며, 그해 9월 헌병 부위로 승차하였음. 육군박물관에 홍철유의 광무 9년(1905) 11월 5일자 「칙명(勅命)」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6품 승훈랑(承訓郎) 헌병대 부위에서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예모와 입전모, 보관함 : 1897, 1900년 규정 예모(부위). 상반부 다색용, 하반부 백색용, 입전모 깃털, 보관함은 종이

- 예복 상의 : 1900년 예복 모자, 예복 상의 규정. 다색용, 백색용
- 대례견장 : 1900, 1907년 규정. 태극(없음), 좌우 각 별 2개 추정됨
- 상복 상의 : 1900년 상복 규정. 차색용

차) 군의 부위 예복

- 구성 및 재질 : 예모 1점, 입전모 1점, 예복 상의 1점, 대례견장 2점
- 예모와 입전모, 보관함 : 1907년 규정 예모(부위). 상반부 흑색용, 하반부 심녹색용, 입전모 깃털
- 예복 상의 : 1907년 예복 모자 규정. 흑색용, 심녹색용
- 대례견장 : 1900, 1907년 규정. 부위태극 좌우 각 별 2개, 정위태극 각 별 3개
- 상복 상의 : 1900년 상복 규정. 차색용

3) 문헌자료

- 육군박물관, 『육군박물관 소장 군사 복식』, 2013.
- 육군박물관, 『육군박물관 근·현대 대표 유물』, 2017.
- 이경미·노무라 미찌요·이지수·김민지, 「대한제국기 육군 복장 법령의 시기별 변화」, 『한국문화』 83, 2018.
- 이경미·노무라 미찌요·이지수·이민정, 「대한제국 1901년 군악대 복식 재현을 위한 고증과 디자인 연구」, 『服飾』 68-5, 2018.

4) 기타

- 육군박물관에는 정석용(鄭錫溶, 1877~1951)의 헌병 부위 상복도 소장되어 있음. 그러나 육군박물관에 홍철유의 헌병 부위 상복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경우 굳이 중복 등록할 필요성이 없음. 그리고 정석용의 경우 일제강점기 중추원 참의, 충청북도 도평의회원, 옥천금융조합장 등으로 친일행위가 있는 인물임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육군박물관에는 대원수 상복에서부터, 장관급인 참장·부장, 영관급인 부령, 위관급인 부위·정위의 예복과 상복, 그리고 보병·기병·헌병·군의 등 병과별로도 다양한 군복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필요가 있음
 - 이도재 부장 예복(1건 8점)은 2013년도에 국가등록문화재 제543호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육군박물관 소장 대한제국 군복 전체를 일괄 등록 되면 총 15건 59점이 됨

6) 보존관리 및 활용 착안사항

- 육군박물관에 소장된 대한제국 육군 군복은 대체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만, 일부 부속물은 파손된 상태에서 보존되어 원형 복원 필요함

<사진>

1. 대원수 상복



2. 육군 참장 예복



3. 보병 부령 상복



4. 보병 정위 예복



5. 보병 부위 예복



6. 보병 부위 예복·상복(황석) 등

○ 보병 부위 예복(황석)



○ 보병 부위 상복(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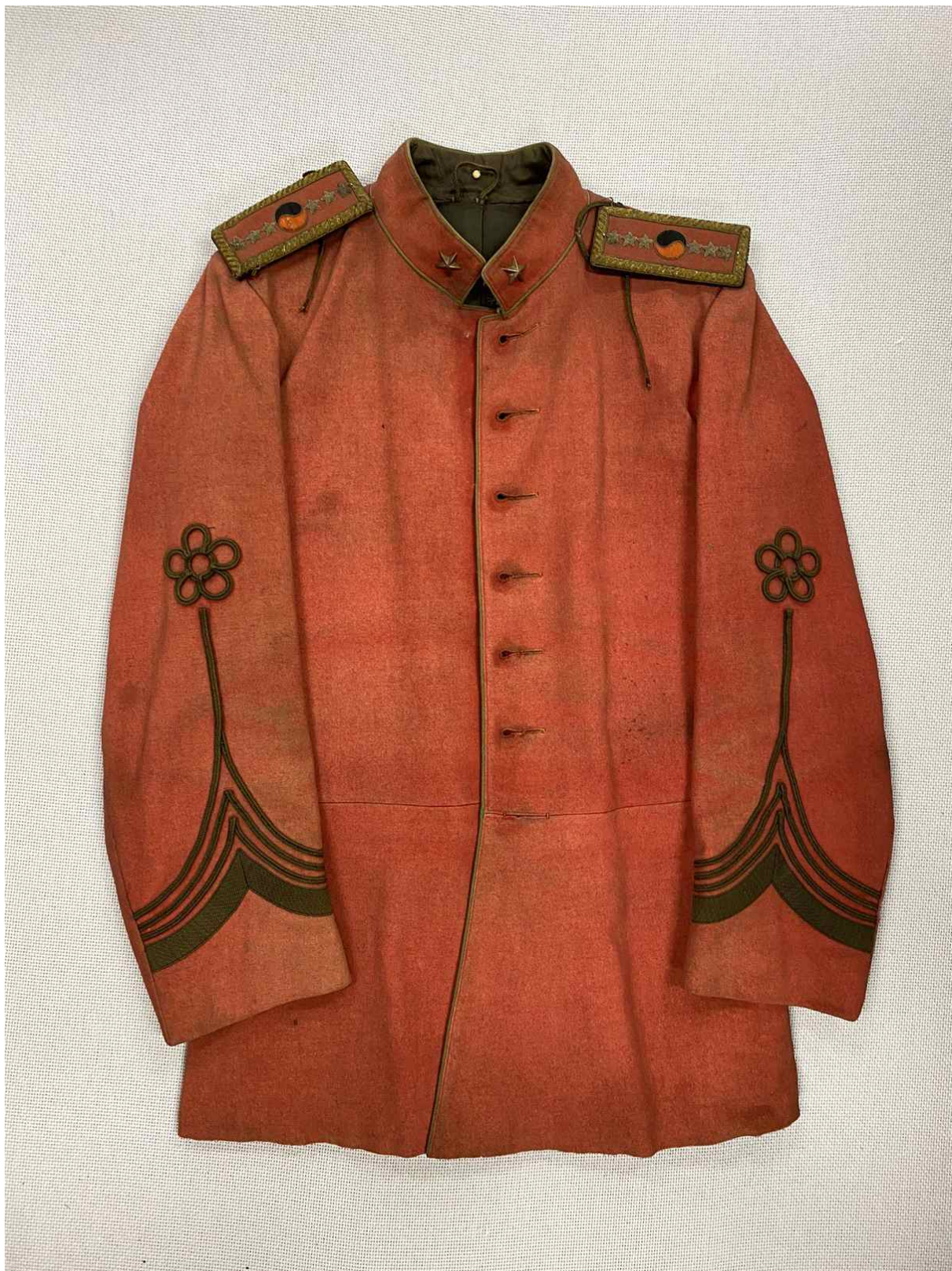
○ 보병 부위 외투(황석)



7. 기병 정위 예복



8. 기병 정위 상복



9. 헌병 부위 예복·상복(홍철유)

○ 헌병 부위 예복(홍철유)



○ 헌병 부위 상복(홍철유)



10. 군의 예복



6 「대한제국애국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대한제국애국가」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0.7.28.)를 거쳐 등록 예고한 「대한제국애국가」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크기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대한제국 애국가	1건 1점	30.5 × 24cm	1902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9.7.26.) : 문화재 등록 신청(서울특별시→문화재청)
 - ('20.2.13.)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5) 등록예고 : '20.8.12.~9.10. (30일간) *의견 없음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 ('20.2.13.)
 - '대한제국애국가'는 대한제국의 군악대 지휘자로 초빙되어 온 독일음악가 프란츠 폰 에케르트(Franz von Eckert, 1852~1916)가 1902년에 작곡한 것으로 한국에서 작곡된 최초의 서양음악 작품이자 애국가로 세계에 대한제국이 독립국가임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으며, 대외 의식용(儀式用)이자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양하였음. 따라서 문화재 등록 가치가 있음.

- 다만, 국내전본은 2부정도 알려져 있으며, 인쇄본으로 외국에 많은 수량이 보급되었으므로 국내로 역유입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향후 동일한 유물의 문화재 검토 시에는 역사성을 비롯한 엄격한 등록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20.2.13.)

- 대한제국애국가는 대한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육군시위군악대 지도자로 내한한 독일인 프란츠 엑케르트(Franz Eckert)가 정부의 위촉으로 1902년 (光武大年)에 작곡한 것으로, 당시의 군악대 편성에 맞는 총보(Score)로 최신식 인쇄술(5도)을 이용하여 발문과 함께 인쇄한 것임. 해당 유물은 엑케르트가 한국의 아악과 민속음악을 자주 듣고 그곳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적 정서가 물신한 국가를 창작한 것으로, 예술적·역사적·문화적·사회적인 가치로 보아 국가등록문화재로서 등록이 절실함.

○ ○○○('20.2.13.)

- 대한제국애국가는 프로이센 왕립 음악감독 프란츠 에커트가 한국적 모티브 (Motive)로 작곡하고 민영환이 발문을 적은 유물임. 대한제국애국가는 제국주의 열강의 국력(영토) 경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 위해 손색이 없는 근대국가라는 것을 보여주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적 구심점을 구축하며, 나라의 주권을 지키려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외교적 노력을 담고 있으므로 등록 가치가 있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대한제국애국가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 소유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4. 조사자 의견('20.2.13.)

<○○○>

1) 개요

- 대한제국의 군악대 지휘자로 초빙되어 온 독일음악가 프란츠 폰 에케르트(Franz von Eckert, 1852~1916)가 1902년에 작곡한 대한제국 애국가의 악보 및 우리말 가사.

2) 주요 내용 및 특징

- 1896년 독립협회 결성 이후 약 10여 종의 애국가 가사들이 독립신문에 소개되었으나 그것이 어떤 곡조로 불렸는지는 알 수가 없음. 대한제국 시기에 와서야 국가에서 정식으로 애국가를 제정하게 되었음. 곧 고종황제는 애국가의 필요성을 느끼고 1900년 12월에 군악대 설치를 법령으로 공포한 뒤, 일본에서 23년간 서양 음악을 보급한 적이 있던 독일음악가 프란츠 폰 에케르트(Franz von Eckert)를 초빙하였음. 에케르트는 1901년 2월 7일에 50인조 정규 군악대의 각종 악기를 가지고 내한하였고, 이듬해인 1902년 7월 1일에 한국의 전통적 음계를 바탕으로 한 『대한제국 애국가』를 완성하였음. 이 애국가는 같은 해 8월 15일에 『대한제국 애국가』로 공포되었고, 에케르트는 그 공로로 태극 3등급 훈장을 받았음.
- 작곡가로 에케르트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에 온 외국인 중 유일한 서양음악가이자 황실 소속의 양악대 지휘자였다는 점,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를 서양식으로 편곡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한국 부임 후 한국의 전통음악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음.
- 『대한제국 애국가』는 읍셋판으로 인쇄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악보집은 표지를 포함하여 모두 7면으로 제작되어 있음. 앞표지에는 『大韓帝國愛國歌』가 오른쪽부터 가로쓰기로 쓰여져 있음. 무궁화와 태극문장 아래에는 독일어로 “프로이센 궁전음악 감독 프란츠 에케르트가 1902년에 작곡한 한국 풍 주제에 의한 『대한제국 애국가』”라는 내용의 독일어 원문이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음.

KAISERLICH KOREANISCHE
 NATIONALHYMNE
 NACH KOREANISCHEN MOTIVEN
 VON
 FRANZ ECKERT
 KÖNIGLICH PREUSSISCHEN MUSIK DIREKTOR
 1902



<사진1> 『대한민국 애국가』 표지와 악보면

- 그 아래에는 월계수와 수금(豎琴, 하프)을 배치하고 청홍실로 묶어 장책되어 있음. 본문 1면에는 당시 원수부(元帥府) 회계국 총장(會計局 總長) 육군부장(陸軍副將) 정1품(正一品) 훈1등(勳一等) 민영환(閔泳煥, 1861~1905)의 애국가 제정 경위를 밝힌 한자로 된 서문이 있음. 2면에는 한글 가사와 이를 독일어로 번역한 가사가 있으며, 3-6면에는 관악합주용 총보가 실려 있음.
- 그런데 『대한제국 애국가』의 작사자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음. 곧 김원모 교수가 “<대한제국 애국가>의 작사자는 민영환”(『동아일보』 1987년 2월 24일)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음. 그래서 “나라의 운명을 충군애국(忠君愛國) 사상으로 일으켜 세우려 했던 충정공의 애국심이 깃들어 있다.”고도 애국가의 해제에 소개되어 있기도 함. 그러나 악보나 각종 사료에도 작사자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민영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가사는 다음과 같음.

상대는 우리 황대를 도으스
성수무강흐스
히옥듀를 산갓치 뵈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쫘치스
오천만세에 복녹이
일신케 흐소서
상대는 우리 황대를 도으소서

현대어)

상제(上帝)는 우리황제(皇帝)를 도우사 성수무강(聖壽無疆)하사 해옥주(海屋籌)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威權)이 환영(寰瀛)에 떨치사 오천만세(於千萬歲)에 복록(福祿)이 일신(日新)케 하소서 상제(上帝)는 우리황제(皇帝)를 도우소서

- 아악조(雅樂調)의 한국적 음률을 가진 이 애국가는 3/4박자의 34마디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악보는 관악 합주용 총보만 전하는데다 악보집에는 가사가 악보 밑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악보와 가사가 따로 따로 되어 있어 실제로 그 가사를 어떤 음으로 불러야할지는 알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하겠음. 다행히 최근에 「대한제국애국가 및 근대음악 역사자료발굴, 복원사업」에서 민경찬 교수가 가사와 악곡이 부합되게 구현되었음.
- 색도 5도의 화려한 악보집으로 제작된 『대한제국 애국가』는 우방 50여 개국과 전국에 배포되었고, 1904년에 학부(學府)에서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지시(『황성신문』, 1904년 5월 13일)되었음.
- 한편 이 애국가의 작곡가에 대한 약간의 이설이 있음. 곧 이경분과 헤르만 고체프스키는 “프란츠 에케르트는 대한제국 애국가의 작곡가인가?”라는 논문에서 『대한제국 애국가』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대한제국애국가는 독일음악인 프란츠 에케르트가 1901년 또는 1902년에 작곡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호머 헐버트가 채보하여 발표한 Korean Vocal Music중의 “parami punda(바람이 분다)” 라는 노래가 에케르트의 애국가 멜로디와 매우 흡사하다. 그렇다면 에케르트의 애국가는 “parami punda(바람이 분다)” 에다 약간의 수정을 더해 대한제국애국가로 재탄생하였다고 확신한다. 곧 헐버트가 채보한 “parami punda(바람이 분다)” 를 에케르트가 애국가를 만드는 데 선택함으로써 이 노래는 아리랑과 달리 국가라는 서양음악 장르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에케르트의 대한제국애국가가 지닌 의미이다 한국의 전통 민요를 바탕으로 대한제국애국가를 만든 에케르트의 시도는 대한제국의 근대화도 자국의 전통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한다. 또한 한국 전통 민요가 서양 음악으로 바뀌는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에케르트의 애국가는 근대화를 추구하던 초창기의 음악적 모더니즘을 그대로 보존한 증거물로서 전통음악의 근대화 과정을 분석하는 중요한 음악사적 자료일 것이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손상된 부분을 보존처리하여 원형과 유사하게 복원하였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국립기관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으로 보존관리 환경은 우수함.

5)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동일유형의 비교대상 기 등록문화재는 없음.

6) 등록가치의견

- 대한제국 애국가는 한국에서 작곡된 최초의 서양음악작품이자 애국가로 세계에 대한제국이 독립국가임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음. 또 대외 의식용(儀式用)이자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양하였음.
- 이 애국가의 국내전본은 현재까지 2부 정도 알려져 있음. 그러나 인쇄본으로 제법 많은 수량이 외국에 보급이 되었으므로 향후 국내로 역유입될 가능성이 많음. 그런 점에서 향후 동일한 유물의 문화재 검토 시에는 역사성을 비롯한 엄격한 등록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마침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소장의 이 애국가는 태극문양 부분에 「윤치호·YUNCHIHO」라는 도장이 찍혀 있음. 윤치호(尹致昊, 1865~1946)의 옛 소장품으로 국내 전본임이 확인됨.



<사진2> 「윤치호·YUNCHIHO」 印

7) 기타

- 『대한제국 애국가』

8) 참고문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품 해설집). [2016]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달의 소장자료(2016.12.01)
- 『제138회 서울옥션 미술품경매』. 2015.12.
- 민경찬, “<대한제국 애국가>와 그 변모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사학회 학술발표자료』, 2010.
- 이경분, 헤르만 고체프스키, “프란츠 에케르트(Franz Eckert)는 <대한제국 애국가>의 작곡가인가? - <대한제국 애국가>에 대한 새로운 고찰”, 『역사비평』, vol.101(2012).

<○○○>

1) 현상

- 석판(외국과의 문호개방 이후 1800년 초 독일과의 수교로 독일의 석판 인쇄기술 도입 후 정부인쇄기관에서 5도 색채로 정교하게 인쇄된 초판본

2) 내용 및 특징

- 1902년(光武大年)에 공포되고 인쇄됨. 당시 대한제국 육군시위군악대 지도자로 내한한 독일인 프란츠 엑케르트(Franz Eckert)가 정부의 위촉으로 작곡한 국가를 당시의 군악대 편성에 맞는 총보(Score)로 최신식 인쇄술(5도)을 이용하여 발문과 함께 인쇄. 한자로 애국가로 표기되었지만, 실체는 국가(國歌)임.
- 현재 국내에는 엑케르트 연구가인 전 해군 군악대장이었던 남궁요열씨 후손이 소장하고 있는 진본이 있지만, 보존상태가 온전치 못하며, 금번 조사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소장의 진본이 가장 좋은 상태로 보존되었음

3) 문헌자료

- 예명의 동서음악, 장사훈 저 보진제간, 1978
- 한국근대음악사 이상만·이유선 공저, 예술원간, 1982
- 한국양악백년사 이유선 저, 음악춘추사간, 1985
- 한국근대음악사 노동은 저, 한길사, 1995

4) 기타

- 국립역사박물관에서 경매를 통해서 구입한 것으로 출처가 확실하며(전 소장자 윤치호) 소장했던 분의 역사적인 기록 등을 감안할 때 가장 확실한 진본으로 인정됨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가. 군악대 설립 배경

- 한 나라(국가, 정부)의 상징성을 표하는 것 중에서 국기, 국가(國歌), 국화(國花)는 3요소의 하나로 말함. 대한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국가는 근대 국가로서의 탈바꿈을 상징하는 표상이었음.
- 1896년 정부는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특사를 파견함. 당시 민영환(閔泳煥) 일행은 대관식의 장관을 참관하고, 특히 군악대의 창설을 고종 황제께 건의함.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인 고종황제는 군악대 설치의 구상을 다시 주한 독일공사(영사) 바이파르트에게 의뢰함.
- 이러한 구상의 결론에 따라 군악대를 육군시위대와 기병대에 부설하기로 결정하고, 정부의 예산을 확보함(실제는 시위대에만)

나. 프란츠 엑케르트(1852.4.5 ~ 1916.8.6.) 군악대 지도자 영입

- 때마침 일본에서 해군군악대의 지도자로 활약했던 독일인 프란츠 엑케르트가 20년간 일본 근무를 마치고 독일로 귀임한다는 정보를 듣고, 독일영사와 일본영사의 도움을 받아 대한제국의 초대 지도자로 초빙할 것을 결정함. 당시 악기 구입비와 지도자에 대한 보수는 막대한 금액이었으며, 어느 지도자가 부임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 외교의 중대한 사안이었음.

다. 엑케르트에게 국가작곡 의뢰

- 프란츠 엑케르트는 프러시아 왕국 음악감독이라는 칭호가 붙어있었음. 엑케르트는 드레스덴과 부레스라후에서 음학과 법학을 수학한 사람으로 음악은 오보에와 작곡을 전공하였고, 28세 나이에 독일의 해군 군악대장에 취임하였음. 29세에 일본의 해군 군악대 지도자로 고빙되어서 군악대는 물론 일본의 초대음악학교 취조케라는 곳의 교수를 역임했고, 일본 국가 “기미가요”를 관악대용으로 편곡한 경험도 있고 일본 해군 군악대를 세계적 반열로 부상시켰다는 점을 참작하여 그에게 대한제국국가를 작곡 의뢰하였음.

라. 한국적 정서가 물신한 대한제국국가

- 엑케르트가 악기를 가지고 한국에 도착한 것은 1901년 2월 19일이었음. 엑케르트는 서울 종로 파고다 공원 옆 군악대 양성기관에서 약 6개월간 훈련시켜 훌륭한 군악대를 육성시켰음. 도착하자마자 국가 작곡을 의뢰받고 한국의 아악과 민속음악을 자주 듣고 그곳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적 정서가 물신한 국가를 창작하였음.
- 동서음악의 정서를 융합시켜 한국 창작의 새길을 열어놓은 기념비적인 작품임.
- 엑케르트는 국가 외에 행진곡, 무곡과 경축 음악을 많이 작곡했으나, 6·25전쟁 중 그 악보가 소실되고 엑케르트가 한국에서 작곡한 작품은 유일하게 대한제국 국가만이 남게 되었다. 예술적인 척도로 보아서도 매우 수준높은 걸작으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인 가치로 보아 근대문화재로서 등록이 절실하다.

<○○○>

1) 현상

- 가) 앞표지의 일부 가장자리와 뒤표지가 훼손된 것을 복원하여 청홍의 새 색실로 묶었음.
- 나) 1968년 8월 7일 기록에 의하면 가로가 235mm 세로가 308mm인데 거의 같음.
- 다) 보존 상태가 좋아 앞표지의 색도 5도(CMYK, 금색)를 확인할 수 있었음.
- 라) 내부는 낙장이 없이 원형(原形) 그대로임.

2) 내용 및 특징

- 가) 앞표지는 색도 5도로 인쇄하였으며 제목은 동양의 전통에 따라 우측부터 ‘大韓帝國愛國歌’로 썼음.
- 나) 태극 주위에 네 송이의 무궁화를 배치하고 금색을 들렀는데 대한제국의 자웅장(紫鷹章)과 유사함.
- 다) 프로이센 왕립 음악감독 프란츠 에커트가 한국적 모티브(Motive)로 작곡한 대한제국애국가 1902. (Kaiserlich Koreanische Nationalhymne Nach Koreanischen Motiben von Fanz Eckert, Königlich Preussischem Musikdirektor.)
- 라) 명예 영광의 상징인 월계수와 고대 악기인 수금(豎琴 Lyra)을 배치하고 여섯 가닥 청홍실로 묶었음.



복원 전 사진



광무 4년(1900년) 4월 17일 제정된
무공훈장인 자웅장

마) 2면 빈면, 3면 원수부 회계국총장 육군부장(副將 중장) 민영환이 쓴 서문

(국역)

무릇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데 언어와 문자는 비할 바가 못 되며 우리나라에 군악이 있는 지는 아마도 이미 오래되었다. 삼가 생각해보면 우리 황제 폐하께서는 대업을 이루시고 온갖 제도를 유신하셨으며 한층 더 용정(戎政)에 마음을 쓰셨으며 군악에도 역시 그러했다.

신보(新譜)를 위해 각국의 성악집을 서로 살피도록 명을 내려 성률(聲律)에 밝은 독일교사 에커트(에계터譽啓攄)는 애국가를 담아낼 궁치(宮徵)를 자세히 살피 정해 팔음(八音)으로써 작곡하여 팔풍(八風)으로 행하니 무릇 우리 군인들이 노래를 부르면 그 의로움을 능히 알고 굳세고 짙직한 그 소리가 용감하게 떨쳐 일어나 적개심을 품게 하고 온화하고 의젓한 그 소리가 행실을 가다듬어 화합할 생각을 하고 모두 다 기세가 오르게 용기를 북돋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충군애국심(忠君愛國心)이 몽클몽클 생기게 하는 음악의 도가 이처럼 있다.

무릇 영환은 처음부터 악보를 보는 것을 익히지 못하였고 또 악기 연주를 배우지 못한 것을 무릅쓰고 군에 참여하여 직함을 맡겨 이 일을 알게 되었다. 악보가 이미 완성되어 간행하여 그 일을 기록하여 책에 서문을 쓴다.

원수부 회계국총장 육군부장 정1품 훈1등 민영환

(원문)

“夫聲樂者感動人心有非言語文字之可及我國之有軍樂蓋已久矣洪惟我皇帝陛下中恢大業百度維新尤拳、於戎政至於軍樂亦 命參互各國聲樂輯爲新譜令 德國教師譽啓攄明於聲律者審定宮徵被之以愛 國之歌八音以譜八風以行凡我軍人詠其歌而知其義其聲壯厲則思奮勇敵愾其聲雍容則思礪行和衆舉踴躍鼓舞不知其忠愛之心油然而生聲樂之道有如是夫泳煥初不習於附注又不學於操縵而以冒參軍啣預聞是事譜既成繡梓記其事而弁其卷
元帥府會計局總長陸軍副將正一品勳一等閔泳煥”

바) 4면 궁체로 쓴 한글 가사와 독일어 역문(譯文)

<p>(한글가사) “상대는 우리 황제를 도으스 성슈무강흐스 히옥듀를 산갓치 밖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스 오 천만세에 복녹이 일신케 흐소서 상대는 우리 황제를 도으소서”</p>	<p>(독일어 역문) Gott beschütze unsern Kaiser, Dass sich seine Jahre mehren Zahllos wie der Sand am Strande, Der sich hoch zur Düne häufet, Dass sein Ruhm sich leuchtend breite Weithin über alle Welten, Und das Glück des Herrscherhauses Tausendmal zehntausend Jahre Neu mit jedem Tag erblühe. Gott beschütze unsern Kaiser.</p>
<p>(현대어) 상제(上帝)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聖壽無疆)하사 해옥주(海屋籌)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威權)이 환영(寔瀛)에 떨치사 오! 천만세에 복록(福祿)이 일신(日新)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p>	<p>(국역) “하느님 우리 황제를 보호하소서. 사구(砂丘)에 높이 쌓인 해안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만세소서. 멀리 온 세계에 명예가 빛나며 뻗치소서. 그리고 황실의 행복이 천세 만세토록 매일 새로이 꽃피소서. 하느님 우리 황제를 보호하소서.”</p>

- 가사는 7행 9자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국 국가 God Save the King의 영향을 많이 받아 7행과 같고 아홉 자는 동양의 음양 사상에서 1, 3, 5, 7, 9 홀수는 양(陽)의 수며 그중에 9는 가장 길(吉)하며 하늘의 뜻을 나타내고 방위는 8방의 9번째는 점(點)으로 중심을 뜻한다. 이처럼 가장 길하고 중심이고 하늘의 힘을 뜻하는 9자로써 국가의 위엄(威嚴)을 나타내고 있음.

사) 다른 한 종은 순서는 모두 같으나 한글 가사를 모르는 외국인을 위하여 독일어로 음역(音譯)한 가사 밑에 독일어 역문(譯文)이 있음.

4면 독일어식 음역 가사

“Szang tschä nan uri hwang tschä rüll to u sza. Szöng szu
mu kang ha sza hä ock tschu rüll szan katt tschi sa u
si ko üi konni hwan jiong ä düll tschi sza o tschün man se e
pocknocki ill sin kä ha szo sza.
Szang tschä nan uri hwang tschä rüll to u szo sza.

Gott beschütze unsern Kaiser,
Dass sich seine Jahre mehren
Zahllos wie der Sand am Strande,
Der sich hoch zur Düne häufet,
Dass sein Ruhm sich leuchtend breite
Weithin über alle Welten,
Und das Glück des Herrscherhauses
Tausendmal zehntausend Jahre
Neu mit jedem Tag erblühe.
Gott beschütze unsern Kaiser.”

아) 5면에서 8면까지는 총보(總譜)로 플루트 피콜로 오보에 클라리넷 등 18가지 악기에 의한 18단 3/4박자 34마디로 되어있음. 제1소절에서 16소절까지는 Andante(느리게) MM J = 112, 제17소절에서 제25소절까지는 Allegretto(조금 빠르게) MM J = 64, 제26소절부터는 a tempo(원래의 빠르기로), 제30소절부터 rit(점점 느리게), 제32소절부터는 dim(점점 여리게)으로 되어있고 9면과 10면은 뒤표지로 빈 면이며 앞표지와 붙어 있음.

자) 악보는 가사와 악곡이 분리되어 있어 지금까지는 완벽한 구현을 하지 못하였으나 2018년 대한제국애국가를 수록한 『악보(樂譜)』라는 교과서 발견으로 서울시 근대역사 자료수집 지원사업인 「대한제국애국가 및 근대음악 역사자료발굴, 복원사업」에서 민경찬 교수님이 가사와 악곡이 부합되게 구현하였음.

3) 문헌자료 : 줄고

- 「소민과 군주의 나라에서 부른 대한제국애국가」 최창언 『황실학논총』 제8호 한국황실학회 2007
- 「대한제국애국가와 시위군악대의 변천」 최창언 『황실학논총』 제9호 한국황실학회 2007
- 「시위군악대와 대한제국애국가」 최창언 『음악저널』 vol. 241~250, 252, 253, 255 음악저널 도서출판작은우리 2010. 1~10, 12, 2011. 1, 3(재 게재)
- 「대한제국의 시위군악대와 대한제국애국가에 관한 연구」 최창언 『대한제국애국가 및 근대음악 역사자료 발굴, 복원 연구사업 연구논문집』 (사)대한황실문화원 2018

4) 기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에 의하면 2015년 경매를 통하여 샀으며 현재 대구 지역에 존재하는 악보와 비교하여도 보존 상태가 조금도 손색없이 양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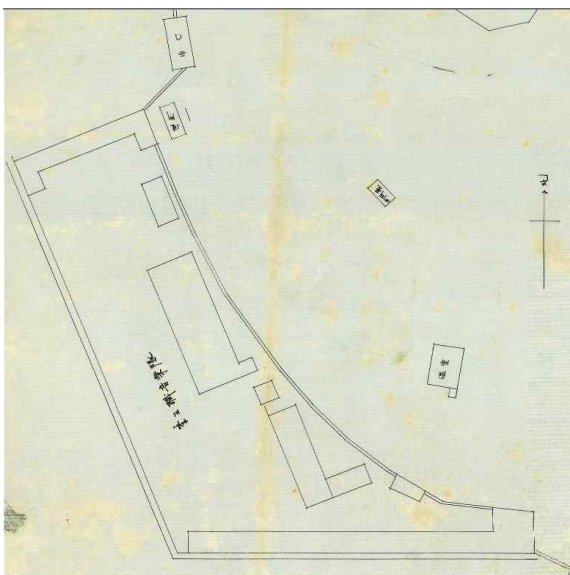
5) 문화재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충정공 민영환(閔泳渙 1861. 7. 25 - 1905. 11. 30)은 건양 원년(1896년)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Tsar Nikolai II, Aleksandrovich 1868. 5. 18 - 1918. 7. 17) 차르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4월 1일 한성을 출발 캐나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서양 각국을 거치면서 살펴본 결과 나라를 강하게 하는 데는 육·해군을 육성하고 그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군악대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사행(使行)을 마친 뒤 귀국하여 10월 21일 고종(高宗)께 보고함.
- 사행 중 군대를 교련시킬 군사교관과 군악대관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고 군악대 설치를 위한 악기를 3,000루블이 넘는 거금을 들여 샀으나 러시아는 군악대관을 파견치 않아 군악대를 조직하지 못함. 다시 건양 2년(1897년) 5월 5일 2차로 군악대관 3명을 포함한 21명의 군사교관 파견을 요청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일제(日帝)의 방해로 나팔수 2명과 교관 11명만 파견하여 군악대를 설치하지 못함.
- 그러나 대한제국은 군악대 설치를 위하여 광무 4년(1900년) 4월 1일 부임한 주한 독일영사 바이퍼트(Heinrich Weipert 와이벽瓦以壁 1855. 6. 12 - 1905. 4. 4)를 통하여 일본에서 20년간 음악을 가르치고 귀국한 프란츠 에커트(Franz Eckert 1852. 4. 5 - 1916. 8. 6)를 초빙하는 서명을 8월 8일 하고 12월 19일 1개 대가 51명으로 구성된 군악대를 시위(侍衛)연대와 시위기병대에 각각 1개 대씩 설치하는 건인 칙령 제59호를 발표함.
- 프란츠 에커트는 독일에서 치머만(Zimmermann)사 악기 일체를 구입하여 광무 5년(1901년) 2월 19일 한성에 도착하여 지금의 정부서울청사 자리인 시위 2대대 연병장에 악기를 풀어 놓고 기념사진을 찍고 곧바로 군악대원 선발에 착수하여 3월 1일부터 음악교육을 해 9월 7일(음력 7월 25일) 고종황제의 생신인 만수성절(萬壽聖節)에 경운궁(慶運宮 덕수궁) 경운당에서 서양음악 2곡을 연주함.
- 대한제국 애국가는 고종황제께서 광무 6년(1902년) 1월 27일 조령(詔令)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 움직이고 선비의 기개를 가다듬어 충의를 위해 떨쳐 일어나고 애국하는 데에는 국가의 악곡과 노래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마땅히 제정할 터이니 문관이 지어 바치라(詔曰 感發人心 淬勵士氣 以之奮忠 以之愛國 未有過於聲樂國歌之節奏 宜有制定 令文任撰進)”하여 문관이 작사를 하고 프란츠 에커트가 작곡하여 민영환이 발문을 붙여 서서(西署) 용산방 전환국 인쇄과에서 7월 1일 발행하여 의정부 의정(議政) 윤용선이 원수부 군무국총장 이종건과 궁내부대신임시서리 의정부 찬정(贊政) 윤정구의 조복(照覆)을 받아 8월 15일 관보에 게재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흥정(欽定) 국가가 됨.
- 대한제국은 고종황제의 즉위 40년 경축 예식인 ‘어극 사십년 칭경예식’을 기회로 지금까지 이룩한 근대화 성과 등을 과시하기 위하여 수교국 특사들을 초청하여 광무 6년(1902년) 10월 18일 경희궁에서 보병 2개 연대, 기병 1개 중대, 포병 1개 중대 등 3,370여명으로 구성된 임시혼성여단 관병식에서 고종황제의 기영(祇迎 맞이함)과 기송(祇送 보냄)에 경례호(敬禮號)로 대한제국애국가를 3회 연주할 예정이었는데 국가(國歌)를 경례호로 쓰는 예는 영국의 예식과 같음.

- 대한제국애국가는 ‘어극 사십년 칭경예식’ 관병식에서 연주될 예정이었으며, 제국주의 열강의 국력(영토) 경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근대국가라는 것을 보여주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적 구심점을 구축하여 나라의 주권을 지키려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외교적 노력을 담고 있으므로 그 등록 가치가 있음.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가) ‘대한제국애국가’ 악보는 이미 복원 처리를 하여 더는 정비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나) 탑골공원은 광무 6년(1902년) 10월 18일 열릴 예정이던 고종황제 즉위를 경축한 어극40년칭경예식을 기회로 독립국으로서 면목을 일신하고 그것을 유지할 힘을 키우는 자세로 서양의 도시 구도와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조성된 것으로 시위군악대(侍衛軍樂隊)는 공원의 서남쪽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학교이며 군악대 악사(樂舍)인 곳에서 16년 반을 주둔하며 팔모정(八모亭)에서 연주회를 열었음.
- 다) 탑골공원이 광무 8년(1904년) 말에 완공되자 대한제국은 광무 10년(1906년)부터 여름철 매주 목요일 관민(官民)들을 위하여 시위군악대가 연주회를 열어 여러 곡의 서양음악을 연주한 후 맨 마지막에는 대한제국애국가를 연주하였으며 일제에 강점된 이후에도 이왕직 양악대로서 탑골공원에서 연주회를 열어 1919년 9월 12일 해산될 때까지 이어갔음.
- 라) 해산되자 전 군악대장 백우용(白禹鏞 1883. 6. 1 - 1930. 4. 22)은 시위군악대의 맥이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남은 대원 이십여 명을 이끌고 1919년 11월 26일 ‘경성악대’를 조직하여 1930년 사망할 때까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탑골공원 및 여러 곳에서 경성부 후원으로 부민위안납량음악회를 매년 개최하였음.
- 마) 지금의 대한민국 국력은 대한제국 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로 신장하였으므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더는 잊히기 전에 탑골공원과 시위군악대 악사(樂舍)의 원형(原形)을 복원하고 매주 목요일 팔모정에서 국민을 위한 연주회 전통을 되살렸으면 함.



탑골공원 서남쪽에 있는 시위군악대 악사(樂舍) 광무 10년(1906년) 10월 6일 ‘광무십년연주기념, 촬영 평면도. 국가기록원

7. 「동해 북평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강원도 동해시 소재 「동해 북평성당」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0.7.28)를 거쳐 등록 예고한 「동해 북평성당」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동해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동해 북평성당」
 - 소재지 : 강원도 동해시 오일장 2길 16
 - 소유자 : (재)천주교 원주교구 유지재단
 - 수량 : 1동(본당)
 - 건축면적 : 369m² / 현황측량
 - 건립시기 : 1959년
 - 구조 : 본당(조적조 추정)
-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08.7.16.) : 등록문화재신청(본당) (동해시 → 문화재청)
 - ('09.11.25.)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09.12.3.) : 2009년 제6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보류'
 - 가치 있으나 시급성 미흡
 - ('19.5.30.) : 등록대상 추가(사제관) 및 재신청(동해시 → 문화재청)
 - ('20.6.5.) : 관계전문가 추가현지조사 실시
 - ('20.7.28.) : 2020년 제6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조건부 가결'
 - 본당만 문화재로 등록하고 사제관은 건축적 내력 등에 대한 추가 조사필요
- (5) 등록예고 : '20.8.12. ~ 9.10. (30일간) *의견 없음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 ('20.6.5)

- 외국선교사의 흔적이 지역의 삶과 성당건축군에 잘 남아있는 사례일뿐 아니라, 건축양식과 기술사적 측면에서 가치가 커서 등록될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됨. 특히 문화재 등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리를 최소화하여 유지관리해온 덕분에 원 모습이 잘 남아있지만, 시급히 보수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곳이 많아 성당뿐 아니라 사제관과 수녀원도 함께 등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 ○ ('20.6.5)

- 건축적 의미에서 전후 복구시기 시멘트벽돌을 사용하여 절제된 고딕양식의 표현하고 있으며, 성당건축이 갖는 형태와 공간의 구성을 충실하게 반영한 성당으로 건축적 가치가 있음
- 건립 당시의 형태와 구조 등 외형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특히 지붕의 목조지붕틀과 창문 부재 등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함
- 종합적으로 지역의 역사적 맥락을 지역민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건축적 측면에서 교회건축이 갖는 양식적 특징과 구조 및 형태 등이 잘 남아있어 등록문화재로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사료됨.

○ ○ ○ ○ ('20.6.5)

- 북평성당을 비롯해 강원 영동지역 천주교 본당인 삼척 성내동 성당, 강릉 임당동 성당, 동해 묵호성당 등의 건축적 내용들은 대동소이하며, 특히 이번에 함께 등록 신청한 동해시 북평성당과 묵호성당의 본당 건물은 건물의 평면과 형태에서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거의 동일하게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음. 다만, 건물의 보존, 관리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북평성당의 경우 본당 건물이외에도 사제관, 수녀원 등의 일련의 시설들이 현존하고 있으며, 특히 본당 건물에 사용된 목재 창틀과 내부 천정 마감재 등 역시 최초 건립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
- 사제관 건물은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정확한 건축적 내력 등을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등록 가치를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0명, 부결 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동해 북평성당 (구) 동해 북평성당
2. 용 도 : (현) 성당(종교시설) (원) 성당(종교시설)
3. 소 재 지 : 강원도 동해시 오일장 2길 16
4. 소 유 자 : (재)천주교원주교구유지재단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28)
5. 시설물 개요
 - 설계 : 골롬반회 신부
 - 시공 : 미상
 - 건축구조 : 본당(조적조 및 목조트러스)
 - 제작년도 : 1959년
 - 수량 : 1동(성당)
 - 면적(건축물대장) : (성당) 369m²
6. 조사자 의견('20.6.5)

<○○○>

1) 개요

- 동해 지역은 1930년대 경기도에서 이주해 온 천주교인들이 쇠운동 옹기골에 정착하면서 천주교인의 마을이 형성되었다. 묵호 지역은 1931년 하경연(요셉)이 이주하면서 천주교가 전래되었으며, 1934년에 교우촌이 형성되었고, 1940년 강릉 임당동 본당 관할 공소가 만들어졌다.
- 1958년 성당 신축이 시작되어 1959년에 현 성당이 준공되었다.
- 동해 북평성당은 묵호성당과 함께 골롬반회 신부들에 의해 지어진 성당으로 근현대기 동해지역 천주교회 역사를 담고있는 근대유산이다.
- 성골롬반외방선교회(골롬반회)는 중국선교를 위해 조직되었으며, 1912년에 중국 선교를 시작했고, 1934년에는 아일랜드 선교사 10명이 이 땅에 파견되면서 한국에 대한 선교가 시작되었다. 광주교구에서 시작된 선교가 목포를 거쳐 춘천교구와 원주교구까지 확장되었다. 북평성당은 원주교구, 묵호성당은 춘천교구 소속이다.
- 묵호성당과 북평성당은 골롬반회가 지역사회에 건축한 성당으로 동일한 양식으로 지어져, 천주교 전래 초기에 각 수도회가 갖고 있는 교회건축의 특징중 골롬반회 성당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 1958년 삼척본당에서 분할되어 북평본당 설립
 - 1959년 현 건물 준공
 - 1982년 성당지붕과 외벽 도색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전면 주출입구상부에 종탑이 위치하며, 회중석과 직각 방향으로 3개의 트란셉이 설치된 독특히 평면구성을 갖고 있다.



성당 정면



성당 배면

- 내부는 회중석과 복도의 구분이 없는 단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에 돌출된 트란셉의 존재가 내부 공간에서는 인지되지 않는다.
- 회중석의 내부 마감은 변경되었으나, 천장 등이 현대적으로 수리되지 않아 원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옛스러운 맛을 갖고 있다.
- 진입방향에서 첫 번째 트란셉은 고해성사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두 번째 트란셉은 부출입구 그리고 세 번째 트란셉은 제의실 등 부속실로 사용되고 있다.
- 고딕건축의 구조적 의장적 요소인 버트레스가 디자인 요소로 사용되어, 외관이 단순하지만 견고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종탑과 3개의 트란셉으로 구성된 복잡한 외관과 달리 내부는 단순한 공간구성을 갖고 있다.
- 종탑내부에는 종을 매달기 위한 목구조가 설치되었으나 종탑의 구조와는 무관하다.



내부수리로 변경된 제단



2층 발코니와 주출입구

- 지붕에는 신축 당시의 목구조가 양호하게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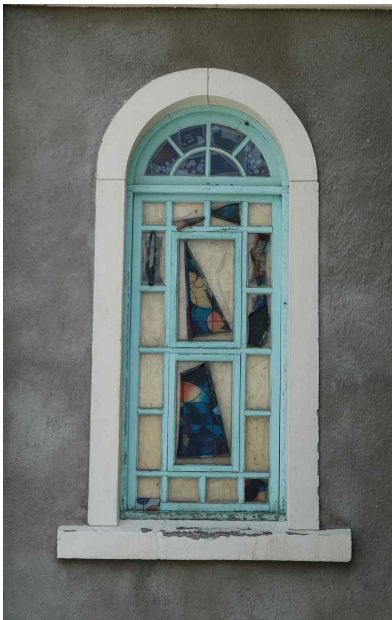
지붕 목조트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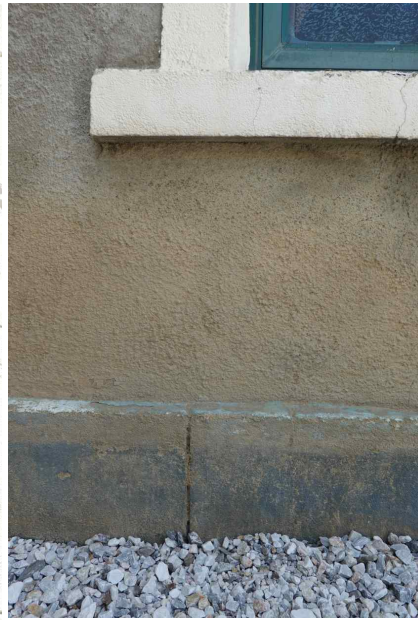
종탑내부 목가구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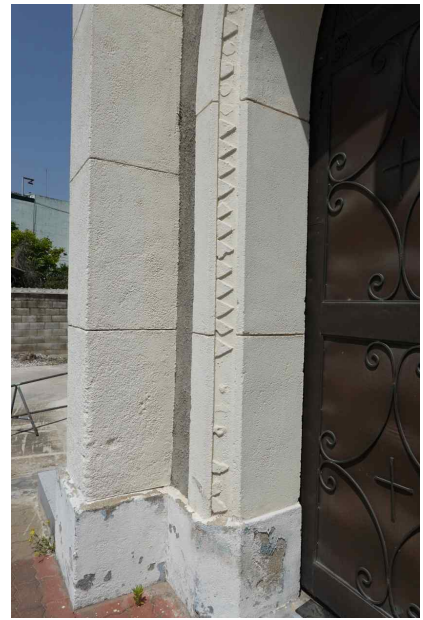
- 조사 대상인 성당은 전체적으로 원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다.
- 북평성당에는 사제관과 수녀원 등이 원 위치에 잘 보존되어 있다. 수녀원(숙소)의 경우 외관이 수리과정에서 변형되었으나 전체적인 매스는 원 틀이 유지되어 있다.
- 목호성당과 달리 창호의 원형이 매우 양호하게 남아있다.
- 고해성사실과 성수대 그리고 마루널 등 신축 당시의 진정성이 곳곳에 매우 잘 남아 있다.
- 공간구성은 원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장식은 아니지만, 회중석과 제의실의 천정 몰딩 등도 원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 유지관리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노후화된 모습을 찾기 어렵다. 다만, 종탑의 내부에서 일부 누수의 흔적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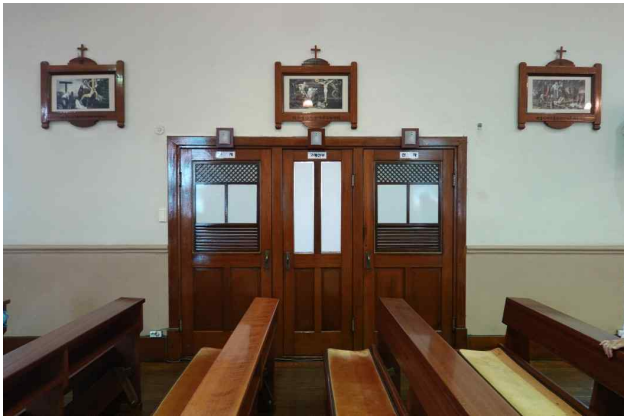
원형창호



성당 벽체하부(원형)



주출입구 개구부 장식



해성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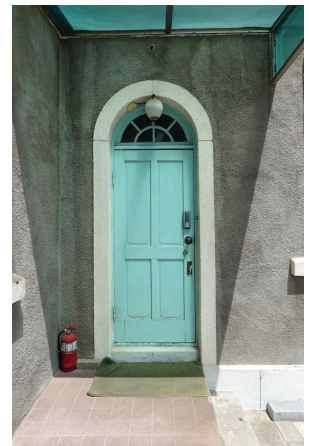
부속실 출입문 원형과 원형몰딩



종탑하부 등관



내부 벽체몰딩



부속실출입문



제의실 내부



마루바닥



발코니 지지기둥과 성수대



발코니 지지기둥 하부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전반적으로 매우 잘 관리되고 있으며, 성당 뿐 아니라 사제관과 수녀원도 함께 보존되어 진정성이 매우 높다. 주택가에 위치하지만 가까운 곳에 장터가 위치해 있어 보존 뿐 아니라 활용 가치가 높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춘천교구에서는 임당동 천주성당과 묵호천주성당, 원주교구의 북평동 천주성당, 삼척 성내동 천주성당을 묶어 영동권 천주교회 근대문화유산과 연계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은 골룸반회에 의해 주도된 천주교회의 지역사를 드러내고, 지역의 정체성과 관련된 천주교회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는데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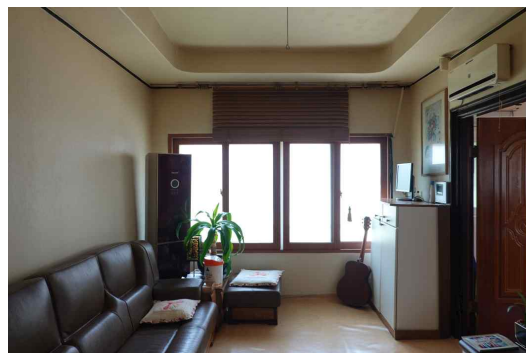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천주교가 교구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춘천교구와 원주교구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계획이나, 충분히 검토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는 계획이라고 판단됨.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필요함.

다. 기타사항



사제관



사제관 내부



수녀원



수녀원 내부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 · 검토

- 전후 1950년에서 1960년대에 건축된 교회와 성당,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 지역 한국군대 또는 미군의 지원을 받아 석조건축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목호성당이나 북평성당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또는 시멘트벽돌로 지어진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이는 1950년대 말에 원조에 의해 시멘트가 대량으로 생산되기 전까지, 시멘트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건축재료가 매우 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해시의 경우 인근에 시멘트공장이 위치해 있어 시멘트를 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했기에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시멘트벽돌에 의한 성당으로 지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건축기술사적 측면외에도, 여러개의 트란셉을 갖고 있는 구성 등 동시대 일반적인 성당과 구별되는 골롬반회 성당의 건축양식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 건축적 가치다.
- 목호성당과 기본적으로 같은 형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사제관과 수녀원이 함께 보존되어 있어 진정성이 매우 높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외국선교사의 흔적이 지역의 삶과 성당건축군에 잘 남아있는 사례일뿐 아니라, 건축양식과 기술사적 측면에서 가치가 커서 등록될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문화재 등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리를 최소화하여 유지관리해온 덕분에 원 모습이 잘 남아있지만, 시급히 보수해야할 필요성이 높은 곳이 많아 성당 뿐 아니라 사제관과 수녀원도 함께 등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8) 기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천주교 북평성당

<○○○>

1) 개요

- 1930년대 경기도에서 이주해 온 교우들이 왜운동 옹기골에 정착하면서 교우촌이 형성 되었으며, 이후 1935년 천주교 신자들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교우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함
- 현재의 북평성당 건립은 1958년 4월 삼척본당 관할 지역이던 북평읍에 본당이 설립되었고, 당시 교구장이던 구 토마스 주교는 삼척군 북평읍에 본당을 설정하고 북평읍 구미리에 대지를 구입하여 북평성당과 사제관을 신축함

- 북평성당은 동해 목호성당과 더불어 성 골롬반회 신부들에 의해 지어진 성당 중 하나로 근현대기 동해지역 종교건축과 천주교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북평성당은 동해항에 인접해, 도심지 내 주거지와 교육시설이 밀집된 곳에 위치하고 있음
- 남북방향의 길이를 갖는 장방형의 대지 위에 성당의 제대가 위치하는 앵스 부분은 북쪽으로, 주출입구는 남쪽으로 배치되어 있음.
- 본당의 동쪽방향으로 사무실과 사제관, 교육관, 수녀원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으며, 동쪽으로 편의시설(화장실)이 배치되어 있음
- 출입구를 통해 성당 안으로 진입하면서 두 개의 원형 기둥으로 공간이 분리되며, 상부는 중2층 회중석이 위치함
- 내부는 중앙제대를 중심으로 좌우대칭형으로 제의실과 고해실을 두어 평면을 구성하고 있으며, 회중석은 중앙에 기둥이 없이(네이브나 아일의 구분이 없음) 개방감을 확보한 예배공간으로 당시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적 특징이 반영된 공간 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 주요마감은 시멘트벽돌조(조적조)의 몰탈마감이며, 지붕은 금속(동)판넬(기존 슬레이트)로 마감됨. 내부바닥은 목재널마루, 천장은 우물천정 모양의 합판으로 마감되어 있음
- 건축양식은 고딕과 르네상스식 건축이 절충된 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1957년 건립된 동해 목호성당과 유사한 건축형태로 두 성당의 설계자가 동일하거나 관련성 있는 인물이 참여했을 것으로 사료됨
- 성당 주출입구는 중앙에는 돌출된 3층 규모의 르네상스식 종탑이 서있고, 상부 옥탑부에 아치창 모양이 연속된 형태의 프리즈(frieze)와 수평띠(cornice)가 돌출되어 있으며, 그 위에 첨탑이 없이 십자가를 설치하였음
- 돌출된 앵스부분은 방사형으로 3면이 노출되어 있고, 그 위로 삼각형의 돔(dome)을 형성한 후 상부 중앙에 십자가를 설치 함
- 창은 아치형 창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탑의 2층과 고해실 부분은 원형창을 설치함. 일부 알루미늄창으로 교체되었으나, 목조 원형창이 그대로 남아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북평성당은 1982년 지붕 및 외벽 도색단장과 1984년 성당 전체 보수가 있었으며, 교육관, 창고, 수녀원 등 부속건물도 신축 및 증축 함.
- 성당의 창호 등이 일부 변경되었지만 대부분 건립 당시의 모습을 그래도 잘 보존하고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북평성당은 동해지역에서 사목활동의 거점공간으로 시작하여 한국전쟁 이후 지역민의 종교적 활동 및 공동체 공간으로 교구나 지역사회에 인식되고 있으며, 소유자는 대상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의지가 강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크다는 점에서 향후 보존·관리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신청대상 건물은 주변에 주거와 교육시설이 분포되어 있고, 성당이 위치한 대지의 여건이 양호하여 문화재 훼손이나 변형 등 저해할 만한 환경적 요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북평성당은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근대유산임
- 동해지역 천주교 신자들에 신앙의 산실이며, 지역 주민들에 쉼터이고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임
- 종교적, 건축적 가치와 더불어 지역에서 문화적 의미를 내재한 북평성당은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며 물리적인 수리·보수 외에도 문화재 등록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활용 계획이 필요가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북평성당은 춘천교구에 역사적 맥락과 함께하고 있으며, 상징성을 갖고 있으며, 향후 활용계획에 따라 많은 방문객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단순히 건축적 의미를 넘어 한국전쟁 이후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신앙생활과 쉼터로써에 종교적 역할을 계승할 수 있는 활용계획으로 사료됨.

다. 기타사항

- 북평성당은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는 건물로 문화재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강릉 임당동성당(등록문화재 제457호)은 1955년 10월 건립된 성당으로 묵호성당과 같은 춘천교구 소속으로 성 골롬반 선교회에 의해 지어짐. 1950년대 강원지역 성당 건축의 전형을 보여주는 건물로 외관의 뾰족한 종탑과 지붕 장식, 첨두형 아치 창호, 부축벽을 이용한 입면 구성 및 내부 마감 구성 등 의장 기법에서 보존가치가 높고, 영동지역에서 신앙의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으며, 영동지역에 많은 본당의 모(母)본당이라는 역사성적 의미도 내재됨
- 북평성당은 기 등록문화재와 비교·검토해 볼 때 건립시기가 한국전쟁 직후로 영동지역에 성당건축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구조와 형태, 재료 등의 당대의 건축기술과 재료에 대한 특징에 유사성이 있음. 따라서 임당동성당과 같이 북평성당이 동해지역에서 갖는 역사성과 상징성은 같은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북평성당은 건립 이후 50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 지역의 역사와 종교, 생활 등의 분야에서 가치가 있음
- 건축적 의미에서 전후 복구시기 시멘트벽돌을 사용하여 절제된 고딕양식의 표현하고 있으며, 성당건축이 갖는 형태와 공간의 구성을 충실하게 반영한 성당으로 건축적 가치가 있음
- 북평성당은 건립 당시의 형태와 구조 등 외형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특히 지붕의 목조지붕틀과 창문 부재 등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함
- 종합적으로 북평성당은 지역의 역사적 맥락을 지역민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건축적 측면에서 교회건축이 갖는 양식적 특징과 구조 및 형태 등이 잘 남아있어 등록문화재로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사료됨.

8) 기타

- 등록 시 명칭은 ‘동해 북평성당’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동 안건은 ‘동해 북평성당 본당 및 사제관’에 대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에 관한 것으로, 이중 본당 건물은 지난 2009년 11월 현지조사를 거쳐 그해 12월 제6차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에서 등록을 검토한 바, ‘가치는 있으나 시급성 미흡’으로 인해 등록이 보류되었음.
- 즉, 인근에 유사한 건축수법으로 건립된 ‘삼척 성내동 성당’이 이미 등록문화재(제141호)로 등록되어 있었고, 또한 당시 함께 등록 신청되어 심의, 가결된 ‘강릉 임당동 성당(1955년 건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사성 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것으로 보임. 현재, 2009년 등록조사 당시와 비교해 11년의 시간이 경과 하였고, 본당 건물 자체의 변형 및 주변 환경 여건 등의 변화는 크게 없어 보임. 다만, 이번 등록신청에는 본당 이외에 사제관이 추가되었음.
- 사제관은 본당 제대 뒤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성당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59년 본당과 함께 건립되었고 현재도 계속해서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해 오고 있음.
- 지상1층 건물로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외벽마감을 모르타르 뿔칠로 처리하였으나, 정확한 구조형식은 판단할 수 없음. 다만, 최초 건립 직후로 보이는 사진 자료에 의하면, 지붕 모습이 현재와 같이 팔작 형태가 아닌 물매가 아주 완만한 박공지붕으로 보임.
- 사제관 건물은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정확한 건축적 내력 등을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현재의 상황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등록 가치를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 북평성당을 비롯해 강원 영동지역 천주교 본당인 삼척 성내동 성당, 강릉 임당동 성당, 동해 묵호성당 등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당시, 춘천대목구장이었던 ‘토마스 퀴란’ 신부의 지원을 통해 본격적으로 건립되었음. 또한, 이들 성당의 건축 내력에는 ‘토마스 퀴란’ 신부가 제공한 건축도면을 근거로 중국인 신자 가(賈)씨가 공사를 맡아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과거 본당 주임신부들의 증언을 통해 공통적으로 전해져 오고 있음. 결국,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건축사 및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이들 성당의 건축적 내용들은 대동소이하며, 특히 이번에 함께 등록신청한 동해시 북평성당과 묵호성당의 본당 건물은 건물의 평면과 형태에서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거의 동일하게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음. 다만, 건물의 보존, 관리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북평성당의 경우 본당 건물이외에도 사제관, 수녀원 등의 일련의 시설들이 현존하고 있으며, 특히 본당 건물에 사용된 목재 창틀과 내부 천정 마감재 등 역시 최초 건립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음.
- 이밖에, 현재 동해시는 지리적인 특징으로 인해, 행정관내에 춘천교구(1949.4.25.설립)와 원주교구(1965.3.22.설립), 그리고 해군 전용인 군종교구까지 모두 3개의 천주교 교구 성당이 함께 자리하고 있음. 이번 등록 신청한 북평성당과 묵호성당은 각각 원주교구와 춘천교구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1965년 춘천교구에서 원주교구가 분리되어 나오면서 동해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옛 북평읍 지역)이 각각 춘천교구와 원주교구 관할구역으로 분리 편제되었음), 이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독특한 상황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최종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등록 시에는 명칭을 「동해 북평성당 본당」으로 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임.

< 붙임2 >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09.11.25)

1. 명 칭 : (현)북평성당 (구)북평성당
2. 용 도 : (현)성당 (구)성당
3. 소재지 :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 489번지
4. 소유자 : (현)재단법인 천주교원주교구유지재단
5. 건축물 개요
 - 설계자 : 미상
 - 시 공 자 : 미상
 - 건축구조 : 조적조
 - 준 공 일 : 1959년
 - 대지면적 : 3,110㎡
 - 건축면적 : 311.1㎡
 - 연 면 적 : 356.6㎡
 - 층 수 : 지상2층
6. 구조 및 양식
 - 뾰족한 종탑과 지붕장식, 첨두형 아치(Pointed Arch) 창호와 장식, 외벽에서 부축벽(Buttress)과 코니스(Cornice)의 강조 등을 특징으로 하는 고딕양식 성당.
 - 평면은 바실리카식 교회(Basilican Church)의 장축형 평면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측랑(Aisle)이 없이 볼트(Vault)형 천장의 단일 신랑(Nave)을 구성하고 수랑(Transept) 부분에 제의실을 설치.
 - 시멘트 벽돌의 조적식 구조로 외벽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
7. 연혁
 - 1957년 성당부지매입
 - 1958년 성당준공
 - 1960년 프랑스에서 종을 주문하여 종탑에 설치(현재에도 사용)
8. 수리기록
 - 1975년 성당 제단마루 바닥에서 콘크리트로 변경
 - 1982년 성당 지붕 및 외벽 도색
 - 1990년 성당 도색, 제단 카페트 공사
 - 2005년 지붕 동판 교체 및 창틀 일부 교체

9. 조사자 의견('09.11.25)

<○○○>

- 1950년대 강원도지역에 콜롬바노회가 지은 성당건축의 한 유형인 긴 2층 라틴십자가 평면의 강당형 성당으로 시멘트몰탈(뽀칠) 위에 수성 도장한 매우 간소한 건물이다. 당시의 시대성을 지니고 있고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여 등록 가치가 있다.
- 다만 주변지역에 유사한 건물(삼척 성내동성당 등록문화재 제141호)이 이미 등록되어 있고, 훼손 멸실의 위험이 적으므로 등록갯수를 조절하여야 한다면 차순위로 등록을 고려할 수 있음.

<○○○>

- 춘천 죽림동 주교좌성당(등록문화재 54호, 1953년 건축), 삼척 성내동성당(등록문화재 141호, 1957년 건축), 강릉 임당동성당(1955년 건축), 동해 묵호성당(1954년 건축) 등 1950년대 이 지역에서 건축된 성당과 동일한 기법의 고딕 양식으로 건축된 성당
- 외관에서 뾰족한 종탑과 지붕장식, 첨두형 아치(Pointed Arch) 창호와 장식, 외벽 부속벽(Buttress)과 코니스(Cornice)의 강조 등 고딕 성당의 건축기법을 구사하였으며, 내부에서는 벽체와 천장 접합부의 몰딩(Moulding) 장식이 특징적 요소
- 위에서 언급한 고딕 위주의 건축양식과 기법은 전체적으로 강릉 임당동성당과 유사하나 좀 더 단순화된 형식
- 북평성당 단독적으로는 건축양식과 기법, 건축원형 보존 및 활용상태 등의 측면에서 등록문화재 등록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되나, 주변지역에 유사한 성당이 다수 현존하고 그 중 대표적 건축사례로 평가되는 강릉 임당동성당에 비해 우선도(Priority), 중요도 등이 뒤떨어지므로 임당동성당 등 유사 성당에 대한 등록조사가 완료된 후 추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됨
- 북평성당이 금회에 등록되지 않을 경우, 소유주에게 추후 등록조사에 대비하여 현재 건축원형 보존상태의 지속적 유지와 성당건축 역사관련 자료에 대한 추가확보 등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함

<○○○>

- 1958년에 건립된 건축물로 평면은 원래의 상태를 대체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1950년대 강원도지역 강당형 성당의 특성과 1960년에 제작된 종과 종탑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존되어야 할 건물로 생각되나, 출입문과 창호, 지붕 등 변형된 부분이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는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소유자가 잘 보존 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8.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7.6.8.)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7.23.)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조선사찰 귀중재산목록	1건 26점	25×18cm	1950년대 후반 추정	동국대학교 총장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17.6.8.) : 문화재 등록 신청(서울특별시→문화재청)
- ('20.7.23.)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20.7.23.)

-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은 일제강점기 30본사와 소속 말사에 보존되어있던 불상·탱화·동종·향로·전적, 고서화 등 각종 기물들의 수량을 명시한 26권 기록임.

- 사찰재산의 처분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일제강점기 사찰의 토지나 산림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는 상황인데, 먹지로 베긴 복사본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제강점기 30본사의 문화재 소장현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므로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20.7.23.)

-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은 전국의 950여 개소의 사찰(북한지역 포함)에서 소유한 재산 목록(불상·불화·건축물 등)을 상세히 작성한 문서로, 기재된 재산 목록과 현재의 불상·불화·건축물 등을 비교하면, 사찰 소유 문화재의 변동상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자료임. 작성의 기본 자료는 북한지역까지 정리된 것으로 보아 일제시기에 이미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동국대학교 도서관에서 다시 등사하여 제작한 것으로 판단됨. 인쇄된 양지 밑에 먹지를 놓고 필사한 것을 사찰별로 제본한 것으로, 먹지를 대고 등사하였기 때문에, 여러 부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동국대에 유일하게 소장되어 있음. 해당 유물은 일제시대 불교사 및 사찰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판단됨.

○ ○○○('20.7.23.)

-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은 전체 26책에 24개 본사와 말사의 사찰 재산이 목록화되어 있는 자료임. 습자지 책지를 활용한 필사본이나 희귀자료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으며, 당시 불교계의 재산 현황과 불교문헌 소장 사항 및 일부 북한 사찰 자료가 있어 희귀하며 유일한 자료임. 또한 관련 전문가와 연구자의 이해와 연구로서의 가치가 높고, 일반인을 위한 관련 이해에도 가치가 높음.

마. 의결사항

○ 보류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본관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 복본에 대한 비교 검토 후 재검토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명, 보류 10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3. 소유자 : 동국대학교총장
4. 조사자 의견('20.7.23.)

<○○○>

1) 개요

-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은 일제강점기 30본사와 소속 말사에 보존되어있던 불상·탱화·동종·향로·전적, 고서화 등 각종 기물들의 수량을 명시한 26권 기록임.
-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재정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자료가 원본에 해당되는 실정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일제는 1910년 조선을 강제병합한 후 1911년 6월 사찰령과 사찰령시행규칙이라는 법을 통해 전국을 30본사(1924년 이후 31본사) 체제로 재편하고, 본사 관할 지역에 말사를 배치하였음.
- 조선총독은 30본사 주지 임면 인가권을 가지고, 지방장관은 말사 주지의 임면 인가권을 가지고 있었음.
- 이 법령은 사찰에 속하는 토지, 산림, 건물, 불상, 석물, 고문서, 고서화, 기타의 귀중품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 사찰재산의 처분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일제강점기 사찰의 토지나 산림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음.
- 이 자료는 일제강점기 북한 지역까지 포괄하는 전국 24개 본사와 소속 말사에 보관되어있던 주요 기물 목록임.
- 이 목록을 통하여 일제강점기까지 30본사의 재산현황을 알 수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은 해방 직후에 원본을 보고 먹지를 대고 다시 쓴 자료이나 원본 자료는 찾을 수 없는 상황임.
- 이 목록은 한장본 5침안정법으로 제작되었고, 먹의 농도와 펜에 가해진 힘의 강약에 따라 복사된 글씨의 선명도가 다름.
- 책의 표지는 한장이지만 내용을 기록한 내지는 양지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은 현재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실에 보존하고 있으며, 고서실은 항온·항습시설이 갖추어진 곳임.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책을 보조하고, 열람하기에 쾌적한 곳으로 서적의 보존과 관리에 적합한 곳임.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이 자료는 일제강점기 30본사의 재정규모와 소장문화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귀중한 자료임.
- 현재까지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재정상황에 관한 논문은 전무한 실정임.
- 이 자료를 영인 발간하여 학계에 공개하게 되면 일제강점기 사찰 재정의 실상을 밝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이 자료는 현시점에서 디지털 촬영 또는 스캔 작업을 해두는 것이 필요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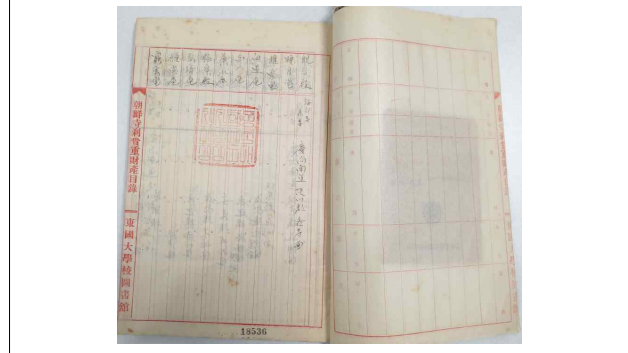
- 일제강점기 사찰 재정에 관한 자료는 공개된 적이 없음.
- 일제강점기 사찰 재정에 관해서 현재 남아있는 자료는 정부기록보존소 『종교에 관한 잡건철』에 사찰의 임야 매각 서류와 지적도가 일부 남아 있으나 총독부에 매각 사전승인을 얻기 위해 제출된 서류이므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음.

7) 등록가치의견

-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은 원본이 유실된 아쉬움은 있으나 먹지로 베끼 복사본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제강점기 30본사의 문화재 소장현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므로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이 자료는 먹지로 등사하였기 때문에 함께 등사된 사본을 일괄로 문화재로 등록할 필요가 있음

8) 기타

- ‘일제강점기 30본사귀중재산목록’ 정도가 좋을 듯함.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	경남 함천군 해인사본말사 귀중재산목록

1) 현상

- 동국대 중앙도서관에 소장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은 전국의 950여 개소의 사찰 (북한지역 포함)에서 소유한 재산 목록을 상세히 작성한 문서임. 이 목록에는 불상과 불화 등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재산을 세세히 기록한 것으로, 불교문화재 및 사찰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역사적 자료임.
-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은 인쇄된 양지 밑에 먹지를 놓고 필사한 것을 사찰별로 제본한 것임. 목록 작성 당시 먹지를 대고 등사하였기 때문에, 여러 부가 만들어 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동국대에 유일하게 소장되어 있음. 본 목록 자료는 조명기 동국대 전 총장과 불교학자인 이종익 박사가 한 동안 소유하고 있다가, 1986년과 1997년에 각각 도서관에 기증한 것임.
-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의 작성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록이 현재 남아 있지 않음. 다만, ‘동국대학교도서관’이라고 인쇄된 용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1953년 2월 동국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이후인 1950년대 후반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목록의 제본은 판심부에 해당하는 중의 접힌 부분에 ‘朝鮮寺刹貴重財産目錄’이라고 인쇄되어 있고, 판심부 아래에 ‘東國大學校圖書館’이라고 인쇄되어 있음.
-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은 작성의 기본 자료는 북한지역까지 정리된 것으로 보아, 일제시기에 이미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동국대학교 도서관에서 다시 등사하여 제작한 것으로 판단됨. 해방 이후 북한지역에 소재하는 사찰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조사하여 정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제시기에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2) 내용 및 특징

-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은 동국대학교 도서관에서 용지를 사용하였으며, 각 도별로 본사와 말사, 암자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음. 예를 들면, 충청남도의 본사 마곡사를 맨 앞에 기재하고, 갑사와 갑사의 암자들인 대자암·사자암·신흥암·내원암·대성암 등을 기재하였음.
- 각 사찰의 재산목록 기재 방식은 명칭, 품질, 수량, 형상, 연대, 비고 순으로 되어 있음. 예를 들면, 마곡사의 경우, 명칭은 석가모니불상(釋迦牟尼佛상), 품질은 목(木), 수량은 1, 형상은 “장(長) 7.70, 광(廣) 3.50 대웅전 봉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조사대상 사찰의 재산 목록은 불상, 불화, 불경, 부도, 탑, 사적기, 향로, 축대, 범종·요령 등의 불구 등은 대부분 기재되어 있음. 그 외 일반 수저, 식기, 접시, 솔 등 일상 용품까지 기록되어 있음. 그리고 사찰의 주요 건물도 적고 있는데, 마곡사의 경우 대웅보전·대광보전·매화당·천왕문·해탈문·영산전 등 모든 건축물 기재해 놓고 있음.
-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목록과 현재의 불상·불화·건물 등을 비교 하면, 사찰 소유 문화재의 변동상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음.

3) 기타

-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은 현재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유일하게 소장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먹지를 놓고 여러 부를 제작하였기 때문에 복본이 있을 가능성도 있음.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동국대 중앙도서관 소장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은 전국 950여개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불상·불화·건축물 등을 26책으로 정리한 사찰재산 목록으로 일제시대 불교사 및 사찰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
- 본 목록은 이미 일제시기에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1950년대 후반 동국대 도서관에서 등사하여 책자로 제작한 유일한 사찰재산 목록이기 때문에, 해방 이후 사찰 소유 불교문화재의 변동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음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은 현재 상태가 양호하여 별도의 보존 정비는 필요하지 않음

<○○○>

1) 개관

- 당시 24개 본사와 말사의 사찰 재산 소개 목록임.

2) 형태사항

- 전체 26책임.
- 습자지에 먹지로 필사하여 생산된 필사본임.
- 홍사 오침안정의 선장형태의 가제본임(<그림 1> 참고).
- 각 본사마다 책갈피 형태로 표시하고 있음(<그림 1> 참고).
- 책지는 사주단변, 半郭 21.5 x 14.6 cm, 홍색유계, 6단 11항, 상하향홍어미(上下向紅魚尾)의 판식이며, 크기는 25.5 x 18.0 cm임. 목록사항(본사와 말사 및 도군면리의 표시 등 이하 내용 참고) 외에 판심에 ‘朝鮮寺刹貴重財産目錄’, 판심 아래에 ‘東國大學校圖書館’이 각인되어 있음<그림 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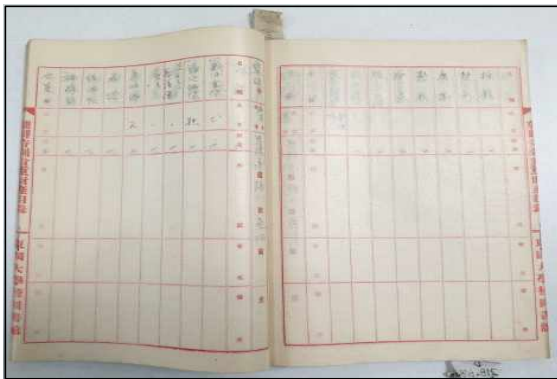
<그림 1>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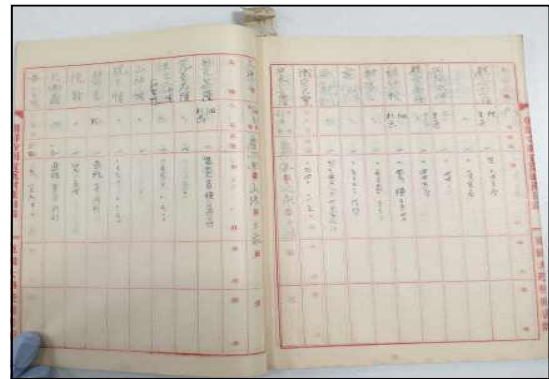
<그림 2> 책지

3) 내용

- 전체 26책에 24개 본사와 말사의 사찰 재산이 목록화 되어 있음.
- 26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1冊: 麻谷寺, 2-3冊: 海印寺 末寺(1-2), 4冊: 松廣寺, 5冊: 法住寺, 6冊: 仙岩寺, 7冊: 桐華寺, 8冊: 銀海寺, 9冊: 孤雲寺, 10冊: 金龍寺, 11冊: 通度寺, 12冊: 梵魚寺, 13冊: 貝葉寺, 14冊: 奉恩寺, 15冊: 傳燈寺, 16冊: 歸州寺, 17冊: 奉先寺, 18冊: 乾鳳寺, 19冊: 釋王寺, 20冊: 月精寺, 21冊: 楡岾寺, 22冊: 普賢寺, 23冊: 普賢寺 末寺, 24冊: 法興寺, 25冊: 永明寺, 26冊: 成佛寺
- 이상 중 13冊의 貝葉寺는 북한 황해남도 신천군 구월산에 있는 사찰로서 통일신라 시기에 창건된 사찰이며, 16冊의 歸州寺는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 회상구역 설봉산에 있었던 고려전기 승려 봉현이 창건한 사찰임.
- 주요 내용은 1행에 본사와 말사 및 도군면리의 표시로 구성하고, 2행에 명칭, 품질, 수량, 형상, 연대. 비고를 기술하도록 구성되어 있음(<그림 3>, <그림 4> 참고).
- 불경 등 문헌 외에 觀音菩薩, 神象帖, 山神帖, 요령, 촛대 등 크고 작은 유형물 등에 대한, 품질, 수량 형상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그림 3>, <그림 4> 참고).



<그림 3> 본문 1



<그림 4> 본문 2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조선사찰귀중재산목록은 당시 24개 본사와 말사의 사찰 재산을 소개하는 목록임.
- 습자지 책지를 활용한 필사본이나 희귀자료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음
- 당시 불교계의 재산 현황과 불교문헌 소장 사항 및 일부 북한 사찰 자료의 경우 현재 희귀하며 유일한 자료임.
- 관련 전문가와 연구자의 이해와 연구로서의 가치가 높고, 일반인을 위한 관련 이해에도 가치가 높음.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당시 사찰의 현황 등 다양한 방면의 연구에의 활용 가치가 높음.
- 일부 기록재료와 필기류 잉크의 일부 번짐이나 흐려짐 등의 현상에 대한 탈산처리 필요, 손상 등의 보존 처리가 시급함.

09. 「백용성 저작 일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백용성 저작 일괄」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백용성 저작 일괄」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6.8.10.)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7.23.)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대방광원각경	1건 1점	22×15cm	1924년	동국대학교 총장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대각교의식	1건 1점	15×10.2cm	1931년		
각해일륜	1건 1점	22×15cm	1930년		

(2)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16.8.10.) : 문화재 등록 신청(서울특별시→문화재청)
- ('20.7.23.)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20.7.23.)

- ① '대방광원각경'은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을 비롯하여 주요 종단의 소의 경전으로 백용성이 1924년에 삼장역회에서 번역, 출간한 것임. 근대사에서 백용성의 독립운동의 행적과 불교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으로 보아 가치가 있음.

- ② ‘대각교의식’은 백용성이 일제강점기 불교계에서 행해지던 각종 의식 절차를 기록하고, 당시 불교 교단에서 행해지던 의식을 보다 간편하고 실용적으로 개선한 것임. 또한 백용성이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이후 전개한 불교대중화 운동인 대각교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음. ③ ‘각해일륜’은 1930년 백용성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서술한 것으로, 불교의 교리를 한글로써, 문답의 형식을 빌어서 쉽게 설명한 불교 교리서로 그 가치가 높음.
- ② ‘대각교의식’의 경우 현재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것이 초판본이고 유일본이므로 등록되어 보존되어야 하지만, ① ‘대방광원각경’과 ③ ‘각해일륜’의 경우 타 기관에도 동일 판본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등록은 유보함.

○ ○ ○ ○ (‘20.7.23.)

- ① ‘대방광원각경’은 백용성이 1923년에 번역하고 삼장역회에서 1924년 출판한 것으로 한국 대승불교의 근본경전이라 할 수 있으며, 백용성이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출판하였음. ② ‘대각교의식’은 ‘대각교’를 창립한 백용성이 불교의 의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혁신적으로 간소화하여 정리한 저술로, 불교의 대중화와 복잡한 예불의식을 고쳤고, 찬불가의 가사와 악보를 신고 있음 ③ ‘각해일륜’은 대각교(大覺敎)의 교리서로, 대각교의 교학적 토대와 그의 사상적 지향을 대중적으로 정리해 수행에 지침을 삼기 위한 저술임. ‘대방광원각경’, ‘각해일륜’, ‘대각교의식’ 3책은 독립운동가이며 불교개혁가인 백용성의 번역 및 저작으로 일제강점기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역사적 자료임.
- ② ‘대각교의식’은 동국대 중앙도서관에서만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나, ① ‘대방광원각경’과 ③ ‘각해일륜’은 타 기관에도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함.

○ ○ ○ ○ (‘20.7.23.)

- ① ‘대방광원각경’은 예부터 한국에서 대승불교의 근본경전으로 사용되어 온 경전을 번역하여 출판한 것이며, ② ‘대각교의식(大覺敎儀式)’은 1927년 백용성이 제작한 것으로 대각회의 대표적인 다비의식(장례법) 관련 문헌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최초로 창작된 찬불가이며, 대각교(大覺敎) 법회에서 의식음악을 담고 있음. ③ ‘각해일륜’은 백용성이 1930년 새로이 ‘대각교’를 일으키고 그 교전으로 삼고자 지은 책임.
- ② ‘대각교의식’은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이 유일본으로 희귀자료로 보존 가치가 높음. 그러나 ① ‘대방광원각경大方廣圓覺經’과 ③ ‘각해일륜(覺海日輪)’은 각각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복본 3책과 2책이 소장되어 있으며, 현전본으로 국회도서관 또는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소장본으로 5종과 4종이 있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대각교의식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 대방광원각경과 각해일륜은 추가조사가 필요하여 보류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0명, 보류 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백용성 저작 일괄(대방광원각경, 대각교의식, 각해일륜)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3. 소유자 : 동국대학교총장
4. 조사자 의견('20.7.23.)

<○○○>

1) 대방광원각경

가) 개요

- 『대방광원각경』의 본래 이름은 『대방광원각수의요다라경』임.
- 『대방광원각경』은 현재 한국 불교계에서 근본 경전의 하나로 널리 읽히고 있음.
- 이 경전은 1924년 6월 15일 삼장역회에서 간행함.
- 삼장역회는 백용성이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출옥한 1921년에 창립되어 한문으로 된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음.

나) 주요 내용 및 특징

- 『대방광원각경』은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을 비롯하여 주요 종단의 소의경전임.
- 『대방광원각경』의 주요 내용은 불법의 핵심이 '마음'인데 번뇌인 진塵은 마음이 속박된 것이고, 진에서 벗어남이란 해탈을 뜻함.
- 번뇌심이 사라지면 청정한 보리심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원각圓覺"이라 함.
- 사람사람이 본래 갖춘 원각심圓覺心을 깨달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대방광원각경』임.

다)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현재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중인 『대방광원각경』 3권은 1924년 삼장역회에서 출간한 초간본임.
- 출간 시기가 100년 가까이 되었지만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으로 제작되어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함.

라)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1924년에 발간된 『대방광원각경』 3권은 한적실에 보존하고 있으나 일반 독자들이 손쉽게 열람하게 해서는 훼손의 우려가 있음.
- 초간본 『대방광원각경』 3권을 귀중본으로 지정하여 일반 독자들의 열람을 제한하고, 표갑을 제작하여, 향온·향습시설이 갖추어진 서고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대방광원각경』은 현 대한불교조계종을 비롯한 많은 종단에서 소의경전으로 활용하는 대승경전의 하나이므로 영인, 발간하여 현대 번역본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 『대방광원각경』은 일제강점기 얼마되지 않은 한문 불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므로 당시 언어 연구에도 좋은 자료가 될 것임.
- 백용성은 일제강점기 불교계를 개혁하려 한 선각승이며, 한문으로 된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여 보급한 민족의식이 강한 승려였으며, 그의 역작인 이 책은 일제강점기 문화운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바)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일제강점기 백용성이 번역, 출간하여 이미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아래 불경들과 가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대방광원각경』은 아래 백용성이 번역한 다른 경전들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시기에 삼장역회에서 번역, 출간한 것 가운데 하나로 시기의 전후만 다를 뿐 그 가치는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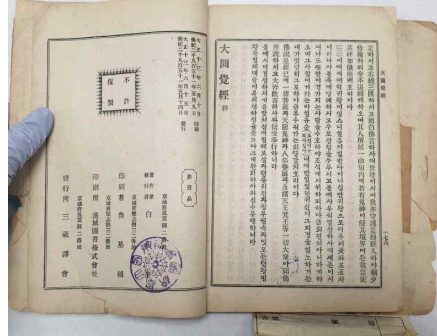
제629호 백용성 역 『조선글화엄경』,
 제630호 백용성 역 『선한역 대방광불화엄경(鮮漢譯 大方廣佛華嚴經)』원고,
 제631호 백용성 역 『신역대장경(新譯大藏經)』(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
 제632호 백용성 역 『조선어능엄경(朝鮮語楞嚴經)』
 제646호 백용성 역 한글본『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

사) 등록가치 의견

- 백용성이 1924년에 삼장역회에서 번역, 출간한『대방광원각경』은 근대사에서 백용성의 독립운동의 행적과 불교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으로 보아 그 가치가 국가등록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음.
- 『대방광원각경』은 현재 다음과 같은 기관 즉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충남대도서관, 성균관대 존경각,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같은 초간본이 소장되어있어 등록을 유보함

<p>-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OL294.34-ㅂ434ㄷ 표제/책임표시사항 大方廣圓覺經. 全 / 白相奎 編著 관사항 鉛印本 발행사항 京城[서울] : 三藏譯會, 1924 형태사항 1冊 ; 22.4 ×15.2 cm 주기사항 刊記: 覺紀二九六二年(1924)六月十五日再板發行</p>	<p>- 충남대학교 도서관 子.釋家類-677 표제/책임표시사항 大方廣圓覺經 / [著者未詳] 관사항 新鉛活字本 발행사항 京城[서울] : 三藏譯會, 昭和 10[1935] 형태사항 線裝1冊 : 四周雙邊 半郭 18.0 x 12.0 cm, 無界, 半葉15行33字 註雙 行 ; 22.0 x 15.0 cm 주기사항 板心題 : 大圓覺經 內容: 國漢文混用 紙質: 洋紙</p>
<p>-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C04-0120 표제/책임표시사항 大方廣圓覺經 / [著者未詳] 관사항 筆寫本 발행사항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乙丑(?)寫 형태사항 線裝不分卷1冊 : 四周雙邊 半郭 20.5 x 13.6 cm, 烏絲欄, 9行16字, 上白 魚尾 ; 25.3 x 18.0 cm 주기사항</p>	<p>- 대구가톨릭대학교중앙도서관 동223.58-불73○ 표제/책임표시사항 大方廣圓覺經 / 白相奎 著 발행사항 [京城[서울]] : 삼장역회, 19- - 형태사항 冊 ; 22.0 x 15.0 cm</p>

아) 기타

	
<p>대방광원각경</p>	<p>1924년 삼장역회 발행 대방광원각경</p>

2) 대각교의식

가) 개요

- 『대각교의식』은 1931년 백용성이 대각사가 있던 종로구 봉익동 대각교당에서 발행한 불교의식에 관한 서적임.
- 『대각교의식』에 나타난 불교 의례의 내용과 형식은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이나 여타 종단에서 집행하는 의식과 그 내용이 다른 점이 있음.
- 대각교는 백용성이 3·1운동에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였다는 죄목으로 투옥되어 3년간 옥고를 치르고 출옥한 직후인 1921년 창립한 불교 종단임.
- 백용성은 일제강점기 불교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모든 사람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출옥 직후인 1921년 4월에 종로구 봉익동 대각사에서 대각교를 창립하였음.
- 『대각교의식』은 대각교에서 거행하던 각종 불교 의식을 기록한 책임

나) 주요 내용 및 특징

- 『대각교의식』은 일제강점기 불교계에서 행해지던 각종 의식 예불·향례·혼례·구병·시식·장례 등 각종 의식 절차를 기록한 책임.
- 『대각교의식』은 당시 불교 교단에서 행해지던 의식을 보다 간편하고, 실용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임.
- 백용성은 『대각교의식』을 통하여 종래 번잡하던 의식을 간소화하여 불교계의 개혁을 이루고자 하였음.

다)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현재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중인 『대각교의식』은 1931년 대각사가 있던 종로구 봉익동 대각교중앙본부에서 출간한 초간본임.
- 출간 시기가 100년 가까이 된 양지로 된 초간본들은 신속하게 디지털 이미지화 하고, 일반인들의 열람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양지로 발간된 초간본이라 향온·향습시설이 갖추어진 수장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됨.
- 『대각교의식』은 표지와 내용이 일부 떨어져있어 복원이 필요함.
- 지류 보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형 복원이 바람직함.

라)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1931년에 양지로 발간된『대각교의식』은 탈수가 진행되었을 것이므로 개가식 열람실에 비치하여 일반 독자들이 손쉽게 열람하게 하는 것은 훼손의 우려가 있음.
- 초간본『대각교의식』은 귀중본으로 지정하여 일반 독자들의 열람을 제한하고, 표갑을 제작하여, 향온·향습시설이 갖추어진 귀중본 서고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대각교의식』은 현재는 대한불교조계종을 비롯한 여러 종단에서 집행하는 각종 의례 형식을 실용적이고 간소화하였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대중불교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대각교의식』은 일제강점기 한문 불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므로 당시 언어 연구에도 좋은 자료가 될 것임.
- 백용성은 일제강점기 불교계를 개혁하려 한 선각승이며, 한문으로 된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여 보급하겠다는 것은 민족의식의 발로이므로 문화운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바)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유사 일제강점기 백용성이 번역, 출간하여 이미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아래 불경들과 가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대각교의식』은 아래 백용성이 번역한 다른 경전들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시기에 번역, 출간된 책 가운데 하나로 시기의 전후만 다를 뿐 그 가치는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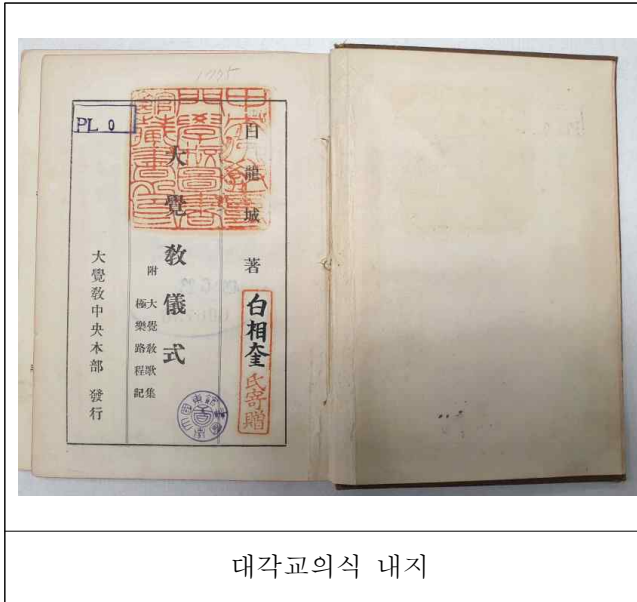
제629호 백용성 역 『조선글화엄경』, 제630호 백용성 역 『선한역 대방광불화엄경(鮮漢譯 大方廣佛華嚴經)] 원고, 제631호 백용성 역 『신역대장경(新譯大藏經)](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 제632호 백용성 역 『조선어능엄경(朝鮮語楞嚴經)] 제646호 백용성 역 한글본『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

사) 등록가치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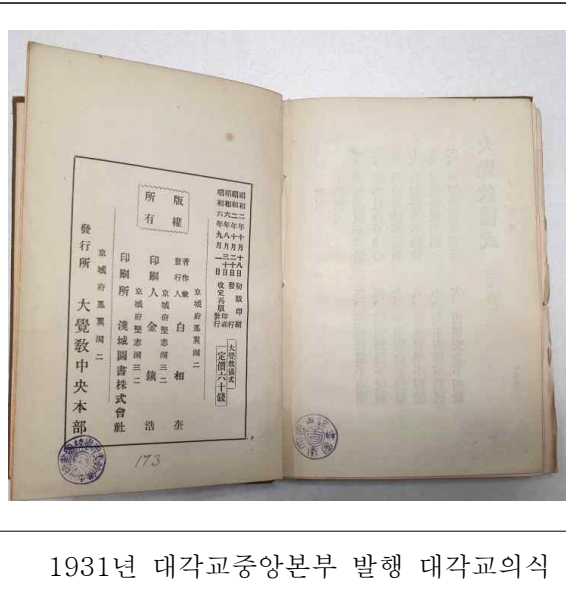
- 『대각교의식』은 백용성이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출옥한 이후 전개한 불교 대중화 운동인 대각교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료로 그 가치가 높음.
- 백용성은 일제강점기 독신 비구승으로 대처식육을 일삼으며 사찰채산을 축내는 기존 교단에서 탈퇴하여 독자적으로 대각교운동을 전개한 바, 그의 이러한 사상은 『대각교의식』에 잘 나타나 있으므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그의 다른 저술들에 비해 손색이 없음.
- 『대각교의식』은 현재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것이 초판본이고, 유일본이므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보존되어야 함.

아) 기타

- 이 자료는 전적이므로 책 이름 외에 별다른 명칭이 필요치 않음



대각교의식 내지



1931년 대각교중앙본부 발행 대각교의식

3) 각해일륜

가) 개요

- 『각해일륜』은 1930년 백용성이 대각사가 있던 종로구 봉익동 대각교당에서 발행한 불교 교리에 관한 책임.
- 『각해일륜』은 ‘깨달음의 바다에 뜬 해’라는 뜻으로 백용성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를 서술한 것임.
- 『각해일륜』은 제목이 없는 1·2권과 3권인 수심정로(修心正路) 및 부록인 육조단경요역(六祖壇經要譯)으로 구성됨.

나) 주요 내용 및 특징

- 『각해일륜』은 백용성이 오랜 수행을 통해 얻은 진리인 깨달음을 본각(本覺)·시각(始覺)·구경각(究竟覺)으로 설명하며 이것들은 둘이 아니라고 함.
- 해(海)는 바다를 뜻하며, 깊고 넓어서 헤아릴 수 없음을 말한 것임.
- 일륜(日輪)은 묘한 지혜가 원만하고 밝아서 비추지 않는 바가 없음을 말함.
- 『각해일륜』은 결국 종교·도덕·진리·철학·과학·인과 등이 모두 어우러진 것을 뜻함.
- 『각해일륜』은 일제강점기 백용성이 불교의 교리를 한글로써, 문답의 형식을 빌어서 쉽게 설명한 것임.
- 이 책은 당시 시대사조를 반영하여 기독교의 창조론 등에 대해서도 불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 5침안정법으로 제작한 한장본으로 당시 어려운 시기임에도 정성을 들인 흔적이 보이는 책임.

다)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발간된 지 90년이 지났지만 5침안정법으로 제작된 한장본으로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함.
- 『각해일륜』은 오탈자를 교정본 흔적이 몇 군데 발견되고 있어 초간본임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음.

라)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1930년에 발간된『각해일륜』을 개가식 열람실에 비치하여 일반 독자들이 손쉽게 열람하게 해서는 훼손의 우려가 있음.
- 초간본『각해일륜』을 귀중본으로 지정하여 일반 독자들의 열람을 제한하고, 표갑을 제작하여, 향온·향습시설이 갖추어진 귀중본 서고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각해일륜』은 1930년에 한글로 발간된 문답식 교리서로 한글 음운 변천사 연구에 좋은 자료임.
- 백용성은 일제강점기 불교계를 개혁하려 한 선각승이며, 한문으로 된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여 보급에 진력한 것은 민족의식의 발로이므로 문화운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바)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각해일륜』은 현재 일제강점기 백용성이 번역, 출간하여 이미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아래 불경들과 가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각해일륜』은 아래 백용성이 번역한 다른 경전들과 비교하였을 때 비슷한 시기에 번역, 출간된 것 가운데 하나로 시기의 전후만 다를 뿐 그 가치는 동일함.

제629호 백용성 역 『조선글화엄경』, 제630호 백용성 역 『선한역 대방광불화엄경(鮮漢譯 大方廣佛華嚴經)] 원고, 제631호 백용성 역 『신역대장경(新譯大藏經)](금강마하반야바라밀경), 제632호 백용성 역 『조선어능엄경(朝鮮語楞嚴經)] 제646호 백용성 역 한글본『신역대장경』(금강경강의)

사) 등록가치의견

- 『각해일륜』은 백용성이 1930년에 번역·출간한 문답 형식의 불교 교리서로 그 가치가 높음.
- 『각해일륜』은 동일한 초간본이 아래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과 경기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있음.

- 국립중앙도서관 BC古朝23-34 원문유

표제/책임표시사항 각해일륜 / 白相奎 著

판사항 鉛活字本

발행사항 京城[서울] : 大覺敎堂, 1930

형태사항 3卷1冊 ; 21.9 x 15.3 cm

- 경기대학교 도서관 경기-K101541-2 卷104

표제/책임표시사항 覺海日輪. 卷1-4 / 白相奎 著

판사항 新鉛活字本, 발행사항 京城[서울] : 大覺敎堂, 昭和 5[1930]刊

형태사항 4卷1冊 : 四周雙邊 半郭 18.2 x 12.3 cm, 無界, 16行34字 註雙行, 上內向黑魚尾 : 22.0 x 15.0 cm

주기사항

刊記: 昭和五年(1930)三月十五日發行

- 귀중본이기는 하지만 동일 판본이 2곳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등록은 유보함

아) 기타



<○○○>

1) 현상

- 백용성(백상규)의 저작인 『대방광원각경(大方廣圓覺經)』(1924), 『각해일륜(覺海日輪)』(1930), 『대각교의식(大覺敎儀式)』(1931) 3책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음. 『대방광원각경』은 번역자인 백용성의 수택본(手澤本)이고, 『대각교의식』은 불교학자인 권상로의 소장본으로 일부 내용이 교정되어 있음
- 백용성의 원명은 백상규(白相奎)이며 독립선언 당시 민족대표로서 3·1운동을 주도하였던 독립운동가이며, 불교경전을 한글로 번역하여 승려와 불자들에게 보급하고 대각운동을 벌인 불교개혁 사상가임. 백용성은 새로운 불교운동으로 ‘대각교(大覺敎)’를 천명하여,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복잡한 전통 예불의식을 개혁하고자 하였음. 특히,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1921년 삼장역회(三藏譯會)를 출범시켜 체계적인 불경 번역사업을 실시하였음. 백용성의 불경 번역사업은 후대 동국역경원의 대장경 역경사업으로 이어져 한국 불경 번역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음.
- 『대방광원각경』은 백용성이 1923년에 번역하고 삼장역회에서 1924년 출판한 것임. 『대방광원각경』의 원명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으로, 한국 대승불교의 근본경전이라고 할 수 있음. 일제강점기 백용성이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대방광원각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출판하였음.
- 『각해일륜』은 백용성이 한글로 쓰인 최초의 불교 교리서이자 대각교(大覺敎)의 교리서로, 대각교의 교학적 토대와 그의 사상적 지향을 대중적으로 정리해 수행에 지침을 삼기 위한 저술임. 백용성은 깊은 경지에 도달한 자신의 선적 체험을 바탕으로 『각해일륜』을 비롯한 여러 저술을 펴냈으며, 일제시대 불교사 연구자료로 가장 중요한 저술임. 동국대 중앙도서관 소장 『각해일륜』은 불교학자 권상로가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글자와 일부 내용이 교정되어 있음.
- 『대각교의식』은 ‘대각교’를 창립한 백용성이 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혁신적으로 간소화하여 정리한 저술임. 이 책에서는 불교의 대중화와 복잡한 예불의식을 고쳤고, 찬불가의 가사와 악보를 실고 있음. 『대각교의식』에서 찬불가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왕생가, 권세가, 중생상속가, 구국가의 가사와 악보가 수록되어 있음.

2) 내용 및 특징

- 『대방광원각경』은 1923년에 번역하였으나 출간하지 못하고, 1924년 6월 15일에 삼장역회에서 출간하였음. 『대방광원각경』은 비매품인 법보시(法普施)로 출판되었기 때문에, 말미에 법보시 시주자들의 명단과 보시금이 게재되어 있음.
- 『각해일륜』은 백용성의 대각사상을 정리하여, 1930년 3월 15일 대각교당(大覺敎堂)에서 발행한 것임. 『각해일륜』의 제1권과 제2권은 교학이론에 입각하여 인간을 비롯한 세계의 생명이 생기(生起)하는 유래를 설명하였으며, 제3권은 선(禪) 수행에 필요한 긴요한 지침으로 수심정로(修心正路)라는 편명이 붙어 있고, 제4권은 부록으로 육조단경(六祖壇經)의 요점을 추려서 한글 번역하고 강화를 한 것임.
- 『대각교의식』은 대각교 의례집으로 1927년 10월 20일에 간행되었고, 개정재판이 1931년 9월 1일 발간되었음. 『대각교의식』은 불교의 의식문이 모두 한글로 작성되었으며, 구성은 총 21장으로 예경, 헌공, 시식, 구병시식, 혼례의식, 간병의식, 상례 등의 의식과 찬불가 7편이 수록되어 있음.

3) 문헌자료

- 이재수,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경위와 성격, 『대각사상』 27, 2017.
- 신규탁, 『각해일륜』 분석 - 동북아시아 불교의 전통과 관련하여 -, 『대각사상』 11, 2008.
- 한보광, 『백용성스님의 역경활동과 그 의의』, 『대각사상』 5, 2002.

4) 기타

- 『대방광원각경』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경기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각해일륜』도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사가 필요함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대방광원각경』·『각해일륜』·『대각교의식』 3책은 독립운동가이며 불교개혁가인 백용성의 번역 및 저작으로 일제강점기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역사적 자료임
- 『대방광원각경』과 『각해일륜』은 타 기관에도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해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함. 그러나 『대각교의식』은 동국대 중앙도서관에서만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야만 한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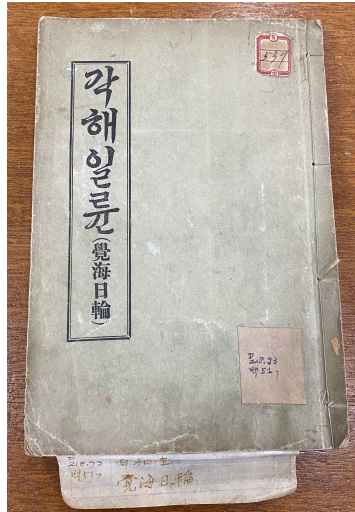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대방광원각경』, 『각해일륜』, 『대각교의식』 3책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존 정비는 필요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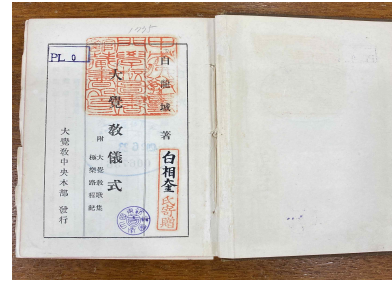
<사진>



『대방원각경』



『각해일륜』



『대각교의식』

<○○○>

1) 현상 : 양호함.

2) 내용 및 특징

가) 대각교의식(大覺教儀式)

(1) 서지사항

- 백용성(白龍城) 저술서임.
- 개정재판으로 1931년 발행임.
- 서울 : 대각교중앙본부에서 발행하였음.
- 1책(174p.)이며 크기는 15cm임.
- 책임표시사항의 저자 ‘백상규(白相奎)’는 ‘백용성(白龍城)’ 스님의 속명임(<그림 2> 참고).
- ‘白相奎氏寄贈’의 기증인은 사후 도서관의 각인 및 기록(성명)임(<그림 1> 참고).



<그림 1> 대각교의식 표제면



<그림 2> 대각교의식 권수제면

(2) 참고3)

- ‘다비(茶毘)’는 특별히 불교에서 행하는 화장을 다비(茶毘)라고 구분해서 말하기도 함. 시신을 태워 유골만 수습하여 매장하는 장례법임. 산중불교를 중심으로 다비의식은 꾸준히 명맥을 유지했음.
- 중국의 상례의식에 의한 침삭을 거치는 가운데 다수의 다비의식 관련 문헌이 간행되기도 하였음. 초간본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전하는 다비의식 관련 문헌은 다음과 같음.
 - ① 「청문(請文)」, 1535년(영각사)
 - ② 「다비문(茶毘文)」, 1542년(문수사)
 - ③ 「제반문(諸般文)」, 1566년(보원사)
 - ④ 「권공제반문(勸供諸般文)」, 1574년(석왕사)
 - ⑤ 「석문상의초(釋門喪儀抄)」, 1657년(징광사)
 - ⑥ 「석문가례초(釋門家禮抄)」, 1660년(호국사)
 - ⑦ 「오종범음집(五種梵音集)」, 1661년(호국사)
 - ⑧ 「승가예의문(僧家禮儀文)」, 1670년(갑사)
 - ⑨ 「시다림작법문(屍多林作法文)」, 17세기 추정
 - ⑩ 「제반문(諸般文)」, 1719년(해인사)
 - ⑪ 「작법귀감(作法龜鑑)」, 1826년(운문암)
 - ⑫ 「다비설(茶毘說)」, 19세기초
 - ⑬ 「다비작법(茶毘作法)」, 1719년(해인사)
 - ⑭ 「대각교의식(大覺教儀式)」, 1927년(대각교중앙본부)
 - ⑮ 「석문의범(釋門儀範)」, 1935년(만상회)
- 이상과 같은 많은 문헌의 바탕 위에 현대불교에서는 다비의식이 상례의 기본이 되고 있음.
- ⑬ 「다비작법」 및 ⑮ 「석문의범」이 다비의식의 주된 규범이 되고 있으며, ⑥ 「석문가례초」와 ⑪ 「작법귀감」 등은 다비의식을 보충하는 문헌으로 쓰이고 있음. 또한, 이를 통한 탑비(塔碑)의 건립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3) 특징

- 대각회(大覺會)는 1969년에 창립된 불교포교단체임. 석가모니불의 대각불교사상(大覺佛教思想)을 선포하여 민족번영의 원리로 발전시킨 백용성(白龍城)의 대각사상을 선양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유지, 경영함을 목적으로 삼아 김자운(金慈雲)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하였음.
- 백용성은 1915년서울 봉익동에 선종교당(禪宗敎堂)을 설립한 데 이어 대각교를 설립하여 선종을 널리 선양함과 함께 민족운동을 전개하다가 3·1운동 때 붙잡혀 3년 동안 옥고를 치렀음. 일제 탄압으로 대각교가 폐지되자 대각사 및 만주 간도포교당과 함양 화과원을 중심으로 대각교운동을 전개하였음. 1938년 2월백용성이 죽자 법손(法孫)들이 그의 유업을 계승하여오다가, 1969년 9월 재단법인 대각회의 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주요사업으로는 선원·포교원 및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고 백용성의 유업 및 유적을 보존하며 대각사상을 연구, 선양하고 있음.

3) ‘다비(茶毘)’,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92>>.

- 최근에는 대각사상연구원(大覺思想研究院)을 설립하여 근·현대불교사의 체계적 정리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연구지 「대각사상」을 발간하고 있음. 불교경전의 번역을 위주로 한 출판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동안 출간된 책으로는 「한글팔만대장경」,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각해일륜(覺海日輪)」, 「수심정로(修心正路)」,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등이 있음.
- 「대각교의식」은 최초로 창작된 찬불가로는 1927년 백용성이 제작한 대각교(大覺敎) 법회에서 의식음악으로 불려 지고 있음.
- 「대각교의식」은 이상과 같이 대각회의 대표적인 다비의식 관련 문헌으로도 알려져 있음.
- 공식적인 기관의 전래본으로는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이 유일본으로 희귀자료임.

나) 대방광원각경(大方廣圓覺經)

(1) 서지사항

- 백용성(白龍城) 역술서임
- 1924년 발행.
- 1책. 사침안정. 능화문. 사주쌍변. 무계. 15행. 크기 22.4 x 15.2 cm임(<그림 5> 참고).
- 책임표시사항의 저자 ‘백상규(白相奎)’는 ‘백용성(白龍城)’ 스님의 속명임.
- ‘白相奎氏寄贈’의 기증인은 사후 도서관의 각인 및 기록(성명)임(<그림 6> 참고).
- 제침과 표제(標題)는 ‘대방원각경(大方廣圓覺經)’이고(<그림 5>, <그림 6> 참고), 권수제와 판심제는 ‘대원각경(大圓覺經)’(<그림 7> 참고)임.



<그림 5> 대방원각경 표지



<그림 6> 대방원각경 권수제면



<그림 7> 대방원각경 표제면

(2) 내용

- 예부터 한국에서 대승불교의 근본경전으로 사용되어 온 경전임
- 원명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임.
- 대승(大乘), 원돈(圓頓)의 교리를 설한 것임.
- 주로 관행(觀行)에 대한 설명으로 문수(文殊), 보현(普賢), 미륵보살 등 12보살이 석가와 1문 1답의 형식을 취하였음.
- 고려의 지눌(知訥)이 이 경을 중시하여 요의경(了義經)이라 하여 펴뜨리기 시작하여, 조선 초에 함허(涵虛)가 「원각경」 3권을 지으면서 한국 불교 전문강원(專門講院)에서의 승려의 교과과목으로 채택되었음.
- 이 「대방광원각경(大方廣圓覺經)」은 「유마경(維摩經)」, 「능엄경(楞嚴經)」과 함께 선(禪)의 3경(經)임.

(3) 현전본

○ 현전본으로 다음의 5종이 있음.

(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D213.18 원11번

- 복본 3책 소장.

(나) 국회도서관 자료수집과 OL294.34-ㄱ434ㄷ

- 大方廣圓覺經. 全 / 白相奎 編著

鉛印本

京城[서울] : 三藏譯會, 1924

1冊 ; 22.4 × 15.2 cm

刊記: 覺紀二九六二年(1924)六月十五日再板發行

(다) 충남대학교 도서관 子.釋家類-677

- 大方廣圓覺經 / [著者未詳]

新鉛活字本

京城[서울] : 三藏譯會, 昭和 10[1935]

線裝1冊 : 四周雙邊 半郭 18.0 x 12.0 cm, 無界, 半葉15行33字 註雙行 ; 22.0 x 15.0 cm

板心題 : 大圓覺經

內容: 國漢文混用

紙質: 洋紙

(라)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C04-0120

- 大方廣圓覺經 / [著者未詳]

筆寫本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乙丑(?)寫

線裝不分卷1冊 : 四周雙邊 半郭 20.5 x 13.6 cm, 烏絲欄 9行16字, 上白魚尾 ; 25.3 x 18.0 cm

丘庸

楮紙

(마)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동223.58-불73번

- 大方廣圓覺經 / 白相奎 著

[京城[서울]] : 삼장역회, 19--

冊 ; 22.0 x 15.0 cm

(4) 가치

○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복본 3책이 소장되어 있음.

○ 현전본으로 이상과 같이 5종이 있음

다) 각해일륜(覺海日輪)

(1) 서지사항

○ 백용성 역술서임.

○ 신연활자본임.

○ 3권 1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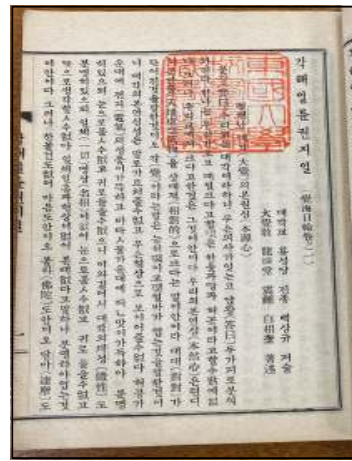
○ 1930년 발행임.

○ 사침안정. 사주단변 무계. 15행. 상하향흑어미(上下向黑魚尾). 21.9 X 15.3 cm(<그림 3> 참고).

○ 책임표시사항의 저자 '백상규(白相奎)'는 '백용성(白龍城)' 스님의 속명임(<그림 4> 참고).



<그림 3> 각해일륜 표지



<그림 4> 각해일륜 권수제면

(2) 내용

- 3·1운동 때 33인의 민족대표 서명자이기도 한 승려 백용성이 1930년 새로이 대각교(大覺敎)를 일으키고, 그 교전(敎典)으로 삼고자 지은 책임.
- 석가의 명호(名號) 및 도덕관을 비롯하여, 세계·중생의 연기(緣起)와 수도, 성불(成佛) 등에 이르기까지의 교의를 총망라하였음.
- 권 1에서는 인간의 본성(本性)과 성도(成道), 중생의 인연관(因緣觀), 중생과 유식(唯識), 인과(因果) 등 대각교의 교지(敎旨) 및 불교도들이 일으키기 쉬운 신앙상의 의문점 등에 관하여 18장으로 분류·해설하고 있음.
- 권 2에서는 중생의 고통(苦樂)과 삼계(三界)의 모든 존재 양상이 모두 인간의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것과, 소·대승(小大乘)의 수행방법을 설하고, 마음을 밝혀 수행에 힘써야 정각(正覺), 즉 대각을 이룰 수 있음을 절장으로 나누어 밝혔음.
- 권 3에서는 참선(參禪) 때에 화두(話頭)를 찾는 법과 외도(外道)에 대한 경계 등에 관하여 10장으로 나누어 설하였음.
- 권말에는 ‘육조단경요역(六祖壇經要譯)’이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음.

(3) 현전본

- 현전본으로 다음과 같이 4종이 있음
 - (가)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D218.93-백51ㄱ
 - (나) 경기대학교 도서관 경기-K101541-2 卷104
 覺海日輪. 卷1-4 / 白相奎 著
 新鉛活字本
 京城[서울] : 大覺敎堂, 昭和 5[1930]刊
 4卷1冊 : 四周雙邊 半郭 18.2 x 12.3 cm, 無界, 16行34字 註雙行, 上內向黑魚尾 ; 22.0 x 15.0 cm
 刊記: 昭和五年(1930)三月十五日發行
 序: 大覺應世二千九百五十六年己巳(1929)十月 日白相奎識
 紙質: 洋紙

(다) 국립중앙도서관 BC古朝23-34

覺海日輪 / 白相奎 著

鉛活字本

京城[서울] : 大覺敎堂, 1930

3卷1冊 ; 21.9 x 15.3 cm

(라) 국립중앙도서관 a11919-3

각해일륜 = (覺海日輪) / 白相奎 著

新鉛活字本

京城[서울] : 大覺敎堂, 1930

4卷1冊 ; 22.0 x 15.0 cm

頭言: 大覺應世二千九百五十六年己巳(1929)白相奎

(4) 가치

-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복본 2책이 소장되어 있음.
- 현전본으로 이상과 같이 4종이 있음.

3) 문헌자료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kr/main>>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대각교의식(大覺敎儀式)」은 1927년 백용성이 제작한 것으로 최초로 창작된 찬불가이며, 대각교(大覺敎) 법회에서 의식음악임. 또한 대각회의 대표적인 다비의식 관련 문헌으로도 알려져 있음. 현재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이 유일본으로 희귀 자료로 보존 가치가 높음.
- 「각해일륜(覺海日輪)」과 「대방광원각경大方廣圓覺經」은 각각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복본 2책과 3책이 소장되어 있으며, 현전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국회도서관 등의 소장본으로 4종과 5종이 있음.

5)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대각교(大覺敎) 법회 의식음악이며, 대각회의 대표적인 다비의식 관련 문헌인 「대각교의식(大覺敎儀式)」은 다양한 방면의 연구에의 활용 가치가 높음.

10. 「송암 박두성 선생 한글점자 유품」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송암 박두성기념관 소장 「송암 박두성 선생 한글점자 유품」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송암 박두성 선생 한글점자 유품」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0.7.30.)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8.28.)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격 (세로×가로×높이)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한글점자	1건 1점	13.2 × 18.7cm	1946년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357번길 105-19 송암박두성기념관
일지	1건 1점	25 × 19 cm	1926~1954년		
행사일지	1건 1점	30 × 22 cm	1926년		
점자원판-우어	1건 41점	26.5×18cm	1930년대 초 추정		
제판기	1건 1점	20×78×90cm	1910~1930년대		
점자인쇄기-로올러	1건 1점	50×50×47cm	1910~1930년대		
점자타자기	1건 1점	10.5×35×9cm	20세기		
축볼	1건 1점	26.7×18.1cm	1949년		
인장	6건 6점	7.5×2.5×6.0cm등	1926년 이후 추정		

(2)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20.7.30.) : 문화재 등록 신청(인천광역시→문화재청)
- ('20.8.28.)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 ('20.8.28.)

- 해당 유물은 송암 박두성이 창안한 한글점자인 '훈맹정음(訓盲正音)'과 관련된 유물임. ① '한글점자'는 훈맹정음의 창안과 각종 사용법을 기록한 육필 원고로 가치가 있음. ② '일지'와 ③ '맹사일지'는 훈맹정음을 만들어 내는 과정과 보급하는 과정에 관한 것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치가 있음. ④ '점자원판-우어', ⑤ '제판기', ⑥ '점자인쇄기-로올러', ⑦ '점자 타자기'는 박두성이 점자 문서와 책자를 만드는 데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점자로 책자를 만들어 내는 일련의 과정을 알 수 있게 하는 유물이며, 한글 점자를 보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높음. ⑧ '촉불'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상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회람지로 현존하는 유일본이므로 가치가 높음.
- 다만, ⑨ 인장류의 경우 사무적인 용품이라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미흡함.

○ ○ ○ ○ ('20.8.28.)

- 박두성기념관에 소장된 유물은 점자의 제작과정, 제작 도구, 제작된 점자책들, 제작 이후 보급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유물임. ① 한글점자는 훈맹정음의 사용법을 작성한 간이책자로, 시각장애인들이 실제로 점자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보급하는 과정을 알려주므로 가치가 있음. ② '일지'는 박두성의 한글점자 제작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가치가 있음. ③ '맹사일지'는 점자를 제작한 이후 점자의 보급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가치가 있음. ④ '점자원판-우어'는 이솝우화를 점역하기 위해 만든 아연판으로, 점자도서를 제작과정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임. ⑤ 제판기, ⑥ 점자인쇄기-로올러, ⑦ 점자타자기는 점자도서를 만드는 도구로 점자보급과 관련된 것으로 가치가 있음. ⑧ 촉불(촉불)은 시각장애인들이 회람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가치가 있음. 다만, ⑨ 인장류의 경우 등록하기를 판단하기 어려움

○ ○ ○ ○ ('20.8.28.)

- 해당 유물은 송암 박두성이 개발한 ‘훈맹정음(訓盲正音)’과 관련된 유물임. ① ‘한글점자’는 박두성 선생이 지은 한글점자 설명서로, ‘훈맹정음’을 만든 목적, 원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물로 가치가 있음. ② 일지와 ③ 맹사일지는 훈맹정음을 창안하는 과정과 그것을 보급하는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물로서 가치가 있음. ④ ‘점자원판-우어(우화)’은 이숙우화를 재판기를 이용해 점자 원판에 찍어낸 것으로, 시각장애인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점자판으로 만들어 보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임. ⑤ ‘재판기’와 ⑥ ‘점자인쇄기-로올러’와 ⑦ ‘점자타자기’는 한글 점자책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보급하는 과정에 만들어진 기계들로 된 유물로 가치가 있음. ⑧ ‘촉불’은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소식지로, 한글 점자책을 이용하여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에게 활용한 실재체(實在體)의 유물로 가치가 있음.
- 다만 ⑨ 인장류의 경우 훈맹정음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 만든 사업체에서 사무용으로 필요한 용품이므로 문화재로 등록하기에 미흡함.

○ ○ ○ ○ ('20.8.28.)

- 박두성 선생이 창안하여 1926년 11월 4일에 반포한 훈맹정음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어를 국어로, 창씨개명을 강제로 하는 세상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유언어 문자 창제라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큼.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점자 및 점자자료 제작에 관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가치가 있으며. 훈맹정음과 관련된 해당 유물들은 훈맹정음의 창안과 보급 등과 관련된 것으로 문화재 등록 가치가 높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인장류 제외

○ 출석 11명 / 조건부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송암 박두성 선생 한글점자 유품
2.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357번길 105-19 송암박두성기념관
3. 소유자 :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4. 조사자 의견('20.8.28.)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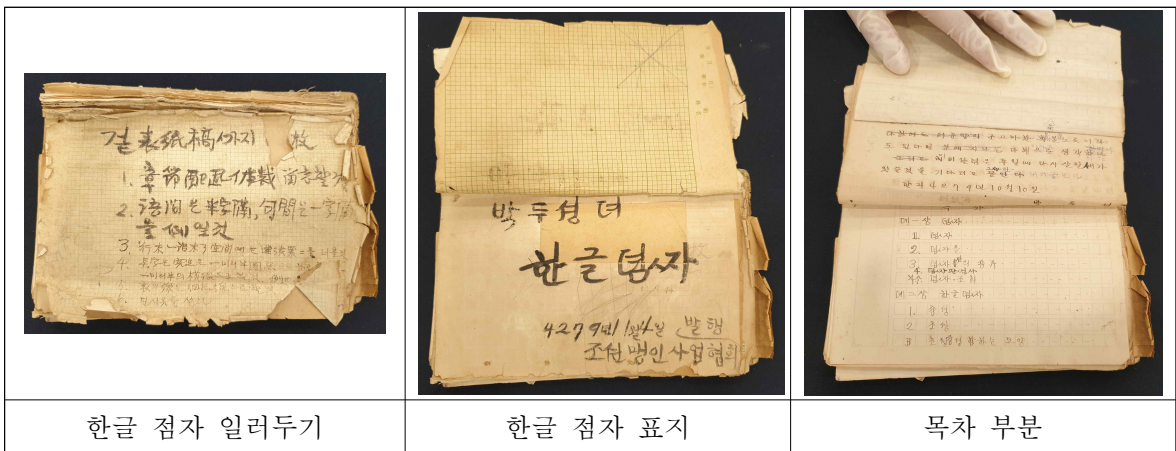
- 훈맹정음은 1926년 송암 박두성이 만든 한글점자의 명칭임.
- 박두성(朴斗星, 1888-1963, 호 송암(松庵))은 일제강점기 한글 점자(點字)를 창안한 교육자임. 1906년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어의동보통학교 교사로 있다가 1913년 제생원 맹아부(서울 맹학교의 전신) 교사로 취임함. 일어 점자로만 교육을 해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져오다가 학생들과 함께 조선어점자연구회를 조직하여 1926년 한글 점자를 완성하고 그 명칭을 ‘훈맹정음(訓盲正音)’으로 함.
- 1933년 제생원 맹아부를 퇴직하고 인천 영화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자택에서 조선맹인사업협회 이름으로 우편을 이용한 통신교육을 통해 전국의 맹인들에게 훈맹정음을 보급하고 한글 점자로 맹인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함. 박두성은 기독교인으로서 대영성서공회의 지원으로 1931년부터 성경을 점역하기 시작하여 1948년까지 신약전서 전권을 점역 출판하였으며, 성경뿐 아니라 『속담집』, 침구사로 일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그들이 치료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모은 『금싸라기』 『은싸라기』 와, 『천자문』 『명심보감』 『편지틀』 『천수경』 『불쌍한 동무』 등 점역서를 계속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문자를 익히고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진력함. 해방 후 1947년부터는 점자 회람지 『촉불』을 제작하여 돌려보게 함으로써 맹인들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맹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함. 이후 1963년 타계할 때까지 한글 점자로 맹인들의 교육에 힘써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으로 불림.
- 1962년 국민포상을 받았으며, 타계한 뒤인 1992년 정부에서 은관문화훈장을 수여했고, 2002년 4월 문화관광부에서 기리는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됨.
- 한글 점자는 훈맹정음보다 평양에서 선교를 하던 미국인 선교사 로제타 홀(Rosetta Hall, 1865-1951)이 뉴욕식 4점 점자를 이용하여 만들어 맹인 여성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있었음. 그러나 영어 알파벳을 응용한 이 4점식 점자는 한글의 중성을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따라서 박두성과 조선어점자연구원들은 한글의 특성을 살려, 당시 세계에서 널리 사용하던 브레유(Braille) 식 점자를 토대로 만든 일본 6점 점자를 응용해 6점으로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점자를 만들고 이를 “훈맹정음”이라고 명명함.

- 박두성기념관에 있는 훈맹정음 관련 유물은 박두성의 유족이 기증한 물품임. 송암 박두성 기념관은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 내에 인천의 인물인 송암 박두성을 기리기 위해 1999년에 마련한 공간임. 박두성 선생인 훈맹정음을 만들고 점역하던 여러 기구 및 점자책, 개인 유품 등을 소장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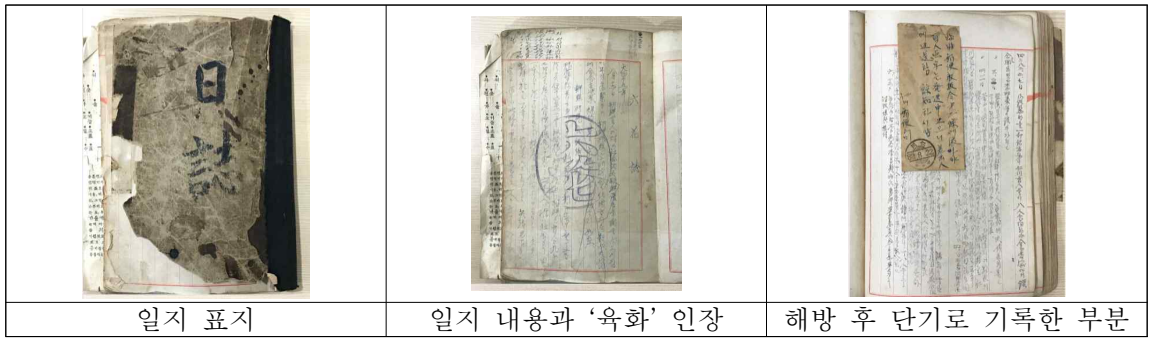
가. 한글점자

- 박두성 선생이 훈맹정음의 사용법을 기록한 『한글 점자』 육필 원고임. “4279년 11월 14일 조선맹인사업협회 발행”이라고 쓰여 있어 1946년 조선맹인사업협회 이름으로 발행을 준비한 것임을 알 수 있음. 종이에 필사로 쓰여 있으며 크기는 13.2x18.7cm 임.
- 한글 점자를 창안한 이후 각종 사용법을 정리한 자료로, 총 6장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점자, 한글점자, 점자를 배우려면, 수학부호와 화학식 기호, 음악 부호, 외국어 점자로 이루어져 있음.
- 한글 점자의 원리와 구성을 문자화한 것으로,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알 수 있도록 서술한 것으로 보임. 1940년대의 한글 점자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어 한글점자 변천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실로 묶여 있으며, 종이가 낡아 보존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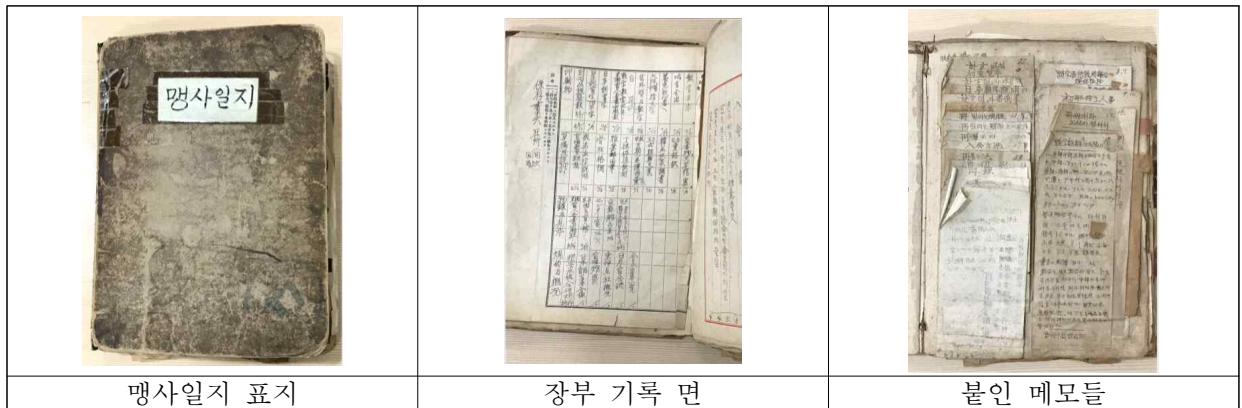
나. 일지(日誌)

- 박두성 선생이 1926년 8월 12일부터 1954년까지 시각장애 관련 업무를 기록한 일지임. 표지에 필사로 “日誌”라고 적혀 있으며, 내지 두 번째 장에 “육화지(六花誌)”라는 별칭도 사용함. 전체 177쪽 정도이나, 서류용 종이 등 여러 가지 종이가 혼합되어 있으며 이를 오른쪽으로 묶어 철함. 전체 크기는 25x19cm임.
- 일제강점기에는 대정, 소화 연도를, 해방 이후에는 단기 연도로 기록함.
- 육화사 설립부터, 훈맹정음을 만들 때 배점을 정한 것에 관한 기록, 육화사에서 보낸 편지 4종, 초년도 예산, 한글점자 서식 등 한글 점자를 만들고 보급한 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 조선맹인사업협회에서 보낸 편지의 사본, 신문에 실린 관련 기사 스크랩 등도 붙어 있음.
- 대부분 일본어 필사체 및 국한문 혼용 필사체로 쓰여 있어 판독이 필요함.



다. 맹사일지

- 훈맹정음을 보급하기 위해 조선맹인사업협회에서 운영한 내용을 기록한 것임. 표지는 장지에 “맹사일지”라는 표제어를 다른 종이에 따로 써서 붙였는데, 이것은 후대에 붙인 것으로 보임. 내지는 서류 용지 및 갱지와 이면지 등을 사용했으며 일지의 크기는 30x22cm 이나 메모, 신문 스크랩, 명함, 영수증 등 덧붙인 종이가 다수 있음.
- 조선맹인사업협회의 입회원서 및 회원 입회 현황, 점자 통신 교육 관련 자료, 한글 점자 연습, 책 빌리는 규정, 책을 부치는 방법, 훈맹정음 표, 맹서기(점자판) 차용청구서 및 사용법, 성서간행표와 성서복사표, 점자 도서 제작 현황, 점자원판 목록, 지역별 시각장애인 명단, 업무용 각종 편지 및 명함 등을 정리한 일지임.
- 박두성 선생이 직접 필사로 기록한 것이지만, 개인적인 일로서라기보다는 시각장애인 사업을 조선맹인사업협회라는 기관의 이름으로 시행한 것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임. 또한 박두성 선생과 맹인들이 함께 점자를 만들기 위해 논의한 과정이 상세히 들어 있어 추후 자세한 연구와 해제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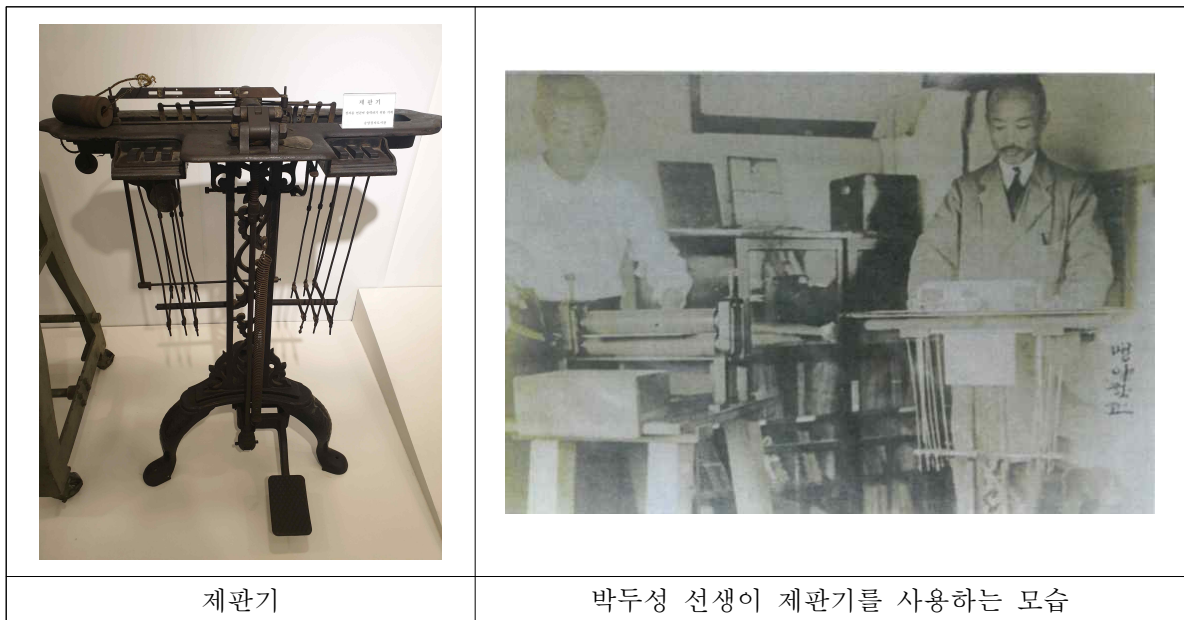
라. 점자원판-우어(우화)

- 얇은 아연판에 점자를 찍은 원판으로 모두 41장이 있으며 1930년대 초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크기는 26.5x18cm임. 원판에는 육화사 인장도 찍혀 있음.
- 점자서를 대량으로 인쇄할 때 사용하는 원판임. 점자서 출판은 얇은 아연판을 반으로 접은 뒤 점자제판기에 부착하여 점자를 입력하고, 완성된 원판 사이에 종이를 넣고 점자 인쇄기(로울러)로 밀면 종이에 점자가 눌러 인쇄되는 방식임.
- “우어” 점자의 내용은 이솝우화 이야기가 들어 있음. 점자 찍는 방식에서 문단 구별 없는 초기 점자 표기 양식이며, 연속표, 장음표, 군숫, 재서표, 된소리표, 소거듭 사용 등 점자 변천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마. 제판기

- 아연판에 점을 찍어 점자 원판을 제작하는 기계로, 박두성 선생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판기임. 점자 인쇄 시 1부씩만 제작이 가능한 점자판, 점자 타자기와 달리 아연판을 이용하여 점자 원판을 만들어 동일한 책을 여러 권 제작하는데 사용하였음. 철제로 제작되어 있으며 1910-1930년대 제작으로 추정함.
- 박두성이 제판기를 사용하는 사진이 남아 있는데, 이 제판기를 사용하여 여러 점자 책을 만들어 내었음. 박두성의 차녀 박정희의 구술 기록에 따르면 박두성은 퇴임 이후에도 점역서를 시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밤마다 제판기를 사용했다고 함. 밤에 헤드라이트를 끼고 작업하느라 시력이 매우 나빠졌다고 본인이 이야기했다고 함.



바. 점자인쇄기-로울러

- 제판기로 만든 점자 원판(아연판) 사이에 종이를 넣고 로울러를 밀어 점자가 찍히게 하는 점자 인쇄기임. 1910-1930년대 제품으로 추정되며 크기는 50x50x47cm 임.
- 박두성 선생이 점자 책을 제작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이 로울러에 아연판과 종이를 넣어 점자 책을 만들었음.



사. 점자타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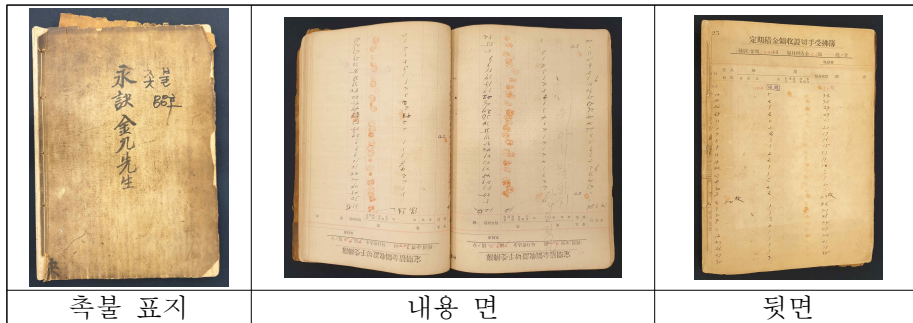
- 박두성 선생이 직접 사용한 점자 타자기임. 나무와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였으며 10.5x35x9 cm 크기의 타자기와 10.7x34x9.5 cm 크기의 덮개로 이루어져 있음.
- 6개의 글쇠를 조작하여 6개의 점을 찍을 수 있음. 타자기 제작은 일본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6개의 점을 이용하여 고안한 한글 점자를 찍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



아. 촉불

- 표지에 “촉불(촉불) 88호”, “영결 김구 선생”이라고 한글과 수자, 한자로 적혀 있으며, 내용은 한글 점자로 이루어져 있음. 은행에서 사용하다 폐기한 정기적금영수증수불부 종이를 활용해서 제작했으며, 크기는 26.7x18.1 cm 임. 표지에 한글로 ‘촉불’이라고 쓰여 있으나 이는 후대에 쓴 것으로 보이며, 내지의 첫 장 첫 머리에 점자로 “촉불”이라고 기록되어 있음(박두성 기념관 측 확인). 한자어 ‘촉(燭)’은 15세기 국어에서 뜻은 “초”, 음은 ‘촉’이었기 때문에 ‘촉불’로 나타났으며 현대 국어에서는 ‘촉불’로 표기함.
-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로 된 책자는 인쇄해서 보급했으나,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신문 등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 수 있는 매체가 없는 상황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중 점자 해독이 가능한 15명이 돌려 읽을 수 있도록 소식을 정리한 점자 회람지 『촉불』을 제작함. 박두성 선생이 당일 신문기사에 대한 논평과 해설을 하고 제자 이상진이 점자로 받아 적고 간단하게 제본해서 순서대로 돌려 읽었으며 다시 박두성 선생에게 돌아오도록 함. ‘촉불’인지 ‘촉불’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촉불”은 “觸拂”의 한글 표기라고 추정되며, 손으로 닿아 닦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촉불』88호의 내용은 7월 5일 서울운동장에서 거행된 백범 김구 선생의 영결 소식 및 이범석 국무총리의 조사를 24쪽에 걸쳐 소개한 것임. 『촉불』은 1947년부터 발행하여 한국전쟁 전까지 주간으로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존하는 것은 1949년 7월 11일에 발행된 88호가 유일함.



자. 인장류

- “六花”, “朝鮮盲人事業協會”, “盲人事業協會”, “大韓盲人事業協會”, “點字”, “緘” 글씨가 새겨진 인장 6점임. 나무에 새긴 것도 있고, 나무와 철을 혼합하여 제작한 것도 있음. 제작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1926년 이후 1950년대까지로 추정됨.
- 박두성 선생이 맹인사업협회 일을 진행하면서 서류 및 봉투에 날인한 인장으로 보임. “六花”는 한글 점자의 여섯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어” 아연판에도 찍혀 있는 것임. “점자” 인장은 봉투 안에 든 내용물이 점자임을, “함” 인장은 내용물을 봉했다는 뜻으로 찍은 것으로 보임. 점자 관련 인쇄물은 일제강점기 및 해방 후에 우체국의 허가를 얻어 무상으로 발송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표기를 한 것으로 보임.





도장 전체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일지(日誌)』와 『맹사일지』는 표지가 일부 박락되고 내용도 종이가 오래되어 만지면 바스라지는 부분도 있음. 보존처리가 시급함. 『한글 점자』와 『촉불』은 내지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표지는 다소 낡음.
- 점자원판-우어(우화)도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 부식이 일어날 수 있으며, 점자의 요철이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관 상자에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점자 타자기, 제판기, 로올러, 인장 등의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박두성기념관은 전시 공간을 만들어 전시하며 잘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특히 종이류는 장기적인 보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한글 점자 훈맹정음 관련 유물은 박두성이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읽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중요한 유물임. 장애인의 역사에 관한 교육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6) 등록가치의견

- 『일지(日誌)』와 『맹사일지』는 박두성이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만들어 내는 과정과 보급하는 과정에 관한 것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문화재로 등록가치가 높음.
- 『한글 점자』는 해방 후에 한글 점자의 창안과 사용 방식을 정리한 육필 원고로 등록 가치가 높음.
- 『촉불』은 박두성과 제자 이상진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상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회람지로 현존하는 유일본으로 등록 가치가 높음.
- 점자원판(우어)는 아연판에 새겨 점자 책을 만들었던 원판이며, 점자 타자기, 제판기, 로올러는 박두성이 점자 문서와 책자를 만드는 데에 직접 사용한 기기로, 이는 점자로 책자를 만들어 내는 일련의 과정을 알 수 있게 하는 유물이며, 이러한 기기를 이용하여 한글 점자를 보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등록가치가 높음.
- 인장 가운데 ‘육화’ 인장은 박두성이 한글 점자를 함께 만든 조선어점자연구회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한 ‘육화’로서 기념할 만한 것이며, 조선맹인사업협회 등 다른 인장들도 한글 점자 보급을 위해 애쓴 데에 사용한 인장들이나, 사무적인 용품이라는 점에서 등록가치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인장류를 제외한 8건 48점을 등록문화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7) 기타

- 등록 시 문화재 명칭은 ‘훈맹정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훈맹정음’은 1926년 박두성이 창안한 한글 점자를 이르는 고유명사이며, 한글을 이르는 ‘훈민정음’과도 연관을 가지며 시각장애인의 문자라는 뜻을 잘 살리고 있음. 또한 현대 한글 점자가 훈맹정음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했다는 점에서 시각장애인 문자의 역사를 잘 대변해 주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음.
- 국립한글박물관에 박두성 유족이 기증한 유물이 소장되어 있는데, 박두성 기념관 소장 유물은 훈맹정음을 만들고 보급한 공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는 자료와 유물의 특성을 지니며, 한글박물관 소장 유물은 점역된 문건, 개인 편지 등 개인 기록과 관련된 유물이 다수 있는 편임. 그러나 두 기관의 유물이 모두 훈맹정음 제정과 보급과 관련된 것으로 중요함.
- 일지와 맹사일지 등 육필본 원고는 보존 처리 및 디지털화하여 내용을 추후 상세히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박두성 기념관에는 박두성이 한글 점자를 보급하기 위해 제작해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했던 점역서가 여러 권 남아 있으나 이번 등록 문화재 신청에는 들어 있지 않음. 그러나 한글 점역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한글이 보급되었던 중요한 자료인 만큼 한글 점자 책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 제판기, 로올러 등과 함께 등록 문화재가 되면 전체적인 과정이 함께 담기게 되므로 추후 등록 문화재로 추가하는 것이 좋을 듯함.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던 점자판도 한글을 처음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박두성 기념관에 해당 유물이 있다면 추가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함.

<○○○>

1) 개요

- 현재 용현동 박두성기념관에 소장된 유물들은 유족인 박정희씨가 직접 기증한 것임. 현재 박두성 유물은 이곳, 한글박물관 등에 나뉘어 소장되어 있음. 이곳에는 한글 점자 제작과정, 제작 도구, 제작된 점자책들, 제작 이후 보급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유물이 풍부하게 소장되어 있음.
- 박두성은 한성사범학교에서 교육받은 후 제생원 교사가 된 이후, 일제의 교육과 조선인들의 생활 간의 괴리를 느껴 점자를 개발했음. 식민지 시대에 조선인에게 맞는 문자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었지만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이를 개발하고, 조선인 맹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음.
- 식민지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은 우선은 선교사가 시작했고, 이후에는 일본 총독부에서 제생원을 통해 교육. 선교사였던 로제타 홀은 뉴욕포인트식에 기반에 점자를 만들었지만 이것은 한글의 자모체계와 맞지 않아 익히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함. 당시 제생원의 교사를 하고 있었던 박두성은 시각장애인들이 안마교육을 받으며 해부학 등을 배우는데 일본어 점자를 익혀 이런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점자를 만들기 시작함. 그리고 점자의 창제 과정은 박두성 개인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맹학교의 제자들과 함께 몇가지 안을 두고 함께 만들어간 것임. 그래서 식민지 사회에서, 조선인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공동창작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음. 학생들과 함께 시작했던 단체의 이름은 처음에는 육화사였고, 이후 조선맹인사업협회로 바뀌었음. 그래서 박두성의 점자창제는 단순히 박두성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당시 박두성의 제자들이었던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협동하여 작업한 것임

- 그래서 점자 개발 이후에도, 수많은 점자책의 제작, 그리고 전국에 산재해있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우편을 통해 실제로 점자를 익히고, 점자책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했음. 또한 이것은 박두성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당시 수많은 박두성의 제자들이 함께 참여해 실행한 사업으로 단체의 이름으로 진행되었음. 맹인들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 살아갈 수 있는 교양을 제공하고자 했음. 그래서 박두성은 민족의 실력양성을 위해 맹인 교육을 강조했고, 맹인 교육을 위한 기본적 도구인 점자를 개발했고, 현재 문화재로 신청하는 유물들은 그런 귀중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임. 유물들은 근현대 민족운동과 소수자 역사의 중요한 유물이라 평가함
- 훈맹정음의 의의는 이것이 만들어진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있음. 당시 식민지 사회에서는 경기지방 이외에도 시각장애인들이 지방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기에 지방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하거나 여러 점자 강습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점자를 학습하는 것은 우선 안마사나 판수 등의 직업활동에 기반이 되는 실질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도구였음. 두 번째로는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의 변화와 교양을 익혀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책들(문학, 역사, 시사)을 점역해 보급했음. 당시 점역된 도서로는 명심보감, 금삼의 피, 내가넘은 삼팔선 등 역사, 문학, 사회 등 다양한 주제의 저서가 들어있음. 훈맹정음은 박두성의 실천적인 민족주의적 태도와 시각장애인들의 강한 의지가 결합되어 가능했음
- 박두성과 맹인사업협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성되었음. 점자창제, 교육, 제작 및 보급/대출 등으로 이루어졌고, 현재 등록 신청된 유물은 이런 점자 사업의 전반적 영역과 관련된 유물들임



<점자 창제와 맹인사업의 영역>

- 참고도서
 - 박두성, 「한글점자에 관하여(훈맹정음)」, 『성서한국』 제2권 제2호, 대한성서공회, 1956, 10~19쪽.
 - 강현진, 「송암 박두성의 시각장애 교육활동」,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주운정, 「식민지기 문화정책의 균열: 박두성의 訓盲點字와 盲人」. 『인천학연구』. 2008. 9(9) p. 245-270.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한글점자

- 훈맹정음의 사용법을 작성한 간이책자임. 한글점자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지 소개함. 훈맹정음의 의의는 단순히 창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점자를 사람들에게 교수하고, 제작하고, 보급하여 점자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문해력, 지식 등을 확장한 것이 중요함. 이 간이책자는 시각장애인들이 실제로 점자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수법을 소개하고 있음. 점자제작만이 아니라 교육·보급의 과정을 알려주는 귀중한 유물임

(나) 일지(日誌)

- 일지(日誌)는 송암 박두성 선생이 1926년 8월 12일 부터 1954년까지의 시각장애 관련 업무를 직접 기록한 기록물로 육화사 설립부터 훈맹정음 창제 시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음. 이것은 박두성이 점자를 제작하면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국한문혼용, 일문 등으로 기록한 것임. 일지에 의하면 점자창제는 육화사라는 단체 이름으로 제자들과 함께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그리고 이곳의 내용은 해방이후 정서가 되어 「한글점자에 관하여(훈맹정음)」라는 글로 잡지에 내용이 수록되었음. 박두성의 한글점자 제작과정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임

(다) 맹사일지

- 맹사일지는 박두성이 점자를 제작한 이후, 1927년 조선맹인사업협회를 조직하여 체계적으로 점자를 보급하고자 했음. 본 맹사일지는 맹인사업협회의 다양한 활동 등을 기록한 자료임. 조선맹인사업협회의입회원서 및 회원 입회 현황, 점자통신 교육 관련 자료, 맹서기(점자판) 차용청구서 및 사용법, 훈맹정음 관련 각종 팜플렛, 점자도서 제작 현황, 점자 원판 목록, 점자찬송가 간행 계획, 지역별 시각 장애인 명단, 업무용 각종 명함 및 편지들이 송암의 자필로 기록되어 있음. 당시 점자로 된 책들의 대출 내역가지도 포함되어 있어, 점자의 역사 뿐 아니라 당시의 독서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자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당시 사회의 다양한 사회관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임

(라) 점자원판-우어(우화)

- 우어(이습우화)를 점역하기 위해 만든 아연판임. 박두성이 제작한 점자 도서들은 남아있지만 아연판이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음. 점자도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손으로 점역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연판에 타공을 하여 이후 제판기를 활용하여 제작을 하는 방식도 있음. 현재의 아연판은 이습우화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박두성이 직접 아연판에 점역을 한 것으로 추측됨. 점자도서의 제작과정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라고 볼 수 있음. 1930년대 제작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점자의 역사에서 점자의 변천과 제작 방식의 변화를 알려주는 자료이기도 함.

(마) 제판기

- 박두성이 점역서를 제작하는데 사용했던 제판기임. 이것은 일본맹인복지협회에서 기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박두성이 실제 사용하던 사진이 남아있음. 이 제판기를 활용해서 점역을 하고 점자를 보급했음. 박두성의 점자창제의 의의는 단순히 문자를 제작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두성과 당시 제자들은 점자를 보급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했는데, 점자를 수기가 아니라 비교적 반자동화된 방식으로 제작을 하는 것은 무척 중요했음. 점자는 대량인쇄가 가능하지 않기에, 제판기로 제작을 하면 제작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었음

(바) 점자인쇄기-로올러

- 제판기를 이용해 만들어진 아연판을 로올러에 넣고 점자도서를 제작하는 도구였음. 이 역시 제판기와 마찬가지로 점역의 도구임. 이렇게 점역된 종이를 모아 점역도서를 제작했음. 당시에는 점역된 도서가 거의 없었기에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없었음. 하지만 박두성과 맹인사업협회의 사업을 통해 점역을 실시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서대출을 했음

(사) 점자타자기

- 박두성이 직접 사용하던 점자 타자기임. 박두성의 유물은 유족들에 의해 관리되다가 기념관으로 기증이 되었음. 동일 방식의 점자 타자기는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박두성이 직접 6점 점자 방식으로 사용하던 타자기이기에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음. 제생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박두성은 점자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제작하고 보급했음. 아마도 편지 등을 작성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아) 촛불

- 8.15 해방 직후의 혼란한 사회 속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사회의 변화상을 이해할 수 있는 매체가 부족했음. 주로 구전을 통해 의사소통을 했는데, 이념갈등, 분단 등 급박하게 변화하는 사회상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매체가 부족했음. 특히 시각장애인 중에는 점복업에 종사하는 경우나, 혹은 기독교인인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북쪽에서는 탄압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었음. 그래서 당시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의 변화를 기민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박두성은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여러 소식들을 점역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회람했음. 당시의 사회변화를 알려주는 소식들을 시각장애인 공동체와 공유한 것으로, 시각장애인들에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상을 알려준 것임

(자) 인장류

- 박두성 유물 중 도장류는 점자창제 이후 점자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임. 박두성은 지속적으로 육화사, 조선맹인사업협회 등 단체의 이름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를 보급하고자 했음. 그런 단체의 이름으로 문서를 보내거나 할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임. 인장류의 경우 등록하기를 판단하기 어려움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현재 유물들은 비교적 원형상태로 보존이 되고 있음. 하지만 일지와 맹사일지의 경우 육필원고로 겹겹이 여러 장을 이어 붙여 작성된 것으로 스캔 등을 통해 보존할 필요가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기념관에서 유물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전문적 보존을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함. 기념관에는 여러 문서류 등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데, 전문적인 제습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문서류가 스캔이나 사진 등으로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음. 그래서 문화재 보존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과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등록 신청하지 않은 다른 문화재 역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박두성이 직접 제작한 점자 책이 수십종이 있으며, 또한 박두성이 점자보급사업을 위해 작성했던 편지 등이 남아 있음. 그래서 추가적으로 문화재를 신청해서 관리가 될 필요가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박두성의 점자와 점자보급활동은 한국역사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음. 연구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소수자의 역사, 포용의 역사, 문자의 역사 차원에서 훈맹정음과 관련한 유물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구체적으로는 박두성 점자를 문자의 역사, 국어학적 측면에서 연구를 하여서 한글 점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위상을 밝힐 필요가 있음
- 식민지 시대 사회상 속에서 한글점자를 만들고 보급한 것이 시각장애인과 한국 사회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는지를 조명해, 이를 소수자의 역사에 대한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전시 등의 방식으로 점자를 익히는 체험과 결합해 입체적인 방식의 역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6) 등록가치의견

- 훈맹정음의 문화재적 가치는 첫째 국어학/문자사 차원의 가치가 있음. 두 번째로는 소수자의 역사, 세 번째로는 식민지 사회문화사의 귀중한 자료라고 볼 수 있음.
 - 점자는 원래 프랑스에서 군사문자의 일종으로 시작되었고, 4점 점자, 6점 점자의 형태로 혼용되었음. 점자의 도입은 근대적 특수교육의 시작을 알려주는 기점으로 인식되고 있음. 점자 이전에는 구술교육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죽력 등 초보적인 형태의 기호를 활용해 중요한 지식을 습득했음. 문자문화가 발달해가면서, 다양한 지식을 구전으로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음. 그래서 문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었음. 우선은 미국의 선교사인 로제타 홀이 개발했지만 이것은 뉴욕 포인트 식의 4점 점자로 한글과는 자모 체계에서 맞지 않아서 조선인들이 익히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박두성은 제생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이런 어려움을 인식해 6점 점자의 방식으로 한글점자인 훈맹정음(1926)을 창제.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 점자의 기본의 방식이 되고 있음. 그래서 특수 문자의 역사에서 훈맹정음은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현재 등록신청이 된 문화재들은 점자의 제작과정, 점역 도서 제작 도구 및 점역된 문건 등 점자 문화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이것은 점자라는 새로운 문자 체계가 시각장애인의 역사와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음. 시각장애인들은 점복업자나 안마업에 종사했는데, 박두성은 시각장애인의 직업적, 그리고 교양인으로서의 지식을 위해 다양한 도서를 점역했음. 본인이 기독교인이면서도 점복맹인들을 위한 경전을 점역하기도 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근대 사회에서 적응하고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점역도서를 통해 지원한 것임. 또 다른 한편에서는 31운동, 백범 김구 등 다양한 역사도서와 문학 도서를 점역해, 시각장애인들이 문자세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교양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도서를 점역해서 보급했음. 우어의 경우 교양서로 점역된 것으로 보임. 이렇듯 박두성은 시각장애인의 생활, 교육, 직업 등 전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점자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살아 갈수 있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구를 마련해준 것이라 볼 수 있음. 이것은 시각장애인의 역사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특수교육의 역사 차원에서 상당히 귀중한 문화재임
 - 또한 박두성의 유물들은 당시의 도서문화사, 사회사 등을 알려주는 귀중한 생활사적 자료임. 차녀인 박정희가 유물들을 관리하고 이것을 기념관과 한글박물관에 나누어 기증을 했음. 일지/행사일지에는 시각장애인 점자 제작과정에 대한 기록 속에, 당시의 독서 문화 등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 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 그래서 식민지 사회사에 대한 일종의 생활사적 자료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음

7) 기타

- 훈맹정음 문화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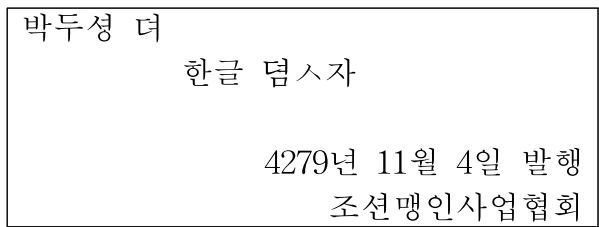
1) 개요

-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고 축적시켜 온 것은 사회생활을 통한 협동에 의한 것임.
- 인간의 동시적 협동과 계기적 협동은 말과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의 결과임.
- 그러나 말과 문자를 이용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의 도구들을 이용할 수 없어서 협동을 통한 문화의 창조나 축적은 고사하고 일상생활 자체에 어려움이 많았음.
- 이러한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의 도구가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수화(手話)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자(點字)가 등장하게 되었음.
- 특히 한국어를 말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도구로 한글 점자가 개발된 것은 최근세에 일어난 일임.
- 한글 점자가 초기에는 외국인들에 의해 개발되었으나 한글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국인들에 의해 개발된 한글 점자이어서 표준화되기 어려웠음.
- 이러한 시기에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를 새로 개발하여 이를 표준화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 주었음.
- 박두성 선생이 개발한 한글 점자의 이름을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명칭을 본따서 ‘훈맹정음(訓盲正音)’이라고 하였음.
- ‘훈민정음’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한다면 ‘훈맹정음’은 ‘맹인’(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임.
- 이 훈맹정음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또 이들을 동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것이어서 우리나라 문화사나 문자사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 것임.
- 이 훈맹정음과 연관된 유물들은 현재 두 곳에 집중적으로 소장되어 있는데, 한 곳은 송암박두성기념관과 한 곳은 국립한글박물관임.
- 이 두 곳 모두 송암 박두성 선생의 따님인 박정희 여사의 기증품임.
- 송암박두성기념관의 소장 유물과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훈맹정음 관련 유물들은 각각 그 특색이 있음.
- 송암박두성 기념관 소장 유물들은 주로 훈맹정음을 만들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실무적 성격을 지닌 유물들이며, 한글 박물관 소장 유물들은 주로 훈맹정음을 만드는 원리와 과정을 잘 살펴 볼 수 있는 유물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한글점자

- 조선맹인사업협회가 1946년 11월 4일에 쓴 박두성 선생이 지은 한글점자 설명서임.
- 갱지에 한글로 작성하고 노끈으로 묶어 제본한 원고 문치임.
- 속표지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음.



- 이것으로써 이 원고가 1946년 11월 4일에 박두성 선생이 지은 ‘한글점자’란 책의 설명서임을 알 수 있음.

- 다른 자료를 통해 이 글씨가 박두성 선생의 친필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 원고는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을 다시 세분하여 제목을 정하고 설명을 하고 있음.
- 그 목차를 보이면 다음과 같음.

머리말
목차
데一장 덤스자
1. 덤스자
2. 덤스자들
3. 덤스자판의 종류
4. 덤스자판 검사
5. 덤스자 조희
데二장 한글덤스자
1. 중성
2. 초성
3. 초중성 합하는 모양
3(4의 잘못). 중성
4(5의 잘못). 시옷과 외
된시옷
군시옷
외
6. 략자
와
위
의
을(를)
은(는)
예
7. 부호
1. 장음표
2. 쇼거듭
3. 대거듭
4. 런속표
5. 수표와 수스자
6. 전용략자

데三장 덤스자를 배호려면
1. 덤스자 익히는 법
2. 덤스자 쓰는 법
3. 글 쓰는 법
4. 잘못 쓴 것
5. 매는 법
6. 보존하는 법
데四장 수학부호와 화학식기호
1. 수학부호
2. 화학식기호
데五장 음악부호
데六 장 외국덤스자
1. 일본어덤스자
2. 영어 덤스자
1. 원썬레일
2. 미국 썬레일과 백이의 썬레일
3. 뉴-욕 포인트
추린말

- 1946년 10월 10일에 박두성 선생이 쓴 머리말에는 한글점자를 만든 박두성 선생의 의도가 잘 표현되어 있음.

비행기는 하늘에 날고 잠항정은 물속에서 숨박꼭질을 한다. 던기는 넓은 세상을 이웃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이 인간의 발달이니 모다 학문의 힘이다. 능한 목수는 몇 자 썩은 재목도 보리지 안코 능히 아로색여 귀물을 만들 수 있다. 지테에 잇서서 가장 요긴한 눈을 일흔 겨은 불행이 아닐 수는 업지만은 덤사자 연구는 과연 그들의 길재비요 등대로서 던화위복의 지남침이 될 수 잇스니 불행만을 한탄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 앞 못보는 자녀를 가진 형테 부모는 물론이고 누구나 그들에 대하야 뜻잇는 이가 이 책을 들쳐 보고 그들을 일러 주고 지도해 주는 이가 잇다면 썩은 나무가 버림을 받지 아니할 거성오 진실로 터럭 한 올을 뽑어서 던하를 리롭게 하는 공이 될 것이다. 그리하야 이 변변치 아니한 기록이 어둔 밤의 불행한 그들에게 잇서서 조고마한 등불노릇이라도 된다면 다행으로 생각하야 미비한 덤은 후일에 다시 실필 새가 잇을 것을 기다리고 내어 놓은다.

단기 4279년 10월 10일

박두성

- 이 원고는 모두 약 80쪽 정도가 되며, 모든 내용이 빠진 내용이 없이 전부 그대로 전하고 있음.
- 중간에 인쇄한 훈맹정음 기호표가 붙어 있음.
- 이 원고가 출판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훈맹정음이란 한글 점자를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1946년도에 만들어진 초기의 한글 점자에 대한 구조 및 사용 설명서이어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나) 일지(日誌)

- 1926년 8월 12일부터 1954년까지 송암 박두성 선생의 자필 기록과 박두성 등이 수집한 자료임.
- 여러 종류의 편지지와 갱지에 펜으로 세로로 쓴 것으로 모두 177장에 이름.
- 표지에 ‘日誌’라고 목서가 되어 있는데, 앞 부분에 “大正二十五年八月十二日 点字 研究會組織發表”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26년부터 작성한 것으로 추정됨.
- “四二八七年 七月 二六日 李相秦을 對同하고 京城駐在 웅크라에 事業援助 請願 書를 提出하다”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954년까지의 기록임을 알 수 있음.
- 표기 문자는 한글과 한자가 혼용되어 있고 가끔 일본의 카타카나도 보임.
- 내용은 육화사 설립, 훈맹정음 창제 시의 배점에 관한 기록, 육화사와 관련된 편지, 육화사의 예산, 점자 원판 목록, 시각장애업무와 관련된 기록, 박두성이 보낸 편지와 편지 봉투, 몇 장의 신문 스크랩 등임.
- 이 자료는 훈맹정음을 고안해 내고 이를 실용화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음.

(다) 맹사일지

- 맹사일지는 1926년경에 박두성 선생의 육필원고와 그가 가지고 있던 기록들을 묶어 한 책으로 만들어 놓은 일지임.
- 맹사일지는 아마도 ‘盲事日誌’로 해석되어 맹인사업과 연관된 내용을 기록한 일지로 보임.
- 표지에 ‘맹사일지’라고 쓴 첨지가 붙어 있음.

- ‘滿洲帝國政府’란 글씨가 있는 종지와 ‘仁川永化尋常小學校’라고 쓰인 종이, 달력 메모지, 갱지 등에 펜으로 쓴 것, 연필로 쓴 것, 그리고 유인본 등이 있고 신문 등을 스크랩한 것과 인쇄한 것을 붙여 놓은 것도 있음.
- 모두 248쪽으로서 내용은 조선맹인사업협회의 입회원서, 회원 현황, 맹서기(점자판) 차용청구서 및 사용법, 점자성경 제작 목록 및 과정, 점자원판 목록, 지역별 시각장애인 명부, 사용한 비용 등임.
- 별도로 목차가 있거나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순서 없이 쓴 것들을 나열하여 놓은 것임.
- 동일한 것을 여러 장 붙여 놓은 것도 많이 보임.
- 인쇄한 것 중 ‘盲書機使用法’은 조선맹인사업협회에서 만든 것으로 훈맹정음과 연관된 많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임.

(라) 점자원판-우어(우화)

- 점자 원판은 1930년대초에 이습우화를 제판기를 이용해 점자 원판에 찍어낸 아연판임.
- 한 장의 아연판을 반으로 접어서 점자제판기에 붙인 후 점자를 입력한 것임.
- 위에 ‘우어’라는 제목이 보이는데, 이것은 ‘寓語’로 해석됨.
- 곧 ‘우화(寓話)’와 동일한 내용이어서 성경 이외에도 시각장애인들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점자판으로 만들어 보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임.
- 모두 41장으로 페이지 번호가 1에서 41까지 있고 마지막 문장이 종결 상태로 있다고 하여 한 질이 누락된 것이 없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함.
- 매판마다 六花(조선어 점자 연구회) 인장이 박혀 있어서 훈맹정음으로 된 문학 자료의 실물이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보임.
- 점자원판 41장의 내용을 통해 세부 점자 표기와 점자 출판 형식 등 우리나라 초기 점자 연구와 지속적인 점자 발전에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음.

(마) 제판기

- 1910년-1930년대에 박두성이 사용했던 제판기로서 아연판에 점을 찍어 점자 원판을 만들어 냈던 기계임.
- 철로 제작되어 있으며 6개의 점을 찍는 스위치와 다양한 부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점자를 인쇄할 때, 한 부씩만 제작이 가능한 점자판이나 점자 타자기와는 달리 아연판을 이용하여 점자 원판을 만들어 동일한 책을 여러 권 제작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활판 인쇄에 비교한다면 조판기에 해당함.
- 당시의 사진을 통해 박두성이 직접 활용한 제판기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제판기라고 볼 수 있음.

(바) 점자인쇄기-로울러

- 1910년~1930년대에 박두성 선생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자인쇄기임.
- 점자가 찍힌 점자 원판 사이에 종이를 넣고 이 기계에 통과시킴으로써 종이에 점자를 찍는 기계임.
- 현대 연활자본과 비교하여 보면 인쇄기에 해당함.
- 철로 제작되었으며 2개의 원통형 쇠뿔치와 그 밖의 다양한 부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점자책을 만들기 위해 제판기로 만든 아연판을 이 기계를 이용하여 점자책을 대량으로 그리고 단기간 내에 제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임.
- 오늘날 활판인쇄술에서의 인쇄기와 동일한 것임.

(사) 점자타자기

- 1910년~1950년대에 송암 박두성 선생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자타자기임.
- 밑판은 목재로, 그리고 나머지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것임.
- 타자기를 덮는 덮개가 있고, 그 덮개에 손잡이가 있음.
- 6개의 점을 찍을 수 있는 버튼이 있고, 현재도 제대로 작동되는 점자타자기임.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6점 점자타자기로 볼 수 있음.

(아) 촛불

- 1949년 7월 11일에 시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점자로 만든 소식지임.
- 이름을 ‘촛불’(燭燭)이라고 한 것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마치 ‘촛불’처럼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해석됨.
- 이러한 ‘촛불’과 같은 소식지는 그 당시에 유행하였던 일종의 회전지(回轉紙)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여러 소식을 전하고 그럼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임.
- 이 ‘촛불’은 박두성 선생과 그의 제자인 이상진(시각장애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점자판과 점자 타자기를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표지에는 ‘촛불 88호’라는 소식지 이름이 있고 가운데에 ‘永訣 金九先生’이라는 제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김구 선생이 살해 당한 1949년 6월 26일 이후 1달이 채 되지 않은 때에 만든 정후로 보아 이 소식지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빠른 소식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촛불 88호’이어서 이러한 점자 소식지가 88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안타깝게도 현재 남아 있는 ‘촛불’은 이 88호가 유일한 것으로 보임.
- 속의 종이는 ‘定期積金領收證切手受拂簿’라고 쓰인 종이에 점자로 타자하여 만든 것으로 모두 51쪽 정도의 분량으로 되어 있음.
-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한 좌철(左綴)로 되어 있어서 그 당시의 점자책의 형태나 모양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 점자의 상태가 명료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모된 부분이 있어서 이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문자로 복구시켜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자) 인장류

- 1926년 이후부터 박두성이 맹인사업협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면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장임.
- 그 인장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① 盲人事業協會(7.5×2.5×6.0cm) : 왼쪽에 “仁川府栗木洞二五”가 가운데에 “盲人事業協會”가 오른쪽에 “振替口座 서울 一〇一”가 새겨져 있음.
 - 따라서 이 인장은 주소용 인장으로 추정되는데, 모금을 위해 진체구좌 번호까지 적어 놓은 것으로 보임.
 - 1939년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철제임.
 - ② 大韓盲人事業協會(7.5×2.5×6.5cm) : 1949년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철제임.
 - 새겨진 글자는 정자로 “仁川市栗木洞二五 大韓盲人事業協會”임.
 - 따라서 이 인장은 주소용 인장임.
 - ③ 緘(1.5×1.5×6.0cm) : 사용연도를 알 수 없는 원형 목제의 인장으로, 소전체로 봉합 ‘緘’자가 새겨져 있음.
 - 따라서 이 인장은 편지를 쓰고 봉하는 곳에 찍는 인장임.

- ④ 點字(1.5×2.5×5.5cm) : 연도 미상의 사각형 목제의 인장으로, 정자로 ‘點字’라 새겨져 있음.
 - 따라서 이 인장은 시각장애인들이 보는 점자임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한 인장으로 보임.
- ⑤ 朝鮮盲人事業協會(9.5×7.5×2.0cm) : 1927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정사각형의 목제 인장이며, 전서체로 ‘朝鮮盲人事業協會印’이라 새겨져 있음.
 - 따라서 이 인장은 조선맹인사업협회의 직인(職印)임.
- ⑥ 六花(9.5×7.5×2.0cm) : 1926년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타원형의 목제 인장으로 정자로 ‘六花’라고 새겨진 인장임.
 - ‘六花’란 원래 눈(雪)을 달리 이르는 말인데, 이것은 눈송이가 여섯 모의 결정을 이루는 데서 유래하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 ‘六花’란 ‘훈맹정음’의 점자체계를 암시하는 이름으로 6點을 六花라고 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六花’는 다른 한글 점자체계와는 다른 박두성의 점자책임을 알리는 인장으로 박두성의 훈맹정음 점자체계로 만들어진 점자책에 사용되었음.
 - 즉 육화 인장은 ‘우어(이습우화)’점자판에 사용한 것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가) 한글점자

- 한글점자는 양지에 연필 또는 펜으로 필기한 것이고 첩지가 곳곳에 붙어 있어서 비록 정리는 잘 되어 있으나 산화(酸化)되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이들을 모두 정밀하게 촬영하여 두고, 또한 이들을 컴퓨터의 문서작성기로 입력하여(표기법 등도 그대로), 별도로 보관해 둘 필요가 있음.

(나) 일지(日誌)

-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역시 양지 내지 갱지로 되어 있어서 산화되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정밀하게 촬영하여 두고 다시 이들을 컴퓨터의 문서작성기로 입력하여 원본 내용을 보존해 둘 필요가 있음.

(다) 맹사일지

- 보존상태는 양호하지만, 갱지나 양지에 쓰인 것이고 또한 첩지(帖紙)가 많아서 사진으로 촬영해 두어도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정밀촬영과 함께 컴퓨터의 문서작성기로 입력하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라) 점자원판-우어(우화)

- 보존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 그러나 아연판이므로 늘리면 점자가 훼손될 수 있으니 각별히 보존 방법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됨.

(마) 제판기

- 철로 된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녹슬지 않고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임. 그러나 부식 등의 위험이 있으니 공기 중에 그대로 노출시키지 말고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

(바) 점자인쇄기-로올러

-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일부는 부식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부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사) 점자타자기

-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현재도 그 기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임.

(아) 촉불

- 매우 중요한 유물이지만 점의 크기가 심하게 늘리고 마모된 부분이 있는 상태여서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 현재는 읽을 수 없는 상태로 보임.
- 따라서 늘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야 하며, 동시에 정밀하게 판독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둘 필요가 있음.

(자) 인장류

-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현재도 그대로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정도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송암박두성기념관에서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잘 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의 소유자인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송암점자도서관)에서도 세심하게 관찰하며 관리하고 있으나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전시물 중 실내에 방치된 상태로 전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리상자 안에 보존하면서 전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훈맹정음이란 점자를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심어 준 역사적 사건을 모든 국민들에게 크게 알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업적이 나오는 과정과 방법,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후대에 계속 전하기 위하여 유물들을 문화재로 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문자가 없는 국민들에게 훈민정음이란 문자를 만들어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국보 제70호), 또한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며, 또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업적들이 나오고 있는 현대에 시각장애인들에게 훈민정음과 다를 바 없는 훈맹정음을 좀 더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한글을 과학화하여 모스 부호로 만든 ‘전보장정’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형편이므로 이 점자에 관한 유물들도 문화재로 등록하여 둘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훈맹정음에 대한 유물은 현재 송암박두성기념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두 곳에 소장되어 있는데, 송암박두성 기념관 소장 유물들은 주로 훈맹정음을 만들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실무적 성격을 지닌 유물들이며, 한글박물관 소장 유물들은 주로 훈맹정음을 만드는 원리와 과정을 잘 살펴 볼 수 있는 유물임.
- 따라서 이 두 소장처의 유물들은 훈맹정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는데 모두 중요한 유물들이라고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

- ‘일지(日誌)’와 ‘맹사일지’는 박두성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훈맹정음을 창안하여 만들어내는 과정과 그것을 보급하는 과정을 가장 잘 보여 주는 유물이며, ‘한글점자’는 ‘훈맹정음’을 만든 목적, 원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물이며, ‘점자원판-우어(우화)’은 그렇게 해서 한글 점자책으로 만든 결과물로서의 유물임

- ‘제판기’와 ‘점자인쇄기-로울러’와 ‘점자타자기’는 그러한 한글 점자책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보급하는 과정에 만들어진 기계들로 된 유물이며, ‘촛불’은 한글 점자책을 이용하여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에게 활용한 실재체(實在體)의 유물이어서, 훈맹정음을 고안하고 원리를 세우고 이를 보급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우리나라 문화사상 반드시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단 인장류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유물이지만, 훈맹정음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 만든 사업체에서 사무용으로 필요한 용품이므로 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음.

<○○○>

1) 개요

- 훈맹정음은 박두성 선생이 만든 한글점자의 명칭으로 1926년 11월 4일에 반포함.
- 박두성 선생과 한글점자 창안
 - 제생원 맹아부에서는 평양에서 홀여사가 만든 4점형 평양점자를 배운 일부 학생들이 입학하여 사용하였고, 이러한 동기가 시각장애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박두성 선생에게 6점형 한글점자를 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박두성 선생은 한글점자를 만들 결심을 하고 한글의 창제 과정 연구를 시작하여 1921년에 ‘3.2점식 점자’를 만들어 사용하였음.
 - ‘3.2점식 점자’를 보완하기 위해 1923년 세종대왕이 집현전에 언문청을 두었다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제자 8인과 ‘조선어점자 연구위원회’를 비밀리에 조직하여 한글점자연구를 착수한지 3년 4개월만인 1926년 8월에 완성하여, 훈민정음이 반포 480주년 해이면서 처음으로 축하 기념식을 올리는 ‘가가날’인 11월 4일에 훈민정음과 발음이 비슷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훈맹정음’으로 발표하였음.
 - 당시의 ‘훈맹정음’ 창안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어를 국어로, 창씨개명을 강제로 하는 세상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유언어인 문자 창제는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큼.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한글점자

- 박두성 선생이 훈맹정음을 창안한 이후 1946년 조선맹인사업협회 발행으로 점자, 한글점자, 점자를 배우려면, 수학 부호와 화학식 기호, 음악 부호, 외국어 점자 구성되었고, 한글점자의 원리와 구성을 정리하여 한글에서 외국어 점자까지 정리하여 시각장애인의 학습 및 문자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음.

나. 일지(日誌)

- 박두성 선생이 1926년 8월 12일부터 1954년까지 시각장애 관련 업무를 기록한 일지로 육화사 설립, 훈맹정음을 만들 때 배점을 정한 것, 육화사에서 보낸 편지 4종, 초년도 예산, 한글점자 서식 등 한글점자를 만들고 보급한 과정을 섬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 창안과 더불어 교육 및 보급을 직접 관리했음을 추정함.

다. 맹사일지

- 박두성 선생이 훈맹정음을 보급하기 위해 조선맹인사업협회에서 운영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입회원서 및 회원 입회 현황, 점자 통신 교육 관련 자료, 한글점자 연습, 책 빌리는 규정, 책을 부치는 방법, 훈맹정음 표, 맹서기 차용청구서 및 사용법, 성서간행표와 성서복사표, 점자 도서 제작 현황, 점자 원판 목록, 지역별 시각장애인 명단 기록은 점자 보급과 최초의 점자도서관의 기능을 했음을 알 수 있음.

라. 점자원판-우어(우화)

- 점자서를 대량으로 인쇄할 때 사용하는 얇은 아연판에 점자를 찍은 원판으로 점자 찍는 방식에서 문단 구별 없는 초기 점자 표기이며, 연속표, 장음표, 군숫, 재서표, 된소리표, 소거듭 사용 등 점자 표기 변천 과정과 특성을 알 수 있고, 점자원판을 보관함으로 자료보존 및 재사용하여 제작 및 보급에 효율성을 볼 수 있음.

마. 재판기

- 아연판에 점을 찍어 점자 원판을 제작하는 철제로 된 기계이며, 1910년에서 30년에 박두성 선생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판기로 원판 1종으로 다량의 점자 도서를 제작할 수 있는 당시 혁신적인 기기로 볼 수 있음.

바. 점자인쇄기-로올러

- 점자재판기로 만든 점자 원판 사이에 종이를 넣고 로올러를 밀어 점자가 찍히게 하는 점자인쇄기로 박두성 선생이 1910-1930년대 점자책을 제작할 때 사용한 기기이며, 점자재판기, 점자인쇄기, 점자원판 등을 사용하여 점자도서를 제작하는 관련 기기에 사료적 가치가 있음.

사. 점자타자기

- 박두성 선생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알루미늄과 나무로 제작되었고, 6개의 글쇠를 조작하여 6점형 점자를 찍을 수 있어 한글점자를 찍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점자 자료 제작에 쉽게 활용하여 편지 및 개인 문서 기록

아. 촉불

- 촉불(촉불)은 1947년부터 발행하여 한국전쟁 전까지 주간지로, 현존하는 것은 1949년 7월 11일에 발행된 88호가 유일하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신문 등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 수 있는 매체가 없는 상황에서 박두성 선생이 당일 신문기사에 대한 논평과 해설을 하고 제자 이상진이 점자로 받아 적고 제본해서 순서대로 돌려 읽었으며 다시 박두성 선생에게 돌아오도록 회람하였음.

자. 인장류

- 박두성 선생이 맹인사업협회 일을 진행하면서 서류 및 봉투에 날인 한 인장이며, '점자' 인장은 봉투 안에 든 내용물이 점자임을 확인하고, 점자 관련 인쇄물에 대한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 우체국에 허가를 받아 무료 배송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도입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점자타자기, 재판기, 로올러, 인장 등의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종이류에 해당하는 일지, 맹사일지, 촉불 등은 양호하지 않아 보존에 신경을 써야 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박두성기념관은 전시 공간을 만들어 잘 관리하고 있으나 종이류는 장기적인 보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한글점자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점자 및 점자자료 제작에 관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시각장애인의 고유 문자인 점자의 출발과 창안에 대한 자부심, 창의성, 역사성이 후대에 활용가치가 높음.

- 훈맹정음은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반영하고, 6점형 점자를 이용해서 받침(종성)과 약자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음. 점자 개정에 있어서 원리와 정체성을 널리 활용할 가치가 있음.
- 한글 이외의 또 다른 글자가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고 장애인 인식개선에 활용할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훈맹정음 관련하여 박두성기념관은 한글점자 훈맹정음 창안과 점자 제작을 위한 기기로 단체 및 공적 유물들이었고,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점자 훈맹정음 창안과 보급이 사적 관련 유물이었음.

7) 등록가치의견

- 일지와 맹사일지, 한글점자는 박두성 선생이 한글점자인 훈맹정음 창안과 보급에 대해 매우 귀중한 문화재로 등록 가치가 높음.
- 촉불(촉불)은 박두성 제자 이상진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상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회람지로 등록 가치가 높음.
- 점자타자기, 점자제판기, 로울러는 박두성 선생이 점자도서와 자료를 제작 및 보급하는 데에 사용한 기기로 등록 가치가 높음.
- 인장은 주로 사무적인 용품과 육화라는 출판사와 맹인사업협회를 설립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인장 가운데 ‘육화’와 ‘점자’ 인장은 점자도서관 운영과 시각장애인 우편의 무료 제도와 취급에 관한 최초 임을 알 수 있어 등록 가치가 높음.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등)

- 문화재 등록 시 문화재 명칭은 훈맹정음으로 하나, 한글점자를 포함한 명칭을 만들었으며 좋겠음. 예) 한글점자 훈맹정음, 사유: 훈맹정음에 대한 이해 부족과 더불어 다수의 사람들이 훈민정음의 오타로 생각할 수 있음.

11. 「훈맹정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훈맹정음」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훈맹정음」은 ‘근현대문화유산 장애인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을 통하여 발굴되고, 등록 신청된 ‘송암 박두성 선생 한글점자 유품’과 함께 등록 추진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9.1.)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한글점자」 육필 원고본	1	33.5×21.3	1946년	국립한글 박물관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한글점자의 유래」 초고본	1	22.5×16.3	1946년		
「훈맹정음의 유래」 초고본	1	34.5×21.0	1949년		
한글점자 초고	1	10.7×22.4	1950년대 초반 추정		
훈맹정음의 유래	3	34.3×21.0	1949년 추정		
「한글점자」 초고	1	10.7×21.3	1950년대 초반 추정		
한글점자 쓰는 법	5	26.0×19.0	1930~40년대 추정		
훈맹정음	1	29.8×19.5	1926년 추정		

(2)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3) 추진경과

- (’20.3월~) : 근현대문화유산 장애인 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
 - ‘한글점자 육필 원고본’ 등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훈맹정음 관련 유물 27건 발굴
- (’20.9.1.)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20.9.1.)

- '훈맹정음'은 송암 박두성이 만든 한글 점자의 명칭으로, 관련 유물들은 주로 국립한글박물관과 송암 박두성 기념관에 소장되어 있음. 이 중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훈맹정음 관련 유물들은 「한글점자」 육필 원고본·「한글점자의 유래」 초고본·「훈맹정음의 유래」 초고본 등으로, 박두성이 창안한 한글 점자의 유래와 작성 원리, 그리고 한글 점자를 보급한 자료들로서 시각 장애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익히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로 등록 가치가 매우 큼.

○ ○○○('20.9.1.)

-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훈맹정음 관련 유물은 점자 제작 이후, 점자 제작 원리에 대해 작성한 원고와 점자를 보급한 문건들이 주로 소장되어있음. 훈맹정음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 점자의 기본의 방식이 되고 있으므로 특수문자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또한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살아갈수 있도록 지식을 습득을 위한 도구를 마련해준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시각 장애인 역사와 한국 사회의 특수교육의 역사 차원에서 귀중하며, 당시 사회사 등을 알려주는 귀중한 생활사적 자료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

○ ○○○('20.9.1.)

- '훈맹정음'은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를 개발하여 이를 표준화하는데 성공한 것으로서,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준 중요한 기능을 하였음. 국립한글박물관에는훈맹정음과 관련하여 「한글점자」 육필 원고본, 「한글점자의 유래」 초고본 등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훈맹정음이 창안되어서 실제로 사용되기 이전까지의 모든 내용을 제시하여 주는 유물들임. 이들은 훈맹정음의 창안과 그 구조 및 체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유물로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충분함.

○ ○○○('20.9.1.)

- '훈맹정음'은 박두성이 1926년 11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발표한 것으로,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어를 국어로, 창씨개명을 강제로 하는 세상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유언어인 문자 창제라는 점에서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큼. 또한 '훈민정음의 유래' 등을 통해 훈민정음의 우수성, 역사성, 독창성을 보았음. 훈맹정음의 창제 및 반포가 100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가치와 제자원리가 높아 문화재 등록이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훈맹정음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3. 소유자 : 국립한글박물관장
4. 조사자 의견('20.9.1.)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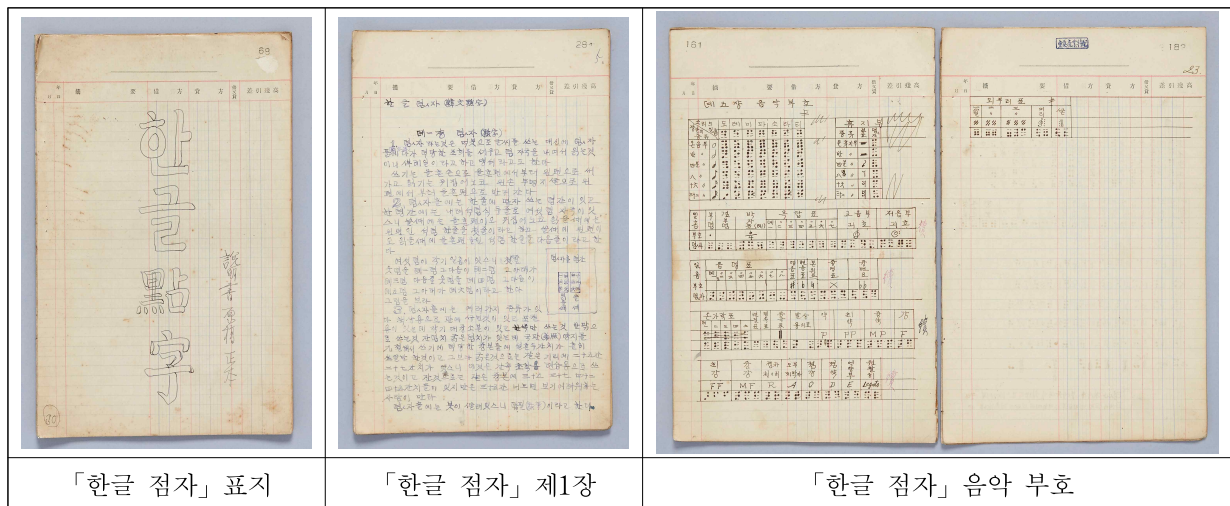
- 훈맹정음은 1926년 송암 박두성이 만든 한글점자의 명칭임.
- 박두성(朴斗星, 1888-1963, 호 송암(松庵)은 일제강점기 한글 점자(點字)를 창안한 교육자임. 1906년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어의동보통학교 교사로 있다가 1913년 제생원 맹아부(서울 맹학교의 전신) 교사로 취임함. 일어 점자로만 교육을 해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져오다가 학생들과 함께 조선어점자연구회를 조직하여 1926년 한글 점자를 완성하고 그 명칭을 ‘훈맹정음(訓盲正音)’으로 함.
- 1933년 제생원 맹아부를 퇴직하고 인천 영화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자택에서 조선맹인사업협회 이름으로 우편을 이용한 통신교육을 통해 전국의 맹인들에게 훈맹정음을 보급하고 한글 점자로 맹인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함. 박두성은 기독교인으로서 대영성서공회의 지원으로 1931년부터 성경을 점역하기 시작하여 1948년까지 신약전서 전권을 점역 출판하였으며, 성경뿐 아니라 『속담집』, 침구사로 일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그들이 치료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모은 『금싸라기』 『은싸라기』와, 『천자문』 『명심보감』 『편지틀』 『천수경』 『불쌍한 동무』 등 점역서를 계속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문자를 익히고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진력함. 해방 후 1947년부터는 점자 회람지 『촉불』을 제작하여 돌려보게 함으로써 맹인들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맹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함. 이후 1963년 타계할 때까지 한글 점자로 맹인들의 교육에 힘써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으로 불림.
- 1962년 국민포상을 받았으며, 타계한 뒤인 1992년 정부에서 은관문화훈장을 수여했고, 2002년 4월 문화관광부에서 기리는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됨.
- 한글 점자는 훈맹정음보다 평양에서 선교를 하던 미국인 선교사 로제타 홀(Rosetta Hall, 1865-1951)이 뉴욕식 4점 점자를 이용하여 만들어 맹인 여성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있었음. 그러나 영어 알파벳을 응용한 이 4점식 점자는 한글의 중성을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따라서 박두성과 조선어점자연구회원들은 한글의 특성을 살려, 당시 세계에서 널리 사용하던 브레유(Braille) 식 점자를 토대로 만든 일본 6점 점자를 응용해 6점으로 한글의 초성, 중성, 종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점자를 만들고 이를 “훈맹정음”이라고 명명함.

-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훈맹정음 관련 자료들은 박두성의 차녀 박정희가 보관하던 것을 2014년에 기증한 것임. 박두성의 육필 원고류, 한글 점자 일람표, 점자 편지, 점자 문서류, 조선맹인사업협회 규칙, 박두성 및 가족 사진 등 40건 105점이 소장되어 있음.
- 박두성의 유물은 현재 주로 인천의 송암 박두성기념관과 한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박두성 기념관에 기증된 훈맹정음 관련 자료들은 훈맹정음을 창안하는 과정과 한글 점자를 시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기구, 기록 등 좀더 공적인 성격을 지닌 자료들이라면, 한글박물관에 기증된 훈맹정음 관련 자료들은 원고의 초고들, 점자 편지, 박두성 및 관련 인물들의 사진 등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성격의 자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한글 점자」 육필 원고본(1946, 박두성)

- 박두성이 21.3x33.5cm 크기의 서류용지에 쓴 「한글 점자」 육필 원고임. 16장 27면에 걸쳐 머리말, 목차에 이어 본문으로 점자, 한글 점자, 점자를 배우려면, 수학기호와 화학식 기호, 음악 부호, 외국어 점자의 6개 장으로 내용을 정리함. 각주 및 메모가 붙어 있는 초고 정서본임.
- 1926년 훈맹정음을 만든 뒤 보완된 완성본 한글 점자를 해방 후 출판하기 위해 정리한 원고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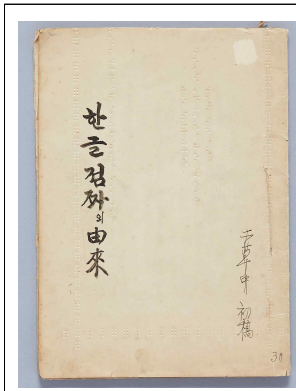
「한글 점자」 표지

「한글 점자」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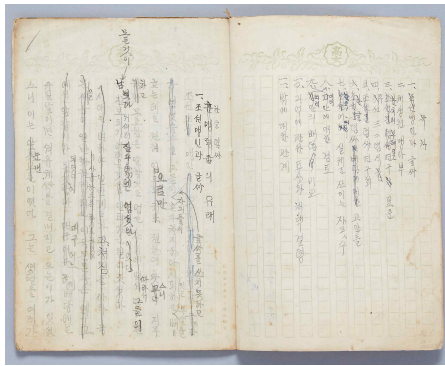
「한글 점자」 음악 부호

(나) 「한글점자의 유래」 초고본(박두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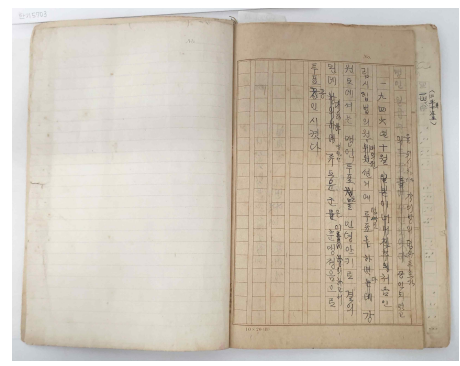
- 「한글 점자의 유래」는 박두성이 한글 점자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경과를 정리한 육필 초고본임. 22.5x16.3cm 크기의 '高女' 표기와 문양이 있는 원고지 및 다른 원고지에 작성했고, 퇴고의 흔적이 많이 있는 초고본임. 세로 쓰기로 오른쪽으로 선장되어 있음. 맨 마지막 장에 1946년 10월 임시 입법의원 대의원 선거에서 점자 투표를 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1946년 10월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임.
- 내용은 조선 맹인과 점자, 제생원 맹아부, 한국어 부레일(점자) 연구의 표준, 우선 3.2 점식, 조선문 점자 연구회, 한글 점자 고안들, 한글에서 실제로 쓰이는 자모 수, 여러 안의 검토, 여러 안의 배점 비교, 기억에 관한 조사와 채택 결정, 밖에 대한 관계 등 목차로 서술함. 이 내용은 1956년에 박두성이 발표한 「한글 점자에 관하여」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그 초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한글 점자의 유래」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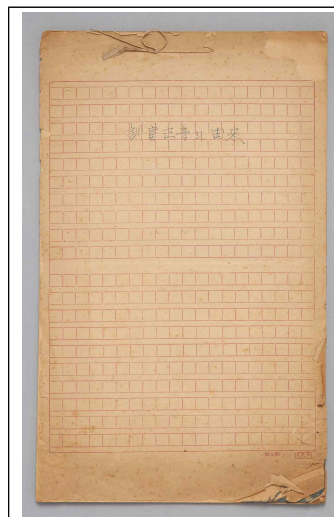
「한글 점자의 유래」목차와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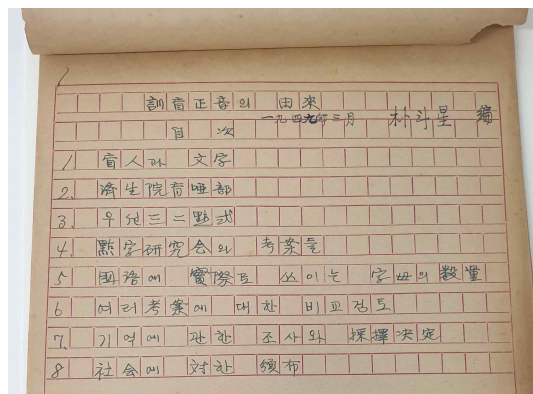
「한글 점자의 유래」마지막 장

(다) 「훈맹정음의 유래」초고본(박두성, 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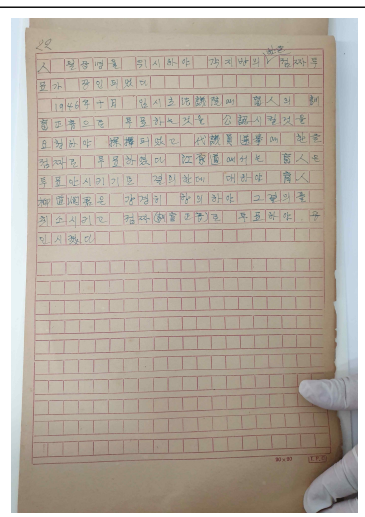
- 「훈맹정음의 유래」는 박두성이 위의 「한글 점자의 유래」와 같은 내용을 좀더 정서하여 34.5x21cm 크기 400자 원고지에 정리한 것임. 1946년에는 보통 명사로 ‘한글 점자’로 표기했었으나 1949년의 이 초고본에서는 고유명사인 ‘훈맹정음’을 살린 점이 다름.
- 목차 부분에 ‘1949년 3월 박두성 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음. 한글 박물관에서는 1946년으로 정보가 정리되어 있으나, 박두성의 기록에 따라 1949년 3월로 정정해야 할 것임. 내용이 1956년에 박두성이 발표한 「한글 점자에 관하여」와 거의 일치하며,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된 것으로 보임.
- 내용은 22쪽으로 정리되어 있음.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하나, 표지 및 내지 하단부에 결실 및 잉크 오염이 있어 보존처리가 필요함.



「훈맹정음의 유래」 표지



「훈맹정음의 유래」 목차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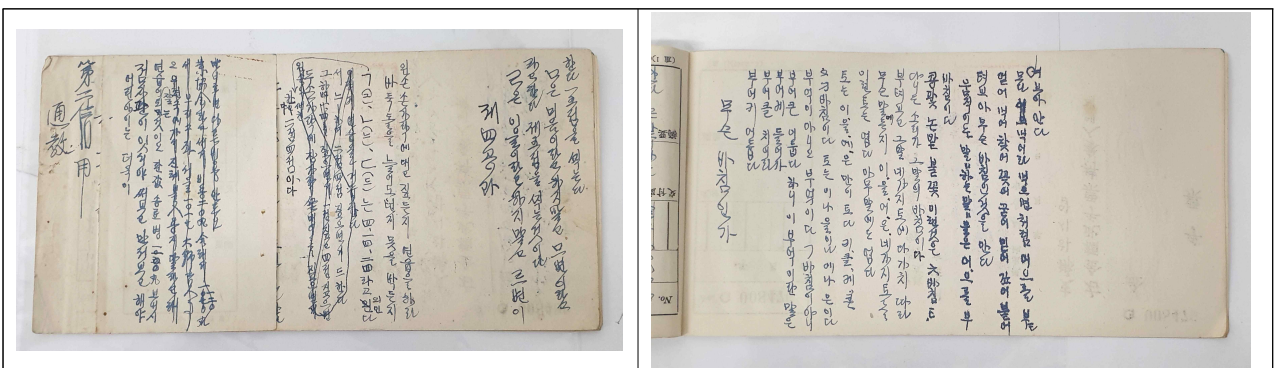


「훈맹정음의 유래」 마지막 장

(라) 한글점자 초고(박두성)

- 한글점자에 관한 내용을 적은 일종의 메모장임. 10.7x22.4cm 크기의 수표책을 이용하였으며 종이는 모두 4장 8면임. 글씨는 세로 쓰여 있으나 읽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진행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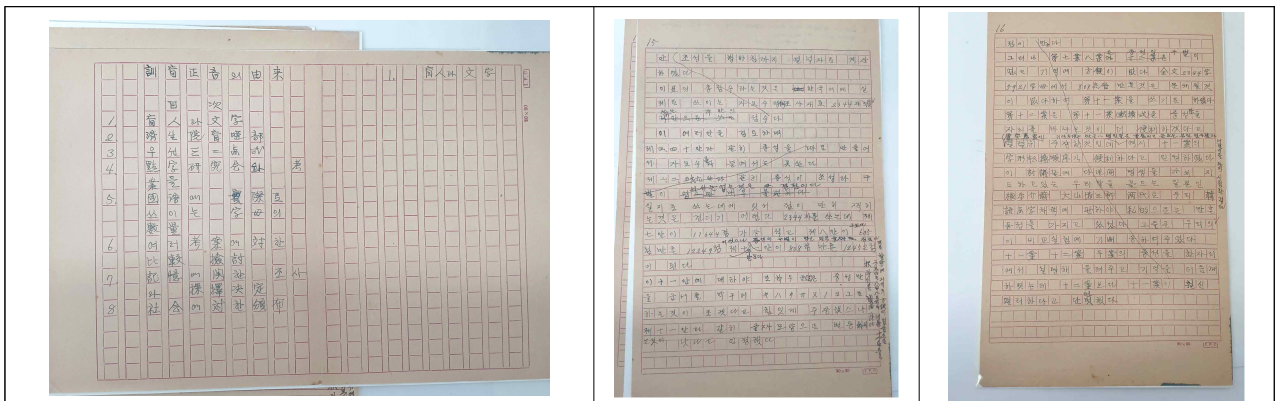
- 작성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면지를 사용한 수표책에 적힌 “조선식산은행”은 일제강점기부터 있던 은행이나 1950년 2월에 상호가 “한국식산은행”으로 변경되었음. 수표 책의 문서에 ‘83년’ 표기가 있는데 이는 1950년이므로, 조선식산은행이 한국식산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에 폐기된 수표책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문서는 대체로 1950년대 초반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됨.
- 첫 장에 “어린아이는 점자판이 있어야 써보고 만져보고 해야 연습이 되는 것이요”라고 쓴 메모지가 붙어 있으며 제3공과부터 시작하고 있어 앞 장이 탈락한 것으로 보임. 제7과까지 점자판에 대한 설명, ㄱㄴㄷ 등 자모에 관한 설명, 받침에 대한 설명, 모음에 대한 설명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그러나 완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아래의 ‘바’번 한글박물관 소장 한글 점자 초고(소장 번호 한기 5729)가 제1공과와 제2공과를 담고 있어 이 한글 점자 초고(소장 번호 한기 5726)의 그 뒷부분으로 보임. 이 두 유물은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한글 점자 초고 1면, 5면

(마) 훈맹정음의 유래(박두성)

- 「훈맹정음의 유래」 초고본의 일부로 목차와 15, 16쪽의 3장만 남아 있음. 한글박물관 소장 번호 5714 「훈맹정음의 유래」와 같은 내용이나, 정서하다가 낙장된 것으로 보임.



「훈맹정음의 유래」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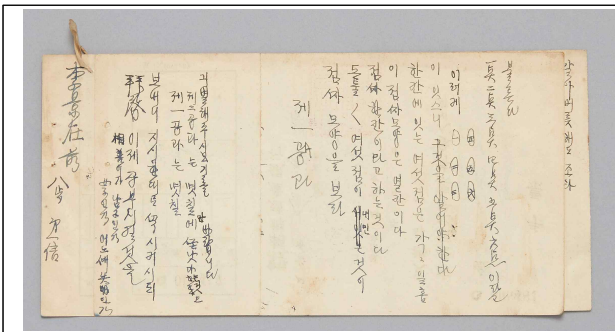
「훈맹정음의 유래」15쪽

「훈맹정음의 유래」1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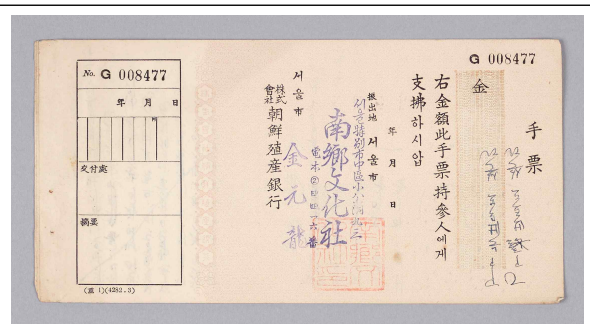
(바) 『한글점자』 초고(박두성)

- 『한글점자』초고는 박두성이 한글 점자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한 글임. 10.7x21.3 cm 크기의 수표책에 메모처럼 적은 것으로 정서된 원고는 아님. 3장 6면으로 되어 있으나 메모지가 붙어 있는 것도 있음.

- 작성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편지를 사용한 수표책에 적힌 “조선식산은행”은 일제강점기부터 있던 은행이나 1950년 2월에 상호가 “한국식산은행”으로 변경되었음. 수표 책의 문서에 ‘83년’ 표기가 있는데 이는 1950년이므로, 조선식산은행이 한국식산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에 폐기된 수표책을 사용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문서는 대체로 1950년대 초반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됨.
- 초고의 첫 면에 “이경재 전”으로 되어 있고 “상선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언제 실명인가” 하고 묻고 “이제 공부시킬 것을 보내니 지시하는 대로 시키되 제1공과는 몇 일 제2공과는 몇 일에 끝났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적고 있어, 지인의 자녀를 위해 알기 쉽게 한글 점자를 익히는 방법을 세세히 적은 글로 보임. 제1공과와 제2공과까지만 적혀 있어, 위의 ‘라’ 번 한글 점자 초고(한글 박물관 소장 번호 한기 5726)의 앞부분으로 보임. 따라서 이 두 유물은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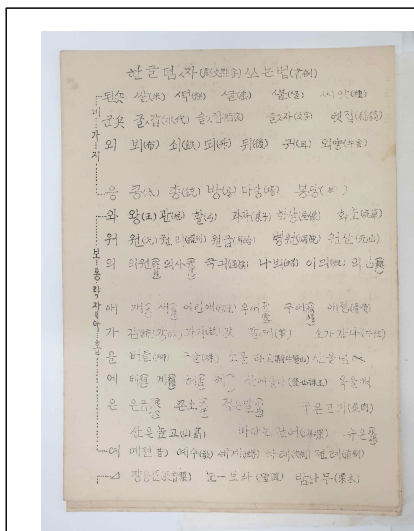
한글 점자 초고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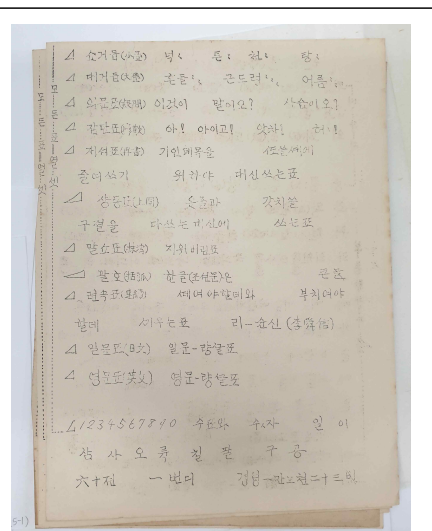
한글 점자 초고 맨 뒷면

(사) 한글점자 쓰는 법

- ‘한글 점자 쓰는 법’은 된시옷, 군시옷, 복모음, 소거듬, 대거듬, 의문표, 감탄표, 줄여쓰기, 연속표 등을 정리한 것으로, 등사로 앞뒤 1장으로 만든 것임. 같은 내용이 5장임.
- 제목에 ‘한글점자(鮮文點字)’라고 써 있는데, 1946년에 정리한 (가) 「한글 점자」 육필 원고본에서는 ‘한글점자(韓文點字)’라고 쓴 것과 비교하면 1945년 이전에 한글점자를 쓰는 방법을 보급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보임.
- 한글 점자 쓰는 법이 이 한 장뿐인 아닌 것으로 보이나, 현존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임. 한글 점자 쓰는 법을 낱장으로 정리하여 보급하기 위해 제작했던 것으로 보임. 한글 점자의 보급 방식을 알려주는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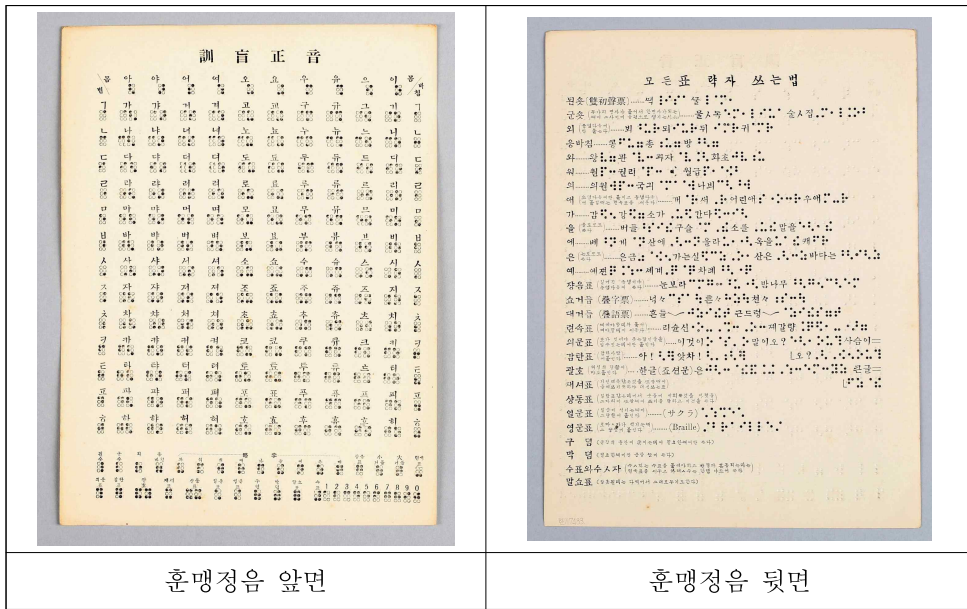
한글 점자 쓰는 법 앞면



한글 점자 쓰는 법 뒷면

(아) 훈맹정음

- 인쇄본 「훈맹정음」으로 박두성이 1926년에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완성한 뒤 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한 장으로 한글의 점자화 모양을 정리하여 배포한 것임. 29.8x19.5cm로 점자가 입력될 수 있는 도톰한 종이를 사용함.
- 목자(문자)와 점자가 함께 있어 정안자(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이를 보고 한글 점자를 배울 수 있게 한 것을 알 수 있음.



훈맹정음 앞면

훈맹정음 뒷면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함. 다만 「훈맹정음의 유래」초고본은 원고지 일부가 박락되고 잉크가 오염된 부분이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한글박물관에서 개별 파일 및 비닐에 잘 보존하고 있음. 다만 종이가 오래 된 것인 만큼, 향후 중성지 등 장기적인 보존을 염두에 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한글 점자 훈맹정음 관련 유물은 박두성이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읽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중요한 유물임. 장애인의 역사에 관한 교육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6) 등록가치의견

- 한글박물관 소장 훈맹정음 관련 유물은 박두성이 창안한 한글 점자의 유래와 작성 원리, 그리고 한글 점자를 보급한 자료들로, 시각장애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익히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임. 등록 가치가 매우 큼.
- 한글 박물관 조사 당시에는 박두성 유족이 기증한 27건 91점을 조사하였으나, 훈맹정음과 직접적인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적인 편지나 사진 등을 제외하고 「한글 점자」 육필 원고본, 「한글점자의 유래」 초고본, 「훈맹정음의 유래」 초고본, 한글점자 초고(라, 바), 훈맹정음의 유래, 한글점자 쓰는 법, 훈맹정음 7건 14점의 유물에 대해서 등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7) 기타

- 등록 시 문화재 명칭은 ‘훈맹정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훈맹정음’은 1926년 박두성이 창안한 한글 점자를 이르는 고유명사이며, 한글을 이르는 ‘훈민정음’과도 연관을 가지며 시각장애인의 문자라는 뜻을 잘 살리고 있음. 또한 현대 한글 점자가 훈맹정음을 기반으로 하여 발전했다는 점에서 시각장애인 문자의 역사를 잘 대변해 주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음.

<○○○>

1) 개요

- 한글박물관의 훈맹정음 관련 유물은 따님인 박정희 여사가 작고한 이후 유족들이 기증한 것임. 한글박물관의 유물들은 대체로 개인의 서신, 그리고 육필 원고 등이 보관되어 있음. 그래서 점자 제작 이후, 점자 제작 원리에 대해 작성한 원고와 점자를 보급한 문건들이 주로 문화재의 등록대상임
- 박두성은 한성사범학교에서 교육받은 후 제생원 교사가 된 이후, 일제의 교육과 조선인들의 생활 간의 괴리를 느껴 점자를 개발했음. 식민지 시대에 조선인에게 맞는 문자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었지만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이를 개발하고, 조선인 맹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음.
- 식민지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은 우선은 선교사 이후에는 일본 총독부에 해 제생원에서 시작됨. 선교사였던 로제타 홀은 뉴욕포인트식에 기반에 점자를 만들었지만 이것은 한글의 자모체계와 맞지 않아 익히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함. 당시 제생원의 교사를 하고 있었던 박두성은 시각장애인들이 안마교육을 받으며 해부학 등을 배우는데 일본어 점자를 익혀 이런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점자를 만들기 시작함. 그리고 점자의 창제 과정은 개인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맹학교의 제자들과 함께 몇가지 안을 두고 함께 만들어간 것임. 그래서 식민지 사회에서, 조선인들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공동창작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음. 학생들과 함께 시작했던 단체의 이름은 처음에는 육화사였고, 이후 조선맹인사업협회로 바뀌어갔음. 그래서 박두성의 점자창제는 단순히 박두성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당시 박두성의 제자들이었던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협동하여 작업한 것임
- 그래서 점자 개발 이후에도, 수많은 점자책의 제작, 그리고 전국에 산재해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우편을 통해 실제로 점자를 익히고, 점자책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했음. 또한 이것은 박두성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당시 박두성의 제자들이 함께 참여해 실행한 사업으로 단체의 이름으로 진행되었음. 맹인들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 살아갈 수 있는 교양을 제공하고자 했음. 그래서 박두성은 민족의 실력양성을 위해 맹인 교육, 맹인 교육을 위한 기본적 도구인 점자를 개발했고, 현재 문화재로 신청하는 유물들은 그런 귀중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임. 유물들은 근현대 민족운동과 포용적인 소수자 역사의 중요한 유물이라 평가함
- 훈맹정음의 의의는 이것이 만들어진 것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있음. 당시 식민지 사회에서는 경기지방 이외에도 시각장애인들이 지방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기에 지방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통신교육을 실시하거나 여러 점자 강습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 점자를 학습하는 것은 우선 안마사나 관수 등의 직업활동에 기반이 되는 실질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도구였음. 두 번째로는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의 변화와 교양을 익혀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양한 책들(문학, 역사, 시사)을 점역해 보급했음. 훈맹정음은 박두성의 실천적인 민족주의적 태도와 시각장애인들의 강한 의지가 결합되어 가능했음
- 참고자료
 - 박두성, 「한글점자에 관하여(훈맹정음)」, 『성서한국』 제2권 제2호, 대한성서공회, 1956, 10~19쪽.
 - 강현진, 「송암 박두성의 시각장애 교육활동」,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주윤정, 「식민지기 문화정책의 균열: 박두성의 訓盲點字와 盲人」, 『인천학연구』, 2008. 9(9) p. 245-270.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한글 점자」육필 원고본(1946, 박두성)

- 박두성은 일지에 기록된 한글점자의 창제 과정을 육필 원고로 정서한 것임. 일지에는 한글점자의 창제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안, 제자들이 이 안들에 대해 토론한 내용 등에 대한 기록이 국한문 혼용, 일문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 이 원고를 한글로 정서해서 작성한 것임. 이 원고를 다듬어서 이후 「한글점자의 유래」로 성서한국에 게재함. 인쇄 원고를 작성하기 이전에 원고라고 볼 수 있음. 점자를 작성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임

(나) 「한글점자의 유래」초고본(박두성)

- 박두성은 일지에 기록된 한글점자의 창제 과정을 육필 원고로 정서한 것임. 일지에는 한글점자의 창제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안, 제자들이 이 안들에 대해 토론한 내용 등에 대한 기록이 국한문 혼용, 일문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 이 원고를 한글로 정서해서 작성한 것임. 이 원고를 다듬어서 이후 「한글점자의 유래」(1956)로 성서한국에 게재함. 인쇄 원고를 작성하기 이전에 원고라고 볼 수 있으며 내용이 거의 일치함.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점자의 역사와 소개, 기존의 방식 소개, 점자연구회의 활동내용, 채택과정에 대해 소개되어 있음

(다) 「훈맹정음의 유래」 초고본(박두성, 1946)

- 박두성은 일지에 기록된 한글점자의 창제 과정을 육필 원고로 정서한 것임. 일지에는 한글점자의 창제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안, 제자들이 이 안들에 대해 토론한 내용 등에 대한 기록이 국한문 혼용, 일문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 이 원고를 한글로 정서해서 작성한 것임. 이 원고를 다듬어서 이후 「한글점자의 유래」로 성서한국에 게재함. 인쇄 원고를 작성하기 이전에 원고라고 볼 수 있음.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점자의 역사와 소개, 기존의 방식 소개, 점자연구회의 활동내용, 채택과정에 대해 소개되어 있음

(라) 한글점자 초고(박두성)

- 박두성은 일지에 기록된 한글점자의 창제 과정을 육필 원고로 정서한 것임. 일지에는 한글점자의 창제과정에 대해 여러 가지 안, 제자들이 이 안들에 대해 토론한 내용 등에 대한 기록이 국한문 혼용, 일문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 이 원고를 한글로 정서해서 작성한 것임. 이 원고를 다듬어서 이후 「한글점자의 유래」로 성서한국에 게재함. 인쇄 원고를 작성하기 이전에 원고라고 볼 수 있음.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점자의 역사와 소개, 기존의 방식 소개, 점자연구회의 활동내용, 채택과정에 대해 소개되어 있음

(마) 훈맹정음의 유래(박두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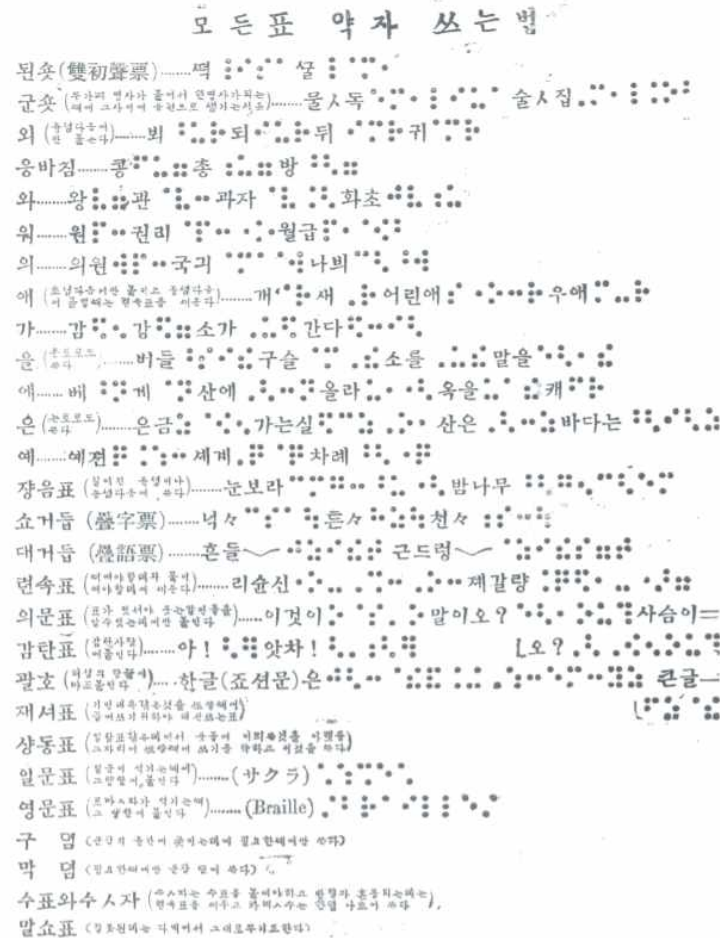
- 메모의 형식으로 한글 점자에 대해 정리한 것임

(바) 『한글점자』 초고(박두성)

- 가, 나, 다, 라와 같은 원고의 판본인데 3장만 남아있음

(사) 한글점자 쓰는 법

- 한글점자의 약자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이것은 56년 『한글점자의 유래』에 모든표 약자 쓰는 번으로 기록되어 있음. 56년 원고 이전에 정서한 것으로 보임



한글점자의 유래(1956)

(아) 훈맹정음

- 1926년에 훈맹정음을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건. 묵자와 점자가 함께 있으며 이것을 보급하여서 사람들에게 훈맹정음을 익힐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비교적 원형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박물관에서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단 현재 보존되어 있는 자료에 대해 연구가 좀더 이루어져서 의미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임. 점자로 된 문헌 등의 경우에는 내용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점자 문건들을 묵자로 전환해서 내용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박두성의 점자와 점자보급활동은 한국역사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음. 연구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소수자의 역사, 포용의 역사, 문자의 역사 차원에서 훈맹정음과 관련한 유물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구체적으로는 박두성 점자를 문자의 역사, 국어학적 측면에서 연구를 하여서 한글 점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위상을 밝힐 필요가 있음
 - 식민지 시대 사회상 속에서 한글점자를 만들고 보급한 것이 시각장애인과 한국 사회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는지를 조명해, 이를 소수자의 역사에 대한 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전시 등의 방식으로 점자를 익히는 체험과 결합해 입체적인 방식의 역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6) 등록가치의견

- 훈맹정음의 문화재적 가치는 첫째 국어학/문자사 차원의 가치가 있음. 두 번째로는 소수자의 역사, 세 번째로는 식민지 사회문화사의 귀중한 자료라고 볼 수 있음.
 - 점자는 원래 프랑스에서 군사문자의 일종으로 시작되었고, 4점 점자, 6점 점자의 형태로 혼용되었음. 점자의 도입은 근대적 특수교육의 시작을 알려주는 기점으로 인식되고 있음. 점자 이전에는 구술교육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죽력 등 초보적인 형태의 기호를 활용해 중요한 지식을 습득했음. 문자문화가 발달해가면서, 다양한 지식을 구전으로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음. 그래서 문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었음. 우선은 미국의 선교사인 로제타 홀이 개발했지만 이것은 뉴욕포인트 식의 4점 점자로 한글과는 자모 체계에서 맞지 않아서 조선인들이 익히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박두성은 제생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이런 어려움을 인식해 6점 점자의 방식으로 한글점자인 훈맹정음(1926)을 창제. 그리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 점자의 기본의 방식이 되고 있음. 그래서 특수문자의 역사에서 훈맹정음은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현재 등록신청이 된 문화재들은 점자의 제작과정, 점역 도서 제작 도구 및 점역된 문건 등 점자 문화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이것은 점자라는 새로운 문자체계가 시각장애인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음. 시각장애인들은 점복업자나 안마업에 종사했는데, 박두성은 시각장애인의 직업적, 그리고 교양인으로서의 지식을 위해 다양한 도서를 점역했음. 본인이 기독교인이면서도 점복맹인들을 위한 경전을 점역하기도 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근대 사회에서 적응하고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점역도서를 통해 지원한 것임. 또 다른 한편에서는 31운동, 백범 김구 등 다양한 역사도서와 문학 도서를 점역해, 시각장애인들이 문자세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교양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도서를 점역해서 보급했음. 우어의 경우 교양서로 점역된 것으로 보임. 이렇듯 박두성은 시각장애인의 생활, 교육, 직업 등 전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점자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살아 갈수 있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구를 마련해준 것이라 볼 수 있음. 이것은 시각장애인의 역사 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특수교육의 역사 차원에서 상당히 귀중한 문화재임

- 또한 박두성의 유물들은 당시의 도서문화사, 사회사 등을 알려주는 귀중한 생활사적 자료임. 차녀인 박정희가 유물들을 관리하고 이것을 기념관과 한글박물관에 나누어 기증을 했음. 일지/행사일지에는 시각장애인 점자 제작과정에 대한 기록 속에, 당시의 독서 문화 등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 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 그래서 식민지 사회사에 대한 일종의 생활사적 자료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음
- 아울러 조사 당시에 27건 91점을 조사하였으나, 훈맹정음과 직접적인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8건 14점의 유물에 대해서 등록 추진함.

<○○○>

1) 개요

-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고 축적시켜 온 것은 사회생활을 통한 협동에 의한 것임
- 인간의 동시적 협동과 계기적 행동은 말과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의 결과임
- 그러나 말과 문자를 이용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의 도구들을 이용할 수 없어서 협동을 통한 문화의 창조나 축적은 고사하고 일상생활 자체에 어려움이 많았음
- 이러한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의 도구가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수화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자가 등장하게 되었음
- 특히 한국어를 말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도구로 한글 점자가 개발된 것은 최근세에 일어난 일임
- 한글 점자가 초기에는 외국인들에 의해 개발되었으나 한글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국인들에 의해 개발된 한글 점자이어서 표준화되기 어려웠음
- 이러한 시기에 박두성 선생이 한글 점자를 새로 개발하여 이를 표준화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 주었음
- 박두성 선생이 개발한 한글 점자의 이름을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訓民正音)의 명칭을 본따서 ‘훈맹정음’(訓盲正音)이라고 하였음
- ‘훈민정음’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한다면 ‘훈맹정음’은 ‘맹인’(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임.
- 이 훈맹정음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또 이들을 동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것이어서 우리나라 문화사나 문자사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 것임.
- 이 훈맹정음과 연관된 유물들은 현재 두 곳에 집중적으로 소장되어 있는데, 한 곳은 송암박두성기념관과 한 곳은 국립한글박물관임.
- 이 두 곳 모두 송암 박두성 선생의 따님인 박정희 여사의 기증품임.
- 송암박두성기념관의 소장 유물과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훈맹정음 관련 유물들은 각각 그 특색이 있음.
- 송암박두성 기념관 소장 유물들은 주로 훈맹정음을 만들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실무적 성격을 지닌 유물들이며, 한글 박물관 소장 유물들은 주로 훈맹정음을 만드는 원리와 과정을 잘 살펴 볼 수 있는 유물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한글 점자」 육필 원고본(1946, 박두성)

- 박두성 선생이 친필로 쓴 ‘한글 점자’에 대한 설명서임.
- 부기장에 가로로 쓴 원고인데, 초벌은 연필로 쓴 후 다시 펜으로 덧칠해 쓴 것과 펜으로 쓴 것의 두 종류가 있음.
- 첫장에 제목은 ‘한글 點字’라고 하였고, 첩지(帖紙)가 붙어 있는데, ‘造版(組版의 잘못)에 注意할 것’이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인쇄하기 위한 초벌 원고로 추정됨.
- 앞에 머리말, 목차가 있고 이어서 본문이 시작되는데, 본문은 제1자에서부터 제6장까지로 되어 있음

제1장 : 점자
제2장 : 한글 점자
제3장 : 점자를 배우려면
제4장 : 수학부호와 화학식 기호
제5장 : 음악부호
제6장 : 외국어 점자

- 위의 내용으로 보아서 이 유물은 점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서임.
- 머리말에 ‘단기 4279년 10월 10일 박두성’이란 기록으로 보아 1946년 10월 10일에 박두성 선생이 직접 쓴 원고가 틀림없음.
- 이 한글 점자의 내용이 ‘한글, 수학부호, 화학식 기호, 음악부호, 외국어 점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훈맹정음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임.
- 따라서 이 ‘한글 점자 설명서’는 ‘훈맹정음 점자표’와 함께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를 교육시키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자료임.

(나) 「한글점자의 유래」 초고본(박두성)

- ‘한글 점자의 由來’는 박두성 선생의 친필 원고로 박두성 선생이 ‘훈맹정음’을 창안하기 이전까지의 한글 점자에 대한 유래를 적은 것임
- ‘仁川公立高等女學校制定’이라 쓰인 242자(22X11) 원고지에 세로 또는 가로로 쓴 원고로 연필로 쓴 초고를 펜으로 수정 보완한 부분이 많음.
- 목차는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음.

一. 맹인과 글씨
二. 제생원 맹아부
三. 한국어 부레일 표준
四. 우선 三二덤식
五. 덩짜 연구회
六. 한글 덩짜 고안들
七. 실제로 쓰이는 자모수
八. 여러 안에 대한 검토
九. 여러 안의 배덤 비교
十. 기억에 관한 도사와 채택 결정
十一. 밖에 대한 관계

- 펜으로 수정한 부분은 1960년대 이후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조선문’을 ‘한국어’로 수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임.
- ‘한국’이란 단어는 대한제국 이후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한국어’란 단어는 1960년대부터 사용되었기 때문임. 그 이전에는 ‘조선어’였는데, ‘조선어’는 일본어를 ‘국어’라고 지칭하던 시기의 산물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말을 ‘국어’라고 하다가 1960년대에 와서 ‘한국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음.

○ 목차와는 달리 본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한글 덩짜의 유래
- 1. 조선 맹인과 글짜
- 2. 제생원 맹아부
- 3. 조선문 덩짜연구
- 4. 위선 三二덩식을
- 5. 조선문 덩짜연구회
- 6. 한글 덩짜 고안들
- 7. 조선어에 실제로 쓰이는 자모入수
- 8. 한글 덩짜에 대한 고안들
- 9. 각 배덩안에 대한 검토
- 10. 여러 안의 배덩入수 비교
- 11. 밖에 대한 관계

○ 그러나 수정 보완을 많이 함으로써 번호는 맞지 않음

○ 이 원고는 기존에 행해졌던 한글 점자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전의 점자 고안들 보다 박두성 선생이 제안한 고안한 한글 점자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내용이어서, 한국의 한글 점자의 유래와 그 체계의 비교를 검토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보임.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과 유사한 것을 주장하였음

- 1. 조선 맹인은 점자를 사용할 것
- 2. 매일 정기통신을 할 것
- 3. 조선어 점자에 관한 사업을 경영할 것
- 4. 각기 모르는 이에게 가르쳐 줄 것

○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였음.

‘이와 같은 과정을 지내고 조선어 점자는 신안을 채택하기로 확정하고 訓盲正音(훈맹정음)으로 부르기로 하고 1926년 11월 4일 훈민정음 반포 제8 회갑 당일을 기하여 이것을 발표하였다.’

(다) 「훈맹정음의 유래」 초고본(박두성, 1949)

- ‘訓盲正音의 由來’는 400자 원고지에 펜으로 가로로 쓴 박두성 선생의 친필 원고임.
- 앞에 ‘1949년 3월 朴斗星 編’이라 되어 있어서 이 원고는 1949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됨.
- 앞에 목차가 있는데, 모두 8항목으로 되어 있음.

- 1. 盲人과 文字
- 2. 濟生院 盲啞部
- 3. 우선 三二點式
- 4. 點字研究會와 考案들
- 5. 國語에 實際로 쓰이는 字母의 數量
- 6. 여러 考案에 대한 비교 검토
- 7. 기억에 관한 조사와 採擇 決定
- 8. 社會에 대한 頒布

○ 뒤에 ‘훈맹정음’ 기호표와 ‘모든 표 략자 쓰는 법’의 2장이 첨부되어 있음.

○ 이 원고는 ‘한글점자의 유래 초고본’을 중심으로 하여 수정 보완하여 정리한 완성본임,

○ 이 원고는 1949년에 박두성 선생이 직접 쓴 원고가 틀림 없음.

(라) 한글점자 초고(박두성)

- 이 ‘한글 점자’ 초고는 훈맹정음을 활용하는 법을 박두성 선생이 직접 쓴 친필원고임.
- 이 글은 ‘手票’ 뒷장과 앞장에 메모를 해 둔 것으로 보임.
- 이 글은 세로로 쓰이었지만, 세로편집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가로쓰기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쓴 글임
- 제1공과, 제2공과로 되어 있음
- 그 내용 중 점자의 구조를 설명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國文을 아는 이가 보고 알려주면 그것을 왼손 무명지끝으로 만져 보아 그대로 알아야 한다. 꼭 왼손으로 하고 한두 번에 몰라도 열썬 백번이라도 만져 보아 알아야 한다,

제一공과
점자 모양을 보라
도톨도톨 여섯 점이 내인 것이 점자 한 칸이라 하는 것이다. 이 점자 모양은 열칸이다. 한 칸에 있는 여섯 점은 각각 일흠이 잇스니 이러케(괄호 안의 숫자는 한자임)

① ④
② ⑤
③ ⑥

一點 二點 三點 六點이라고 불른다

- 또한 점자를 이용하는 신체 부위에 대한 설명을 보이면 다음과 같음.

왼손으로 엄지가락은 셋고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을 써치고 보면 두 손가락이 다 세 마 디씩 여섯 매디가 꼭 점자판 한 칸과 같다. 그 손 엄지가락으로 식지 끝매디를 짚으면서 一 하고 가운데 매디를 二 할 밑매디를 三 짚으면서 中 지 끝매디가 四 그다음에 五 그 밑이 六 하고 알아 버릇 해도 조타

- 점자의 구조를 설명한 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음

아짜 뒤친 것이 야짜요
아야를 거꾸로 노흔 것이 어여짜요
오짜를 뒤친 것이 요짜요
오요를 거꾸로 노흔 것이 우유짜요
으짜를 뒤친 것이 이짜요

- 점자를 배우기 위한 방법도 제시하고 있음. 그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음

이것을 어대서 만져 보아도 얼른 알도록 만져 배호는 것이다. 한번에 몰르면 열썬도 백 번도 만져 본다. 쌍에다 못을 박아서 써노하 보아도 조코 방바닥에 바둑돌을 그대로 늘어 노하 보아도 조타

- 이러한 것을 직접 시각장애인에게 훈련시킨 내용도 보이는데, 이것은 이경재(李景在)에게 보낸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음.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相善이가 남자인가 女子인가 어느새 失明인가
拜啓 이제 공부시킬 것을 보내니 지시한 대로 꼭 시키시되
제一공과는 몇칠 제二공과는 몇칠에 끝났다는 것도 기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각장애인인 ‘相善’이를 대상으로 점자 교육을 시키고 그 결과를 알려 달라는 것을 이경재에게 보낸 내용임. 따라서 이 자료는 훈맹정음과 함께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얼마나 세심하게 지도하였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보임.

(마) 훈맹정음의 유래(박두성)

- 이 원고는 박두성 선생의 친필 원고로 400자 원고지에 가로로 쓴 것임
- 이 원고는 앞에서 언급한 훈맹정음의 유래(5714)와 동일한 내용임.
- 그 목차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순서	훈맹정음의 유래(5714)	훈맹정음의 유래(5728)
1	盲人과 文字	盲人과 文字
2	濟生院 盲啞部	濟生院 盲啞部
3	우선 三二點式	우선 三二點式
4	點字研究會와 考案들	點字研究會와 考案들
5	國語에 實際로 쓰이는 字母의 數量	國語에 實際로 쓰이는 字母의 數量
6	여러 考案에 대한 비교 검토	여러 考案에 對한 比較 檢討
7	기억에 관한 조사와 採擇 決定	記憶에 關한 조사와 採擇 決定
8	社會에 대한 頒布	社會에 對한 頒布

- 단지 몇몇 한자 표기에만 차이가 있음

(바) 『한글점자』 초고(박두성)

- 이 한글점자 초고는 박두성 선생의 친필 원고임.
- 이 ‘한글 점자’ 초고는 훈맹정음을 활용하는 법을 박두성 선생이 직접 쓴 친필원 고인 한글점자 초고(5729)의 후속 원고임
- 이 원고도 한글점자 초고(5729)와 마찬가지로 세로로 쓰이었지만, 글을 쓰는 순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 글은 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의 수표 앞면과 뒷면에 쓴 메모로 추정됨
- 한글점자 초고(5729)가 제1공과와 제2공과로 되어 있는 데 비하여 이 메모는 제 3공과로부터 제7공과로 되어 있음
- 제3공과는 ㄱ ㄴ ㄷ 까지, 그리고 제4공과는 ㄹ ㅁ ㅂ ㅅ ㅈ ㅊ 까지, 제5공과는 ㅋ ㅌ ㅍ ㅎ 까지, 제6공과는 받침을, 제7공과는 약자 아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한글점자 초고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심의유물 번호	차례	내용
5729	제1공과	점자 모양
	제2공과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5726	제3공과	ㄱ ㄴ ㄷ
	제4공과	ㄹ ㅁ ㅂ ㅅ ㅈ ㅊ
	제5공과	ㅋ ㅌ ㅍ ㅎ
	제6공과	받침
	제7공과	약자

-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일부만 보임)

ㄱ	은 기억이라고 하지 말고 그 변이라고 한다. 4점이다.
ㄴ	은 니은이라고 하지 말고 드 변이라고 하고 1점 4점이다.
ㄷ	은 지긋이라고 하지 말고 느 변이라고 한다. 2점 4점이다.
ㄹ	은 이을이라고 하지 말고 르 변이라고 한다. 제5점을 찍는 것이다.
ㅁ	은 미음이라고 하지 말고 므 변이라고 한다. 1 5 점을 찍는다.
ㅂ	은 비읍이라고 하지 말고 브 변이라고 한다. 4 5 점을 찍는다.
ㄱ ㄴ ㄷ	은 5, 15, 45 점이라고 외인다.
ㅅ	은 시웃이라고 하지 말고 스 변이라고 한다. 6점만을 찍는다.
ㅈ	은 지웃이라고 하지 말고 즈 변이라고 한다.
ㅊ	은 치웃이라고 하지 말고 츠 변이라고 한다.
이 ㅅ ㅈ ㅊ	석 줄은 6, 46, 56이라고 외운다.

(사) 한글점자 쓰는 법

- ‘한글 덩어리(鮮文點字) 쓰는 법(書例)’은 유인본임.
- 훈맹정음 기호표의 아래에 있는 ‘된숫, 군숫, 외, 응 바침, 略字, 장음 小거듭, 大거듭, 련속표, 의문표, 감탄표, 괄호, 재서표, 상동표, 일문표, 영문표, 구덤, 막덤, 알쇼표, 수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임.
-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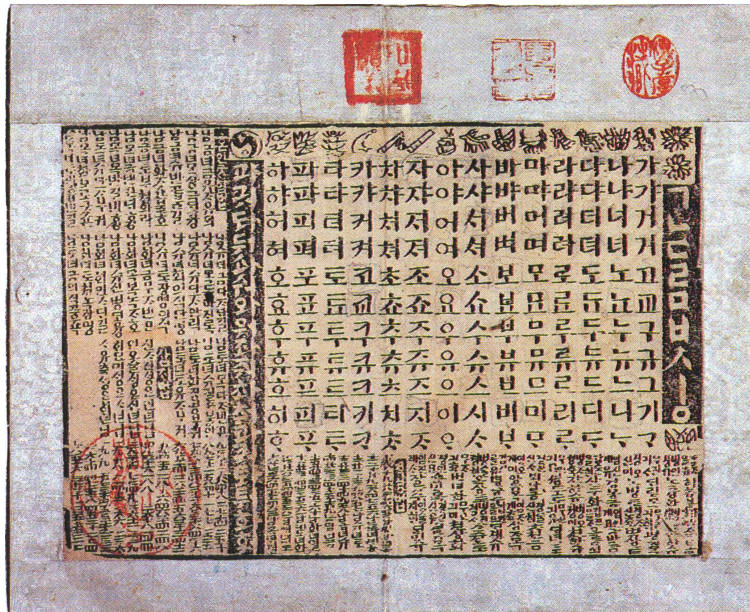
1. 네 가지 2. 보통 약자 아홉 3. 모든 표 열셋

- 이것을 알기 쉽게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음.

대분류	소분류	예	비고
네 가지	된숫	쌀(米) 썩(餅) 꿀(蜜) 썩 씨앗(種)	
	군숫	물수갑(水代) 술수집(酒家) 글수자(文字) 벧집(稻稿)	
	외	뵤(布) 쇠(鐵) 되(升) 뒤(後) 귀(耳) 외양(牛舍)	‘뒤 귀는 잘못된 예문
	응	콩(太) 총(銃) 방(房) 마당(場) 봉당(廚)	
보통약자 아홉	와	왕(王) 관(冠) 활(弓) 과자(菓子) 화상(畫像) 화초(花草)	
	위	원(元) 권리(權利) 월급(月給) 병원(病院) 원산(元山)	
	의	의원(醫員) 의사(意思) 국기(國旗) 나비(蝶) 이미(既) 의심(疑)	
	애	개(犬) 새(鳥) 어린애(幼兒) 우애(友愛) 구애(拘碍) 애정(愛情)	
	가	감(柿) 강(江) 가지(枝) 갓 갈수대(蘆) 소가 간다(牛往)	
	을	버들(柳) 구슬(珠) 소를 타고(騎牛) 산을 넘어(登山)	
	에	베(租) 게(糠) 혀(舌) 케 산에 올라(登山) 옥을 캐(採玉)	
	은	은금(銀金) 큰소(大牛) 적은말(小馬) 구은고기(炙肉) 산은물고(山高) 바다는 깊어(海深) 슈은(水銀)	
예	예전(昔) 예수(敎) 세계(世界) 차례(次例) 전례(前例)		
모든 표 열셋	장음표(長音票)	눈-보라(雪風) 밤-나무(栗木)	
	쇼거듭(小疊)	넉< 툃< 천< 탕<	
	대거듭(大疊)	흔들ㄴㄴ 근드렁ㄴㄴㄴ 어름ㄴㄴ	
	의문표(疑問)	이것이 말이오? 사슴이오?	
	감탄표(感歎)	아! 아이고! 앗차! 허<!	
	재서표(再書)	기인 데목을 쏘 쓸 쎄에 줄여 쓰끄기 위하여 대신 쓰는 표	
	상동표(上同)	웃줄과 갓치 쓸 수절을 다 쓰는 대신에 쓰는 표	
	말쇼표(抹消)	지워버린 표	
	괄호(括弧)	한글(조선문)은 큰 글	
	련속표(連續)	쎄여야 할 데와 부치여야 할 데 끼우는 표 리-순신(李舜臣)	
	일문표(日文)	일문-량슬표	
	영문표(英文)	영문-량슬표	
	수표와 수짜	1234567890 수표와 수짜 일 이 삼 사 오 른 칠 팔 구 공 六十전 한번디 경성 한번삼천二十三번	

(아) 훈맹정음

- ‘훈맹정음’은 점자로 된 언문반절표로 인식됨. 즉 가로로 모음의 ‘아야어여오요우유으이’의 10자와 받침의 11행, 그리고 세로로 자음의 ‘ㄱ니ㄷㄹㄴㅁㅂㅅㅈㅊㅋㅌㅍㅎ’의 13행으로 이루어져 있음
- 일반 언문반절표는 다음과 같음(한 예만 제시함)



<언문반절표(훈윤표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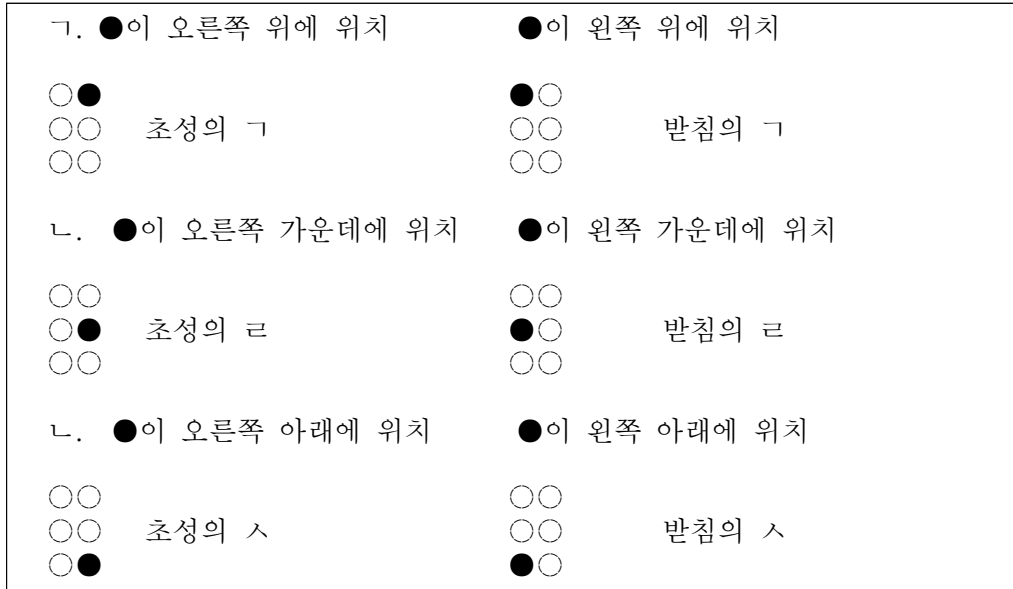
- 자음 글자에서 ‘ㅇ’이 빠진 이유는 점자로 읽는 한글을 문자로 인식하지 않고 소리로 인식하게 한 것으로 추정됨.
- 예컨대 ‘가’를 ‘ㄱ + ㅏ’로 인식하지 않고 ‘ㄱ + 아’로 인식하게 한 것으로 보임.
- 이것은 가능한 한 기호의 수를 줄여 암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또한 문자를 인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소리로 인식하게 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자세는 시각장애인들이 청각적으로는 장애가 없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받침의 ‘ㅇ’은 필요하므로 이것을 ‘ㅇ’ 받침이라고 하여 별도로 기호를 만들었음.
- 이 기호체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보이고 있음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ㄱ 가 가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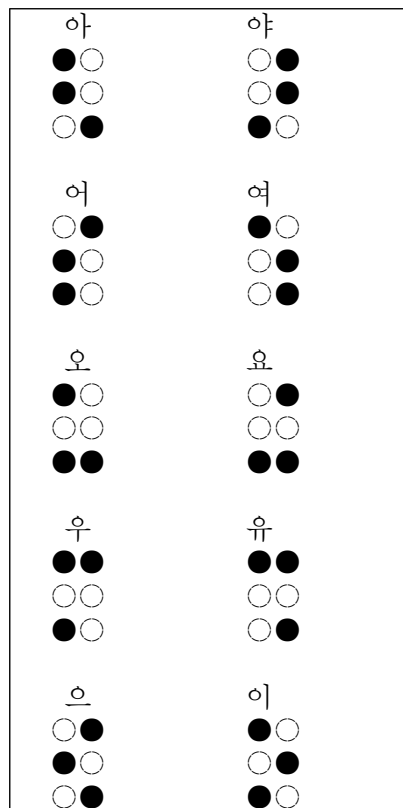
- ① ‘ㄱ’에 ‘아’ 하면 ‘가’, 그리고 거기에 ‘ㄱ’ 하면 ‘각’ 하는 방식으로 읽히게 되어 있음.
 - ② 가가 등의 맨 끝에 있는 ‘ㄱ’은 글자는 하나이지만 그 소리는 ‘각 각 격 격 곡 곡 국 국 각’임.
- 그리고 이러한 자모표 아래의 ‘된숫, 군숫, 외, 응바침’과 약자, 장음, 소거듭, 대거듭, 연속표’를 합쳐 이를 조합하여 음절 글자를 만들면 오늘날 한글 음절글자 11,172자가 조합될 수 있어서 우리말과 한글 글자를 모두 표현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자의 배열방식이나 각 문자에 대당시킨 부호체계도 매우 과학적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① 모든 한글의 부호는 점으로만 되어 있음.
 - 한글의 자형은 점과 선과 원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하여(현대의 한글에서는 점이 없음), 선과 원은 시각장애인들의 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점으로만 구성한 것으로 보임.

- ② 점으로만 구성하였어도 그 숫자가 매우 한정적이어야 하는데, 그 숫자를 33의 개념을 도입시켜 조합의 한도를 제약시켰다고 할 수 있음
- ③ 즉 6 개의 점에서 1점을 선택하는 방식, 2점을 선택하는 방식, 3점을 선택하는 방식을 택하고 1점을 선택하는 방식도 그 1점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 대립시키는 방식을 택하였음.
- ④ 그리하여 1점이 선택되는 경우에도 그 점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 대립시켜 놓았음. 이렇게 하면 6개의 부호가 생성됨.

예:



- ⑤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의 모음들도 대립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마치 한글 모스 부호를 연상시킴.
- 대립 관계를 보이면 다음과 같음.



- 위와 같은 관계는 문자를 생성시킬 때의 원칙에 따라 ‘반(反)’이라고 함. 즉 좌우로 뒤집어 놓는 것임.
- 이러한 방식은 모음 10자를 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어 오 우 으’만 암기하면 ‘야 여 요 유 이’를 자동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즉 단모음 5 글자를 암기할 경우, 이를 좌우로 뒤집어 놓으면 이 글자와 연관된 이중모음 5 글자가 된다는 원칙을 인식하게 만든 것으로 보임.
- 이것은 국문자모호마타법(國文字母號碼打法)을 연상시킴, 한글 전신부호는 김학우가 1884년부터 1886년 사이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1888년에 국가 표준으로 법률화되어 『전보장정(電報章程)』이라는 전신 규약으로 공식화된 것임.

法 打 碼 號 母 字 文 國			
ㅏ	·	ㄱ	· · · · ·
ㅑ	· ·	ㄴ	· · · · ·
ㅓ	· · ·	ㄷ	· · · · ·
ㅕ	· · · ·	ㄹ	· · · · ·
ㅗ	· · · · ·	ㅁ	· · · · ·
ㅛ	· · · · ·	ㅂ	· · · · ·
ㅜ	· · · · ·	ㅅ	· · · · ·
ㅠ	· · · · ·	ㅇ	· · · · ·
ㅡ	· · · · ·		
ㅣ	· · · · ·		

<전보장정의 국문자모호마타법>

- ㄱ을 기억하면 자동으로 ㄴ을, ㄷ을 기억하면 자동으로 ㄹ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음.
 - 즉 ㄱ 은 · · · · ·인데 비하여 ㄴ 은 이것을 좌우로 바꾸어 놓은 · · · · ·이며 ㄷ 은 · · · · ·인데 비하여 ㄹ 은 · · · · ·임.
 - 이러한 대립을 통하여 암기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킨 것이었음.
- ⑥ 이러한 대립방식은 받침의 부호에서도 마찬가지임.
- 1점인 경우

왼쪽 위	왼쪽 가운데	왼쪽 아래
●○	○ ○	○ ○
○ ○ 받침 ㄱ	● ○ 받침 ㄴ	○ ○ 받침 ㅁ
○ ○	○ ○	● ○

- ⑦ 3점을 다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약자에만 사용되고 있어서 구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보존한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그 환경도 매우 좋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훈맹정음이란 점자를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심어 준 역사적 사건을 모든 국민들에게 크게 알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업적이 나오는 과정과 방법,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후대에 계속 전하기 위하여 유물들을 문화재로 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문자가 없는 국민들에게 훈민정음이란 문자를 만들어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국보 제70호), 또한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며, 또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업적들이 나오고 있는 현대에 시각장애인들에게 훈민정음과 다를 바 없는 훈맹정음을 좀 더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한글을 과학화하여 모스 부호로 만든 ‘전보장정’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형편이므로 이 점자에 관한 유물들도 문화재로 지정하여 둘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훈맹정음에 대한 유물은 현재 송암박두성기념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두 곳에 소장되어 있는데, 송암박두성 기념관 소장 유물들은 주로 훈맹정음을 만들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실무적 성격을 지닌 유물들이며, 한글박물관 소장 유물들은 주로 훈맹정음을 만드는 원리와 과정을 잘 살펴 볼 수 있는 유물임.
- 따라서 이 두 소장처의 유물들은 훈맹정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는데 모두 중요한 유물들이라고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

-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훈맹정음 관련 유물 27건 91점을 조사하였음.
- 그러나 이 중에서 유물번호 5701, 5703, 5714, 5726, 5728, 5729, 5739, 5746의 8점만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분명하여 이들을 문화재로 등록할 가치를 인정함.
- 위의 8가지 유물들은 서로 연관이 있는 유물들이어서 이들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번호	유물명	유물번호	내용
1	한글 점자 육필 원고	5701	한글 점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서
2	한글 점자의 유래 초고본	5703	훈맹정음을 창안하기까지의 한글 점자에 대한 유래와 그 검토
	훈맹정음의 유래 초고본	5714	5703을 수정 보완한 것
	훈맹정음의 유래	5728	5714와 동일한 내용
3	한글 점자 초고	5726	훈맹정음을 활용하는 법
	한글 점자 초고	5729	5726의 후속원고
4	한글 점자 쓰는 법	5739	한글 점자의 구성을 설명한 것
5	훈맹정음	5746	한글 점자표

- 이들은 1-5까지 번호 순서대로 훈맹정음이 창안되어서 실제로 사용되기 이전까지의 모든 내용을 순서대로 제시하여 주는 유물들임.
- 따라서 이들 전체를 파악하여야 훈맹정음의 창안과 그 구조 및 체계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이유들로 이 8가지 유물들은 문화재로 등록하여야만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1) 개요

- 박두성 선생과 한글점자 창안
 - 제생원 맹아부에서는 평양에서 홀여사가 만든 4점형 평양점자를 배운 일부 학생들이 입학하여 사용하였고, 이러한 동기가 시각장애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박두성 선생에게 6점형 한글점자를 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 박두성 선생은 한글점자를 만들 결심을 하고 한글의 창제 과정 연구를 시작하여 1921년에 '3.2점식 점자'를 만들어 사용하였음.
 - '3.2점식 점자'를 보완하기 위해 1923년 세종대왕이 집현전에 언문청을 두었다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제자 8인과 '조선어점자 연구위원회'를 비밀리에 조직하여 한글점자연구를 착수한지 3년 4개월만인 1926년 8월에 완성하여, 훈민정음이 반포 480주년 해이면서 처음으로 축하 기념식을 올리는 '가갸날'인 11월 4일에 훈민정음과 발음이 비슷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훈맹정음'으로 발표하였음.
 - 당시의 '훈맹정음' 창안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어를 국어로, 창씨개명을 강제로 하는 세상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유언어인 문자 창제는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큼.
-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훈맹정음 관련 자료들은 2014년에 기증받은 것으로 40건 105점이 소장되어 있으며, 박두성 선생의 훈맹정음 관련 육필 원고본, 훈맹정음 일람표, 점자 편지, 점자 문서류, 조선맹인사업협회 규칙, 박두성 선생 및 가족사진 등으로 개인적인 자료까지 포함됨.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한글점자」 육필 원고본(1946, 박두성) - 5701

- 박두성 선생이 1926년 훈맹정음을 만든 뒤 머리말, 목차에 이어 본문으로 한글 점자, 점자를 배우려면, 수학기호와 화학식 기호, 음악 부호, 외국어 점자의 내용을 정리함으로 한글점자 뿐만아니라 수학, 음악, 외국어를 임의대로 정하지 않고 외국점자 실태를 파악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임.

(나) 「한글점자의 유래」 초고본(박두성) - 5703

- 박두성 선생이 한글점자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경과를 정리한 육필 초고본으로 조선 맹인과 점자, 제생원 맹아부, 한국어 브레일 연구의 표준, 3.2점식 점자, 조선문점자 연구회, 한글점자 고안들, 한글에서 실제로 쓰이는 자모음수, 여러 안의 검토 순으로 기록됨. 마지막 장에 임시 입법의원 대의원 선거에서 점자 투표를 1946년 10월에 한 언급은 시각장애인의 선거 참여에 의미가 있음.

(다) 「훈맹정음의 유래」 초고본(박두성, 1949) - 5714

- 박두성 선생은 1946년에는 ‘한글점자’로 표기했었으나 1949년에는 ‘훈맹정음’으로 표현하여 점자에 대한 명칭에 대해 고민이 보임으로 이번 훈맹정음과 관련한 문화재 명칭에 있어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 네이밍 결정이 중요함.

(라) 한글점자 초고(박두성) - 5726

- 한글점자에 관한 내용을 적으면서 어린아이는 점자판이 있어야 써보고 만져보고 해야 연습이 되며, 점자판, ㄱ, ㄴ, ㄷ 등 자모, 받침, 모음에 대한 설명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 시대에 사용한 점자판과 점필 유물을 찾을 필요가 있음.

(마) 훈맹정음의 유래(박두성) - 5728

- 「훈맹정음의 유래」 초고본의 일부로 목차와 15, 16쪽의 3장만 남아 있음. 한글박물관 소장 번호 5714 「훈맹정음의 유래」와 같은 내용으로 중복됨.

(바) 『한글점자』 초고(박두성) - 5729

- 박두성 선생은 한글점자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설명한 글로 지인이 상세하게 배울 수 있도록 적혀 있어 한글점자에 대한 통신교육과 더불어 회람하도록 추정됨.

(사) 한글점자 쓰는 법 - 5739

- 한글점자 쓰는 법을 낱장으로 정리하여 보급하기 위해 제작했던 것으로 된시옷, 군시옷, 복모음, 소거듭, 대거듭, 의문표, 감탄표, 줄여쓰기, 연속표 등을 정리한 것으로 한글점자를 문서를 통해 보급하는 것으로 추정됨.

(아) 훈맹정음 - 5746

- 박두성 선생이 1926년에 한글점자 훈맹정음을 완성한 뒤 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한 장으로 한글점자 일람표를 정리하여 배포한 것으로 목자와 점자 혼용으로 제작함.
- 한글점자를 자음(초성을 왼쪽부분, 종성을 오른쪽부분)과 모음(윗쪽)을 구성하여 한글을 쉽게 배우기 위해 점자일람표를 만들었음.
- 훈맹정음의 약자 구성과 약자 쓰기 법을 적용한 것은 읽기 효율성을 위한 제자 원리로 창의성이 보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대체적으로 양호하나 종이의 특성과 점자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보존 조치가 필요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국립한글박물관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건물의 환경이 우수하여 원형보존에 매우 적합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시각장애인의 고유 문자인 한글점자 훈맹정음의 창안에 대한 자부심, 창의성, 역사성이 후대에 활용가치가 높음.
- 훈맹정음은 훈민정음의 제자원리를 반영하고, 6점형 점자를 이용해서 받침(종성)과 약자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음. 한글점자 개정에 있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원리와 정체성을 널리 활용할 가치가 있음.
- 한글 이외의 또 다른 글자가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고 장애인 인식개선에 활용할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훈맹정음 관련하여 박두성기념관은 한글점자 훈맹정음 창안과 점자 제작을 위한 기기로 단체 및 공적 유물들이었고,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점자 훈맹정음 창안과 보급이 사적 관련 유물이었다.

7) 등록가치의견

-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 된 27건 91점을 조사하였으나, 훈맹정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8건 14점의 유물에 대해 등록추진을 하였으면 함.
- 훈민정음의 유래와 한글점자의 초래 등을 통해 훈민정음의 우수성, 역사성, 독창성을 보았음. 훈맹정음의 창제 및 반포가 100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가치와 제자원리가 높아 문화재 등록이 필요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문화재 등록 시 문화재 명칭은 훈맹정음으로 하나, 한글점자를 포함한 명칭을 만들었으면 좋겠음. 예) 한글점자 훈맹정음, 사유: 훈맹정음에 대한 이해 부족과 더불어 다수의 사람들이 훈민정음의 오타로 생각할 수 있음.

12. 「통영 서호동 장공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경남 통영시 소재 「통영 서호동 장공장」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통영 서호동 장공장」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9.10.29)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8.4.)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통영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통영 서호동 장공장」
 -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가죽고랑1길 51(서호동 111번지 및 111-4번지)
 - 소유자 : 경상남도 통영시
 - 수량 : 1동(1층), 굴뚝(1기, 높이 13.87m)
 - 건축면적 : 공장 66.96㎡, 굴뚝 2.43㎡
 - 건립시기 : 1919년~1920년 추정
 - 구조 : 서양식 목조 및 조적조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9.10.29.)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 ('20.8.4.)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20.8.4.)
 - 통영시의 성장과정에서 장유공장의 역할을 감안하면 등록문화재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다만 도로 신설로 공장을 구성하는 굴뚝이 공장동과 분리되므로 분리된 굴뚝과 공장동을 역사성과 장소성을 유지하면서 보존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공장동의 경우 목구조는 물론 외벽 마감재의 원 자재 보존과 원 모습회복이 필요함.

○ ○○○('20.8.4.)

- 간장 공장 건축물로서의 희귀성이 있고 건축물의 구조 등에서 원형을 확인할 수 있으나 건축물 일부가 철거되었고, 간장 생산시설로서 기능의 원형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현존하는 건축물의 외관 및 구조체계, 마감재료의 보존이 필요하고 활용계획이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20.8.4.)

- 근대기 산업변천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유산으로 판단됨. 하지만 굴뚝을 제외한 남아있는 유적의 경우 장공장, 혹은 나전칠기 공장건축으로서 특성을 확인하기 힘들.
- 특히 대지분할과 도로개설 등으로 인하여 공장건축으로서의 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근대기 산업시설이 갖는 특성을 확인하기 힘든 상태임. 그러나 도시계획에 의해 개설된 도로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축물을 보존하고, 부속 구조물인 굴뚝을 원형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존적 가치와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간장 생산시설로서 기능의 원형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추가 조사 필요

○ 출석 11명 / 보류 11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사용하지 않음 (구) 다무라(田村) 장유양조장
2. 용 도 : (현) 사용하지 않음 (원) 공장
3.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가죽고랑1길 51(서호동 111 및 111-4)
4. 소유자 :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5. 시설물 개요
 - 설 계 : 미상
 - 시 공 : 미상
 - 구 조 : 서양식 목조 및 벽돌조적조
 - 제작년도 : 1919~1920년 추정 (건축대장 1936년)
 - 수량 및 면적 : 공장/ 건축면적(연면적) 66.96㎡, 지상1층
 굴뚝/ 건축면적 2.43㎡, 높이 13.87m
 - 장공장 토지 및 건축물의 변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표1: 장공장 관련 토지의 변화

지번	연도	면적	구조	비고
111번지	1936년	853㎡	대지 109, 110 합병	
111번지	1987년	903㎡	대지 112합병	
		570㎡	대지 111-1 분할	2005년 말소
111번지	1997년	372㎡	대지 111-3 분할	
111번지	1998년	185㎡	대지 111-4 분할	
111번지	2015년	175㎡	대지 111-4 분할	

표2: 장공장 관련 건축물 변화

건물명	층수	지번	건축면적	구조	비고
공장1	1층	111	128.56㎡	목조구조/ 일식기와지붕	1936년 건립추정 1987년 멸실
공장2	1층	111,111-4	220.00㎡	목조구조/ 일식기와지붕	1952년 건립 추정
공장3	1층	111-3	50.31㎡	블록조 슬라브	1966년 건립 추정
주택1	1층	111-1	50.05㎡	목조구조/ 일식기와지붕	1952년 건립 추정
주택2	1층	111-2	13.29㎡	목조구조/ 일식기와지붕	1966년 건립 추정

6. 조사자 의견('20.8.4.)

<○○○>

1) 개요

- 통영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철거위기에 있던 일제강점기 장유공장을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보존의지로 철거가 중지되고 보존이 결정된 후 등록문화재 등록이 추진되고 있는 건물임. 기록화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이 입지하기 전의 공장부지는 밭이나 임야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주택밀집지역임.
- 1914년 6월 10일 현재 거주자는 김상희였으며, 1914년 서교동이 신마치(新町)로 변경됨. 1918년 2월 6일 송정순이 매입한 111번지가 1919년 1월 16일 일인 다무라간무에게 매각됨. 따라서 서호동 111번지의 장유양조장의 건축상한은 1919년으로 추정됨. 1920년 6월 17일에 발행된 『대일본주장유업명가대감(大日本酒醬油業名家大鑑)』에는 시키시마초(敷島町)의 다무라간무가 162석의 장유를 생산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이 맞다면, 시키시마초에 공장이 있었을 가능성도 점검해야겠지만, 대감의 기록은 공장의 위치가 아닌 소유자의 주소일 가능성이 있음. 이후 1925년의 기록에도 같은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공장은 해방때까지 운영되었으며, 해방후에는 한인(최호경, 이상찬, 이평기)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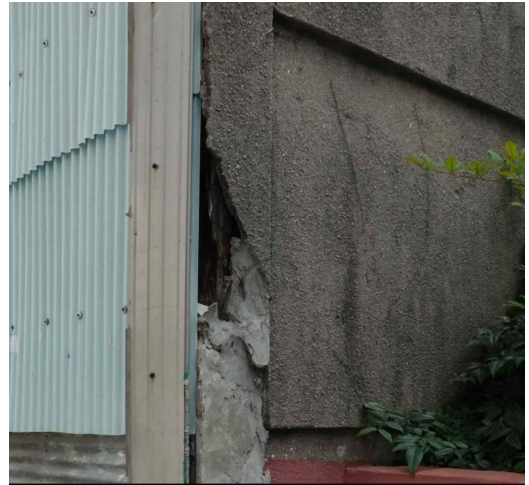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1919년 다무라간무(田村完六)에 의해 설립된 공장으로 추정되며, 일식 목구조로 지어졌음. 기록화보고서에 따르면, 다무라공장시절에는 공장건물 외에 사무실과 사택 및 관리동이 위치했다고 함. 현재는 공장시설과 굴뚝만 남아있음.



공장동 벽체 내부



공장동 기둥과 외벽체 마감

○ 공장동은 목구조로 지어졌음

- 목재기둥의 외부는 몰탈로 마감됨
- 벽체 역시 몰탈로 마감되었다. 외부 벽체는 시멘트패널이 비닐판벽의 확장 버전으로 시공되었음
- 지붕은 서양식 목조트러스로 구성되었으나, 상부의 기와는 일식 개량기와와 지붕 형상을 갖추고 있음.



지붕 목구조



변경된 내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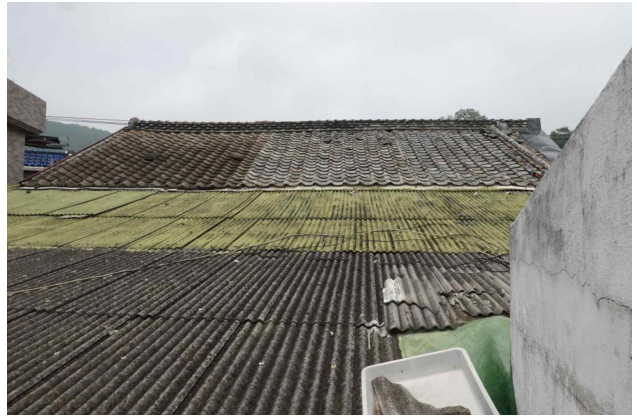
- 공장 내부는 공장의 기능을 상실한 후 부분적으로 콘크리트벽돌 등으로 개축되었으나, 원 모습 회복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장유공장시설의 설비는 남아있지 않다. 다만, 실내 바닥을 발굴할 경우 공장으로서 사용할 당시 장유공장 시설이 위치한 곳의 하부 구조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경우, 발굴을 통해 공장의 바닥구조를 확인하고 이를 활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내부의 목구조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며, 외벽의 마감은 전면과 측면 1곳에서 원 마감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로 개설하는 도로에 면한 측면은 원형이 훼손되었음. 후면은 증축으로 인해 원 벽체의 존재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음.



장유공장 전경



장유공장 지붕

- 공장의 전면에는 목구조위에 설치된 시멘트패널(원형 추정)이 상당부분 남아있으나, 개구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훼손되었음
- 장유공장 전경에 보이는 새로 개설되는 도로에 면한 측벽은 완전히 훼손되었으나 반대편 측벽은 온전하게 마감재와 개구부를 비롯하여 다무라장유양조장 시절의 회사마크가 남아있음.
- 지붕의 경우 원 구조체위에는 일식 원형 개량기와의로 덮혀있으나 후면의 증축된 부분에는 골슬레이트로 덮혀 있고, 일부는 콘크리트조로 증축되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양조장은 주거지밀집지역 가운데 위치하여, 주변의 주거지 상황은 안정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인해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고,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장유공장을 관통함에 따라 다무라양조장이 도로에 의해 나뉘는 상황이 발생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무라공장에 대한 지역민의 보존의지가 강해 도로가 신설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도로의 폭을 축소하여 공장건물을 보존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적극 나섰고 결과적으로 통영시를 설득하여 도로의 폭을 줄이면서 공장동을 살린후 등록문화재를 추진하는 상황이라 향후 문화재 보존관리와 주변환경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임야 또는 밭이었던 서호동일원이 주거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시설로 오랫동안 역할을 해온 장유양조장 건물을 보존하여 근대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신설되는 도로의 폭을 줄이면서 공장동을 보존하겠다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를 설득할 정도로 의지가 강해 계획의 실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장유공장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문 근대유산이므로 향토사학자와 지역전문가에 본 근대유산 보존과 활용을 맡기기보다 장유공장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방안을 문화재청과 전문가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 기타사항

- 공장동과 굴뚝 사이에 도로가 신설되지만, 도로가 완성되기 전에 시발굴을 통해 공장이 온전하게 운영되던 시절의 흔적을 찾아 기록으로 남기고 장기적으로 활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생활형 산업시설인 정미소나 술도가 등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가 있으나, 장유시설이 근대유산으로 남아있는 것은 매우 희소함. 일반적으로 정미소, 양조장(술) 등을 산업시설로 분류하지만, 정미소와 양조장과 같은 생활형 산업시설은 일반적인 산업시설과 구별하여 보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본 건물과 비교할 만한 장유공장은 없으나 생활형 산업시설인 정미소와 술도가와 비교할 때 생활형산업시설의 온전한 모습을 확인하고 시대를 증거하는 중요한 근대자산으로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통영시의 성장과정에서 장유공장의 역할을 감안하면 등록문화재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됨. 다만 도로 신설로 공장을 구성하는 굴뚝이 공장동과 분리되므로 분리된 굴뚝과 공장동을 역사성과 장소성을 유지하면서 보존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공장동의 경우 목구조는 물론 외벽 마감재의 원 자재 보존과 원 모습회복이 필요함.

8) 기타

- 통영 서호동 장공장

<○○○>

1) 개요

- 일제강점기 다무라(田村) 장유양조장을 구성하던 건물군 중 하나로서 1919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 건물임. 목조 1층 규모의 건물로 외장은 시멘트 몰탈로 마감함. 목조 기둥으로 벽체를 구성하였고 지붕은 목조 트러스에 기와를 얹어 구성함.
- 광복이후에도 1970년까지 장공장으로 사용되었고 그 이후에는 2005년까지 나전칠기 제조 공장으로 사용됨. 도로 공사로 공장 건물 일부가 철거됨.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장유양조장을 구성하던 공장, 가마솥, 굴뚝, 사무실, 사택 등의 건물군 중 하나인 공장 건물의 일부와 굴뚝이 현존하고 있음.
- 목조 기둥으로 공장 건물의 뼈대를 구성하고 흙을 채워 벽체를 형성한 후 내부는 회벽으로 마감하고 외부는 시멘트 몰탈로 마감했던 것으로 추정됨. 지붕 구조는 목조 트러스 구조로 뼈대를 구성하고 기와로 마감함.
- 현존하는 공장 건물의 내부는 시멘트 블럭으로 만든 칸막이 벽체에 의해 통로 공간과 규모가 다른 2개의 창고 공간으로 구획됨. 간장 공장으로 사용되던 당시에는 창고와 메주를 발효시키는 곡자실, 간장을 발효하고 보관하는 20여개의 대형 원통이 배열되어 있었던 공간으로 구획되었던 것으로 전해짐.

- 공장 전체의 창호 구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1990년대 촬영된 사진을 보면 필요에 따라 크고 작은 목재 창호가 배열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도로개설 공사 과정에서 장공장 건물의 남측 일부가 철거되어 현재는 과거 장공장 건물의 일부가 보존되어 있는 상태임.
- 현존하고 있는 장공장 건물의 벽체와 지붕 부분의 주요 구조체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벽체의 일부는 시멘트 블록으로 채워져 있어 벽체 구성 재료의 일부가 변형된 것으로 판단됨.
- 내부의 공간 구성은 나전철기 공장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변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로서는 장공장 시기와 나전철기 공장 시기의 정확한 내부공간 구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움.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도로 개설 공사에 의해 공장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어 물리적인 환경은 문화재 보존에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지자체의 보존 의지가 강하다는 점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지역주민 활용 시설로서의 보존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지자체가 건축물의 역사성을 인지하고 있고 보존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활용계획이 실현 가능하도록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다. 기타사항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등록문화재 중 간장 공장 관련 건축물의 사례는 없음. 양조장을 포함할 경우 유사한 생산시설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소수임.
- 양조장 건축물로는 덕산 양조장(등록문화재 58호), 지평 양조장(등록문화재 594호), 가은 양조장(등록문화재 706호) 등이 있음.
- 간장 공장으로서의 희귀성이 있으나 부분적인 철거와 변형, 생산시설로서의 기능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간장 공장 건축물로서의 희귀성과 건축물의 구조 등에서 원형을 확인할 수 있으나 건축물 일부가 철거되었고, 간장 생산시설로서 기능의 원형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현존하는 건축물의 외관 및 구조체계, 마감재료의 보존이 필요함.

8) 기타

- 등록시 명칭은 ‘통영 서호동 장공장’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1) 개요 및 연혁

- 1919년~광복전후 다무라(田村完六)가 간장공장 운영
- 1953년~1970년까지 이평기(국제수산 대표)소유 간장공장 운영
- 1970년~1973년 이평기 소유의 나전칠기 공장
- 1975년~2005년 최조경(통영공예사) 소유의 나전칠기 공장
(1987년 이후 토지분할로 일식사택, 관리동, 사무실 및 정원 매각 후 소실)
- 2018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 공장건축물 일부(111번지) 철거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일본식 목조 공장건축물로 간장공장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일부 건축물은 철거되었으나 공장건축을 상징하는 굴뚝이 남아 근대산업기 건축물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건물외벽에는 당시 장공장의 로고가 남아 있음.
- 굴뚝과 연결하여 도시계획도로가 관통하여 개설되었으나 통영시의 노력으로 장공장의 일부 건축물과 굴뚝이 남아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70년~1973년 이평기 소유의 나전칠기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시설의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공장건축의 공간구성과 외부형태의 원형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1975년~2005년 최조경(통영공예사) 소유시기 나전칠기 공장으로 사용하면서 1987년 이후 토지분할로 인하여 일식사택, 관리동, 사무실 및 정원 등이 매각되며 장공장의 원형이 소실되었으며, 이후 남은 건물을 나전칠기 공장으로 전용하여 사용함.
- 2018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하여 건축물의 일부(111번지)가 철거되어 나전칠기 공장으로서의 원형이 소실되었으며, 현재 조적조 굴뚝이 남아있음.

4)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새뜰마을사업과 연계하여 공장건물의 경우 마을의 간장제조 및 판매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예정임.
- 굴뚝의 경우 근대산업유산으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예정임.
- 본 유산의 경우 통영시의 전통공예산업을 활용한 전시 및 판매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연관성을 검토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현재 인근 지역의 경우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실현가능성 및 효과가 기대됨.

5)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통영의 근대역사와 산업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근대건축물로서 ‘통영 근대역사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보존·활용하여 공간을 활성화의 필요성이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등록문화재 제58호 진천 덕산양조장, 제594호 양평 지평양조장, 제706호 문경 가은양조장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근대기 건립된 산업시설(간장공장, 나전칠기 공장 등)로 지역의 산업변천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유산으로 판단됨. 하지만 굴뚝을 제외한 남아있는 유적의 경우 장공장, 혹은 나전칠기 공장건축으로서 특성을 확인하기 힘들.
- 특히 대지분할과 도로개설 등으로 인하여 공장건축으로서의 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근대기 산업시설이 갖는 특성을 확인하기 힘든 상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에 의해 개설된 도로에도 불구하고 일부 건축물을 보존하고, 부속구조물인 굴뚝을 원형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존적 가치와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8) 기타

① 등록범위 문제

- 등록명칭의 문제: 본 유산의 경우 산업시설(장공장, 나전칠기 공장)로서의 원형이 대부분 훼손되어 있어 등록시 명칭 및 원형 복구 가능성 여부에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등록범위의 문제: 1936년 다무라(田村完六)가 간장공장 운영할 당시의 건축원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 연도별 기능 변화에 따른 건축적 변화에 대한 내용 정리가 필요합니다. (표1, 2 장공장 관련 토지 및 건축물의 변화과정 정리) 현존하고 있는 건축물(간장공장 혹은 나전칠기 공장)의 경우 일부 외관이 남아 있으나 공장건축을 구성하는 내부 공간 및 특성을 확인하기 힘든 상태입니다만 이를 증명하는 일부 문양(디테일과) 구조(굴뚝)이 남아 있어 굴뚝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고 공장건축물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시설의 일부로 보존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화재구역지정의 경우 현재 토지의 변화과정을 정리하여 등록시 구역지정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건축물 주요부분 사진





좌측면 전경(도로개설부분)



도로개설과 장공장 굴뚝



주택내부



주택내부



주택과 공장연결부분



장공장 내부목구조



벽체부분 디테일

장공장 천정 목구조

13.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경남 통영시 소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9.10.29)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8.4)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통영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향남3길 25(향남동 241-1번지)
 - 소유자 : 경상남도 통영시
 - 수량 : 1동(2층)
 - 건축면적 : 169.56㎡(건축물대장)
 - 연면적 : 306.49㎡
 - 건립시기 : 1936년(건축물대장)
 - 구조 : 목조, 기와 지붕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9.10.29.)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 ('20.8.4.)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 ('20.8.4.)
 - 본 근대유산은 건축적 가치보다는 통영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속가능하게한 사회사적 가치가 높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현장이라는 점에서 여타 일제강점기 유산과 차별화된 가치가 있다. 단, 나전칠기 기술인양성소로 사용된 기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함.

- 나전칠기 전문가 양성소의 역사성을 계승하기 위해 현재의 내부공간을 양성소로 사용했을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시의 외관 등에 대한 충분한 고증을 거쳐 외관 등을 회복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내부공간은 신축 당시보다는 양성소로 사용하던 시절의 흔적에 대한 정밀 조사과 관련자 증언을 통한 고증을 통해 진정성 있는 복원이 필요함.

○ ○○○('20.8.4.)

- 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는 건축물의 공간 구성과 개구부 구성, 내외부 마감재료 등 많은 부분이 변형되었으나 근대기 지역의 대표 산업이었던 나전칠기 및 화가 이중섭과 관련된 건축물로서 등록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존하는 건축물의 구조체계 및 남측 부분 지붕을 중심으로 한 외관의 보존이 필요함.

○ ○○○('20.8.4.)

- 건물14)의 경우 내부구조 및 마감은 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로 사용될 당시의 원형과 변형이 되었으나 목구조 및 지붕구조 및 기와형식의 원형이 남아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교육시설(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로서의 원형이 대부분 훼손되어 있어 등록 시 명칭 및 원형 복구 가능성여부에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936년 최초 건립된 290㎡의 부분과 1984년 4월 증축된 16.2㎡ 부분의 구분이 필요하며 등록 범위는 1936년 최초 건립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기능 역할에 대한 확인자료 추가 조사

○ 출석 11명 / 보류 11명

4) '84년 증축된 것으로 보이는 16.2㎡를 제외한 290.39㎡ 부분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사용하지 않음 (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2. 용 도 : (현) 사용하지 않음 (원) 교육시설
3.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항남3길 25(항남동 241-1)
4. 소유자 : 통영시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5. 시설물 개요
 - 설 계 : 미상
 - 시 공 : 미상
 - 구 조 : 목조, 기와지붕
 - 제작년도 : 1936년(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169.56㎡ 연면적 306.49㎡
 - 층수(높이) : 지상 2층
 - 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의 건축물 변화 (건축물대장)

표1: 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의 건축물 변화

	층수	용도	건축면적	구조	비고
1	1층	근린생활시설	153.36㎡	목조구조/ 일식기와지붕	1936년 건립추정
	2층	근린생활시설	136.93㎡		
2	1층	근린생활시설	16.2㎡	블록조 슬라브	1984년4월 건립추정
합계			306.49㎡		

6. 조사자 의견('20.8.4.)

<○○○>

1) 개요

- 조선시대 통제영의 12공방의 맥을 잇는 나전칠기 공예의 현장이다. 해방과 전쟁기를 거치며 본 건물은 나전칠기 전문 공예교육이 실시된 곳으로, 근현대 공예의 효시이자 산실로 의미가 크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건물의 외관에서 일제강점기 건축의 의장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내부는 상업시설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변형되어, 나전칠기 기술자 양성소로 사용되던 시절이 내부 모습을 확인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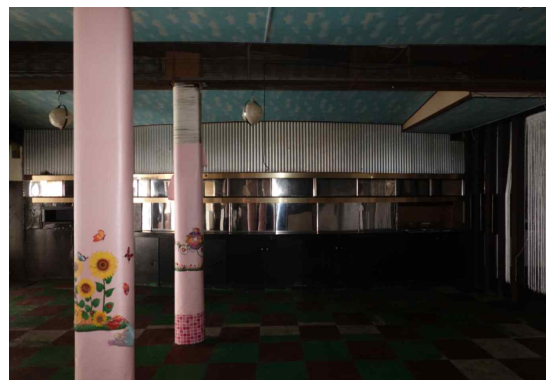
외관



측벽 박공상세



후면 전경



변형된 외부공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외부

- 상업시설로 전용되면서 전면의 모습이 크게 바뀌었으나 지붕의 선과 측면에서 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외관에서 확인되는 지붕의 전면과 측면은 전형적인 일식건축의 의장적 장식과 지붕의 곡선에서 일본건축의 의장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음.
- 후면에는 증축된 모습이 확인됨

○ 내부

- 전면의 1층과 2층의 내부공간은 타 용도로 전용되면서 원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음.
- 후면에 위치한 부속채의 2층에는 원 모습의 일부가 남아있음.
- 노출된 천정 속에서 목구조 지붕구조의 일부가 확인됨.
- 1960년 12월 25일자 마산일보에, ‘나전칠기 기술원양성소에에서 수강생 60여명이 만든 182점의 예작품을 동교 강당에서 전시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음. 이 기사에 따르면 현 건물 2층이 강당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 기사의 내용과 공간구조가 일치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후면 부속채 2층



천정속 모습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통영시 구시가에 위치하며, 통영시의 보존과 활용의지 및 접근성 등을 검토해볼 때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하다고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삼도구군 통제영이 설치되면서 군사용 군수품과 임금에 바치는 진상품을 제작하는 공방이 성하면서 통영이 공예문화의 메카로 자리잡았고, 통영이 전통 공예문화의 중심이 되었음.
- 통영시에서는 조선후기 이후 통영시의 역사적 정체성의 핵심인 나전칠기를 중심으로하는 공예문화의 현장과 역사적 장소의 보존과 활용에 적극적이어서, 본 건물이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로 사용되었다는 역사의 현장 보존과 활용에 매우 적극적임. 따라서 현재의 통영시 계획은 이러한 목적하는 바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이며, 향후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이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본 건물이 위치한 곳은 통영시내의 변화가로 통영시의 활용계획이 본 궤도에 오르면 계획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통영시의 의지가 적극적인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일제강점기의 건축물은 다수 존재하고 일부는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으나, 지역의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근대유산은 많지 않음.
- 본 근대유산은 건축적 가치보다는 본 건축물이 통영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속가능한 사회사적 가치가 높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현장이라는 점에서 여타 일제강점기 유산과 차별화된 가치가 있음. 단, 나전칠기 기술인양성소로 사용된 공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통영시의 문화적 정체성이 나전칠기 전문가 양성소의 역사성을 계승하기 위해 현재의 내부공간을 양성소로 사용했을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시의 외관 등에 대한 충분한 고증을 거쳐 외관 등을 회복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음. 내부공간은 신축 당시보다는 양성소로 사용하던 시절의 흔적에 대한 정밀 조사과 관련자 증언을 통한 고증을 통해 진정성 있는 복원이 필요함.

8) 기타

- 통영 나전칠기 기술원양성소

<○○○>

1) 개요

- 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는 1936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로서 신축 당시에는 청루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1952년~1965년 사이에 경상남도립 기술원 양성소로 사용됨. 목조 2층 규모의 건물로 지붕은 기와로 마감함.
- 한국전쟁기 화가 이중섭이 머물렀던 장소로서 통영 지역 뿐만 아니라 근대기 우리나라 공예 산업 및 문화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는 목조 2층의 ‘ㄱ’자형 건물로 남쪽에 위치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본체를 형성하고 북쪽 부분이 본체에 결합된 부속채의 형식을 띄고 있음.
- 가로에 면한 남동쪽 방향의 박공면에 붉은 색 목재를 수직과 수평으로 붙여 조형적이며 상징적인 중심성을 부여함.
- 남측 부분은 위쪽으로 볼록한 형태의 기와 지붕으로 특징적인 외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넓은 내부 공간을 형성하고 회벽 등으로 외벽을 마감함. 북측 부분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2층의 내부 공간은 주거 공간이 형성되어 있으며, 붙박이 벽장이 형성된 실내 공간 구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남측 부분의 개구부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변형되어 원형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의 남측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내부 공간의 구성과 내부 벽체, 천장 등의 마감이 변형되었고 개구부의 구성 및 재료 등이 변형된 것으로 판단됨.
- 외벽 재료 역시 많은 부분 변형되었고 부분적으로 원형의 벽체 구성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됨.
- 건축물의 전체적인 구조 체계 및 기본적인 공간 구성의 체계는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남측 부분의 지붕 구조와 박공면의 구성 등도 부분적으로 원형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의 주변은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문화재 보존 환경이 양호한 편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건축물을 매입한 상태로 충분히 보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근대기 지역의 대표 산업이었던 나전칠기와 관련된 시설로서의 특성과 화가 이중섭이 관련되어 있어 보존관리 및 활용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지자체가 건축물의 역사성을 인지하고 보존 의지를 갖고 있어 실현 가능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는 분류상 교육시설이나 일반적인 학교 등의 교육시설과는 구별되는 시설로서 특성이 있음.
- 교육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상대적으로 넓은 내부 공간을 갖는 남측 부분과 거주 공간으로 활용된 북측 부분이 하나의 건축물에 결합된 형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는 건축물의 공간 구성과 개구부 구성, 내외부 마감재료 등 많은 부분이 변형되었으나 근대기 지역의 대표 산업이었던 나전칠기 및 화가 이중섭과 관련된 건축물로서 등록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존하는 건축물의 구조체계 및 남측 부분 지붕을 중심으로 한 외관의 보존이 필요함.

8) 기타

- 등록시 명칭은 ‘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1) 개요 및 연혁

- 일제강점기 청루로 사용
- 1952~1965년 경상남도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로 사용,
- 한국전쟁기(1952~1954) 화가 이중섭이 기거하던 곳
- 1962~1969년 충무시 소유권이전
- 1969년 9월 : 소유권 민간이전
- 조선시대 통제영을 위한 십이공방의 맥을 잇는 통영시에 위치한 전문 공예교육이 실시되었던 장소로 한국 근현대 공예예술의 효시이자 산실의 역할을 한 장소라 할 수 있으며, 근대기 건축의 형태적 요소와 구조적 특성이 남아있는 유산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건물 1 : 290.39㎡
 - 전면도로에 면한 외관, 좌측면의 대부분과 1, 2층 내부공간의 경우 변형되어 교육 시설로서의 원형을 확인할 수 없으나, 목구조와 지붕, 그리고 건축물의 형태 등에서 원형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목구조 건축의 원형 모습이 남아 있으며 일부 외벽 재료 및 디테일(비늘판벽)에서도 원형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박공지붕 형태와 일식기와를 갖는 전형적인 일본식 건축물의 외관이 잘 남아있음.
- 건물 2 : 16.2㎡
 -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로 1984년 증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블록조 슬래브 구조로 추정되나 증축부분에 대한 조사가 불분명한 상태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36년 건축 당시 청루로 사용
- 1940년 방덕표(1936년 정미소 경영, 1940년 주식회사 통영상사 경영)가 토지소유
- 1945년 전대엽 / 1946년 김찬규 소유
- 1952~1962년 경상남도 나전칠기기술원 양성소
- 1962~1969년 충무시 소유권이전
- 1969년 9월 : 소유권 민간이전
 - 영업소, 위락시설, 게임제공소, 식당 등 상업시설로 용도변경후 증 개축 (도로에 면한 외관 및 1, 2층 내부공간 등의 변형)
- 2019년 10월: 통영시 소유

4)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나전칠기교실 운영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
 - 2011년 통영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전칠기교실’ 수업공간으로, 나전칠기 역사 및 작품전시공간으로 활용을 계획하고 있음.
- 본 유산의 경우 통영시의 전통공예산업인 ‘나전칠기’교실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연관성을 검토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현재 인근 지역의 경우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본 계획을 추진하는 바 실현가능성 및 효과가 기대됨.

5)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통영의 근대기 역사와 문화, 예술의 흔적이 남아있는 근대건조물로서 보존·활용하여 공간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인근 지역의 경우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활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동시기 유산건축물과의 비교가 필요하나 제출자료의 부족으로 판단하기 힘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건물 1의 경우 내부구조 및 마감은 나전철기기술원양성소로 사용될 당시의 원형과 변형이 되었으나 목구조 및 지붕구조 및 기와형식의 원형이 남아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8) 기타

① 등록범위 문제

- 등록명칭의 문제 : 본 유산의 경우 교육시설(나전철기기술원양성소)로서의 원형이 대부분 훼손되어 있어 등록시 명칭 및 원형 복구 가능성여부에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등록범위의 문제 : 1936년 최초 건립된 290㎡의 부분과 1984년 4월 증축된 16.2㎡ 부분의 구분이 필요하며 등록 범위는 1936년 최초 건립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보호구역의 문제 : 현재 건축물의 경우 건물1과 건물2의 구분이 모호하며 이를 구분하여 건물1 부분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토록하고 문화재구역으로는 통영시 해안로 515(항남동 241-1) 대지 전체 258㎡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건축물 주요부분 사진



도로전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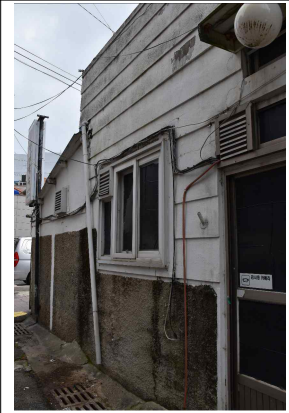
우측면 전경



우측면 전경



후면 전경



좌측면 전경



2층 상부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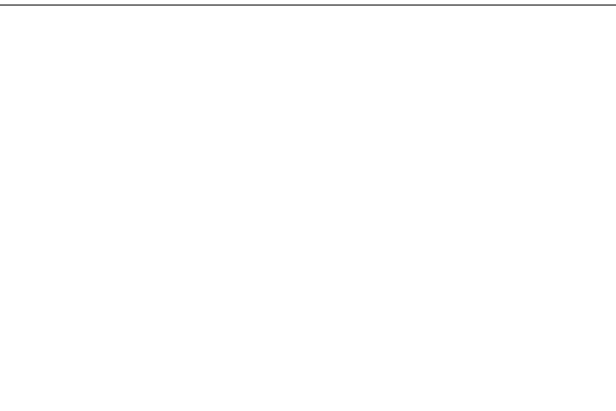
배면 전경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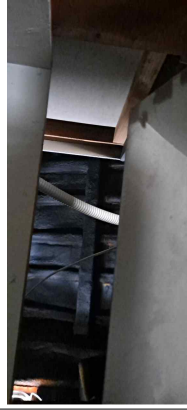
배면 전경 디테일



1층 내부



2층 내부



벽체, 천정부분 디테일



2층 상부전경

14. 「안양박물관(구 유유산업 공장동)」 등 4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도 안양시 소재 「안양박물관」, 「김중업건축박물관」, 「교육관」, 「문화지킴소」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안양박물관」 등 4건에 대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0.8.27.)에 따라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20.9.10.)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안양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안양박물관」, 「김중업건축박물관」, 「교육관」, 「문화지킴소」
 -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길 4(석수동 214)
 - 소유자 : 안양시 (안양문화예술재단)
 - 수량 : 각 1동 (총 4동)
 - 건축면적 : 1,036.32㎡ / 427.91㎡ / 173.26㎡ / 18.45㎡ (건축물대장)
 - 연면적 : 2,394.16㎡ / 593.72㎡ / 173.26㎡ / 28.83㎡
 - 건립시기 : 1960년 / 1959년 / 1963년 / 1958년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0.1.15.) : 근현대 산업시설(제조업 분야) 등록 권고 (문화재청→경기도)
*「안양박물관」, 「김중업건축박물관」, 「교육관」 / 권고 3건
 - ('20.8.20.) :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
 - ('20.8.28.)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경기도→문화재청)
*「안양박물관」, 「김중업건축박물관」, 「교육관」, 「문화지킴소」 / 신청 4건
 - ('20.9.10.)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 ○ ○ ('20.9.10.)

- 박물관과 교육시설로 리노베이션되는 과정에서 일부 공간구조와 재료의 교체가 있으나, 비교적 신축 당시의 구조체를 보존하면서 개보수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문화지킴소(구 경비실)와 김중업박물관(구 연구동)은 건물이 내외부공간 모두가 김중업의 초기 형성기 건축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어 현 모습의 유지 뿐 아니라, 확보된 옛 사진에 기초한 복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안양박물관(구 공장동)은 외부와 노출된 계단 등은 원 모습 유지가 필요하며, 내부공간에서 원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벽체와 기둥 등 공장으로 사용되던 시절의 흔적이 보존되어야 함. 교육관은 외관과 함께 지붕의 구조보존이 중요하며, 인접한 굴뚝도 등록문화재에 포함시켜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 ○ ○ ('20.9.10.)

- 4건 모두 전체적인 모습을 오롯이 보존해야 하며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원형 그대로 잘 유지(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안양박물관」은 김중업의 최초 설계 시에 이루어졌던 부분과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는 옥외 계단, 내부 공장의 밝은 분위기를 유도했던 천창, 창호와 벽면 등과 함께 기둥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벽면 구성 등이 의미가 있음.
- 「김중업 건축박물관」은 벽면에서 분리 돌출된 벽체화된 기둥, 출입구의 쌍 Y자형 기둥을 이용한 캐노피와 우수 배출장식, 옥외 계단과 난간, 격자로 구성되고 있는 창호 프레임 등의 건축적 요소가 훌륭함.
- 「교육관」은 지붕 트러스 구조와 굴뚝 등이 중요한 요소이며, 「문화지킴소」는 원형의 지붕, 내부 홈통, 좁은 면적에서도 위 아래 수직 이동을 원활하게 유도한 회전계단, 문화지킴소로 오르는 철판이 없는 계단 등이 중요한 요소임.

○ ○ ○ ○ ('20.9.10.)

- 산업시설로서 등록된 다른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본 유구는 그 중에서도 여러 측면(설계한 건축가, 생산시설로서 건축적 완성도, 시대정신 반영 등)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
- 신청서에는 없으나 보일러실과 연결된 굴뚝을 같이 등록할 필요 있고, 작업장(공장) 건물의 북측에 있었던 건물도 발굴조사를 위하여 철거하였지만 기둥들은 일부 남아 있으므로 이 구역도 등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재 전망대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도 유유산업 공장이었던 당시 회사 로고 등이 설치되고 상당한 기능의 시설이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추가 조사를 통하여 등록을 검토할 필요 있음.

마. 의결사항

○ 보류

- 지정문화재 및 사찰 유적지 관련 유관부서와 협의 필요

○ 출석 11명 / 부결 1명, 보류 10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안양박물관 (구) 유유산업 안양공장
- (현) 김중업 건축박물관 (구) 유유산업 연구소
- (현) 교육관 (구) 유유산업 보일러실
- (현) 문화지킴소 (구) 유유산업 수위실

2. 용 도 : (현) 박물관 및 부속시설 (원) 제약공장 및 부속시설

3.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03번길 4(석수동 214)

4. 소유자 : 안양시장 (안양문화예술재단)

5. 건축물 개요

- 설계 : 김중업
- 시공 : 미상
-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준공일 : 1960년 / 1959년 / 1963년 / 1958년
- 수량/면적 : 각 1동 (총 4동)
 - 안양박물관 : 지상3층 건축면적 1,036.32㎡, 연면적 2,394.16㎡
 - 건축박물관 : 지상2층 지하1층 건축면적 427.91㎡ 연면적 593.72㎡
 - 교육관 : 지상1층 건축면적 173.26㎡, 연면적 173.26㎡
 - 문화지킴소 : 지상1층 지하1층 건축면적 18.45㎡, 연면적 28.83㎡

6. 조사자 의견('20.9.10.)

<○○○>

1) 개요

- 김중업의 설계로 지어진 산업시설로, 1960년대 서울의 산업위성도시로 성장하는 안양시 산업과 건축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임.



김중업건축박물관 전경

- 프랑스로부터 잘 알려진 건축가 김종업의 건축은 달리, 동시대에 젊은 건축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오스카니아어의 건축어휘가 사용되는 등 김종업 건축형성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건축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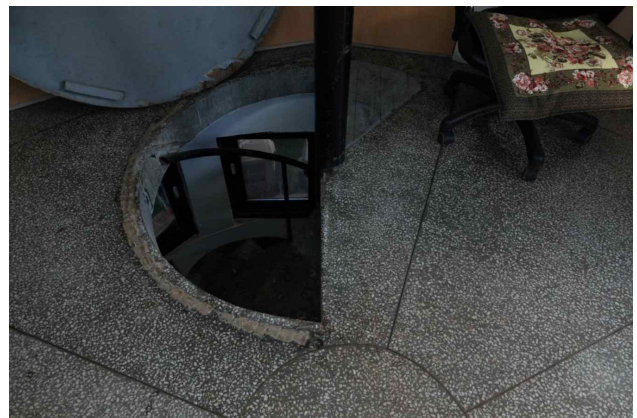
- 2007년 안양시, 유유산업 토지 매입
- 2008.12~2013.5 : 구 유유산업부지 문화재발굴조사(안양사지 확인)
- 2013.10.31. 리모델링 준공
- 2014.3.28. 김종업박물관 개관
- 2017.9.28. 안양박물관 리모델링 및 재개관

① 문화지킴소(구 경비실)

- 원통형 매스로 구성된 내외부의 모습이 원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음
- 인접한 안양천 지천(안양유원지)의 범람에 대비하여 1층의 높이를 높이면서 설치된 계단와 상부 매스의 경쾌함은 건축가 김종업의 빼어난 건축감각을 잘 보여줌
- 내부 : 원 모습이 잘 남아있으며, 지층으로 연결되는 내부원형계단 역사 원모습이 잘 유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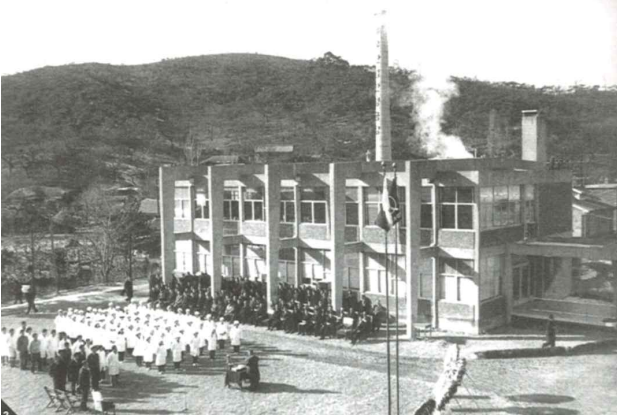
구 경비실



내부 원형계단(지층연결)

② 김종업건축박물관(구 사무/연구동)

- 주출입구에 유유산업의 상징인 로고를 형성화한 캐노피가 인상적인 건물임.
- 김종업건축박물관은 구조체를 의장적으로 사용한 점이 높이 평가되는 건물임.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는 건물외관의 주된 의장적 요소로 사용되었으며, 지붕층에서는 역보의 형상을 갖추고 있음. 다만, 1층의 중앙부에 위치한 기둥의 존재는 노출된 구조체와 2층 바닥이 구조적으로 일체화되지 못했음을 보여줌.
- 외부로 노출된 구조는 1950~60년대 세계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오스카니아어의 영향을 보여줌.
- 창호의 면 분할 등도 김종업건축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임.
- 건물의 배면에 위치한 계단의 디자인과 배치는 작은 건물이지만 김종업의 건축적 가치를 높여주는 요소임.



사무동전경



노출된 구조와 옥외계단



2층 복도



주출입구 캐노피

③ 안양박물관(구 공장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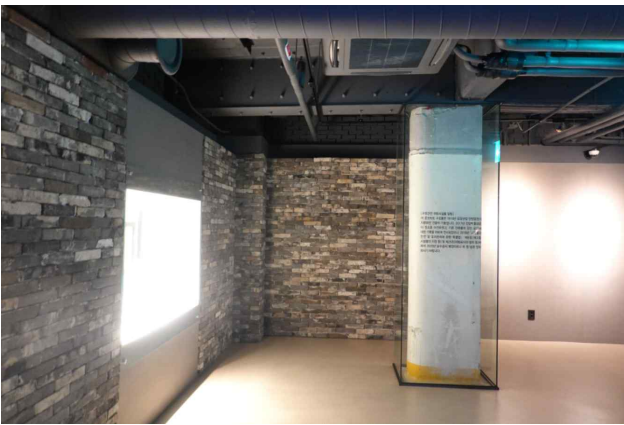
- 공장동으로 사용된 건물로 신축 당시의 부분과 증축된 부분의 모습이 잘 남아있음.
- 특히 모서리에 설치된 조각은 공장건축에 설치된 최초의 미술작품일 것으로 추정됨. 조각은 1960년대 국전에서 대통령상의 수상한 박종배작가의 작품 <모자상>와 <파이오니아상>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1%률이 적용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도였다고 할 수 있음.
- <모자상>은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 정성과 사랑의 경영정신을 상징하고, <파이오니아상>은 유류산업의 정신과 문화 그리고 개척정신을 상징한다고 함.
- 내부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틀은 신축과 증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초 신축당시의 타원형기둥과 벽체 일부와 마감이 원 모습이 보존되어 있음.
- 다만, 공장동으로 사용되었을 당시의 공간구성은 현재로는 도면상으로만 파악이 가능함. 추후 공장동으로 운영시의 내부공간 운용을 보여주는 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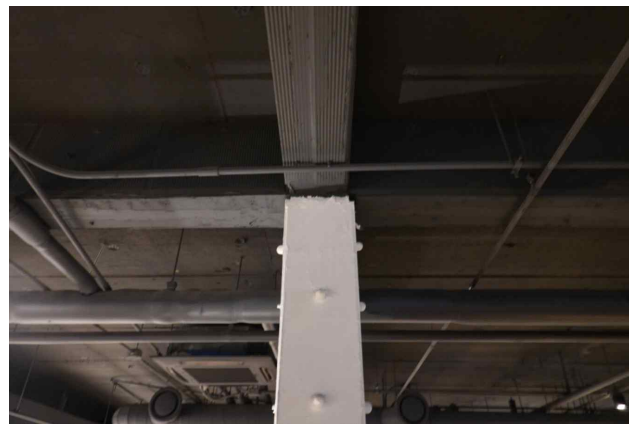
안양박물관(구 공장동)



구공장동의 조각,
<파이오니아상>



신축 당시 공장동의 기둥



구조보강된 기둥과 보

④ 교육관(구 공장보일러실)

- 공장의 기관실로 지어진 건물이 교육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내부는 전면적으로 개조되었었지만, 기관실로 지어졌던 당시의 외관과 구조는 원 모습대로 유지되고 있음
- 외관은 철근콘크리트조의 프레임에 붉은 벽돌의 조적벽체로 구성되었으며, 내부에는 리노베이션에서 구조보강을 위해 철골구조가 추가되었으나, 신축 당시의 목조트러스가 보존되어 있음.
- 교육관으로 사용되는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부속실이 추가로 설치되었고, 마감재가 교체되었음.



교육관(구 기관실) 전경



원 목조트러스와 보강된 철골지붕구조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① 문화지킴소(구 경비실)

- 원형의 매스로 구성된 내외부공간 전체가 매우 잘 보존되어 있다. 단, 증개축과정에서 창호의 전면적인 교체가 이루어짐.
- 경비실로 사용되면서 설치된 설비가 공간구조의 특징에 맞지 않아, 내부공간에서 건축가의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경우 원 디자인의 의도에 맞는 내부공간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② 김중업건축박물관(구 사무/연구동)

- 주출입구 개노피와 정면부의 입면구성 그리고 건축의 구조를 의장화한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음.
- 주출입구 개노피에 설치된 난간이 경사로 설치과정에서 훼손되었음.
- 창호 : 리노베이션과정에서 외부창호의 전면적인 교체가 이루어졌으나, 2층의 내부 복도에 면한 창호는 원모습이 유지되고 있음.
- 내부 : 건축박물관으로 리노베이션되면서 1층의 공간구조는 전면적으로 바뀌었으나, 구조는 유지되고 있으며, 2층은 원 공간구조가 살아있음.
- 지하실 : 신축 당시의 설비 일부가 남아있으며, 지상층 계단보다 급한 경사도를 건축적으로 처리한 계단의 상세가 잘 남아있음.

③ 안양박물관(구 공장동)

- 공장동으로 사용된 건물로 신축 당시의 부분과 증축된 부분의 모습이 잘 남아있음.
- 특히 모서리에 설치된 조각은 공장건축에 설치된 최초의 미술작품일 것으로 추정됨.

④ 교육관(구 공장보일러실)

- 기관실로 지어졌던 당시의 외관과 구조는 원 모습대로 유지되고 있다. 지붕에 철골구조가 보강되었지만, 원 목조트러스는 보존되어 있음.
- 변형 : 내부의 기계설비가 철거되고 교육관으로 사용되면서 내부에 준비실이 추가되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전체적으로 유유산업으로 사용되던 시설중 김중업에 설계로 지어진 건축물은 잘 보존관리되고 있으며, 안양예술공원 입구에 위치한 입지특성과 안양천 천변과 어울어진 입지는 매우 접근성이 매우 양호함
- 다만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으로 인해 박물관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경관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안양시 정체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안양사지에 위치하며, 안양의 고대 역사와 현대도시 안양의 성장사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산업시설의 문화시설화 프로그램 갖고 있어, 인접한 양양예술공원과 함께 역사와 시민의 삶이 어우러지는 관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본관을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박물관 및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 기타사항

- 현재 신청사항에는 교육관(구 기관실) 옆에 위치한 굴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기관실의 기능과 유유산업시설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굴뚝도 등록문화재에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대건축가의 작업이 등록문화재로 된 사례가 있으나 산업시설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고, 원 모습이 잘 보존되면서 활용되고 있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박물관과 교육시설로 리노베이션되는 과정에서 일부 공간구조와 재료의 교체가 있으나, 비교적 신축 당시의 구조체를 보존하면서 개보수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문화지킴소(구 경비실)와 김중업박물관(구 연구동)은 건물이 내외부공간 모두가 김중업의 초기 형성기 건축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어 현 모습의 유지 뿐 아니라, 확보된 옛 사진에 기초한 복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양박물관(구 공장동)은 외부와 노출된 계단 등은 원 모습 유지가 필요하며, 내부공간에서 원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벽체와 기둥 등 공장으로 사용되던 시절의 흔적이 보존되어야 함.
- 교육관은 외관과 함께 지붕의 구조보존이 중요하며, 인접한 굴뚝도 등록문화재에 포함시켜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음

8) 기타

- 김중업건축박물관(구 유유산업공장)

1) 개요

- 「김중업 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의약품 제조업을 개척해 나갔던 유유산업의 안양공장을 2013년 대수선 및 용도를 변경하여 2014년 김중업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가 2016년 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름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김중업이 1952년부터 르 꼬르뷔지에 사무실에서 근무한 후 1956년 귀국한 후 부산대학교, 건국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을 설계했던 당시에 공장건물로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건물로서 김중업의 초기 건축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김중업 건축박물관」은 공장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절제되면서도 균형잡힌 조형언어를 구사하고 있는데 철근콘크리트 기둥을 벽체에서 분리시키고 슬래브를 노출시키면서 구조체와 벽돌로 이루어진 비내력벽의 관계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마치 건물의 본체를 앞과 뒤 그리고 지붕까지 연결된 5개의 기둥이 감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건물로서의 절제된 건축어휘를 보여주고 있다.
- 「안양박물관」은 우리나라 의약품 제조업을 개척해 나갔던 유유산업의 안양공장을 2013년 대수선 및 용도를 변경하여 2014년 김중업박물관으로 개관하였다가 2017년 「안양박물관」으로 리모델링 한후 개관하였다.
- 「안양박물관」 역시 공장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절제되면서도 균형잡힌 조형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벽면에서 분리 돌출되어 있는 벽체 기둥을 강조하여 본관으로서의 특징을 강조한 김중업건축박물관과는 달리 공장 생산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기둥 보다는 벽면에서 슬래브를 노출시켜 수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2층을 돌출시켜 마치 사뿐하게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천장에는 유리를 이용하여 큰 천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햇빛이 공장 안쪽 깊은 곳까지 들어오게 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다. 또한 공장시설임을 감안하여 배관을 잘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고 유리벽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공장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 원래의 김중업이 설계했을 당시는 한쪽으로 긴 직사각형 건물이었으나 1963년 12월 생산시설 확대되어 증축되었다. 증축과정에서 김중업이 관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 「김중업 건축박물관」과 「안양박물관」을 운영하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문화지킴소」는 원래 유유산업의 수위실로 김중업에 의해 설계된 건물이다. 이 건물은 김중업이 1952년부터 르 꼬르뷔지에 사무실에서 근무한 후 1956년 귀국한 후 부산대학교, 건국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을 설계했던 당시에 공장건물로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건물로서 김중업의 초기 건축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이 건물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있는 부산대학교 구 수위실과 마찬가지로 규모는 적지만 원형 평면에 매우 독특한 조형적 특징을 지니며 공장 안에 절제되었던 김중업의 조형적 욕구를 유감없이 펼쳐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평의 작은 원형 평면에 기둥을 내부로 설치하고 원형평면에 따라 전체 원형 벽면을 유리로 감아내는 획기적인 처리를 보여주고 있다. 지붕 또한 벽면과 분리하여 조형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원형으로 두른 지붕은 가운데로 빗물이 모이게 하여 빗물 흠통을 내부로 설치하여 김중업의 획기적인 발상을 엿볼 수 있다.

- 또한 원형 평면에 경사진 가운데 기둥을 설치하고 김중업박물관 측면에 설치했던 계단과 같이 계단 철판을 생략하여 공중에 떠 있는 계단으로 오르는 듯한 긴장감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지하층은 1층 보다 평면 지름을 작게 하여 1층 경비실이 지상에 사뿐히 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원래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등의 영향으로 최첨단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의약품 제조업이 유유산업이 창립될 시점에서는 한국에서는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유유산업은 1941년 1월 28일 유특한 사장에 의해 창립되었다. 유유산업은 처음에는 의약품의 제조업에 대한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의약품 도산매 및 수출입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는 1953년부터는 의약품 생산업체로 전환하였다. 이윽고 1953년 12월 국내최초로 종합비타민제인 「유○비타」 「유○헥사 비타민」 생산에 성공하였다. 또 1955년 9월 「유○파스짓」을 국내 최초로 생산하였고 본사는 서울 중구 다동에 두고 공장을 안양에 두었다. 지금의 안양문화재단의 기반이 되는 유유산업 공장은 이때 마련된 것으로 여겨진다.
- 이윽고 유유산업은 1957년 6월 제3차로 「비타엠」을 생산하는데 성공하여 1959년 안양에 대규모 공장을 건립하게 된다. 현재의 김중업건축박물관은 이때 김중업의 설계로 건립되게 된 것이다. 당시 공장의 전경은 1960년 11월 30일자 동아일보 광고와 1960년 12월 25일 경향신문 광고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 광고 사진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김중업건축박물관과 안양박물관과 수위실로 사용되었던 문화지킴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두 건물 사이로 매우 독특하고 이채로운 가로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유유산업은 1961년 11월 유유산업 연구소를 건립하였고 1963년 12월에는 공장을 증축하여 주사제 및 항생제를 생산하였다.
- 지금의 안양박물관이 초기 김중업 설계에서 증축되어질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마산일보 1960년 11월 30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새롭게 정리)



1960년 11월 30일자 동아일보 광고

- 최신설비를 자랑하는 유유산업 안양공장 사진으로 이때 이미 현재의 김중업건축 박물관과 안양박물관 수위실이 완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김중업건축박물관(본관 및 연구동)과 안양박물관(생산동) 사이의 가로등의 독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김중업건축박물관과 안양박물관을 운영하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의 「교육관」은 원래 유유산업의 보일러실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다. 김중업건축박물관이나 안양박물관, 문화지킴소는 김중업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 확실하지만 이 건물이 김중업에 의해 설계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일반 건축물 대장에 1963년 7월 9일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아 1963년 12월 증축과정에서 착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용승인은 1974년 2월에 받았다.
- 그렇지만 보일러실은 약품을 생산했던 공장의 모든 동력을 제공했던 곳으로 산업시설물의 심장과 같은 곳이다. 굴뚝과 함께 우리나라 산업시설물로서의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경사를 이룬 맞배지붕의 테두리와 기둥 및 뼈대를 구축하고 그 사이에는 측면에 6개의 적벽돌 기둥을 버트리스처럼 설치하고 내부는 기둥이 없이 비교적 큰 대규모 내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내부 천장 안쪽에는 목재 트러스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다. 2013년 용도를 변경하며 철공 트러스 구조로 보강처리하였다. 측면에는 고창(clearstory)을 두어 빛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보일러실과 연관된 굴뚝이 그대로 남아 있어 유유산업 공장으로서 산업시설이었던 부지의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A) 김중업 건축박물관

- 김중업이 1952년부터 르 꼬르뷔지에 사무실에서 근무한 후 1956년 귀국한 후 부산대학교, 건국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을 설계했을 당시에 공장건물로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건물로서 김중업의 초기 건축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건축이다.
- 김중업 건축박물관은 공장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절제되면서도 균형잡힌 조형언어를 구사하고 있는데 철근콘크리트 기둥을 벽체에서 분리시키고 슬래브를 노출시키면서 구조체와 벽돌로 이루어진 비내력벽의 관계를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마치 건물의 본체를 앞과 뒤 그리고 지붕까지 연결된 5개의 기둥이 감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건물로서의 절제된 건축어휘를 보여주고 있다.
- 이처럼 김중업이 기둥과 슬래브를 벽체와 분리하여 벽면 외부로 돌출시켜서 나타내는 수법은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물로 평가되는 김중업의 프랑스 대사관의 입면구성에도 나타나며 진해 해군공관, 가회동 이경호 주택 등에서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둥을 벽면 안쪽에 배치하여 수평띠창을 갖는 르 꼬르뷔지에의 입면 구성형식과는 다른 방식이다. 전통건축의 입면에서 기둥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한옥의 입면 구성을 의식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르 꼬르뷔지에를 통한 수련과정을 통해 평면구성과 구조적 특성, 창호 구성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면서도 한국적 정서를 표현하려는 그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김중업건축박물관에서의 또 특징적인 모습은 측면으로의 출입을 강조하기 위해 길게 돌출시킨 캐노피로 하부는 유유산업을 상징하는 위아래로 연결된 쌍 Y자 기둥을 출입구 오른쪽에 설치하였고 캐노피 지붕에 모여 있는 우수를 받아서 밖으로 배출하는 빼낼 수 있는 우수배출장식이 흥미롭다.

- 출입구 반대쪽에는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계단실이 독특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계단 디딤판을 쌍 Y자 기둥을 활용하여 사선의 기둥으로 만들어서 중앙에서 잡아주며 첼판을 없애서 마치 허공에서 계단을 오르는 듯 긴장감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계단참 역시 바닥 슬래브에서 돌출시킨 캐노피를 이용하여 시각적 흥미뿐만 아니라 오르내리며 긴장감과 흥미를 갖도록 하였다. 모든 구성요소를 일체화된 구조적 요소로 활용한 김중업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 창호의 면 나누기도 양쪽을 수직으로 길게 분할한 후 가운데는 다시 수평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반만 수직으로 분할하여 위 아래로 배치시켰다. 몬드리안의 수평선의 조형적 특성을 간략화하여 표현하였다.

B) 안양박물관

- 김중업이 1952년부터 르 꼬르뷔지에 사무실에서 근무한 후 1956년 귀국한 후 부산대학교, 건국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을 설계했을 당시에 공장건물로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건물로서 김중업의 초기 건축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건축이다.
- 이 건물 역시 공장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절제되면서도 균형잡힌 조형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벽면에서 분리 돌출되어 있는 벽체 기둥을 강조하여 본관으로서의 특징을 강조한 김중업건축박물관과는 달리 공장 생산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기둥 보다는 벽면에서 슬래브를 노출시켜 수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현치를 지닌 캔틸레버 기둥을 활용하여 1층에서 2층부분을 돌출시켜 마치 사뿐하게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 천장에는 유리를 이용하여 큰 천창을 설치하고 있는데 햇빛이 공장 안쪽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게 한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다. 또한 공장시설임을 감안하여 배관을 잘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고 유리 벽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공장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원래의 김중업이 설계했을 당시는 한쪽으로 긴 직사각형 건물이었으나 1963년 12월 생산시설 확대되어 동측으로 증축되었다. 증축과정에서 김중업이 관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 김중업건축박물관이 벽면에서 돌출된 벽면 기둥을 강조하여 조형성을 강조한 반면 안양박물관은 생산 공장인 측면을 고려하여 커다란 내부 천창 및 유리 벽면을 이용하고 1층은 호텔 로비처럼 매우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 내 활기찬 생산시설을 유도한 것으로 여겨진다.
- 유유산업은 생산과 연구활동을 하는 직원이 350명에 달했는데 박종배 작가에게 작품을 의뢰하여 <모자상>과 <파이오니아상>을 설치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 정성과 사랑의 경영에 대한 생각과 의약품 제조업의 선두를 이끌고 있는 개척자 정신을 표현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당시로서는 건축물에 미술품을 설치하는 개념이 없었는데 의약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이러한 예술품을 설치하여 건축물과 예술품이 조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기할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C) 안양문화예술재단 문화지킴소

- 김중업이 1952년부터 르 꼬르뷔지에 사무실에서 근무한 후 1956년 귀국한 후 부산대학교, 건국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을 설계했을 당시에 공장건물로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건물로서 김중업의 초기 건축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건축이다.

- 등록문화재인 부산대학교 구 수위실과 같이 규모는 건축면적이 18㎡ 내외의 작은 건물이지만 원형 평면의 과감하고 독특한 조형성으로 보이고 있는 건물이다. 수위실은 단지 경비원들이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라 유유산업과 사회가 첫 번째로 대면하는 건물로서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큰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중업은 이 수위실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공간은 지면에 밀착시키지 않고 지면에서 떠 있도록 하여 경비 및 관리에 용이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계단을 사용하여 경비실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비실의 기능이 주변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면을 원형 유리창으로 둘러 360도 시야가 터지게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둥을 밖으로 돌출시키지 않고 안에서 설치하였고 유리벽면과 기둥 사이가 벌어진 면에 책상을 두어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지하층으로는 반달형 출입구를 설치하여 그 안에 회전 계단을 설치하였다.
- 김중업의 건축에서 지붕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주로 벽면에서 지붕을 분리시키는 방식이 나타난다. 원형지붕은 1956년에 설계가 된 건국대학교 도서관에 나타난다. 이렇게 벽면과 지붕을 분리하는 방식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더욱 완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 비록 규모는 작지만 이 작은 공간에서 기둥을 안쪽으로 감추며 전면을 둥근 유리창으로 설치하였고, 벽면에서 지붕면을 분리하는 입면을 시도하고 빗물을 지붕 가운데로 받아 홈통을 내부 안쪽으로 끌어들여 빗물을 처리하는 시도 등 과감한 시도가 이루어진 건물로 판단된다. 즉 규모가 작지만 그 나름 이 곳에서 건축가로서의 새로운 시도를 진행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 벽체에서 분리된 벽체기둥으로서 조형성을 표현한 김중업건축박물관과 1층을 필로티를 이용하여 공장으로서의 육중한 느낌보다는 사뭇한 가벼운 모습과 내부 천장을 이용하여 밝은 내부 분위기를 유도했던 안양박물관에 이어 두 건물과는 달리 문화지킴소는 원형평면으로 유유산업과 사회가 접하는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유도하고 있다. 유유산업 수위실 즉 안양문화예술재단 문화지킴소는 김중업의 설계 의도를 충분히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D) 안양문화예술재단 교육관

- 안양문화예술재단의 교육관은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경사를 이룬 맞배지붕의 테두리와 기둥 및 뼈대를 구축하고 그 사이에는 붉은 벽돌로 벽면을 채우고 있다. 측면에는 6개의 적벽돌 기둥을 버트리스처럼 설치하고 내부는 기둥이 없이 비교적 큰 대규모 내부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내부 천장 안쪽에는 목재 트러스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다. 2013년 용도를 변경하며 철공 트러스 구조로 보강처리하였다. 측면에는 고창(clearstory)을 두어 빛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보일러실과 연관된 굴뚝이 그대로 남아 있어 유유산업 공장으로서 산업시설이었던 부지의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다.
- 김중업건축박물관과 안양박물관을 운영하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의 교육관은 원래 유유산업의 보일러실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다. 김중업건축박물관이나 안양박물관, 문화지킴소는 김중업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 확실하지만 이 건물이 김중업에 의해 설계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일반 건축물 대장에 1963년 7월 9일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아 1963년 12월 증축과정에서 착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용승인은 1974년 2월에 받았다. 그렇지만 보일러실은 약품을 생산했던 공장의 모든 동력을 제공했던 곳으로 산업시설물의 심장과 같은 곳이다. 굴뚝과 함께 산업시설물로서의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A) 김중업 건축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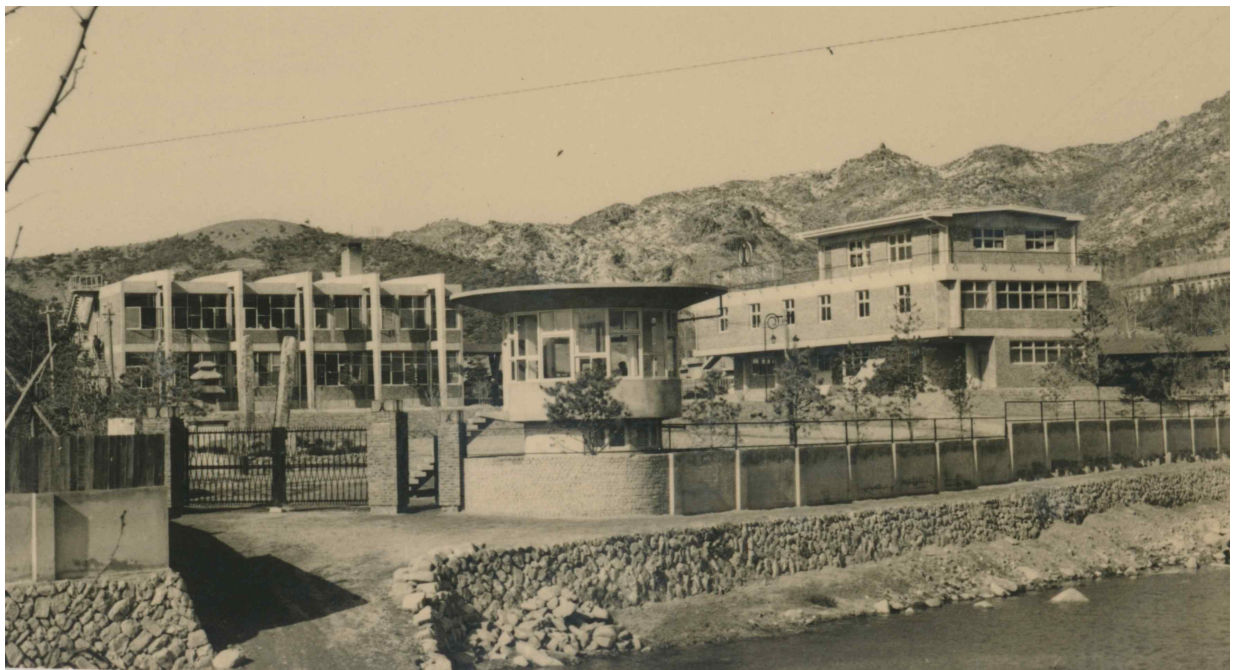
- 2013년 김중업박물관으로 만들면서 대수선을 거치면서 원형의 모습을 되찾으려 노력하여 가급적 원형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노후화한 상태를 확인 할 수 없었다. 단지 초기 설계안과 모형에서 보이는 출입구 주변의 연못은 실제 시공 시에는 실현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B) 안양박물관

- 안양박물관은 1959년 이후 생산 공장 특성상 증축이 이루어진다. 기록에 의하면 1963년 12월 주사제 및 항생제를 생산하기 위해 증축이 이루어졌고 이후 1964년 1월부터 「파스, 분말합성, 약전약(藥典藥), 화공약 등 원료 생산까지 진행하였다고 한다. (마산일보 1966년 4월 23일자) 이러한 과정에서 김중업이 관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1974년 10월 11일 건축사무소 세화건축에서 허가를 득하고 있는데 안양박물관의 증축이 완성된 시기가 1974년으로 여겨진다.

C) 안양문화예술재단 문화지킴소

- 안양문화예술재단 지킴소 건물은 1959년 이후 원형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 지킴소 건물은 쌍 Y자 철제 대문과 연결되어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김중업에 의해 유유산업 안양공장이 1959년 준공된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 모습으로 벽면에 철제 스크린이 모이지 않고 지금의 벽면 모서리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박종배 작가의 조각상 역시 보이지 않는다. 문화지킴소의 원형지붕과 번갈아 가며 있는 원형 창문 프레임과 철제 대문, 그리고 김중업박물관과 안양박물관 중앙에 위치하여 경비실의 기능을 온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지킴이를 통해 본 안양박물관의 초기 모습- 벽면에 철제 스크린이 모이지 않고 벽면 모서리 부분에 조각상 역시 보이지 않는다. 계단 철판이 없이 떠있는 듯한 계단 디딤판과 크고 작은 창문 프레임을 이용한 원형창이 조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유유산업을 나타내는 Y자형을 연결한 대문의 모습도 흥미롭다.

D) 안양문화예술재단 교육관

- 안양문화예술재단 교육관은 유유산업의 보일러 실로 이용되었던 건물로 1974년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2013년 문화집회시설(공연홀 및 전시 공간)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한 과정에서 보일러실은 내부의 설비 등은 해체되었고 무주식 공간으로 교육관으로 변경되었다. 보수 보강이 잘 이루어져 사용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김중업건축박물관 등이 있는 주변은 원래 신라시대 중초사 부지였으며 고려시대는 안양이라는 이름의 근간이 되는 안양사 부지에 자리잡고 있다. 이 부지는 1955년 이후 유유산업의 공장부지로 활용되었다가 2007년 안양시의 적극적인 의지로 매입하여 현재 안양문화예술재단이 김중업건축박물관, 안양박물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안양예술문화예술재단은 그동안 2005년부터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이 매우 좋다고 할 수 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의약품 제조 공장의 건물을 2013년 김중업 박물관으로 변경된 이후 박물관으로 기획전 개최 등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시대 이후 2020년 9월에는 ON LINE 전시를 통해 더욱 더 박물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현대건축을 이끌었던 김중업이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초기에 설계한 건물을 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더할나위 없이 활용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
- 이곳을 중심으로 김중업의 건축세계에 대한 의미와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더 밝혀지고 연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 · 검토

- 김중업이 설계한 건물 중 등록문화재는 부산대학교 본관(국가등록문화재 제641호)과 부산대학교 무지개문 및 구 수위실(국가등록문화재 제642호) 그리고 부산재한유엔기념공원(국가등록문화재 제359호) 등이 있다. 한국 현대건축을 이끌었던 김중업의 작품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은 한국건축사를 정립하는 데에 있어서도 의미있다.
- 특히 김중업건축박물관은 공장시설 즉 산업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근대한국을 조망함에 있어서 산업시설의 가치는 매우 크며 특히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 이와 동시에 김중업의 작품세계를 지속적으로 조명하고 가치를 부각시키는 장소라는 측면에서도 등록문화재의 등록은 큰 의미가 있다.
- 조선내화주식회사 구 목포공장(국가등록문화재 제707호)의 굴뚝이 잘 남아 있으나 이는 벽돌건물이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온전한 굴뚝으로 이 부지가 원래 공장 건물이 있었음을 잘 나타내어준다. 이 부지로 들어서면 중초사 당간지주가 보이는데 원래 사찰터였음을 보여주는 당간지주와 근대기 공장터였음을 나타내어주는 굴뚝이 한 부지에서 신라시대로부터 고려시대의 안양사를 거쳐 근대기 유유산업 공장과 현대의 박물관 등에 이르는 시간의 쉼을 잘 나타내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교육관이 목재 트러스가 남아있는 등 김중업의 건축적 어휘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유유산업의 보일러실로서 공장의 모든 동력을 공급했던 상징적 공간으로서 굴뚝과 함께 등록문화재로서 등록될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A) 안양박물관

- 2013년 대수선 및 박물관으로 변경이 된 이후 준공 시 모습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전체적인 모습을 오롯이 보존해야 하며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원형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의미 있는 곳을 찾는다면 벽면에서 분리 돌출된 벽체화된 기둥, 출입구의 쌍Y자형 기둥을 이용한 캐노피와 우수 배출장식, 옥외 계단과 난간, 격자로 구성되고 있는 창호 프레임 등의 건축적 요소가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B) 김중업 건축박물관

- 2017년 대수선 및 박물관으로 변경이 된 이후 유유산업 안양공장의 최고 전성기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인 모습을 오롯이 보존해야 하며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원형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의미 있는 곳을 찾는다면 김중업의 최초 설계 시에 이루어졌던 부분과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는 옥외 계단, 내부 공장의 밝은 분위기를 유도했던 천창, 창호와 벽면 등과 함께 기둥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벽면 구성 등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C) 안양문화예술재단 문화지킴소

- 2017년 대수선 및 박물관으로 변경이 된 이후 유유산업 안양공장의 최고 전성기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인 모습을 오롯이 보존해야 하며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원형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의미 있는 곳을 찾는다면 원형의 지붕, 내부 흐름, 좁은 면적에서도 위 아래 수직 이동을 원활하게 유도한 회전계단, 문화지킴소로 오르는 철타판이 없는 계단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D) 안양문화예술재단 교육관

- 2017년 대수선 및 박물관으로 변경이 된 이후 유유산업 안양공장의 최고 전성기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인 모습을 오롯이 보존해야 하며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원형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의미 있는 곳을 찾는다면 지붕 트러스 구조와 굴뚝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8) 기타

- 안양시의 의견에 따라 김중업건축박물관 (구 유유산업), 안양박물관 (구 유유산업), 안양문화예술재단 문화지킴소(구 유유산업), 안양문화예술재단 교육관(구 유유산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1) 개요

- 본 신청유구는 1960년대 초기부터 한국제약업계의 중요한 업체인 유유산업의 안양공장 부지 내에 건립되었던 시설물들로 한국의 대표적 건축가 김중업의 설계로 지어졌다. (보일러 동은 설계자 미확인)
- 2006년 유유산업의 제약공장이 제천으로 이전하여 비게 된 시설물을, 당시에 인근 안양유원지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가꾸려는 안양시의 정책에 동의한 소유주(유유산업)가 2007년 안양시에 매도함으로써 중요한 건물들을 보존, 리모델링하여 안양문화재단에서 박물관과 전시장 등, 문화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잘 알려진 명소가 되었다.
- 이 터는 신라시대부터 불교 사찰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고려시대에 이곳에 있었던 사찰 “안양사”가 이 도시명칭의 근원이 되었다. 유유산업이 1950년대 말, 이곳에 공장 터를 잡을 때 당간지주와 삼층석탑(땅에 묻혀 있었음)이 있었고 안양시 소유로 된 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차에 걸친 시·발굴조사가 이어졌다.
- 발굴조사에 꼭 필요한 위치로 판단되는 구역의 건물은 철거하여, 매입당시 약 20동 이상 있었던 건물 중에 현재는 7동만 남아 있다. 이 발굴조사 결과, 의미 있는 유물과 유구들이 출토되어 이 터가 한반도의 고대, 중세, 근대를 아우르는 커다란 쌓여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장소임을 확인하였다. 근대기의 유명한 건축가 김중업의 작품이 자리 잡고 있어 문화예술의 요람으로 이 지역을 가꾸려는 안양시의 선제적 계획과 실행이 없었다면 사적지(史蹟址)로 지정되어 동결보존이 우선하였을 가능성도 있던 터였다. 하지만 주변 개발제한 등의 우려로 인해 매장유구 보존·공개와 근대유구의 활용이라는 절충안으로 결론을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근대건축유구 중, 공장동, 연구소, 수위실, 보일러실 네 동이 준공당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어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재 신청하게 된 것이다.



그림1. 배치도(연도 미상, 시설물 최대였을 시기로 추정, ○표는 현재 전망대로 사용하는 시설물)



그림2. 발굴 전반기 항공사진

- 구 유유산업 안양공장의 건축은 유명건축가의 설계작품이라는 사유보다 한국의 산업시설로서 한적한 지방도시의 교외지역에 원료반입부터 약품생산, 보관, 반출, 연구 기능에 더하여 종업원들의 복지를 염두에 둔 기숙사와 여가시간을 위한 시설들이 마련되었던 복합단지에 세워졌던 시설로 규정하고 근대문화재적 가치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림3. 발굴초기 예측한 가람배치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① 공장(작업장) (현 안양박물관)

- 건립연도는 1960년경으로 판단된다.(1960년 경향신문에 게재된 광고에 해당 건물 사진 수록됨)
- 철근콘크리트 구조, 3층 건물로 당초에는 소분처리실, 당의실, 제품포장실이 설치되었다가 후에 증축하면서 합성실, 합설준비실, 연고실, 정제실, 과일실, 세병실, 수제실과 여자갱의실, 남자갱의실 등이 추가되었다. 당초 건물은 1층을, 폭 7.5m, 길이 24m(기둥간격 3.73m의 4스팬과 4m의 2스팬)의 직사각형으로 하고 2층은 남측으로 3.1m, 동측· 서측으로 외벽을 2m씩 캔틸레버로 내밀어 좀 더 넓게 사용했으며 1층 외벽에서 등글게 처리한 기둥면들이 2층에서도 그대로 살아나게 처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 단, 북측은 캔틸레버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향후 이 방향으로 증축될 것을 감안하여 라멘구조가 그대로 드러나게 마감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기법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기둥과 보 사이의 벽면을 치장 쌓기로 마감할 때 라멘 골조가 드러나는 것을 교묘하게 감출 수 있는 세련되고 노련한 솜씨라고 볼 수 있다.
- 또한 2층의 서측면 양 모서리에 50cm씩 귀를 접어 조각물을 설치한 것은 생산 공장에 예술품 설치를 이룬 시기에 도입하였던 귀중한 사례이다.
- 내부는 박물관 전시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이 가해져 좀 더 면밀하게 원형과 변형부분을 판단해야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외관과 내부에서 등록문화재의 조건을 만족시킬 정도의 원형은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② 보일러실 (현 교육관)

- 1963년 건립 추정, 설계자 미상.
- 공장시설물이 어느 정도 건립된 이후에 전체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지어진 파워 플랜트로, 박공지붕 용마루에 고창을 설치한 단층건물이다. 보통 지붕 위 고창은 A자 모양으로 설치하는데 이 건물은 특이하게 M자 모양의 고창이 놓여 있다. 건물의 동측에 연료저장소, 반입구등이 붙어 있었으나 교육관으로 활용하면서 이 부분을 철거하였다.

- 건물의 네 모서리와 네 벽면 상부의 테두리 보, 양측면의 사자보를 철근콘크리트로 처리하며 특히 모서리 기둥은 위쪽 폭이 넓고 아래쪽이 가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보일러실에는 지하에 매설된 연도와 지상의 굴뚝이 같이 설비되기 마련인데 마침 보일러실의 서북측에 굴뚝이 존치되어 있다.
- 내부는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교육실(강당)로 사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하였으나 지붕구조는 철골구조물로 보강한 정도 외에는 큰 변형이 없어 파워 플랜트로서 원형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연구소 (현 김중업 건축박물관)

- 1959년 준공
- 유유산업 공장 시설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김중업의 작품이다.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지하1층, 지상 2층 건물이다. 기둥과 보 사이의 외벽을 붉은벽돌 치장쌓기로 마감하여 건너편 공장건물과는 대조적으로 골격을 솔직하고 경쾌하게 드러내는 디자인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 동측의 주현관부에 길게 뻗어 있는 포치는 이 부지 초입에서 방문자들을 맞이하는 상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캐노피 끝에는 이 회사의 마크로 디자인된 쌍Y자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다.
- 길이 22.4m, 폭12.4m의 건물인데 길이방향은 4.5m 기둥간격의 4칸과 2.2m 기둥간격의 2칸이 배치되어 있고 폭방향으로는 가운데 1.8m 폭의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5.3m 간격의 기둥이 배열돼 있으며 실험실과 관련 기증들로 채워져 있다.
- 남쪽 외벽 밖으로 2.5m 튀어서 5개의 기둥을 지붕상부의 보와 함께 열 지어 설치하여 경쾌한 구조미를 나타내고 있다.
- 서측 외벽에 설치돼 있는 옥외계단은 구조응력이 구조체에 그대로 나타나는 디자인을 구사하여 벽체에 붙어 있는 캔틸레버는 끝단으로 갈수록 발판 두께가 얇아지게, 그리고 보의 중앙에 올려져 있는 발판은 양단이 똑 같은 두께를 유지하게 하였고 발판 사이의 공간으로 뒤의 배경이 보이도록 하여 세심한 디테일들이 돋보이는 건축요소를 이루고 있다.
- 옥상 슬래브를 구조적으로 잡아 주는 보를 스투브 위쪽에 춤이 높게 설치하여 아래층인 2층에서 충분한 층고를 확보할 수 있게 배려하였는데 이러한 구조적 처리방법은 오늘날까지 흔하게 사용되지 않았던 사례이다.
- 내부는 전시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되었으나 옛 연구소 실험실 때의 기본적인 공간구성과 틀은 잘 유지하고 있다.

④수위실 (현 문화지킴소)

- 1958년 건립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지하 1층, 지상1층의 단순명료한 원통형 건축이다.
- 지름 4.8m 원형에 외벽 겹 전면 곡면 창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안쪽 35cm되는 곳에 직사각형 기둥을 방사형으로 세워 지붕의 하중을 받치게 하였다. 이 35cm의 내부공간은 창대받침이 되며 수납장으로 쓰이도록 계획되었고 원의 중심 위치에는 철제 원형 파이프를 설치하여 구조적 기둥역할을 담당하게 하며, 지붕의 빗물처리를 할 수 있는 홈통도 겹하게 하였다.
- 지면으로부터 1.8m 띄워서 1층을 설치하여 지름 3.64m인 지하층 위에 원통형 수위실이 공중에 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 수위실 내에서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나선형 철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 이번 조사에서 제공받은 김중업 건축연구소(설계사무소)의 도면에서 김중업의 작품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작은 규모의 건축물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디테일을 완벽하게 구사한 상태와 전반적인 조형으로 미루어 김중업의 작품이라고 강하게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모든 건축물의 보존상태는 좋으며 박물관과 관련 부속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한 결과, 부분적으로 원형을 잃은 곳이 있기는 하지만 외관과 내부 주요부위의 원형은 대체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위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이 주변은 옛 안양유원지를 안양예술공원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한지 15년 이상이 흘러 이제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어 가는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안양예술공원의 초입에 자리한 옛 유유산업 공장부지는 세련되게 잘 디자인된 건물들과 발굴의 결과물들이 격조 높은 분위기를 자아내며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건축을 예술분야와 접목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거장 건축가의 작품들이 현대의 용도에 맞게 잘 계획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의 기획과 운영체제 속에서 바람직하게 시민들에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상동

다. 기타사항

-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건축적 변천과정과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다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충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원 소유주의 회고록과 관련 기록들에 의하면 생산시설, 연구소, 사택과 기숙사, 복지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존재하였던 공간이므로 이 부지에 설치되었던 시설 전반에 대한 조사와 변천사 그리고 현재의 잔존 건물들과 관계 등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산업시설로서 등록된 다른 사례들이 많이 있지만 본 유구는 그 중에서도 여러 측면(설계한 건축가, 생산시설로서 건축적 완성도, 시대정신 반영 등)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국가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할 충분한 가치가 있음.
- 신청서에는 없으나
 - ① 보일러실과 연결된 굴뚝을 같이 등록할 필요 있음
 - ② 작업장(공장) 건물의 북측에 있었던 건물(그림1 배치도상의 19번 건물)을, 발굴조사를 위하여 철거하였지만 기둥들은 일부 남아 있으므로 이 구역도 등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③ 현재 전망대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그림1 배치도에서 ○표시 부분)도 유유산업 공장이었던 당시 회사 로고 등이 설치되고 상당한 기능의 시설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추가 조사를 통하여 등록을 검토할 필요 있음.

8) 기타

- * 문화재청의 문화재명칭 부여 원칙과 그간의 관례를 따른다면
 - (전체) 안양 구 유유산업 안양공장
 - 1.작업장(김중업 건축연구소의 설계도면에는 이 건물을 “유유산업 작업장”으로 일관되게 기재하고 있음)
 - 2.보일러실과 굴뚝(굴뚝을 추가할 경우)
 - 3.연구소(김중업 건축연구소의 설계도면에는 이 건물을 “YUYU INDUSTRIALS LABORATORY BLDG”으로 일관되게 기재하고 있음)
 - 4.수위실
 - 5.(공장동 북측 건물 유구와 터를 등록한다면 해당건물의 원 명칭을 조사하여 추가)
 - 6.(현 전망대 시설물도 보완 조사하여 추가 등록)
- * 신청자이며 소유주인 안양시에서 현재의 명칭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다면 위의 명칭에 괄호로 현재 명칭을 병기할 수는 있을 것임.
- * 김중업 설계작품 중 서울의 “서산부인과” 건물도 문화재 등록가치가 있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정하였지만 소유주가 자신의 업체명을 주된 명칭으로 요구하여 보류되었다가 시효가 지나 지금은 원점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선례가 있음.
- * 신청자는 ‘제주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로 사용하고 ‘육군 98병원 병동’의 사례를 들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문화재 명칭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이 사례는 1952년에 건립되었다가 1964년 학교가 설립되어 병원 터를 캠퍼스로 사용함으로써 대부분의 군 관련 시설을 철거하고 유일하게 남아 실습실로 사용하고 있는 배경을 감안하여, 병원으로서 12년간, 학교로서 53년간 사용된 점을 헤아린 결정임을 간과한 판단임.
- * 48년간의 “유유산업 안양공장”과 6년간에 이르는 “안양박물관”을 비롯한 현재 명칭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선택해야 하는지는 자명할 것임.
- * 이 지역에서는 현행 명칭이 익숙하다 하지만, 아직도 타 지방의 사람들은 이곳을 옛 유유산업 안양공장으로 인식하고 있음.
- * 옛 명칭을 사용하면 특정 기업을 홍보하게 된다는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양시의 노력들이 문히게 되는 점을 신청자는 우려하고 있으나 해당 기업 창업주와 유족,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양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점들 중에서 균형 잃지 않는 절충점을 찾아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1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사적 제289호 「구 목포 일본영사관」 보수정비를 위한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2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289호 구 목포 일본 영사관	전남 목포	목포시장 (건설과장)	(1) 허가 받는 자 : 목포시장(건설과장) (2) 허가내용 ○ 대상위치 : 전남 목포시 대아동2가1-5호 일원 ○ 세부내용 : 지중화사업에 따른 개폐기 및 변압기 설치 등 - 변압기 : 8개소 설치 - 개폐기 : 6개소 설치 (3)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1년간 (4) 조건부 내용 ○ 지상에 노출되는 시설은 문화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무채색 및 무광택의 단순한 디자인으로 설치할 것 (5) 참고 ○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20.8.31.)> - 현재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지상에 노출되어 문화재 및 주변 가로경관을 해치고 있는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전선등을 개선 및 지중화 하는 것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필요한 사업임 - 상기 사업으로 인해 문화재 미치는 영향은 매우 경미한 것으로 판단됨	조건부 승인	'20.9.4.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289호 구 목포 일본 영사관	전남 목포	목포시장 (도시재생 과장)	<p>(1) 허가 받는 자 : 목포시장(도시재생과장)</p> <p>(2) 허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위치 : 전남 목포시 용당동 1188-2호 일원 ○ 세부내용 : 가로조성사업에 따른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 : 32개소 설치 - 신호등 : 4개소 설치 <p>(3) 허가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일로부터 1년간 <p>(4) 조건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에 노출되는 시설은 문화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무채색 및 무광택의 단순한 디자인으로 설치할 것 <p>(5)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p><○○○('20.8.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지상에 노출되어 문화재 및 주변 가로경관을 해치고 있는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전선등을 개선 및 지중화 하는 것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필요한 사업임 - 상기 사업으로 인해 문화재 미치는 영향은 매우 경미한 것으로 판단됨 	조건부 승인	'20.9.4.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11명 / 원안접수 11명